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200.txt

제목: 소변냄새로 척척 검진…日 ‘암 탐지견’ 시험도입  
날짜: 20150502  
기자: 강현경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502100000118  
ID: 01100201.20150502100000118  
카테고리: 국제  
본문: 일본 지바(千葉)현 가도리(香取)시와 일본의과대학 연구팀은 이르면 올가을부터 암 탐지견을 활용한 암검진을 시험 도입한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2일 보도했다.<br/><br/>탐지견은 암환자의 소변 냄새를 맡을 수 있도록 특별히 훈련된 개로, 가도리시는 암검진을 받는 사람 가운데 희망자에게 탐지견 검진도 실시해 암환자를 조기 발견할 수 있을지 검증할 예정이다.<br/><br/>암환자의 소변에는 건강한 사람과는 다른 특유한 냄새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r/><br/>이 냄새는 사람은 느끼지 못하지만 후각이 발달한 개를 적절하게 훈련시켜 경찰 탐지견처럼 암 냄새를 맡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연구팀의 설명이다.<br/><br/>보도에 따르면 연구팀이 지금까지 실험에서 유방암, 위암, 대장암 등 암환자 300명의 소변을 채취한 후 탐지견에게 냄새를 맡도록 한 결과, 암환자 소변 식별 확률이 99.7%에 달했다.<br/><br/>강현경 기자 hkkang@kmib.co.kr<b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201.txt

제목: 고신대복음병원의 ‘착한 암치료’ 각광  
날짜: 20150429  
기자: 윤봉학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429100000242  
ID: 01100201.20150429100000242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고신대복음병원의 온열치료기를 이용한 암치료가 부작용 없는 ‘착한 암치료’로 각광받고 있다.<br/><br/> 고신대복음병원은 3개월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던 췌장암 말기환자 A씨가 온열치료를 받은 후 1년간 치료를 받고 있다고 29일 밝혔다.<br/><br/> 병원에 따르면 2011년 새로운 온열치료기를 도입한 뒤 5000여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5만회 시술을 했다. 구형 온열치료기를 사용했던 1990년~2011년 20년 동안 총 3만회 시술을 기록했던 것에 비하면 놀라운 발전이다.<br/><br/> 온열암치료는 환자 1명당 12~36회 정도의 시술을 받게 되지만, 전과 달리 부작용이 없어 아무리 많이 받더라도 몸에는 이상이 없다. 환자 중에는 2년 6개월 동안 150여 회 시술을 받은 사례도 있다. 그러나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은 온열암치료가 어디까지나 부작용 때문에 방사선치료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을 때 선택하게 되는 보조적인 치료법이라는 점이다.<br/><br/> 온열암치료는 온열치료기로 암세포에 열을 가해 암을 치료하는 것으로 1990년대에 각광받았던 암치료법이다. 그런데 암조직 뿐만 아니라 열을 같이 쐬게 되는 다른 건강한 세포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부작용이 밝혀지면서 쇠락의 길로 접어들었다. 그러다 2011년부터 온열암치료가 다시 등장했다. 고주파를 이용해 열을 내면서도 이전에 지적됐던 부작용을 없앨 수 있는 새로운 온열치료기가 등장한 것이다. 온열을 이용해 암세포를 치료한다는 시스템은 그대로인 대신 열을 내는 방식에만 변화를 주었다. <br/><br/> 세계온열암협회 아시아 대표부회장이며 대한온열암연구회 회장인 고신대복음병원 암센터장 정태식(62·치료방사선과·장로) 교수는 “<span class='quot0'>최근 온열암치료가 각광을 받고 있지만 폐암이나 림프종 등 성장이 빠른 암에서는 온열치료로 효과를 보기 어려운 것이 현실</span>”이라며 “<span class='quot0'>다양한 분야의 의사들과 협력해 온열암치료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연구를 계속해 나갈 것</span>”이라고 말했다.<br/><br/>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b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202.txt

제목: JTBC ‘건강의 품격’ 아나운서 오영실, 활성산소 수치 최고치 기록!  
날짜: 20150429  
기자: 김태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429100000236  
ID: 01100201.20150429100000236  
카테고리: 사회  
본문: 아나운서 오영실이 정상인보다 3배 높은 활성산소 수치를 보였다.<br/><br/> 매주 일요일 오전 7시 30분에 방영되는 JTBC ‘건강의 품격’에 아나운서 겸 탤런트 오영실이 출연하였다. 관찰카메라를 통해 본 오영실은 2010년 갑상선암 수술 후 건강에 대한 염려를 나타내며 자기 관리에 철저한 모습을 보여주었다.<br/><br/> 그러나 충격적인 검진 결과가 나왔는데 활성산소 수치가 정상인 160~230에 비해 2~3배 높은 453이었다.<br/><br/> 승마 등 과도한 운동과 스트레스로 인해 과잉 생산된 활성산소가 체내에 오래 머물게 되면서 이 같이 높은 수치가 나타난 것이다. 활성산소는 우리가 호흡하는 산소와는 완전히 다르게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산소로 유해산소라고도 한다.<br/><br/> 과잉 생성된 활성산소는 몸속에서 산화작용을 일으키며 세포막, DNA, 그 외의 모든 세포 구조가 손상 당하고 손상의 범위에 따라 세포가 기능을 잃거나 변질될 수 있다. 이와 함께 몸속의 여러 아미노산을 산화시켜 단백질의 기능 저하도 가져오는데 돌연변이나 암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br/><br/> 방송에서는 위장장애가 적어 공복섭취가 가능한 중성 비타민C인 ‘에스터-C 비타민’이 집중 소개 되었다. 에스터-C 비타민은 미국특허를 받은 비타민C 제제로 활성산소 배출에 도움이 되어 우리 몸의 유해산소 생성을 막아 세포를 보다 건강하게 지켜주는 항산화 제품으로 유명하다.<br/><br/> 특히 일반 비타민C이 속쓰림, 복통, 체외 배출로 인한 요로결석 등 다양한 우려가 제기되는데 비해 에스터-C 비타민은 특허 받은 제재로 산도를 PH 2.5에서 PH7 중성으로 맞추어 위장장애가 있는 사람도 식사 후가 아닌 아무 때나 쉽게 섭취할 수 있다. 또 체내에 오래 머물러 흡수율이 높아 하루 한 알 간편하게 섭취가 가능하다.<br/><br/>김태희 선임기자 thkim@kmib.co.k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203.txt

제목: 중국 딸기 먹지 마세요!  
날짜: 20150429  
기자: 맹경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429100000314  
ID: 01100201.20150429100000314  
카테고리: 국제>중국  
본문: ‘중국 딸기 먹지 마세요.’<br/><br/> 29일 차이나데일리에 따르면 중국중앙(CC)TV는 지난 26일 슈퍼마켓과 농원, 도매시장 등에서 딸기 샘플 8개를 구해 조사한 결과 맹독성 제초제성분인 아세토클로르 성분이 과다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 딸기는 중국 베이징(北京) 근교에서 재배된 것으로 알려졌다.<br/><br/> 베이징농학원 연구진들이 샘플을 조사한 결과 아세토클로르 성분이 ㎏당 0.09㎎에서 0.367㎎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는 유럽연합의 0.05㎎ 기준을 크게 상회하는 것이다. 중국은 현재 딸기에 대한 아세토클로르 잔류 기준을 갖고 있지 않다. 아세토클로르는 대량으로 섭취하면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제초제 성분이다.<br/><br/> 보도가 나가자 베이징 뿐 아니라 주변 산둥(山東), 랴오닝(遼寧)성에서까지 딸기 소비가 급감하면서 딸기 재배 농가들이 직격탄을 맞았다. 딸기 가격이 슈퍼마켓에서 ㎏당 40위안(7000원)까지 했지만 지금은 4위안에도 사려는 사람이 없다고 시장 관계자는 전했다.<br/><br/> 베이징시 당국도 파문이 커지자 보도 경위 조사와 함께 딸기에 대한 질량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br/><br/> CCTV 조사결과에 의문을 표시하는 연구원들도 있다. 베이징시 농림(濃林)과학원의 한 관계자는 딸기 재배과정에서 제초제는 필요치 않다면서 제초제를 쓴다면 딸기라는 식물도 죽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세계에서 딸기 재배가 가장 많은 국가로 매년 경작면적은 13만3300헥타르(㏊)에 이른다. <br/><br/><br/><br/>베이징=맹경환 특파원<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204.txt

제목: [헬스 파일] 무통 암 냉동제거술  
날짜: 20150428  
기자: 박성윤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428100000326  
ID: 01100201.20150428100000326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한국인 사망원인 1위는 다들 예상하듯 암이다. 여러 암 치료법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통증이 거의 없는 암 치료법이 요즘 화제다. 바로 ‘무통 암 냉동제거술’이란 것이다.<br/><br/> 암 냉동제거술은 피부를 절개하지 않고 시행하는 ‘최소 침습’ 암 치료법이다. 지름 1.47㎜의 얇고 가는 침을 암 조직에 찔러놓고 영하 40도 이하의 가스를 분사해 조직을 얼리고 괴사시킨다. 시술에는 암의 종류와 크기에 따라 1∼2시간 정도가 소요된다.<br/><br/> 해외에서는 이미 보편적인 암 치료법으로 인정받고 있다. 국내에서도 간암, 전립선암, 폐암에 이어 최근 신장암까지 적용영역이 확장돼 주목을 받고 있다.<br/><br/> 암 냉동제거술은 침을 찌르는 부위만 국소 마취한 상태에서 시술된다. 냉동가스를 암 조직에 전달하는 침은 매우 가늘다. 따라서 몸속의 암세포가 동결될 때 환자는 거의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br/><br/> 또 암 냉동제거술은 발암초기 암은 물론 수술이 어려운 전이 암과 재발 암 환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 시술 전후에 출혈이나 흉터도 없다. 목표로 삼은 특정 암 조직만 괴사시키고 주변 조직에는 손상을 주지 않기 때문에 환자 대부분은 시술 후 1∼2일 만에 퇴원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이 빠르다.<br/><br/> 암 냉동제거술의 또 다른 효과는 시술 후 면역력까지 좋아진다는 사실이다. 미국 뉴욕의 메모리얼 슬로안 케터링 암센터의 보고에 따르면 암 냉동제거술을 받으면 인터루킨6, 10 단백질이 증가하면서 ‘항면역체’도 덩달아 늘어나게 된다. 인터루킨6, 10 단백질은 면역계가 몸 안에 들어온 세균이나 해로운 물질과 맞서 싸울 때 에너지로 사용된다. 암 냉동제거술을 받으면 시술 중 냉동과 해동을 반복하는 동안 암 세포가 터지고 파괴된다. 이 때 암세포의 항원이 드러나고, 이를 타깃으로 하는 항종양 면역항체 분비가 활발해지면서 면역력이 높아지게 되는 원리다.<br/><br/> 주의할 것은 암 환자라고 누구든지 이 방법으로 치료가 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암 냉동제거술에도 시술 후 합병증이 생길 수 있다. 아무리 좋다는 암 냉동제거술이라 해도 시술을 고려할 때는 적응증이 맞는지, 드물다 해도 시술 후 어떤 합병증을 조심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담당 의사와 충분히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br/><br/>박성윤 세브란스병원 영상의학과 교수<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205.txt

제목: [이기수 기자의 건강쪽지] 우유가 유방암 일으킨다?  
날짜: 20150425  
기자: 이기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425100000171  
ID: 01100201.2015042510000017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우유 대신 두유를 먹어라. 유제품은 유방암을 일으킨다.” 영국인 과학자 제인 플랜트(70) 박사가 최근 국내 출판계에서 관심을 끄는 신간 ‘여자가 우유를 끊어야 하는 이유’(윤출판)를 통해 제기한 주장입니다.<br/><br/> 플랜트 박사는 지금으로부터 28년 전 마흔두 살 때 유방암 진단을 받고 유방절제술을 받았으나 5년 뒤 네 차례나 암이 재발하는 불운을 겪으며 유방암 연구에 매달렸습니다.<br/><br/> 그 결과 우유를 포함한 동물성 지방을 과도하게 섭취한 자신의 식생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플랜트 박사는 그날로 치즈, 버터, 우유, 요구르트 등 냉장고에 있는 모든 유제품을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책에서 밝혔습니다.<br/><br/> 유방암은 유제품 등 과도한 동물성 지방 섭취를 중심으로 한 서구식 식습관에 의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진 암입니다. 실제 1990년대 말만 해도 10만명당 24.5명에 그쳤던 한국인의 유방암 발생률이 식생활의 서구화로 2012년 기준 50.7명까지 급증한 상태입니다. 이는 청소년기 성장에 도움을 주는 우유가 성인들에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닐 수도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br/><br/> 전문가들은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한국인의 유방암 발생률이 더 높아질 수 있다며 식생활 개선이 시급하다고 경고합니다. 무엇이든 지나친 것은 좋지 않습니다. <br/><br/> 평소 가능한 한 채소를 많이 먹고 플랜트 박사 말마따나 유제품 제한은 물론 육류 등 다른 동물성 지방 섭취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br/><br/>이기수 의학전문기자 kslee@kmib.co.kr<br/><br/> ▶ 이기수 의학전문기자의 건강쪽지 전체 목록 보기<b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206.txt

제목: [암과의 동행] “후코이단이 암 전이 억제 역할”… 대만 연합연구팀 발표  
날짜: 20150420  
기자: 송병기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420100000026  
ID: 01100201.20150420100000026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span class='quot0'>후코이단은 암으로 인한 쇠약증상을 최소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암의 전이와 확산을 막는 작용까지 한다.</span>” 최근 대만의 대규모 연구팀이 후코이단의 항암작용을 집중적으로 연구한 논문을 발표해 주목받고 있다. 이는 후코이단에 암 환자의 악액질 증상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암의 전이와 확산을 억제하는 기능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것.<br/><br/> 대만 장경기념병원, 장경대학, 국립대만문화대학 등이 연합한 연구팀은 암을 유발한 마우스를 이용해 해조에서 추출한 후코이단의 항암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 결과 후코이단을 처리할 경우 암의 성장 및 전이가 크게 억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코이단을 처리한 군에서 폐암 조직의 성장이 크게 저해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암의 확산이 크게 억제되면서 암으로 인한 악액질 증상, 즉 전신쇠약 증상 역시 크게 개선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 특히 VEGF 및 MMPs 등 암의 확산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각종 매개물질들의 발현이 저해되어 암이 정체하는 모습을 보였다.<br/><br/> 연구팀은 “후코이단을 통해 암의 확산이 억제되는 까닭은 암의 혈관신생에 관여하는 혈관내피성장인자(VEGF) 및 암의 전이와 연관된 MMPs 효소가 저해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며 “이러한 결과를 봤을 때 후코이단이 암으로 인한 쇠약 증상을 개선하고 암의 확산을 막는 항암관리 수단으로 충분한 가치를 지닐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대만 연구팀의 논문은 국제학술지인 마린드럭(Marine Drugs)에 2015년 4월에 게재됐다.<br/><br/> 한편, 후코이단은 암세포를 자살로 유도하는 아포토시스 유도기능이 밝혀지며 천연 항암물질로 큰 관심을 끌어왔다. 2015년 4월 현재 후코이단에 대한 학술연구 논문이 1200여편을 넘고 있으며, 올해에만 이미 40편 이상의 국제학술지 논문이 발표됐다. 학자들이 연구한 후코이단의 대표적인 항암기능은 암세포 자살유도 이외에 암의 성장 억제, 암의 전이 억제, 면역증강 등 다양하다.<br/><br/> 현재 세계 후코이단 시장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 미국, 대만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 연근해의 미역귀로 생산한 후코이단은 황산기 함량이 매우 높아 최고 수준의 품질을 보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br/><br/>송병기 기자<br/><b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207.txt

제목: [항암제 이야기-면역항암제] 3세대 ‘면역항암제’, 치료 패러다임 대변혁 예고  
날짜: 20150420  
기자: 장윤형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420100000024  
ID: 01100201.20150420100000024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과거에 암은 ‘불치병’으로 인식돼 왔다. 하지만 혁신적인 항암제들이 개발되며 암도 만성질환과 같이 관리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존재라는 인식이 생겼다. <br/><br/> 항암제는 1세대, 2세대를 거쳐 3세대까지 진화했다. 1세대 항암제들은 정상세포에 비해 분화속도가 빠른 암세포를 사멸하는 효과를 지녔지만, 정상세포까지 구분 없이 공격해 환자에게 구토나 탈모 등의 각종 부작용을 일으켰다. 또한 지난 1997년 처음 등장한 2세대인 ‘표적항암제’는 특정 유전자 변이에 의한 암세포만을 선택적으로 공격해 항암치료 과정에서 나타나는 각종 부작용을 줄일 수 있게 했다. 다만 표적항암제는 암 유발 특정 유전자 변이가 있는 환자들에게만 치료제로 쓸 수 있다는 것, 치료제 내성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br/><br/> 항암제 패러다임의 새로운 변혁을 일으킨 3세대 치료제가 있다. 바로 ‘면역항암제’다. 최근 면역항암제가 개발돼 암환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 면역항암제는 체내 면역세포인 T-CELL을 조절해 암세포를 사멸시킨다. 면역항암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면역체계에 대한 이해가 뒷받침돼야 한다. 우리 몸의 면역체계는 외부로부터 유입된 바이러스나, 새로운 물질을 공격하게 된다. 이를 ‘면역반응’이라고 한다. 기존에 없었던 바이러스, 종양세포와 같이 면역반응을 유발하는 물질을 항원이라고 하며, 면역체계는 이 항원이 암세포를 비정상 세포로 인식해 파괴하는 역할을 한다. <br/><br/> 면역항암제를 이용한 항암요법은 면역체계에 합성 면역 단백질과 같은 요소를 추가, 면역체계를 자극해 종양 세포를 공격하는 치료법이다. 이는 면역세포 표면에 있는 PD-1, CTLA-4, LAG-3 등 억제기전의 수용체와 종양세포 사이의 신호경로에 작용해 종양세포를 억제한다. 기존 항암제는 암세포뿐 아니라 정상세포까지 사멸시켜 환자에게 각종 부작용을 일으켰다. 하지만 면역항암제는 체내 면역세포를 활성화해 암과 싸워 이겨낼 수 있도록 하며, 암세포 변형으로 인해 발생하는 약제의 내성 문제나 부작용 등 위험이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br/><br/> 이에 따라 제약사들도 차세대 항암제로 알려진 면역항암제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들 제약사들이 면역항암제로 개발 중인 분야는 흑색종암, 신장암·방광암·두경부암, 폐암 등이 있다. <br/><br/> 면역항암제 시장에서 앞장서 있는 BMS는 흑색종치료제 ‘옵디보’를 6월 국내에 출시할 예정이다. BMS와 오노약품공업이 공동 개발한 옵디보는 현재 국내에서 두경부암과 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다. 옵디보는 미국에서 지난해 12월과 올해 3월 흑색종치료제와 폐암치료제로, 일본에서 작년 7월 흑색종치료제로 허가 받았다. 국내에서는 지난 3월 20일자로 PD-1 표적 면역항암제로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수술이 불가능한 흑색종 환자 또는 전이성 흑색종 환자의 치료제로 승인 받았다. 옵디보는 면역력 향상과 관련이 있는 T세포를 불활성화시키는 특정 표적 단백질 중 하나인 PD-1의 작용을 억제함으로써 T세포를 지속적으로 활성화시켜 면역체계가 암세포를 이물질로 인식, 세포 자멸을 유도하는 작용기전을 가지고 있으며, 면역반응을 증진시킨다는 점에서 유효성이 기대되고 있다. <br/><br/> 머크(MSD)의 ‘키트루다’도 국내에서 시판 허가 승인을 받은 약물이다. 항 PD-1계열 면역항암제 키트루다는 미국 FDA 승인을 받은 약물로, 악성 흑색종 환자에서 이필리무맙 또는 BRAF 억제제치료 후에도 암이 진행한 환자에 대해 투여할 수 있다. 한편 로슈, 화이자, 노바티스 등 글로벌 제약사들이 면역항암제 시장에 적극 뛰어들고 있어, 앞으로 항암제 치료에 획기적인 변화를 이룰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br/><br/>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br/><b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208.txt

제목: [암과의 동행] 마지막 보루 병원 임상시험 어떻게 참여하나… 주치의와 상담이 지름길  
날짜: 20150420  
기자: 조민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420100000021  
ID: 01100201.2015042010000002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사례. 아버지께서 직장암 말기이십니다. 7년여 전에 발견해 수술을 받았으나 재발해 수술은 불가능한 상태로, 한 달에 한 번 입원해 약물로 치료 받다가 지금은 그마저도 잘 안 되는 상태입니다. 얼마 전부터는 다리를 절어서 걸어 다니지 못할 만큼 아프다고 하십니다. 혹시나 싶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현재 임상시험 대상 암환자를 공모 중인지 궁금해 글을 남겨봅니다.<br/><br/>이 사례는 3년여 전 한 대학병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글로 말기 암환자와 가족이 치료를 위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어 하는 심정을 보여준다.<br/><br/> 기술의 발전으로 암 발견 및 치료효과가 현저히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치료제가 없는 환자들도 많은 상황이다. 아예 치료방법이 없으면 모를까 해외에는 조금이나마 효과를 볼 수 있는 치료제가 있음에도 국내에는 도입되지 않았거나 도입할 수 없다면 당사자나 가족으로서는 일말의 희망이 오히려 절망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 그런 환자에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임상시험(Clinical trial)이다. 임상시험은 새로운 치료 방법을 함께 모색하는 실험적 연구로, 새로운 치료방법의 효능과 안전성이 동물에서 먼저 증명되더라도 사람에게 적용해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러한 임상시험을 거쳐야만 환자들에게 더 나은 치료방법을 제안할 수 있기 때문이다.<br/><br/> 그렇지만 임상시험이 있다고 해서 모든 환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환자에게는 마지막 희망이기에 매달릴 수밖에 없지만 안전성과 효능이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준이 엄격하고, 환자가 견디기 힘들거나 큰 효과를 보지 못할 경우 임상시험이 중단될 수 있다.<br/><br/>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것은 항암치료를 받는 환자로서는 치료 가능성을 늘리는 것이다. 그렇지만 참여하기 위해서는 나에게 해당하는 임상시험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한데 최근 치료효과가 높은 표적항암제의 경우 암세포의 유전자형과 표적단백이 치료제와 적합한지 확인해야 한다. <br/><br/>내가 참여할 수 있는 임상시험이 있는지, 또 참여가 가능한지 확인하려면 주치의에게 물어보는 게 가장 빠르다. <br/><br/> 미국 국립보건원이 운영하는 임상시험등록시스템(clinicaltrials.go)이나 WHO(apps.who.int/trialsearch)에서도 각국의 임상등록 시스템을 공유하고 있어 개인적으로 찾아볼 경우 이곳을 이용할 수 있다.<br/><br/> 우리나라의 경우는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받아 질병관리본부에서 구축해 무상으로 운영하는 국립보건연구원 임상연구정보서비스(Clinical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CRIS)를 활용하면 좋다. 뿐만 아니라 일부 대형 병원들은 자체적(임상시험센터)으로 피험자 모집공고 등 임상시험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br/><br/> 모집중이거나 진행 중인 몇 가지 임상을 소개하면 △전이성 뇌암에 대한 수술 중 고열치료법의 안전성 및 효능 검증을 위한 1·2상 △전이암 환자에 대한 뜸 치료의 식욕부진 및 삶의 질 개선 효과 △전이성 및 재발성 노인 위암 환자에서 1차 항암화학요법으로 복합요법과 단독요법 군간의 치료 효과 및 순응도 비교; 다기관 무작위 배정 3상 △진행성 간세포암종 환자를 대상으로 OPB-111077의 안전성 및 내약성을 조사하기 위한 제I상 △전이성 유방암에 대한 Globo H-KLH(OPT-822) 활성 면역 요법의 2·3상 등이 있다.<br/> 조민규 기자<br/><b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209.txt

제목: [김단비 기자의 암환자 마음읽기] 희귀암이라고 암 정보도 희귀해서야  
날짜: 20150420  
기자: 김단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420100000032  
ID: 01100201.20150420100000032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암환자가 되면 궁금한 게 많아진다. 내가 걸린 이 암의 생존율이 어떤지, 어떤 치료방법들이 있는지, 어떤 음식을 먹으면 좋은지, 무엇보다 내 병을 치료해 줄 명의가 누구인지 등이다.<br/><br/> 의사 입장에서는 반복적인 물음일 테고, 치료과정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도 느낄 수 있다. 그저 의료진을 믿고 적극적으로 따라와 주길 바랄 것이다. 그러나 환자 입장에서는 알고 시작한 치료일수록 막연한 두려움과 우울한 감정에서 조금은 빨리 빠져나올 수 있다. <br/><br/> 서울의 한 대학병원 두경부암센터에서 만난 황영호씨는 지난해 8월 구강암을 진단받았다. 그는 구강암 중에서도 설암이었다. 진단 직후 황씨는 컴퓨터 앞에 앉아 구강암과 설암에 대한 각종 의료정보를 모으기 시작했다. 또 서점에 들러 관련 서적을 찾아보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찾아볼수록 허탈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황씨는 “구강암이라고 진단받았을 때, 처음 듣는 암이었다. 대장암, 위암 등 하고많은 암 중에 처음 들어보는 구강암이라니, 드물수록 난치병이 아닐까 걱정돼 관련 정보를 찾아보았다. 그러나 암정보가 많다고 해도 막상 찾아보면 환자가 피부로 느낄 정도로 도움이 되는 정보는 별로 없다. 나처럼 발병률이 낮은 암은 의료정보가 업데이트되지 않은 2000년 이전의 자료가 대부분이었다. 발병률 외에 국내 치료현황이나 또 병기별로, 위치별로 예후 등도 알 수 없었다. 사실 구강암 중 설암이었는데 설암에 대한 자세한 설명보다 구강암이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서 설명을 해 답답한 마음이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고 털어놓았다.<br/><br/> 황씨처럼 희귀암이란 이유로 의료정보가 부족해 답답한 상황에서는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는 조언에 혹하기 쉽다. 황씨는 “구강암은 매운 음식을 많이 먹어 신경을 죽이면 효과적이라는 얘기를 들었다. 민간요법인 줄 알면서도 구강암 환자가 무엇을 하면 좋을지 알 수도 없고 어디 물어볼 데도 마땅치 않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따르게 된다”고 말한다. <br/><br/> 희귀암 환자들은 의료정보가 발병률이 높은 대장암, 위암, 유방암 등에 몰려있다고 하소연한다. 희귀암 환자와 그 가족들이 필요한 의료정보와 조언, 용기를 얻을 곳이 마땅치 않은 것이다. 황씨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의료정보를 얻기 어려워 소위 말하는 ‘카더라’ 정보에 휩쓸리고 말았다. 암경험자나 똑같은 암을 겪고 있는 사람을 만나면 좋지만 환자수가 적은 암일수록 환우회도 잘 형성돼 있지 않다. <br/><br/> 치료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질 때마다 암환자들은 카더라 정보에 마음이 뺏긴다. 이럴수록 인터넷 정보보다는 의료진을 믿어야한다. 황씨도 ‘나을 수 있다’는 의료진의 말에 치료의지가 다시 생겨났다고 말했다. 어떻게 보면 암환자들은 업데이트된 국내외 최신정보나 치료과정을 의학적으로 설명한 자료보다 ‘완치할 수 있다’는 위안이 되는 글귀를 보고 싶었던지도 모른다. 암환자들의 중요한 정보원이 되는 병원과 관련 정책부서는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의료기술에 대한 최신 정보를 빠르게 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환자 역시 답답한 마음에 인터넷 검색만 하기보다는 담당 의사 또는 간호사를 적극적으로 만나 ‘완치할 수 있냐’ 또는 ‘무엇을 먹어야 하냐’는 식의 두루뭉술한 질문보다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거나 상업적이라고 의심되는 민간요법에 대해 묻는 등 구체적으로 질문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br/><br/>김단비 기자 kubee08@kukimedia.co.kr<br/><b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210.txt

제목: [암과의 동행] 임플란트 부작용 극복 열쇠는 ‘일체형’  
날짜: 201504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420100000031  
ID: 01100201.20150420100000031  
카테고리: 사회  
본문: 임플란트 시술이 증가함에 따라 임플란트 부작용에 따른 환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임플란트의 부작용은 심혈관질환, 당뇨, 암 등 전신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는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느끼는 불편은 임플란트 주위의 염증과 악취 등에 그치고 있다.<br/><br/> 연세대 한모 교수 등의 ‘일체형 임플란트’라는 연구 논문에 따르면 임플란트를 이용한 치료가 발전하고 보편화되는 과정에서 생물학적(biological), 기계적 (mechanical), 심미적(esthetic)인 여러 합병증이 보고되고 있다. 생물학적 합병증은 임플란트 주위의 염증과 뼈의 소실, 점막염증, 조립형 임플란트 연결면에서 생기는 누공(고름 구멍), 임플란트 탈락 등이 있다.<br/><br/> 기계적인 합병증은 조립형 임플란트의 구조와 기계적인 결함을 포함하는데 금속 구조물의 파절, 마모, 유지력 상실, 나사 풀림과 파절, 임플란트 고정체의 파절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심미적인 합병증은 보철물과 주위 조직이 관련되어 보철물의 외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br/><br/> 이 같은 합병증을 극복하고자 많은 시도와 발전이 있었고 그 중 하나가 일체형 임플란트의 개발 이었다. 기존의 임플란트는 대부분 이체형(조립형) 임플란트였다. 하지만 연구 결과 이체형(2-piece) 임플란트에 비해 일체형(1-piece) 임플란트가 기계적, 생물학적 이점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br/><br/> 결론적으로 현재까지 여러 연구들을 분석, 고찰해 본 결과 일체형 임플란트는 나사 풀림과 파절, 지대주와 고정체의 파절과 같은 기계적 합병증이 적다. 또 일체형 임플란트는 미세간극(micro-gap), 미세동요(micro-movement), 치아 연결부 탈착과 재부착 등이 없으므로 생물학적 합병증이 적다.<br/><br/> 텍사스 대학과 취리히 대학 그리고 베른 대학 등의 연구에 의하면 조립형 임플란트는 심한 뼈의 파괴와 잇몸의 염증이 발생하였는데 틈이 없는 일체형 임플란트는 잇몸이 자연의 잇몸에 더 가깝고 잇몸 내 염증세포의 축적도 감소됐으며 임플란트 주위 뼈의 소실도 최소였다.<br/><br/> 이탈리아 페라라 대학의 장기간의 다양한 연구에 의하면 “일체형 임플란트가 모든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임플란트”라고 했다.<br/><br/> 독일 베르너 박사는 일체형 임플란트의 장기간 성공률이 97.9%라고 했다. 일체형 임플란트의 가장 큰 장점은 혐기성 세균이 없어서 전신 질환의 위험이 적고, 나사 풀림이 없어서 악취가 나질 않으며, 시술 후 청결 관리를 환자 스스로 할 수 있어서 청소를 위해 일부러 치과를 방문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다.<br/><br/> 일체형 임플란트의 이러한 장점과 안전성에도 불구하고 일체형 임플란트 시술의 성공률을 다소 낮은 것으로 평가하는 일부 의견들이 있다. 이는 일체형 임플란트 시술이 조립형 임플란트 시술보다 매우 어려운 술식이고 제품의 종류와 제조회사의 기술력, 시술자의 경험과 숙련도에 따라 성공률이 매우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br/><br/> 일체형 임플란트 시술 시 환자의 뼈 상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일체형 임플란트의 예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일체형 임플란트를 시술하기에 불리한 뼈를 가진 환자의 경우 뼈를 적절하게 회복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 일체형 임플란트의 경우 뼈이식 수술보다는 뼈형성 유도술 사용이 유리하다. 국내산 일체형 임플란트가 생물학적 안전성과 구조적, 기술적 성능 측면에서 외제를 능가하고 있다. 수많은 임플란트 부작용을 ‘일체형 임플란트’라면 처음부터 피할 수 있다. <br/><br/>황정빈 신세계치과 원장<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211.txt

제목: 성인에만 쓰던 구토억제제, 소아암 환자도 사용 가능…강형진 교수팀, 임상시험 성공  
날짜: 20150417  
기자: 장윤형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417100000085  
ID: 01100201.20150417100000085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성인 암환자의 항암치료 시 효과적인 구역 구토 억제제로 알려진 에멘드(Emend)가 소아암환자에서도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상 근거가 없어 에멘드를 쓸 수 없었던 소아암환자의 불편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br/><br/>서울의대 소아청소년과학교실 강형진 교수 연구팀은 국제공동연구팀과 함께 소아암환자에게 ‘에멘드’의 효과를 알아보는 세계 최초 무작위배정 비교 3상 임상시험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란셋 온콜로지(Lancet Oncology) 4월호에 발표했다. <br/><br/>Lancet Oncology는 임상종양학분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저널로, 학술지의 영향력을 알 수 있는 인용지수가 24.725이다. 이 학술지에 논문이 실리면 의학적인 치료 방침이 바뀌는 등 전 세계 의료 종사자에게 큰 영향을 주고 있다.<br/><br/>연구팀은 전 세계 소아암환자(생후 6개월~17세)를 대상으로, 비교군에는 에멘드와 기존 항구토제인 온단세트론(ondansetron)을, 대조군에는 온단세트론 만을 복용 시킨 후, 항암치료를 받게 했다. <br/><br/>그 결과, 구토 예방 비율이 비교군에서는 51%로 대조군 26% 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br/><br/>구역 구토는 항암제 치료 시에 환자들이 겪는 큰 고통 중 하나다. 구역 구토를 일으키는 신경 기전은 크게 2가지(세로토닌, P물질)다. 항암제 투여 후의 구역 구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두 기전을 모두 억제해야 효과적이다. <br/><br/>그중 세로토닌 기전을 막는 온단세트론 등은 1990대에 개발되어 소아에게도 널리 쓰이고 있다. 하지만 비교적 최근에 개발된 P물질 기전을 막는 에멘드는 성인에게 많이 쓰이지만 소아에는 사용할 수 없었다. <br/><br/>제약사들이 좋은 약을 개발해도, 소아에게 임상시험을 하지 않아, 소아에게 쓸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사회적 약자인 소아를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이 비윤리적이라는 인식과, 환자 수가 적은 소아용 의약품은 시장성이 낮다는 것이 원인이었다. 이에 성인에서 임상시험을 통해서 허가가 된 약제는 소아에게는 대단위 임상시험을 많이 하지 않았고 소단위 임상시험 또는 경험을 통해서 소아에게 사용이 되고 있다.<br/><br/>최근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약사가 소아에게 임상시험을 하면 제약사에게 해당 신약에 대한 특허 기간을 연장해 주고 있다. 늘어난 특허 기간만큼, 다른 회사에서는 복제약을 만들 수 없다. <br/><br/>이번 연구는 시장성이 낮은 소아 환자들도 효과적인 약을 경험할 수 있는 공공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제약회사에게는 특허 기간을 연장해 주며 경제성을 보장해 주는 지원제도가 있었기에 이번 연구도 가능했다. 강형진 교수는 “<span class='quot0'>소아 임상시험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 결과이며 한국이 주도한 소아 대상 연구로는 처음으로 영향력지수가 높은 국제 학술지에 실렸다</span>” 라고 말했다. <br/><br/>미국 알버트 아인슈타인대학의 Richard Gralla교수는 “<span class='quot1'>이번 연구가 향후 소아에서 수준 높은 임상시험으로 근거를 창출할 수 있게 하는데 많은 영향을 줄 것을 기대하며 강 교수와 임상시험팀의 헌신에 감사하다</span>”고 평했다.<br/><br/>장윤형 기자 <b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212.txt

제목: 표적치료제 이을 면역항암제 ‘키트루다’, 국내 식약처 허가  
날짜: 20150414  
기자: 장윤형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414100000413  
ID: 01100201.20150414100000413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암세포만을 선택적으로 공격하는 표적항암제와 다른 새로운 기전의 면역항암제가 국내에서 허가를 받았다. <br/><br/>한국 MSD는 항 PD-1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성분명·펨브롤리주맙)의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획득을 기념해 새로운 면역항암제의 역할 및 임상적 혜택과 키트루다의 주요임상 연구결과를 소개하는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br/><br/>키트루다는 이필리무맙 투여 후 진행이 확인된 수술이 불가능하거나 전이성인 흑색종 환자, 다만 BRAFV 변이가 확인된 경우에는 BRAF 억제제와 이필리무맙 투여 후에도 진행이 확인된 환자에 대해 약 2 mg/kg을 매 3주마다 30분 동안 정맥 점적주입하는 용법으로 국내 최초로 식약처의 허가를 획득한 항 PD-1 면역항암제다. <br/><br/>면역항암제는 종양 자체를 공격하는 다른 항암제와는 달리, 면역체계에 인공 면역 단백질을 주입하고 면역 체계를 자극해 면역 세포가 선택적으로 종양 세포를 공격하도록 하는 치료법이다. 면역세포 표면에 있는 PD-1, CTLA-4, LAG-3 등 억제기전의 수용체와 종양세포 사이의 신호경로에 작용해 종양세포를 억제한다. <br/><br/>방영주 서울대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는 “<span class='quot0'>항 PD-1 면역항암제는 우리 몸의 면역체계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 암조직이 발현하는 이상물질의 작용을 차단해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직접 암세포를 공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며 표적치료제에 이어 또 하나의 혁신적인 치료법으로서 여러 암종에서 치료효과의 개선을 가져올 것이다</span>”고 말했다.<br/><br/>방 교수는 이어 “<span class='quot1'>항 PD-1 면역항암요법은 일부 환자에서는 큰 부작용 없이 효과가 장기간 지속되는 중요한 강점을 보여주고 있으며 보다 많은 환자에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보다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span>”고 설명했다. <br/><br/>키트루다는 인체의 면역체계를 이용해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법을 제시한 새로운 기전의 항암제다. 인체의 면역세포인 T세포를 비활성화시키기 위해 암 세포에서 발현되는 특정 단백질(PD-L1)과 면역세포의 단백질(PD-1)과의 상호작용을 차단해, T면역세포가 암세포를 보다 잘 인식하고 강력하게 암을 억제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br/><br/>다기관, 단일군 제 1상 임상연구 KEYNOTE-001 임상연구 결과에 따르면 키트루다가 투여용량에 관계없이 26%의 객관적 반응률(ORR)을 나타냈고, 1년 전체 생존율에 대한 추정치 는 2mg/kg 투여 군에서 58%, 10 mg/kg 투여 군에서 63%로 뛰어난 치료효과를 보였다. <br/><br/>한편 키트루다는 진행성 흑색종에 미국FDA 최초로 혁신적 치료제로 지정 및 신속 허가된 바 있으며, 흑색종과 비소세포폐암 외에도 현재까지 7개의 암에 대한 치료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임상연구를 진행 중이다. <br/><br/>장윤형 기자 <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213.txt

제목: 서울대서 과학자 꿈 재중동포 연구원, 미국 암학회 '젊은 과학자상' 수상  
날짜: 20150413  
기자: 민태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413100000250  
ID: 01100201.20150413100000250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서울대 약학대학에서 과학자의 꿈을 착실히 키우고 있는 재중동포 출신 30대 연구원이 세계 최고 권위의 암학회에서 ‘젊은 과학자상’을 받게 됐다.<br/><br/> 주인공은 서울대 약대 종양 미세환경 연구센터에서 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박연옥(32) 연구원이다. <br/><br/> 박 연구원이 오는 18일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열리는 ‘미국 암학회 연례학술대회(AACR) 2015’에서 젊은 과학자상(Scholar-in-Training)을 수상한다고 지도교수인 서영준(58) 교수가 13일 밝혔다. 박 연구원의 논문은 이번 학회의 구연 발표 대상으로도 채택됐다.<br/><br/> 박 연구원에게 상을 안긴 논문의 제목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에 유도된 인산화를 통한 위암 세포의 미토파지 촉진’이다. 위암이 생기는 과정에서 암을 일으키는 단백질의 새로운 신호 전달 양식을 관찰한 논문이다. <br/><br/>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은 위암의 주요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이 균이 위암과 연관 메커니즘은 아직 정확히 밝혀져 있지 않다. <br/><br/> 재중동포 부모 사이에서 태어나 옌벤대학에서 석사를 마친 박 연구원은 우리나라가 우수 학생을 초청해 국비를 지원하는 국가 초청 국비장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2010년 3월부터 서울대 약대에서 연구를 계속해 오고 있다. 박 연구원은 “<span class='quot0'>원래 천연물의 암 예방에 관심이 많았는데, 석사 과정 지도 교수가 비슷한 연구를 하는 서울대 서영준 교수 연구실을 추천해 줬다</span>”고 말했다.<br/><br/> 박 연구원의 아버지는 현재 국내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어렵게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박 연구원은 “부모님께 수상 소식을 전했더니 장하다. 집안의 영광이라며 기뻐하셨다”고 말했다.<br/><br/> 박 연구원은 “<span class='quot0'>지금까지 뛰어난 학생은 아니었지만 단계마다 몇 걸음씩 멈추지 않고 나아가기는 해왔다</span>”며 “<span class='quot0'>공부는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기회가 많이 주어지는 것 같다</span>”고 겸손해 했다.<br/><br/> 서영준 교수는 “<span class='quot1'>박 연구원은 차분하고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학생</span>”이라며 “<span class='quot1'>미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최고 권위를 지닌 학회에서 상받고, 발표 기회까지 얻은 것은 제자 본인은 물론이고 스승에게도 큰 영광</span>”이라며 흐뭇해 했다.<br/><br/>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b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214.txt

제목: 셰퍼드 후각 이용해 전립선 암 진단 98% 적중  
날짜: 20150413  
기자: 이종선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413100000372  
ID: 01100201.20150413100000372  
카테고리: 국제>유럽\_EU  
본문: 개의 예민한 후각을 이용해 전립선암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br/><br/> 이탈리아 밀라노 소재 후마니타스 임상연구센터 비뇨기과 연구팀은 독일 셰퍼드(암컷)의 후각을 이용해 전립선암을 평균 98%의 정확도로 진단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했다고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가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br/><br/> 연구팀은 두 마리의 셰퍼드에 전립선암 환자 360명, 정상인 540명 등 900명의 소변샘플 냄새를 맡게 해 전립선암 환자의 소변을 가려내도록 했다. 그 결과 한 마리는 전립선암 환자의 소변을 98.7%, 또 한 마리는 97.6% 정확히 구분해냈다. 전립선암 환자의 소변에는 특이한 휘발성유기화합물(VOC)이 함유돼 있어서 공기 속으로 증발하면서 냄새를 방출하는데 예민한 후각을 지닌 개가 이를 구분해낼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다.<br/><br/> 이에 대해 연관된 선행연구를 했던 영국 의학탐지견학회장인 클레어 게스트 박사는 “<span class='quot0'>훈련된 개가 후각으로 암을 잡아낼 수 있다는 또 하나의 증거</span>”라면서 “<span class='quot0'>개는 1000분의 1로 희석된 냄새도 맡을 수 있다</span>”고 강조했다. 게스트 박사의 선행 연구에서 개는 전립선암 환자의 소변을 93%의 정확도로 진단했다. 이 연구는 미국비뇨기학회 학술지 ‘비뇨기학 저널’ 최신호에 발표됐다.<br/><br/>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b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215.txt

제목: ‘담배 위해성’ 정부가 직접 밝혀낸다…질병관리본부에 ‘국가흡연폐해연구소’ 설치  
날짜: 20150408  
기자: twmin@kmib.co.kr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408100000148  
ID: 01100201.20150408100000148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담배 위해성’의 과학적 근거를 밝혀낼 정부 연구소가 처음 생긴다.<br/><br/> 보건복지부는 이르면 오는 8월 질병관리본부 산하에 ‘국가 흡연폐해연구소’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br/><br/> 연구소는 국내에 유통되는 담배의 성분과 첨가물, 배출물(연기)에 대해 분석하는 업무를 진행한다. 각 담배에 니코틴, 타르, 암모니아, 흡습성물질 등 성분이 얼마만큼 함유돼 있으며 멘솔, 당류 등 중독성을 강화하는 첨가물질은 어느 정도 포함돼 있는지, 담배의 연기에 어떤 성분이 검출되는지 분석한다.<br/><br/> 질병관리본부는 “<span class='quot0'>담배의 기본 성분 외에도 담배에 첨가된 물질들도 실험 대상</span>”이라며 “<span class='quot0'>실험과 분석을 통해 첨가물들이 얼마나 중독성을 강화하는지, 중독성 때문에 끊지 못하게 하는 물질이 있다면 어떤 물질인지 찾아낼 것</span>”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연구소는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 정도를 알아내기 위해 각 담배의 연기가 사람의 몸과 주변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연구한다.<br/><br/> 혈액, 소변, 모발 등 인체 시료에 담배연기를 노출해 어느 정도 위해성이 발생하는지 측정하고 먼지 같은 환경 시료를 활용해 담배연기로 의한 환경 유해물질의 노출 수준도 검사한다.<br/><br/> 또 실험동물과 동물 세포를 활용해 담배 연기가 암, 심혈관질환, 감염성 질환, 성장발달장애, 중독성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실험할 계획이다.<br/><br/> 연구소에서 나온 실험 결과는 정부가 담뱃값 인상이나 금연구역 확대, 금연치료 지원 등 금연정책을 수행하는 데 과학적 근거로 활용된다. 실험 결과에 따라서는 담배회사를 상대로 진행 중인 소송 등에서도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br/><br/> 그동안 담배회사들이 자체적으로 담배에 대해 실험·분석을 실시해 비공개 자료로 가지고 있는 경우는 있었지만 정부가 담배 분석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것은 처음이다. <br/><br/><br/><br/>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b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216.txt

제목: 한국싸나톨로지협회 14일 국회서 영적돌봄 호스피스 서비스 토론회 개최  
날짜: 20150406  
기자: 이기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406100000261  
ID: 01100201.20150406100000261  
카테고리: 사회  
본문: 한국싸나톨로지협회(회장 전세일)는 14일 오후 1시30분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과 공동으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한국 호스피스 제도의 질적 향상’에 대한 공개 학술 포럼을 개최하고 호스피스 서비스 품질 강화 및 전문 인력 양성 방안에 대하여 논의한다.<br/><br/> 다가오는 7월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적용으로 이용 환자들의 부담이 크게 줄게 되었지만, 말기 암 환자에게만 해당될 뿐 다른 만성질환자는 물론 심리적·영적 돌봄 서비스의 경우 적용대상서 제외돼 있어 큰 문제라고 보기 때문이다.<br/><br/> 협회 관계자는 “<span class='quot0'>한국 호스피스 대중화 시대를 맞이하여 호스피스 서비스에서의 심리적·영적 돌봄 강화를 통한 질적 향상 및 이를 위한 전문 인력 양성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span>”이라며 “<span class='quot0'>정부 호스피스 정책 관련 인사 및 호스피스 전문가 여섯 명이 연사로 나서 심리적·영적 돌봄에 대한 정의 및 사례, 제도적 지원 방안을 검증할 예정</span>”이라고 포럼 개최 취지를 밝혔다. <br/><br/> 호스피스 서비스에 있어서 죽음은 삶의 완성이고 죽음으로 향하는 과정은 인간 존엄성의 완성으로 향하는 마지막 여정이기에, 육체적 고통을 경감시키는 완화치료와 더불어 지금까지의 삶을 정리하고 관계를 완성하며 죽음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기 위한 심리적·영적 돌봄을 병행하게 된다. 심리적·영적 돌봄은 호스피스를 단순히 고통 경감 절차가 아닌 한 인간의 품위 있는 임종을 위한 서비스가 되게 하는 핵심적인 요소이다. <br/><br/> 현재 일부 호스피스 기관에서 자체 인력을 양성하여 심리적·영적 돌봄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지만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고, 심리적·영적 돌봄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대책 또한 아직 수립되지 않은 형편이다. <br/><br/> 한편 이번 포럼에는 전세일 회장을 좌장으로, 김춘진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창걸 박사(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이사장), 김근하 박사(전일의료재단 명예이사장/국제싸나톨로지스트), 고진강 박사(서울대학교 간호대 교수), 공인식 사무관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등이 참석, 자유토론에 나선다. <br/><br/>이기수 의학전문기자 kslee@kmib.co.kr<b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217.txt

제목: ‘암 예방 김치’ 위암 막아준다…항암 건강기능식품 가능성 ‘주목’  
날짜: 20150402  
기자: 민태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402100000020  
ID: 01100201.20150402100000020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한식 세계화 사업의 일환으로 개발된 ‘암 예방 김치’의 항암 효과가 동물실험을 통해 입증됐다. 특히 위암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인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에 의한 암 발생을 막아주는 건강기능식품으로써 김치의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해 주는 것이어서 주목된다.<br/><br/> 차의과학대학 소화기내과 함기백 교수와 부산대 식품영양학과 박건영 교수팀은 1~4일 서울대 암연구소(소장 송용상 산부인과 교수) 주최로 전남 화순 금호리조트에서 열리는 ‘국제 암 심포지엄’에서 이 같은 연구결과를 발표한다. <br/><br/> 전남 화순군(군수 구충곤)이 후원한 이번 심포지엄에는 미국 캐나다 일본 독일 대만 오스트리아 중국 싱가포르 스웨덴 등 세계 14개국 90여명의 암 연구 분야 과학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br/><br/> 주최 측이 배포한 연구 논문에 따르면 연구팀은 한식 세계화 사업의 연구비 지원을 받아 ‘암 예방 김치(cpKimchi)’로 명명된 김치를 개발했다.<br/><br/> 연구팀은 이 암 예방 김치와 기존 일반 김치를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과 고농도 소금 섭취로 위 종양 형성이 유도된 실험 쥐에 물과 함께 섞어 36주간 각각 투여하고, 김치를 먹이지 않은 대조군과 비교했다.<br/><br/> 그 결과 김치를 먹이지 않은 실험쥐에서는 36주 후 위에 궤양과 종양은 물론 표면에 헬리코박터균 감염이 관찰됐지만 암 예방 김치를 먹인 쥐들에서는 이런 증상이 대부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김치를 먹인 실험쥐들도 위에서 홍반과 결절성 변화, 점막 궤양 등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br/><br/> 위 점막 내 세포 분석에서도 암 예방 김치를 먹이지 않은 쥐들은 종양 형성과 관련된 산화 스트레스 증가와 염증물질(COX-2, IL-6)의 발현 등이 관찰된 반면 암 예방 김치군에서는 이런 현상들이 상대적으로 훨씬 적은 것으로 분석됐다.<br/><br/> 연구팀은 암 예방 김치 추출물이 암세포에만 선택적으로 작용해 암세포의 자연사를 유도하고 헬리코박터균 감염으로 유도된 세포 증식을 억제하는 효과를 낸 것으로 추정했다.<br/><br/> 연구팀은 동물실험에 사용된 암 예방 김치가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는 특허권 등의 이유를 들어 공개하지 않았다.<br/><br/> 함 교수는 “<span class='quot0'>암 예방 김치를 매일 먹으면 헬리코박터균에 의한 만성 위축성 위염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강력한 항산화와 항염증, 항돌연변이 등의 반응으로 종양 형성을 막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span>”라고 설명했다.<br/><br/> 한편 구충곤 화순 군수는 이번 국제 암 심포지엄을 통해 화순군의 ‘바이오메디컬클러스터’로의 발전에 국제적 관심과 이목을 끌어내는 데 성공했다.<br/><br/> 화순군은 화순전남대학교병원을 중심으로 암센터, 의생명과학융합센터, 노인전문병원 등 진단과 치료, 휴양 의료 인력의 양성이 가능한 ‘메디컬 클러스터’와 녹십자와 생물의약연구원을 중심으로 연구개발, 전임상·임상·제조에 이르는 인프라를 연결, 생물의약산업단지에 조성된 ‘바이오 클러스터’ 등 ‘화순 바이오 메디컬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있다.<br/><br/> 구 군수는 “<span class='quot1'>화순군이 암 예방에 중요한 섭생과 신체활동에 관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의생명과학융합센터는 물론 치유농업센터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span>”고 말했다.<br/><br/>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b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218.txt

제목: 호암재단, 호암상 수상자에 천진우 교수 등 5명 선정  
날짜: 2015040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40210016825424  
ID: 01100201.2015040210016825424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삼성 창업주인 호암 이병철 선생을 추모하기 위해 설립된 호암재단은 1일 제25회 호암상 수상자를 발표했다. 과학상은 천진우 연세대 언더우드 특훈교수, 공학상은 김창진 미국 UCLA대 교수, 의학상은 김성훈 서울대 교수, 예술상은 김수자 작가, 사회봉사상은 백영심 간호사가 각각 선정됐다.<br/><br/> 과학상을 수상한 천 교수는 나노물질 개발을 위한 화학적 설계 기술을 확립하고, 설계한 나노입자의 크기를 조절해 MRI(자기공명영상) 조영 효과를 조절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세계 최초로 증명했다. 공학상의 김 교수는 전위차를 이용해 액체의 습윤성과 표면장력을 제어하는 전기 습윤 기술의 창시자다. 이를 통해 훨씬 쉽고 빠르게 미세 유체를 제어할 수 있는 기술 기반을 마련했다. 의학상을 받은 김 교수는 항암 단백질 전문가로 생체 단백질 합성효소(ARS·aminoacyl-tRNA synthetase)가 세포의 증식, 분화, 사멸에 관여하고 암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세계 최초로 규명했다. 예술상의 김 작가는 세계적인 개념미술 작가로 ‘보따리’ ‘바늘여인’ 등의 작품이 있다. 사회봉사상의 백 간호사는 1994년부터 아프리카 말라위에서 봉사활동을 펼치는 한편 현지에 병원과 간호대학을 설립했다.<br/><br/> 호암재단은 매년 과학, 공학, 의학, 예술, 사회봉사 부문에서 1명을 선정해 호암상을 시상한다. 호암재단은 호암상 심사를 위해 국내외 저명 학자·전문가 37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와 해외 석학 30명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다. 호암상 시상식은 6월 1일 서울 중구 호암아트홀에서 개최된다. 수상자들은 상장, 메달(순금 50돈), 3억원의 상금을 받는다.<br/><br/>노용택 기자 nyt@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219.txt

제목: 2015년 호암상(湖巖賞) 수상자 발표. 부분별 상금 3억원  
날짜: 20150401  
기자: 노용택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401100000158  
ID: 01100201.20150401100000158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호암재단(이사장 손병두)은 1일 ‘2015년도 제25회 호암상 수상자’를 확정, 발표했다. 올해 부문별 수상자는 △과학상 천진우 박사(53·연세大 언더우드 특훈교수), △공학상 김창진 박사(57·美 UCLA 교수), △의학상 김성훈 박사(57·서울大 교수), △예술상 김수자 현대미술작가(58), △사회봉사상 백영심 간호사(53) 등 5명이다.<br/><br/> 이들은 국내외 각계 주요 기관과 전문 인사들로부터 후보자로 추천 되어 국내외 저명 학자·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37명)의 면밀한 업적 검토와 국제적 명성의 해외 석학(30명)들로 구성된 자문단 평가 및 현장 실사 등을 거쳐 수상자로 확정됐다. 특히 올해부터 노벨상 수상자 2명 등 해외 저명 석학 4명이 호암상 심사위원회에 직접 참여하여 후보자의 업적을 국제적 차원에서 검증했다.<br/><br/> 과학상 천진우 박사는 세계적 수준의 나노물질 개발을 위한 화학적 설계 기술을 확립하고, 설계한 나노입자의 크기를 조절하여 MRI 조영 효과를 조절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세계 최초로 증명했다. 공학상 김창진 박사는 전위차를 이용하여 액체의 습윤성과 표면장력을 제어하는 기술 개발로 기존보다 훨씬 쉽고 빠르게 미세유체의 제어를 가능하게 했다. <br/><br/> 의학상 김성훈 박사는 생체 단백질 합성효소(aminoacyl-tRNA synthetase, ARS)가 세포의 증식, 분화, 사멸에 관여한다는 새로운 사실과 이 ARS들이 암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세계 최초로 규명한 공로를 인정 받았다. <br/><br/> 예술상 김수자 작가는 ‘보따리’, ‘바늘여인’, ‘호흡’, ‘지수화풍’ 시리즈를 통해 자신만의 독창적 예술세계를 구축하였으며, 뉴욕을 기반으로 전 세계에서 활약하고 있는 현대미술작가이다. 사회봉사상 백영심 간호사는 1994년부터 아프리카 말라위에서 봉사활동을 펼쳐 오며 현지에 병원을 설립하여 세계 각국 의료진의 자원봉사 활동을 이끌어 내며 연간 20만 명을 치료하는 의료기반을 구축했다.<br/><br/>시상식은 6월1일 오후 3시 호암아트홀에서 개최되며, 각 수상자들은 상장과 메달(순금 50돈), 3억원의 상금을 받게 된다. 호암재단은 시상식 전후인 5월29일, 6월2일에는 국내 및 해외 연구자간 교류와 협력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호암상과 노벨상 수상자 등 국제 석학과 국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제3회 호암포럼’을 개최한다.<br/><br/>노용택 기자 nyt@kmib.co.kr<b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220.txt

제목: “위암 로봇 수술이 합병증 빈도 낮다”  
날짜: 20150401  
기자: 장윤형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401100000295  
ID: 01100201.20150401100000295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국내 의료진이 위암 로봇 수술과 복강경 수술의 수술 후 합병증 발생빈도를 비교 분석한 결과 로봇수술의 발생빈도가 낮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br/><br/>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위장관외과 송교영 교수팀은 로봇수술 시행 초창기 복강경 수술과 각 40례의 수술 후 임상적인 인자를 측정했다. 연구 결과 수술 후 췌장염 발생빈도가 복강경 수술 군에서 22.5%인 반면, 로봇 수술 군에서는 10%로 로봇 수술 군이 낮은 결과를 얻었다.<br/><br/>그동안 복강경 수술과 로봇수술은 개복수술에 비해 통증이 적고 회복이 빠르며 합병증이 적다고 알려졌다. 하지만 위암에서 로봇수술은 고가인 점을 감안하면 복강경 수술보다 더 우월한지에 대한 논란에 서있었다.<br/><br/>송 교수팀은 로봇을 이용한 수술 시 췌장을 자극하는 회수가 복강경에 비해 더 적다는 점에서 췌장염 발생빈도가 더 작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환자들의 임상경과를 관찰했다.<br/><br/>위암수술 후 발생하는 합병증 중 가장 흔한 것은 췌장염이다. 췌장은 위의 등쪽에 위치하므로 수술 중 지속적인 자극에 의해 췌장염이 발생할 수 있다.<br/><br/>송 교수는“<span class='quot0'>그동안 다방면에 있어 로봇수술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었으나 그 중 위암 로봇수술의 장점에 대한 객관적인 통계를 산출한 첫 시도였다</span>”고 밝혔다. <br/><br/>송 교수는 또한 “<span class='quot0'>암세포 특성상 조금이라도 남아 있으면 재발하는 것이 특징이지만 로봇 수술을 통해 좀 더 암 발생부위를 완전하고 정밀하게 제거할 수 있으며 수술자 입장에선 개복이나 복강경 수술에 비해 피로도가 적으므로 장시간을 요하는 위암 수술에 적합하다</span>”고 덧붙였다. <br/><br/>한편 로봇 수술은 복강경 수술에서 한단계 진일보한 개념으로 로봇을 환자에게 장착하면 의사가 원격으로 조종해 복강경 수술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한다. 복강경 수술과 다른점은 3차원의 높은 해상도를 기반으로 환부를 10~15배 정도 확대된 영상을 볼 수 있는 수술용 카메라가 있어 좋은 수술 시야를 확보할 수 있고 수술하는 의사의 손 움직임이 디지털화되므로 집도의의 미세한 손 떨림을 막을 수 있다. 다만 현재 로봇 수술은 건강보험에 적용되지 않아 환자들에게 비용적으로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br/><br/>장윤형 기자<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221.txt

제목: [헬스 파일] 예방적 난소난관절제술·난소암  
날짜: 2015033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33110016791765  
ID: 01100201.2015033110016791765  
카테고리: 사회  
본문: 영화배우 앤젤리나 졸리(40)가 최근 난소난관 절제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화제다. 그녀는 2013년 2월 유방암 예방을 위해 아직은 멀쩡한 유방을 양쪽 다 잘라낸 바 있다. 이번 수술은 혈액검사 결과 난소암 발병 우려가 높다는 진단에 따른 것이다.<br/><br/> 앤젤리나 졸리는 유방암과 난소암을 일으키는 주요 유전자 변이를 갖고 있는데다 이미 어머니를 포함, 외할머니와 이모 등 3명의 가족을 암으로 잃은 상태다.<br/><br/> 난소암은 여성의 난소에 생기는 악성종양이다. 발암 초기 자각증상이 거의 없어 조기진단이 어렵다. 난소암 환자 10명 중 7명은 3기 이상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돼 진단이 곧 사망선고로 받아들여질 정도로 사망률이 아주 높은 암이다. 하지만 소위 유전적 원인으로 예방적 난소난관절제술을 필요로 하는 난소암은 약 5%에 불과하다.<br/><br/> 유방암과 난소암을 유발하는 발암 유전자는 BRCA1과 BRCA2가 대표적이다. 이들 유전자의 변이가 나타나면 장차 유방암이나 난소암에 걸릴 위험이 크다는 말이다. BRCA1 유전자 변이를 가진 여성은 70세까지 유방암과 난소암이 발생할 누적위험도는 각각 57%, 40%에 이른다. 또 BRCA2 유전자 변이를 가진 여성은 70세까지 그 위험도가 각각 49%, 18%다.<br/><br/> 앤젤리나 졸리의 몸에선 이 두개의 유전자가 모두 발견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암을 예방할 목적으로 멀쩡한 유방과 난소를 잘라내는 수술이 용인된 것도 이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br/><br/> 그렇다고 난소암이 생길까 두렵다고 멀쩡한 난소와 난관을 수술로 없애는 것이 사회적으로나 의학적으로 다 용인되는 것은 아니다. 앤젤리나 졸리와 같은 예방적 난소난관절제술을 결정할 때는 다음 두 가지를 반드시 고려하는 게 좋다.<br/><br/> 첫째, 난소난관절제술은 불임과 폐경을 초래하는 원인이 된다. 따라서 난소암을 유발하는 BRCA1과 BRCA2 유전자 변이가 나타났다고 해도 임신 및 출산을 원하는 가임기 여성에겐 이 수술이 권장되지 않는다. 이땐 단산 결정을 내리기까지 6개월마다 난소암의 발병을 감시하기 위한 정기검진으로 대신해야 한다.<br/><br/> 둘째, 어쩔 수 없이 예방적 난소난관절제술을 시행하면 폐경기증후군을 겪기 쉽다. 따라서 폐경 증상 조절을 위한 호르몬대체요법 치료를 받아야 한다. 이 치료는 원래 자연 폐경이 예상되는 50∼55세까지 계속해야 한다.<br/><br/><br/>박정열 서울아산병원 산부인과 교수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222.txt

제목: [명의&인의를 찾아서-⑥ 서울성모병원 세포치료센터 조석구 교수팀] 세포치료, 환자 맞춤형 미래 의학 선도  
날짜: 2015032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32410016712057  
ID: 01100201.2015032410016712057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세포치료분야는 맞춤형 의료의 대표적 영역입니다. 신약개발이 뒤쳐진 우리나라로서는 보건의료분야에서 정부의 창조경제 개념에 가장 잘 부합되는 치료기술입니다.”<br/><br/> 가톨릭의대 서울성모병원 혈액내과 조석구 교수는 세포치료를 이렇게 정의했다. 조 교수는 서울성모병원이 지난해 12월 국내 최초로 문을 연 진료형 세포치료센터 센터장이다.<br/><br/> 그는 환자 맞춤형 세포치료제의 임상시험 계획 수립부터 세포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직접 투여하기까지 병원에서 이뤄지는 모든 세포치료를 총괄 지휘하고 있다.<br/><br/> 의료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종양, 자가면역질환, 장기부전, 조직손상유발 질환 등은 여전히 미제의 영역이다. 조 교수는 “<span class='quot0'>이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간엽 줄기세포뿐 아니라 조직, 재생의료, 종양면역 난치성 질환 치료에 이르기까지 세포치료를 광범위하게 시도할 계획</span>”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세포치료 전문병원이라는 지위를 선점해 세포치료를 중심으로 한 환자 맞춤형 미래의학을 선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br/><br/> ◇림프종, 간경변, 췌도이식, 크론병 등 7개 분야 진료=서울성모병원 세포치료센터는 모두 7개 분야로 나뉘어 운영된다. 혈액내과 조 교수팀이 주도하는 ‘림프종 면역세포치료’를 비롯해 성형외과 이종원 교수팀의 ‘창상세포치료클리닉’, 소화기내과 배시현 교수팀의 ‘간경변증 줄기세포 치료’, 내분비내과 양혜경 교수팀의 ‘췌도이식세포 치료’, 순환기내과 박훈준 교수팀의 ‘심근경색증 줄기세포 치료’, 재활의학과 고영진 교수팀의 ‘상과염(테니스엘보)과 족저근막염의 세포치료’, 대장항문외과 강원경 교수팀의 ‘크론병의 세포치료’ 등이다.<br/><br/> 순환기내과 박 교수팀은 ‘급성 심근경색증 환자에서 ’과립구집락자극인자‘에 의해 동원된 골수유래 말초혈액 CD34+ 줄기세포 치료술’을 개발했다. 이 치료술은 허혈성 심장혈관 질환, 특히 급성심근경색증과 심부전증의 치료에 도움이 된다.<br/><br/> 재활의학과 고 교수팀은 ‘내·외측 상과염과 족저근막염 환자들에게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PRP) 치료술’을 시도한다, 이 시술은 창상 치유 조절인자가 많이 포함된 PRP를 자신의 혈액에서 분리 농축해 손상된 부위에 주사함으로써 소염 진통 효과는 물론 손상된 조직을 재건하는 치료법이다.<br/><br/> ◇임상시험·최소조작 세포치료제 진료도=서울성모병원 세포치료센터는 앞으로 관절염으로 손상된 연골재생에 쓰이는 세포치료제 ‘카티스템’과 같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판을 승인한 세포치료제는 물론 임상시험용 세포치료제와 최소조작 세포치료제도 과감하게 진료에 이용할 계획이다.<br/><br/> 조 교수는 “<span class='quot0'>좋은 세포치료제를 경쟁국보다 한 발 앞서 상용화해 임상진료에 도입할 경우 세포치료를 원하는 해외 난치병 환자가 우리나라를 찾는 효과가 기대된다</span>”며 “<span class='quot0'>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이 분야 선도국가들은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가적 노력과 더불어 각국 사정에 맞는 제도를 발전시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span>”고 강조했다.<br/><br/> 세포치료는 본인이나 다른 사람의 세포를 치료와 진단, 예방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를 먹는 약이나 주사약 같은 의약품으로 분류,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의약품 개발과정과 똑같은 시설기준과 절차에 따라 품목별로 따로 허가를 받아야 임상진료에 사용할 수 있다.<br/><br/> 서울성모병원 세포치료센터는 국내 다른 어떤 병원보다 먼저 세포치료에 관심을 갖고 고순도 정제시설과 연구 인프라를 구축했다. 임상연구와 치료에 적합한 세포를 생산하고 연구할 수 있는 세포생산시설과 우수의약품제조 및 시설기준(GMP) 등급의 골수유래 중간엽 줄기세포를 생산하고 분양하는 능력을 구비했다.<br/><br/> 유관 협력기관으로 기능성세포치료센터, 조혈모세포이식센터, 조혈모세포은행 및 제대혈은행 등을 보유한 것도 다른 병원에서 쉽게 따라올 수 없는 점이다.<br/><br/> 서울성모병원 세포치료센터는 안락사, 낙태 등 죽음의 문화가 드리워진 가운데 생명이나 진배없는 배아를 의학연구의 도구로 삼는 것을 배격한다. 이 센터가 성체줄기세포를 이용한 세포치료제 개발 및 임상 적용에 적극 앞장서는 이유다.<br/><br/> 조 교수는 “<span class='quot0'>세포치료를 수행하면서 난자와 배아줄기세포를 이용하는 어떤 연구도 수행하지 않는 등 인간 생명을 지키기 위해 가장 엄격한 기준을 준수하겠다</span>”고 다짐했다.<br/><br/>☞조석구 세포치료센터장은 <br/><br/><br/>1963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1982년 서울고교, 1988년 가톨릭의대를 졸업하고 2001년 도쿄생화학회 장학생으로 일본에 건너가 도쿄대 의대에서 2002년까지 유전자요법 및 암백신 제작기술을 배웠다.<br/><br/> 조 교수는 특히 이 시기 진행성 콩팥 암 환자를 위한 유전자 변형 암백신을 개발, 특허까지 출원하는 성과를 거뒀다. 조 교수는 “<span class='quot0'>콩팥 암이 흔한 암이 아니라서 그런지 관심을 보이는 제약사가 없어 끝내 상업화하지 못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아있다</span>”고 털어놨다. <br/><br/>조교수는 2012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지원하는 ‘줄기세포 관련 중개중점 연구’를 수행하는 등 지금까지 교신저자 또는 제1 저자로 발표한 연구논문 50여편을 포함 100여편의 연구논문에 공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그중 가장 자부심을 갖는 연구는 엡스타인 바(EB)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암 발생 연구다. EB바이러스는 대상포진을 일으키는 수두바이러스와 같이 환자의 몸속에 잠복해 있다가 신장이나 간이식 등 장기이식 후 면역이 떨어졌을 때 활동을 재개하며 림프종을 일으킨다. <br/><br/> 지금도 유전자 변형 줄기세포 연구에 관심이 많은 조 교수는 “<span class='quot0'>줄기세포와 면역세포를 동시에 투여해 난치병을 극복하는 ‘병용세포치료’ 개념을 세계적으로 임상 진료에 가장 먼저 도입해 뿌듯하고 자랑스럽다</span>”고 말했다.<br/><br/>이기수 의학전문기자 kslee@kmib.co.kr<br/><br/> ▶ 명의&인의를 찾아서 [기사 모두보기]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223.txt

제목: ‘코어라이프 소스’ 김수홍 박사, 치매 예방 물질 ‘커큐미노이드’ 세계 첫 발견  
날짜: 201503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32010016679172  
ID: 01100201.2015032010016679172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미국 한인과학자 데릭 김(Darrick Kim ·한국명 김수홍·55·사진) 박사가 연구, 개발한 암관련 OH 프로그램과 치매 관련 제품이 최근 한국 식약청 검사를 통과, 건강기능식품으로 정식 수입되면서 이 분야 환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br/><br/> 독실한 크리스천으로 미국에서 코어라이프 소스(corelifesource)란 회사를 윤영하는 그는 미국 남가주 얼바인 대학(UC-Irvine) 및 대학원(Ph.D)을 졸업하고 일리노이 주립대(UIC) 약대교수를 역임했다.<br/><br/> 알츠하이머 디지즈 치료제 물질 및 제조공정에 관한 미국 특허(14건 획득, 12건 출원 중)를 갖고 있는 김 박사는 투머릭에서 뇌신경세포 관련 연구내용을 국제학술지에 30여편이나 발표한 바 있다.<br/><br/> 김 박사는 중학교 3학년이던 1975년 도미, 생물학과 화학과 등 의예과를 거친 ‘암 전문의’가 되려고 했다. 그런데 어느 유명한 화학과 교수가 ‘의사는 평생 수 천 명의 환자만 다룰 수 있지만, 암을 정복하는 항암제를 개발하면 수 억 명의 환자를 고칠 수 있다’는 말에 치료제 연구로 방향을 틀게 됐다.<br/><br/> 1992년 초 획기적인 연구결과를 얻었지만, 제약회사와의 관계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상용화될 수 없었고 가장 힘들었던 그 때, 새로운 연구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된다.<br/><br/> “갑자기 ‘치매’에 대해 연구해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암 예방 치료제 연구를 기초로 연구해 왔던 물질들을 토대로 치매 예방치료제 연구를 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였어요. 떠오르는 대로 실험을 하면 결과가 바라는 대로 나오는 신기한 경험을 했죠.”<br/><br/> 건강정보가 넘쳐 나는 이 시대에 결국 과학적으로 증명됐는지 명확해야 신뢰할 수 있는 건강정보라 할 수 있다는 김 박사는 자연약초에서 치매를 예방하고 다스리는 물질 ‘커큐미노이드’를 세계 최초로 발견했다. 최근 카레가 건강에 좋다는 모든 연구결과들은 김 박사 연구가 시초가 됐다.<br/><br/> 그가 발견한 치료제의 임상실험 첫 대상자는 목회자인 아버지였다. 초기 치매 증세로 정년보다 일찍 목회에서 은퇴한 아버지에게 현재 치매치료제로 판매되고 있는 ‘아미넥스1’의 성분을 조제해 드린 결과 현재 85세인데도 다시 목회하시고 싶다고 하실 정도로 건강해 지셨다. 김 박사는 아버지한테 나타난 효과 하나만으로도 연구한 보람이 크다. <br/><br/> 김 박사는 치매치료제 개발과 함께 암을 다스리는 1:1 개인별 맞춤형 OHP (Optimum Health Program ) 프로그램도 개발했다. 따라서 필요한 이들은 한국에서 미국으로 직구입해 사용하고 있다. 6개월 안에 암을 다스릴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br/><br/> 한국을 여러 차례 방문, 건강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는 김 박사는 오는 26일부터 4월12일까지 한국을 방문, 방송출연과 건강세미나를 인도한다.<br/><br/> 김 박사는 건망증 및 치매 치료 효능성분과 제조공법으로 4개의 미국 특허를 획득한 건강보조식품 아미넥스 (AmyNex)와 관절염에 탁월한 효과를 보이고 있는 알파실(Alpha-Xyl)을 상용화한 바 있다. <br/><br/> 연구가 아무리 바빠도 최고 우선 가치를 교회활동에 두고 살아온 김 박사는 “<span class='quot0'>하나님께서 연구 열매를 통해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계시다</span>”며 “<span class='quot0'>앞으로 사업영역이 커지면 그동안 기도해온 선교비전이 구체화 될 것</span>”이라고 밝혔다. <br/><br/> 건강에 대한 지식을 아낌없이 나누는 일에 앞장서고 있는 김 박사는 교회초청 건강세미나도 시간이 허락하면 언제나 응하고 있다. 건강세미나 신청과 제품관련 문의는 코어라이프소스코리아(대표 장흥복 장로)로 하면 된다(0505-550-4000,010-7172-4440·corelifesource.com).<br/><br/>김무정 선임기자 kmj@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224.txt

제목: [뉴스파일] 생활정보 21종 ‘민원24’에서 확인 가능  
날짜: 201503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31710016615909  
ID: 01100201.2015031710016615909  
카테고리: 사회  
본문: 행정자치부는 생활에 밀접한 행정정보 21종을 정부민원포털 ‘민원24’(www.minwo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나의 생활정보 서비스’를 17일부터 확대 제공한다고 16일 밝혔다. 서비스 대상은 조세·사회보험 미환급금, 경찰청 과태료, 운전면허 정보 등 6종이었으나 이번에 예비군훈련일, 암검진, 재산세, 국민연금예상액 등 건강, 병역, 세금, 연금 분야 18종이 추가됐다.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225.txt

제목: [올해 과학기술 10대 트렌드] 첨단기기 싫어… ‘안티테크’ 뜬다  
날짜: 201503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31710016615957  
ID: 01100201.2015031710016615957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디지털 기기와 인터넷에 거부 반응을 보이는 ‘안티테크(anti-tech)’ 현상이 올해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사이언스’ ‘네이처’ 등 과학 학술지의 예측을 바탕으로 선정한 ‘2015년 국내외 과학기술 10대 트렌드’를 16일 과학기술정책 최신호에서 소개했다.<br/><br/> 연구원은 “<span class='quot0'>최근 조사에 따르면 영국 국민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접속률이 2013년 65%에서 지난해 56%로 감소했으며, 더 단순한 라이프스타일을 갈망하는 추세가 늘어나고 있다</span>”고 설명했다. 하이테크 기기와 인터넷의 홍수에 피로를 느끼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얘기다. 이런 현상은 안티테크를 넘어 ‘네오 러다이트’(새로운 기계파괴 운동)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연구원은 내다봤다.<br/><br/> 생명과학계는 암 극복을 위한 연구 성과를 활발히 발표할 것으로 관측됐다. 특히 방사선, 표적약물 등 다양한 면역요법을 혼합한 ‘결합면역요법’이 관심을 끌고 있다. 사이언스는 암 면역요법을 2013년의 획기적 발견으로 선정했었다. 발암 유전자로 알려진 ‘미크(Myc) 유전자’ 한 쌍 중 하나를 제거해 쥐의 수명을 연장한 미국 브라운대 연구팀의 지난 1월 연구도 주목할 만하다. 서아프리카를 공포로 몰아넣은 에볼라는 6월쯤 치료법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br/><br/> 우주과학 분야에선 지난해가 ‘혜성의 해’였다면 올해는 ‘왜소행성의 해’가 될 전망이다. 미 항공우주국(NASA·나사)의 무인우주탐사선 돈(Dawn)은 최근 화성과 목성 사이 소행성대에 있는 원시행성 ‘세레스’의 궤도에 도착했다. 7월에는 나사의 다른 우주선 ‘뉴 호라이즌스’가 50억㎞를 이동해 명왕성에 근접할 예정이다.<br/><br/> 올해는 탄생 100주년을 맞는 상대성이론의 재조명도 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원은 “<span class='quot0'>상대성이론은 현대 우주이론의 토대를 제공했지만 완벽히 검증된 것은 아니다</span>”면서 “<span class='quot0'>초끈이론, 고리양자중력이론 등 새로운 이론을 개발하려는 시도도 활발해질 것</span>”이라고 말했다.<br/><br/> 스마트 기기는 ‘가상현실용 헤드셋’ ‘헬스케어용 헤드셋’ 등 머리에 착용하는 형태가 여럿 등장할 것으로 예측됐다. 음악 감상을 통해 뇌가 휴식을 취하게 하는 제품도 9월 상용화를 앞두고 있다.<br/><br/> 국내에서는 지난해 세월호 참사 영향으로 재난 대응에 첨단과학 기술을 활용하려는 노력이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br/><br/>권기석 기자 keys@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226.txt

제목: 연세대 신인재 교수팀, 암세포 자살 유도 항암물질 개발  
날짜: 201503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31710016615438  
ID: 01100201.2015031710016615438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연세대 화학과 신인재 교수팀이 암세포의 자살을 유도하는 항암물질을 개발했다. 기존 항암제의 부작용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연세대는 신 교수팀이 암세포가 죽는 것을 억제하는 ‘열충격단백질70(HSP70)’의 작용을 막아 암세포를 죽게 하는 물질 ‘아폽토졸’을 개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열 충격 등 외부 스트레스가 가해졌을 때 세포가 죽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HSP70은 암세포의 항암제 내성을 강하게 만들어 항암제의 효과를 떨어뜨린다. 암세포에서 HSP70의 활성을 억제하는 물질을 개발하는 연구가 진행됐지만 지금껏 성공한 사례는 없었다.<br/><br/> 아폽토졸을 암세포 이식 생쥐에게 투여하는 실험에서 항암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증됐다. 피부에 사람의 폐암, 결장암, 자궁경부암 세포 조직을 이식한 생쥐에게 이틀에 한 번씩 2주간 아폽토졸(4㎎/㎏)을 투여했더니 암 조직의 크기가 폐암은 61%, 결장암 65%, 자궁경부암은 68% 감소했다. 연구결과는 화학·생물학저널 ‘케미스트리 앤드 바이올로지(Chemistry&Biology)’ 13일자에 실렸다.문수정 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227.txt

제목: 고려대안산병원 신철 교수팀, 수면무호흡 노화 앞당긴다  
날짜: 201503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31710016615888  
ID: 01100201.2015031710016615888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수면무호흡을 방치하면 잠을 제대로 못 이뤄 급(急) 노화를 초래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수면무호흡은 잠을 자는 동안 자주 깨는 ‘분절수면’과 같이 숙면을 방해하는 가장 큰 원인이다.<br/><br/> 고려대안산병원은 수면장애센터 신철(사진) 교수와 인간유전체연구소 권유미 박사 연구팀이 수면무호흡 증상이 심할수록 염색체의 양끝 말단부분(텔로미어)의 길이가 짧아진다는 사실을 처음 규명했다고 16일 밝혔다.<br/><br/> 신 교수팀은 국내 45∼72세 381명을 대상으로 혈액에서 추출한 염색체의 텔로미어 길이와 수면 중 호흡 및 심장박동의 상관관계를 분석했다.<br/><br/> 텔로미어는 ‘인체 내 노화시계’로 불린다. 텔로미어의 길이는 유전적 영향 외에 활성산소나 염증 반응에 의해 줄어든다. 이렇게 짧아진 텔로미어는 노화는 물론 암을 비롯한 여러 질병의 발병 및 진행에 영향을 미친다.<br/><br/> 연구결과 수면무호흡이 1시간에 15회 이상 나타나는 중증도 수면무호흡이 동반되면 텔로미어의 길이가 정상 수면을 하는 일반인의 경우에 비해 절반 정도도 안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분절 수면이 많아 수면이 불안정해지면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그로 인해 텔로미어의 길이도 짧아지게 된다는 것을 뜻한다.<br/><br/> 신 교수는 “<span class='quot0'>수면무호흡이 있을 때 체내에 생기는 유해산소가 염증 반응을 통해 텔로미어의 길이를 단축시키는 것으로 보인다</span>”며 “<span class='quot0'>수면무호흡 문제가 한 달 이상 지속될 때는 수면장애를 의심해 즉시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span>”고 말했다.<br/><br/> 연구결과는 수면무호흡 관련 국제 학술지 ‘슬립 앤드 브리씽(Sleep and Breathing)’ 최신호에 게재됐다.<br/><br/>이기수 의학전문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228.txt

제목: [암과의 동행] 직업성 암 인정 110건중 폐암이 67건 최다 산재보상은 건설·조선업 順  
날짜: 201503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31610016578052  
ID: 01100201.2015031610016578052  
카테고리: 경제>산업\_기업  
본문: 삼성전자가 반도체 관련 직업병 피해자 보상을 진행 중인 가운데 병의 발병원인과 근무환경의 연관성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최근 근무환경이 많이 개선되기는 했지만 이전에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해온 사람들은 다양한 발암인자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이들이 정부나 기업으로부터 산업재해로 인정받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많은 암들이 특성상 오랜 기간을 거쳐 진행되기 때문에 수년에서 십여년이 지난 지금에야 증상을 호소할 수 있고, 퇴사한 이후에 발병할 수도 있어 인과관계를 밝히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br/><br/> ‘통계로 본 암 현황(Cancer Facts & Figures 2014)’에 따르면 직업성 암은 대부분 호흡기계암·림프조혈계암·방광암·뇌종양 등이 많으며, 그 중에서도 호흡기계 암의 하나인 폐암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br/><br/>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1992년부터 2008년까지 진행한 역학조사에서 직업성 암으로 인정된 110건을 살펴보면 호흡기계 암이 7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중에서도 폐암이 67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외에 악성 중피종 13건, 백혈병 16건, 림프종 6건, 방광암 3건, 뇌종양 1건이었다. 근로복지공단의 2000년 이후 산재보험 자료에 의하면 2010년부터 직업성 암, 특히 호흡기 암으로 보상을 받는 근로자 수가 급증했다.<br/><br/> 산재보험 자료에 의하면 2000년부터 2009년 사이 직업성 암은 자동차제조업, 조선업, 철강, 화학산업 등 국가 주력산업에서 다수 발생했으며, 2010년 이후에는 반도체 산업에서도 직업성 암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대한직업환경의학회지(이원철 외)에 따르면 암이 발생해 산업재해보험에서 보상된 산업은 건설업이 1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조선업 11건 △기타 금속제품 제조 10건 △주물업 9건 △기계가공 8건 △철도 6건 △자동차제조업 5건 △고무제품제조 4건 △운수업 3건 등이었다. 직업별로는 주물공, 용접공이 16건으로 가장 높았고, △광부, 석공 14건 △광부, 건설근로자 5건 △엔지니어 3건 순이었다.<br/><br/> 국제암연구소(IARC) 2013년 자료에 따르면 ‘알루미늄생산’은 휘발성 코르타르 피치와 방향족 아민 등에 노출될 경우 폐와 방광암 위험이 있으며, ‘석탄가스화’와 ‘코크스생산’업은 PAH와 코르타르 등에 노출되면 폐암 위험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도장공’은 6가 크롬에 노출될 경우 폐·중피종·방광암 위험이 높아지고, ‘가구 캐비닛 생산’에서는 목분진에 노출되면 비강 관련 암의 위험이 높아진다.<br/><br/> 또 염료 제조시에 벤지딘·2나프틸아민·4아미노비페닐·o-톨루이딘 등에 노출되면 방광암 위험이 있고, 병원소독제제나 화학산업 종사자가 에틸렌옥사이드에 노출되면 백혈병과 림프종 위험이 커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r/><br/> 이외에도 항공·우주산업·전자산업에서 사용되는 ‘베릴륨’은 폐암의 위험을 높이고, ‘벤젠’은 석유화학·고무산업·제화산업·의약품 등에 많이 사용되는데 백혈병·림프종 위험을 높인다. 방사선치료시 ‘Iodine-131 등 방사성동위원소’에 일정량 이상 노출되면 감상선암을 유발할 수 있는데 X선이나 감마선의 경우도 전신암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뿐만 아니라 자외선과 태양광선에 많이 노출되는 실외 작업자는 피부 관련 암 위험이 크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br/><br/><br/>조민규 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229.txt

제목: [암과의 동행] 완도발 훈풍… 천연항암제 미역귀 수확 풍성  
날짜: 201503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31610016578474  
ID: 01100201.2015031610016578474  
카테고리: 경제>산업\_기업  
본문: 3월 완도의 봄 바다에는 웃음꽃이 가득하다. 지난겨울 혹한을 이기고 자라난 햇미역의 고운 자태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계절이기 때문. 미역은 쌀과 마찬가지로 1년에 한 번 수확하는데, 3월이 수확철이다. 10∼11월 미역의 포자를 발아시켜 이를 바다로 넣어주면 이듬해 3∼4월에 다 자란 미역을 수확할 수 있다. 지금이 바로 햇미역을 맛볼 수 있는 시기인 셈이다. 그런데 올해는 미역이 아닌 미역귀가 주인공이 된 듯한 분위기다. 최근 암환자들 사이에 미역귀가 암에 좋다는 소문이 퍼지며 관심이 늘었기 때문이다. 실제 건조 미역귀를 많이 생산하는 완도 금일읍 등에는 미역귀를 구매하려는 소비자들 문의가 부쩍 늘었다. 미역귀를 활용해 반찬류를 선보이는 업체들도 늘고 있다. 미역귀는 미역 포자가 방출되는 생식기관으로 수많은 생리활성 물질이 함유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중에서도 후코이단은 미역귀가 최고의 항암식품으로 등극할 수 있게 해준 일등 공신이다.<br/><br/> 이은선 해림후코이단 기업부설연구소장은 “<span class='quot0'>후코이단은 암세포를 자살로 유도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등 강력한 항암기능을 가지고 있어 전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바이오 소재</span>”라고 설명했다. 후코이단의 항암효과는 다양한 논문들을 통해 입증됐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암세포를 자살로 유도하는 아포토시스 유도기능 △종양의 성장을 억제하는 혈관신생 억제기능 △암의 전이를 억제하는 암세포의 혈소판 점착 억제기능 △면역력 증강기능 △방사선 치료 부작용 완화기능 등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br/><br/> 완도는 일찍부터 해조를 활용한 신소재 개발에 큰 관심을 보여 왔다. 대표적인 것이 2005년 해양수산부, 전라남도와 공동으로 진행한 ‘후코이단 산지가공공장 건립 지원 사업’이다. 당시 완도군은 국내산 미역귀를 활용해 고품질 후코이단을 생산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해 정부지원 30억원, 총사업비 50억원 규모의 국가지원 사업을 진행했다. 일본을 중심으로 급성장하고 있던 세계 후코이단 시장에 한국산 후코이단으로 도전장을 내민 셈이다. 완도군은 지원사업을 통해 후코이단 전문생산업체 해림후코이단 설립에 성공했다. 해림후코이단의 규모는 연간 후코이단 생산량 10톤, 생미역귀 기준 원료 소비량 2000톤에 달한다. 완도군 해조류 활용정책의 대표적인 성과물이다.<br/><br/> 이정식 해림후코이단 사장은 “<span class='quot1'>지난 10여년간 수입에 의존하던 국내 후코이단 시장이 국산제품 중심으로 완전히 재편됐으며, 수출도 점차 활성화되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1'>사실상 버려지다시피 하던 미역귀의 활용도를 높이고, 국내 해조산업의 부가가치를 상승시켰다는 점에서 후코이단의 의미가 작지 않을 것</span>”이라고 강조했다. <br/><br/><br/>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230.txt

제목: 소변 한 방울로 암 진단 가능해진다… 암 발병 여부 95% 적중시켜  
날짜: 2015031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31310016562881  
ID: 01100201.201503131001656288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소변 한 방울로 암 발병 여부를 판별할 수 있게 됐다. 일본 규슈대 히로츠 다카아키 박사팀이 체내에 기생하는 선충을 이용해 암 환자의 소변을 통한 암 발병 여부를 95% 확률로 진단하는 데 성공했다고 일본 지지통신 등이 12일 보도했다.<br/><br/> 연구팀은 암 환자 소변에서 특유의 냄새가 난다는 점에 착안해 항암치료를 받지 않은 암 환자 24명과 정상인 218명의 소변을 채취해 선충들이 비치된 실험접시에 한 방울씩 떨어뜨린 뒤 선충들의 행동을 관찰했다. 실험에 사용된 선충은 주로 위나 식도에 기생하는 아나사키스란 선충으로 몸길이는 1㎜ 정도에 불과하지만 개와 비슷한 수준의 후각을 가졌다.<br/><br/> 실험 결과는 극명했다. 선충은 암 환자 23명의 소변에는 가까이 모여든 반면, 정상인 207명의 소변에서는 달아나는 모습을 보였다. 암 환자 여부를 가리는 데 95%의 적중률을 보여준 것이다.<br/><br/> 아나사키스는 증식이 어렵지 않아 상용화되면 암 검진 과정이나 비용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 위암 식도암 췌장암 등 암 종류는 물론 진행정도에 관계없이 발병 여부를 판정했다는 점도 주목된다.<br/><br/> 히로츠 박사는 “<span class='quot0'>소변 한 방울만 검사기관에 보내면 암을 발견할 수 있다</span>”면서 “의료비 감소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구팀은 상용화될 경우 회당 1000엔(약 9300원)도 안 되는 가격에 약 1시간 반이면 결과를 받아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히타치제작소 등과 함께 진단장비를 개발하고 있으며, 2019년까지 상용화할 계획이다. 이 논문은 11일자 미국 학술지 ‘플로스원’에 게재됐다.<br/><br/>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231.txt

제목: 아산사회복지재단, 아산의학상 수상자에 박종완·이명식 교수  
날짜: 2015031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31010016521378  
ID: 01100201.2015031010016521378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아산사회복지재단은 ‘제8회 아산의학상’ 수상자로 박종완 서울의대 약리학교실 교수(기초의학부문)와 이명식 성균관의대 내과학교실 교수(임상의학 부문)를 각각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또 젊은의학자 부문 수상자로는 김형범 연세의대 교수와 박정열 서울아산병원 교수가 각각 선정됐다.<br/><br/> 재단에 따르면 박종완 교수는 산소가 부족한 환경에서의 세포 반응 연구를 통해 암의 성장 억제 인자를 밝힌 연구 업적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명식 교수는 세포의 자가포식 연구로 당뇨병의 원인을 규명하고, 근본적인 치료법을 제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br/><br/> 김형범 교수는 기존 유전자 가위의 부작용을 줄인 RNA유전자 가위 개발 성과가, 박정열 교수는 복강경 수술로 부인암 치료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새로운 치료 가이드라인을 구축한 공로가 각각 높게 평가됐다. 아산의학상은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이 기초·임상의학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이뤄낸 국내 의과학자를 격려하기 위해 2007년 제정했다. <br/><br/> 상금은 기초·임상 부문 수상자 각 3억원이며, 젊은의학자 부문 수상자는 5000만원씩이다. 시상식은 오는 19일 서울 용산구 소월로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릴 예정이다.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232.txt

제목: [신간] ‘알로에 면역혁명’ 전문가 연구성과 쉽게 해설… 알로에 놀라운 효능 재조명  
날짜: 2015022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22310016355336  
ID: 01100201.2015022310016355336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건강 관련 기자로 일하면서 천연물을 사용한 건강 관리법에 관심을 가져온 김경화씨가 알로에 면역다당체의 놀라운 효능을 소개하는 ‘알로에 면역혁명’이라는 책을 출간했다.<br/><br/> 저자는 알로에 신약 연구개발 프로젝트(CAP: Creation of Aloe Pharmaceutical)에서 몸담고 있는 전문가들의 연구 성과를 토대로, 이들의 최신 연구 결과를 소개하고 있다. CAP은 1993년 출범한 연구 조직으로 현재까지 14개 대학, 100여명의 교수와 연구진이 참가 총 150억원 이상의 연구비가 투자된 거대 프로젝트로 알로에의 효능을 과학적으로 규명하는 데 앞서왔다.<br/><br/> 저자는 웰니스 시대에 만성질환으로 달라진 질병 패턴에 주목하며 이에 대한 알로에 면역다당체의 주요 효능으로 △면역력 증강(암환자의 면역력을 높이고 대장암 발생을 억제하는 효능 연구) △체지방 감소 △당뇨 증세 개선(인슐린 저항성 개선 효과) △알레르기 예방과 치료에 도움(면역 체계를 안정화시키며 알레르기 유발 물질 분비를 막는 알로에 당단백)을 연구자들의 상세한 인터뷰와 함께 제시했다.<br/><br/> 김경화 작가는 “알로에는 과거 피부 건강과 장 건강에 좋은 천연식물로만 알려져 왔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알로에가 면역력 증강과 면역 조절 기능에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 책을 통해 알로에가 노화로 인한 감염성 질환은 물론, 대사성 증후군 같은 만성질환에도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고 알로에가 새롭게 재조명 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br/> 조규봉 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233.txt

제목: [신간] ‘알로에 면역혁명’ 전문가 연구성과 쉽게 해설… 알로에 놀라운 효능 재조명  
날짜: 2015022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223171322001  
ID: 01100201.20150223171322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건강 관련 기자로 일하면서 천연물을 사용한 건강 관리법에 관심을 가져온 김경화씨가 알로에 면역다당체의 놀라운 효능을 소개하는 ‘알로에 면역혁명’이라는 책을 출간했다. 저자는 알로에 신약 연구개발 프로젝트(CAP: Creation of Aloe Pharmaceutical)에서 몸담고 있는 전문가들의 연구 성과를 토대로, 이들의 최신 연구 결과를 소개하고 있다. CAP은 1993년 출범한 연구 조직으로 현재까지 14개 대학, 100여명의 교수와 연구진이 참가 총 150억원 이상의 연구비가 투자된 거대 프로젝트로 알로에의 효능을 과학적으로 규명하는 데 앞서왔다. 저자는 웰니스 시대에 만성질환으로 달라진 질병 패턴에 주목하며 이에 대한 알로에 면역다당체의 주요 효능으로 △면역력 증강(암환자의 면역력을 높이고 대장암 발생을 억제하는 효능 연구) △체지방 감소 △당뇨 증세 개선(인슐린 저항성 개선 효과) △알레르기 예방과 치료에 도움(면역 체계를 안정화시키며 알레르기 유발 물질 분비를 막는 알로에 당단백)을 연구자들의 상세한 인터뷰와 함께 제시했다. 김경화 작가는 “알로에는 과거 피부 건강과 장 건강에 좋은 천연식물로만 알려져 왔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알로에가 면역력 증강과 면역 조절 기능에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 책을 통해 알로에가 노화로 인한 감염성 질환은 물론, 대사성 증후군 같은 만성질환에도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고 알로에가 새롭게 재조명 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조규봉 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234.txt

제목: [인터뷰] 건강 챙겨주는 주스 카페 첫 개설… 휴롬 주스 카페 ‘휴롬팜’ 운영 박정률 대표  
날짜: 2015022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22310016355349  
ID: 01100201.2015022310016355349  
카테고리: 경제  
본문: 국내 대표적인 주서(juicer)기 제조업체 ‘휴롬’이 휴롬주스 카페 ‘휴롬팜’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며 본격적인 주스카페 시장을 열고 있다. 박정률 휴롬팜 대표를 만나 휴롬팜의 경영 철학과 주스 카페 산업의 비전을 들었다.<br/><br/><br/><br/>-휴롬이 주스 카페를 만들게 된 계기는?<br/><br/> △주서기 업체가 주스 카페를 만든 건 휴롬이 국내 최초다. 휴롬 제품의 가치를 알기 위해서는 휴롬으로 만든 주스를 마셔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또 우리가 만든 제품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건강’이라는 가치를 전달하고 싶었다. 제품의 우수성과 가치가 집약된 곳이 바로 휴롬 주스 카페 ‘휴롬팜’이다. 우리 주스를 더 많은 사람들이 접하게 하기 위해 휴롬팜을 열었고 국내 최초의 주스 바가 됐다. 휴롬팜을 시작으로 다양한 주스 바가 많이 생겨나면서 주스에 대한 인식도 기존 인스턴트 음료에서 건강한 음료로 바뀌었다고 생각한다.<br/><br/> -휴롬팜이 다른 주스 바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br/><br/> △주스의 맛, 영양, 건강 세 가지의 밸런스를 맞추는 노하우다. 휴롬주스는 메뉴가 정말 다양하다. 3가지 요소의 가장 이상적 조합을 찾아 끊임없이 신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br/><br/> 이렇게 맛과 영양을 최적화시킨 다양한 메뉴가 가능한 이유는 휴롬의 영양분석실에서 연구 개발을 지속하며 휴롬팜을 4년간 운영, 100% 홈메이드 주스를 만들 수 있는 노하우를 축적했기 때문이다. 어떠한 첨가물도 일체 넣지 않고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즉석에서 착즙해 자연에 가장 가까운 맛과 영양을 고루 갖췄다는 점 또한 특징이다.<br/><br/> 주스는 12시간 안에 마셔야 가장 신선한 맛과 영양을 챙길 수 있다. 휴롬이 12시간 유통법칙을 고수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br/><br/> -12시간 유통법칙을 고수하기 쉽지 않을 것 같다.<br/><br/> △12시간 유통법칙은 휴롬 만의 약속이다. 보존료나 첨가료를 일절 넣지 않아 냉장 시 최대 48시간까지 보관이 가능하다. 그러나 채소, 과일은 시간이 지날수록 산화과정을 거쳐 색이 변하고 영양소 파괴가 이뤄지기 때문에 빨리 마실수록 더 신선한 자연 효소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다. 휴롬은 주스가 완성되면 하단에 파이토스(Phytos, 과일·채소 전문가로 6개월의 전문 교육과정과 평가를 거쳐 선발된다)의 이름과 날짜, 시간을 수기로 기입하고 12시간 후 전량 폐기한다.<br/><br/> -최근 ‘클렌즈 프로그램’을 출시했다.<br/><br/> △휴롬 클렌즈 프로그램은 휴롬팜에서 오랫동안 준비해온 장기 프로젝트다. 암 발생 원인 1위는 식습관이라는 데서도 알 수 있듯, 음식은 인간의 건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다. 휴롬은 그동안 체내의 영양 밸런스를 맞춰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건강주스를 연구해왔다. 그 결과물이 클렌즈 프로그램이다. <br/><br/> 색깔별로 다른 영양소를 가진 채소와 과일의 파이토케미컬(phytochemical, 식물을 뜻하는 파이토(phyto), 화학물질을 의미하는 케미컬(chemical)의 합성어로 과일과 채소에 함유된 천연 생체 활성화합물질)을 고루 섭취할 수 있도록 대표 색깔을 5가지로 나눈 뒤, 영양학적 균형을 고려해 하루에 필요한 영양소를 5병의 주스에 담았다.<br/><br/> 개인의 체질에 맞는 메뉴, 하루에 필요한 영양소 섭취, 생체 리듬에 따른 음용시간 등을 고려해 영양학적 밸런스를 맞출 수 있도록 설계했고, 전문 영양 컨설턴트와의 상담을 통해 체질에 맞게 주스도 선택할 수 있다.<br/><br/> -해외 시장 전망은 어떤가?<br/><br/> △작년에 베트남 하노이에 매장을 오픈한 것을 시작으로 현재 베트남, 방콕, 미국, 유럽 등에서 휴롬주스를 찾는 고객이 늘고 있다.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을 베트남에서 이미 완료했고 다른 국가들도 발 빠르게 준비 중이다. 특히 중국 시장에서의 성장 속도가 빠르다. 휴롬주스를 통해 해를 거듭할수록 전 세계 소비자에게 건강의 가치를 증명하고 있다고 확신한다.<br/><br/> -휴롬 브랜드로 ‘시장을 이렇게 바꾸겠다’하는 목표가 있다면?<br/><br/> △현대인에게는 다양한 식습관이 존재한다. 또 그로 인해 다양한 먹거리와 브랜드가 공존한다. 휴롬은 그 중에서도 올바른 먹거리와 식문화를 만들어 가고자 한다. 소비자들은 먹거리에 대해 다양한 콘텐츠를 접하면서 정보력을 키운다. 때문에 채소, 과일의 가치를 좀더 정직하게 알리고 식습관을 올바르게 만들어가는 시장의 리더가 되고 싶다.<br/><br/>김진환 쿠키뉴스 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235.txt

제목: [인터뷰] 건강 챙겨주는 주스 카페 첫 개설… 휴롬 주스 카페 ‘휴롬팜’ 운영 박정률 대표  
날짜: 2015022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223171331001  
ID: 01100201.20150223171331001  
카테고리: IT\_과학>IT\_과학일반  
본문: 국내 대표적인 주서(juicer)기 제조업체 ‘휴롬’이 휴롬주스 카페 ‘휴롬팜’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며 본격적인 주스카페 시장을 열고 있다. 박정률 휴롬팜 대표를 만나 휴롬팜의 경영 철학과 주스 카페 산업의 비전을 들었다.-휴롬이 주스 카페를 만들게 된 계기는? △주서기 업체가 주스 카페를 만든 건 휴롬이 국내 최초다. 휴롬 제품의 가치를 알기 위해서는 휴롬으로 만든 주스를 마셔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또 우리가 만든 제품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건강’이라는 가치를 전달하고 싶었다. 제품의 우수성과 가치가 집약된 곳이 바로 휴롬 주스 카페 ‘휴롬팜’이다. 우리 주스를 더 많은 사람들이 접하게 하기 위해 휴롬팜을 열었고 국내 최초의 주스 바가 됐다. 휴롬팜을 시작으로 다양한 주스 바가 많이 생겨나면서 주스에 대한 인식도 기존 인스턴트 음료에서 건강한 음료로 바뀌었다고 생각한다. -휴롬팜이 다른 주스 바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 △주스의 맛, 영양, 건강 세 가지의 밸런스를 맞추는 노하우다. 휴롬주스는 메뉴가 정말 다양하다. 3가지 요소의 가장 이상적 조합을 찾아 끊임없이 신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이렇게 맛과 영양을 최적화시킨 다양한 메뉴가 가능한 이유는 휴롬의 영양분석실에서 연구 개발을 지속하며 휴롬팜을 4년간 운영, 100% 홈메이드 주스를 만들 수 있는 노하우를 축적했기 때문이다. 어떠한 첨가물도 일체 넣지 않고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즉석에서 착즙해 자연에 가장 가까운 맛과 영양을 고루 갖췄다는 점 또한 특징이다. 주스는 12시간 안에 마셔야 가장 신선한 맛과 영양을 챙길 수 있다. 휴롬이 12시간 유통법칙을 고수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12시간 유통법칙을 고수하기 쉽지 않을 것 같다. △12시간 유통법칙은 휴롬 만의 약속이다. 보존료나 첨가료를 일절 넣지 않아 냉장 시 최대 48시간까지 보관이 가능하다. 그러나 채소, 과일은 시간이 지날수록 산화과정을 거쳐 색이 변하고 영양소 파괴가 이뤄지기 때문에 빨리 마실수록 더 신선한 자연 효소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다. 휴롬은 주스가 완성되면 하단에 파이토스(Phytos, 과일·채소 전문가로 6개월의 전문 교육과정과 평가를 거쳐 선발된다)의 이름과 날짜, 시간을 수기로 기입하고 12시간 후 전량 폐기한다. -최근 ‘클렌즈 프로그램’을 출시했다. △휴롬 클렌즈 프로그램은 휴롬팜에서 오랫동안 준비해온 장기 프로젝트다. 암 발생 원인 1위는 식습관이라는 데서도 알 수 있듯, 음식은 인간의 건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다. 휴롬은 그동안 체내의 영양 밸런스를 맞춰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건강주스를 연구해왔다. 그 결과물이 클렌즈 프로그램이다. 색깔별로 다른 영양소를 가진 채소와 과일의 파이토케미컬(phytochemical, 식물을 뜻하는 파이토(phyto), 화학물질을 의미하는 케미컬(chemical)의 합성어로 과일과 채소에 함유된 천연 생체 활성화합물질)을 고루 섭취할 수 있도록 대표 색깔을 5가지로 나눈 뒤, 영양학적 균형을 고려해 하루에 필요한 영양소를 5병의 주스에 담았다. 개인의 체질에 맞는 메뉴, 하루에 필요한 영양소 섭취, 생체 리듬에 따른 음용시간 등을 고려해 영양학적 밸런스를 맞출 수 있도록 설계했고, 전문 영양 컨설턴트와의 상담을 통해 체질에 맞게 주스도 선택할 수 있다. -해외 시장 전망은 어떤가? △작년에 베트남 하노이에 매장을 오픈한 것을 시작으로 현재 베트남, 방콕, 미국, 유럽 등에서 휴롬주스를 찾는 고객이 늘고 있다.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을 베트남에서 이미 완료했고 다른 국가들도 발 빠르게 준비 중이다. 특히 중국 시장에서의 성장 속도가 빠르다. 휴롬주스를 통해 해를 거듭할수록 전 세계 소비자에게 건강의 가치를 증명하고 있다고 확신한다. -휴롬 브랜드로 ‘시장을 이렇게 바꾸겠다’하는 목표가 있다면? △현대인에게는 다양한 식습관이 존재한다. 또 그로 인해 다양한 먹거리와 브랜드가 공존한다. 휴롬은 그 중에서도 올바른 먹거리와 식문화를 만들어 가고자 한다. 소비자들은 먹거리에 대해 다양한 콘텐츠를 접하면서 정보력을 키운다. 때문에 채소, 과일의 가치를 좀더 정직하게 알리고 식습관을 올바르게 만들어가는 시장의 리더가 되고 싶다.김진환 쿠키뉴스 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236.txt

제목: [명의&인의를 찾아서-주목! 이 클리닉] ① 서울대암병원  
날짜: 201502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21710016333980  
ID: 01100201.2015021710016333980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전문병원, 전문센터 전성시대다.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병원만 해도 111개에 이르고, 대학병원들은 경쟁적으로 전문센터를 설립하고 있다. 진료과를 못 찾아 병원을 헤매는 환자를 위한 안내 서비스는 물론 진료 대기 중 지루함을 덜어 주기 위해 복도에 좋은 그림을 전시하는 병원도 있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언제든지 믿고 찾을 수 있는 병원(의사)을 '명의&인의를 찾아서 주목! 이 클리닉'이란 제목으로 연재한다. 첫 회는 최근 혈액종양내과 김태유(54) 교수를 새 병원장으로 선임한 서울대암병원이다.<br/><br/>서울대암병원이 개원 4년차를 맞아 맞춤형 암 진료 시스템을 도입하고 임상연구 및 IT기술을 활용해 누구든지 편하게 믿고 선택하는 암 환자 친화 병원으로 제2의 도약에 나설 것을 선언했다.<br/><br/> 김태유 서울대암병원장은 16일 “<span class='quot0'>암 정복의 길을 창조하는 연구중심병원, 암 진료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병원, 암 관련 보건의료정책을 선도하는 국가중앙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span>”고 포부를 밝혔다. 김 원장은 노동영(59) 초대 원장으로부터 지난 1일 바통을 넘겨받았다.<br/><br/> 창경궁 쪽 도로변에 자리잡은 서울대암병원은 지상 6층, 지하 4층짜리 병동으로, 별관의 소아암병상까지 합쳐도 202병상 규모다. 지상 15층 지하 7층 454병상의 연세암병원, 지상 11층 지하 8층 652병상의 삼성서울암병원, 지상 13층 지하1층 712병상의 서울아산병원 암센터 등과 비교하면 몸집이 약 3분의1 수준밖에 안 된다.<br/><br/> 하지만 서울대암병원 의료진은 진료 능력만큼은 결코 이들 병원들에 뒤지지 않는다고 자부한다.<br/><br/> 서울대암병원은 독립적으로 대규모 암 병동을 운영하는 연세암병원 등과 달리 서울대병원 본원 시설을 유기적으로 활용하는 시스템이다. 상대적으로 입원실이 적은 암병원은 암 환자에게 시급한 ‘단기입원·외래진료’를 위주로 개방하고, 수술 및 장기 입원 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는 본원의 시설을 이용케 하는 것이다.<br/><br/> 궁여지책인 듯싶지만 효과는 최상이다. 김 원장은 이를 “<span class='quot0'>서울대병원의 진료능력과 암 환자만을 위한 전문공간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암 치료의 시너지 효과를 추구하는 체제</span>”라고 자랑했다.<br/><br/> 실제 서울대암병원은 최근 3년 동안 외래환자가 48%, 입원 환자는 83%, 수입은 107%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2011년 24만8349명에 그쳤던 외래환자 수는 지난해 157만8586명에 달했다. 이에 따라 진료 수입도 2011년 약 446억원에서 지난해 약 3269억원으로 늘었다.<br/><br/> 김 원장은 “<span class='quot0'>철저한 ‘센터 중심 협진 시스템’과 선진국들과 같이 단기입원 낮 병동 체제를 정착시킨 덕분에 이룬 성과</span>”라고 밝혔다. <br/><br/> 서울대암병원에는 암 종류별로 16개 진료센터와 9개 통합암센터, 암정보교육센터, 종양임상시험센터 등 총 28개 센터가 있다.<br/><br/> 이들 각 센터의 진료 프로세스는 모두 ‘당일 진료, 당일 검사’에 맞춰져 있다. 이른바 ‘스피드 암 진료’다. 전체 202병상 중 최장 3박4일간 입원하는 단기 병동에 48개, 입원할 필요가 없는 환자를 위한 항암 낮 병동에 43개, 주사치료실에 39개, 종양임상시험센터에 30개 병상이 배정돼 있다. 나머지 42병상은 소아암 환자들을 위한 별관 병동에 배치돼 있는데, 이 역시 단기입원 위주로 운영한다.<br/><br/> 본격적인 암 치료 단계에 들어가면, 서울대암병원은 다른 병원이 감히 따라오지 못하는 임상경험과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한 암 치료 능력이 한층 빛을 발하게 된다.<br/><br/> 우리나라에서 발생빈도가 높은 간암과 위암 치료쪽에선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다. 1996년에는 악성 및 양성간 종양을 정확하게 감별해내는 방법을 세계 최초로 개발, 주목을 받기도 했다.<br/><br/> 김 원장은 “<span class='quot0'>간암 환자가 입원하지 않고 시술받은 뒤 당일 귀가하는 간동맥색전술 시술 능력은 전 세계 어떤 암센터와 견줘도 뒤지지 않는다</span>”며 “<span class='quot0'>앞으로 근거 중심 임상진료를 더욱 확충해 나갈 계획</span>”이라고 말했다.<br/><br/> 임상진료에 활용되지 않고, 오로지 연구만을 위한 연구는 의미가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료진의 연구 성과는 어떻게든 신(新)의료기술로 등록, 암 진단 및 치료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br/><br/> 현재 김 원장이 연구 중인 개인 맞춤형 유전체 검사와 암유전자 선별 피검사법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들 연구가 완성되면 암에 걸릴 위험을 미리 예측, 예방할 수 있게 되고, 피 한 방울로 대장암 등의 발병 위험을 알 수도 있게 된다.<br/><br/> 서울대암병원이 내세우는 또 다른 강점은 역시 세계 최고 수준의 항암제 임상시험 능력이다. 2011년 163건의 신약 임상시험을 수행한 데 이어 2012년 181건, 2013년 212건, 지난해 257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br/><br/> 이는 그만큼 서울대암병원 의료진의 임상연구 능력이 세계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뜻이다. 이때문에 서울대암병원을 찾는 환자는 임상시험에 참여해 상업화 직전 단계의 최신 항암제를 누구보다 빨리 사용해볼 수 있는 혜택을 누리게 된다.<br/><br/>이기수 의학전문기자 kslee@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237.txt

제목: 스웨덴 연구팀, 인공태양 개발… 밤에도 일광욕?  
날짜: 201502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21710016334322  
ID: 01100201.2015021710016334322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실내생활을 주로 하는 현대인들은 햇빛에 노출될 시간이 적은 것이 문제다. 일정량의 햇빛을 쬐지 않을 경우 우울증, 수면장애, 비만, 심지어는 암에 걸릴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과학자들은 경고한다.<br/><br/> 이런 상황에서 스웨덴 룬드대 토르뵈른 라이케(사진)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이 실내에서도 태양광과 같은 효능을 인체에 줄 수 있는 ‘인공태양’을 선보여 화제가 되고 있다고 영국 BBC방송 등이 15일(현지시간) 전했다.<br/><br/> 이 인공태양은 청색 계열의 밝은 빛을 모아놓은 것으로 인체에는 실제 태양 노출과 비슷한 효과를 준다고 BBC는 설명했다. 연구팀은 이 인공태양 기술을 활용해 ‘데이지메터(Daysimeter)’란 장비를 개발 중이다. 이 장비는 인체가 햇빛에 얼마나 노출됐는지 측정하고 부족한 만큼 보충해주는 역할을 한다. 장비가 개발되면 야간 근무 등으로 낮에 햇빛을 충분히 접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br/><br/> 라이케 교수가 이 연구에 뛰어든 것은 북반구 중에서도 고위도 지역에 속해 겨울철에 유난히 일조량이 적은 스웨덴의 지리적 특성 때문이다. 연구팀에 따르면 스웨덴에서는 겨울철에 유난히 피로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다. 인체는 수면과 기상에 대한 일정한 흐름을 유지하는데 이 기준이 빛에 대한 노출이다. 때문에 적절한 양의 빛을 받지 못하면 수면장애가 오고 피로가 쌓이게 돼 건강을 해치게 된다는 것이다.<br/><br/>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238.txt

제목: [명의&인의를 찾아서-주목! 이 클리닉] ① 서울대암병원  
날짜: 201502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217171003001  
ID: 01100201.20150217171003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전문병원, 전문센터 전성시대다.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병원만 해도 111개에 이르고, 대학병원들은 경쟁적으로 전문센터를 설립하고 있다. 진료과를 못 찾아 병원을 헤매는 환자를 위한 안내 서비스는 물론 진료 대기 중 지루함을 덜어 주기 위해 복도에 좋은 그림을 전시하는 병원도 있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언제든지 믿고 찾을 수 있는 병원(의사)을 '명의&인의를 찾아서 주목! 이 클리닉'이란 제목으로 연재한다. 첫 회는 최근 혈액종양내과 김태유(54) 교수를 새 병원장으로 선임한 서울대암병원이다.서울대암병원이 개원 4년차를 맞아 맞춤형 암 진료 시스템을 도입하고 임상연구 및 IT기술을 활용해 누구든지 편하게 믿고 선택하는 암 환자 친화 병원으로 제2의 도약에 나설 것을 선언했다. 김태유 서울대암병원장은 16일 “<span class='quot0'>암 정복의 길을 창조하는 연구중심병원, 암 진료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병원, 암 관련 보건의료정책을 선도하는 국가중앙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span>”고 포부를 밝혔다. 김 원장은 노동영(59) 초대 원장으로부터 지난 1일 바통을 넘겨받았다. 창경궁 쪽 도로변에 자리잡은 서울대암병원은 지상 6층, 지하 4층짜리 병동으로, 별관의 소아암병상까지 합쳐도 202병상 규모다. 지상 15층 지하 7층 454병상의 연세암병원, 지상 11층 지하 8층 652병상의 삼성서울암병원, 지상 13층 지하1층 712병상의 서울아산병원 암센터 등과 비교하면 몸집이 약 3분의1 수준밖에 안 된다. 하지만 서울대암병원 의료진은 진료 능력만큼은 결코 이들 병원들에 뒤지지 않는다고 자부한다. 서울대암병원은 독립적으로 대규모 암 병동을 운영하는 연세암병원 등과 달리 서울대병원 본원 시설을 유기적으로 활용하는 시스템이다. 상대적으로 입원실이 적은 암병원은 암 환자에게 시급한 ‘단기입원·외래진료’를 위주로 개방하고, 수술 및 장기 입원 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는 본원의 시설을 이용케 하는 것이다. 궁여지책인 듯싶지만 효과는 최상이다. 김 원장은 이를 “<span class='quot0'>서울대병원의 진료능력과 암 환자만을 위한 전문공간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암 치료의 시너지 효과를 추구하는 체제</span>”라고 자랑했다. 실제 서울대암병원은 최근 3년 동안 외래환자가 48%, 입원 환자는 83%, 수입은 107%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2011년 24만8349명에 그쳤던 외래환자 수는 지난해 157만8586명에 달했다. 이에 따라 진료 수입도 2011년 약 446억원에서 지난해 약 3269억원으로 늘었다. 김 원장은 “<span class='quot0'>철저한 ‘센터 중심 협진 시스템’과 선진국들과 같이 단기입원 낮 병동 체제를 정착시킨 덕분에 이룬 성과</span>”라고 밝혔다. 서울대암병원에는 암 종류별로 16개 진료센터와 9개 통합암센터, 암정보교육센터, 종양임상시험센터 등 총 28개 센터가 있다. 이들 각 센터의 진료 프로세스는 모두 ‘당일 진료, 당일 검사’에 맞춰져 있다. 이른바 ‘스피드 암 진료’다. 전체 202병상 중 최장 3박4일간 입원하는 단기 병동에 48개, 입원할 필요가 없는 환자를 위한 항암 낮 병동에 43개, 주사치료실에 39개, 종양임상시험센터에 30개 병상이 배정돼 있다. 나머지 42병상은 소아암 환자들을 위한 별관 병동에 배치돼 있는데, 이 역시 단기입원 위주로 운영한다. 본격적인 암 치료 단계에 들어가면, 서울대암병원은 다른 병원이 감히 따라오지 못하는 임상경험과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한 암 치료 능력이 한층 빛을 발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 발생빈도가 높은 간암과 위암 치료쪽에선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다. 1996년에는 악성 및 양성간 종양을 정확하게 감별해내는 방법을 세계 최초로 개발, 주목을 받기도 했다. 김 원장은 “<span class='quot0'>간암 환자가 입원하지 않고 시술받은 뒤 당일 귀가하는 간동맥색전술 시술 능력은 전 세계 어떤 암센터와 견줘도 뒤지지 않는다</span>”며 “<span class='quot0'>앞으로 근거 중심 임상진료를 더욱 확충해 나갈 계획</span>”이라고 말했다. 임상진료에 활용되지 않고, 오로지 연구만을 위한 연구는 의미가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료진의 연구 성과는 어떻게든 신(新)의료기술로 등록, 암 진단 및 치료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김 원장이 연구 중인 개인 맞춤형 유전체 검사와 암유전자 선별 피검사법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들 연구가 완성되면 암에 걸릴 위험을 미리 예측, 예방할 수 있게 되고, 피 한 방울로 대장암 등의 발병 위험을 알 수도 있게 된다. 서울대암병원이 내세우는 또 다른 강점은 역시 세계 최고 수준의 항암제 임상시험 능력이다. 2011년 163건의 신약 임상시험을 수행한 데 이어 2012년 181건, 2013년 212건, 지난해 257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이는 그만큼 서울대암병원 의료진의 임상연구 능력이 세계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뜻이다. 이때문에 서울대암병원을 찾는 환자는 임상시험에 참여해 상업화 직전 단계의 최신 항암제를 누구보다 빨리 사용해볼 수 있는 혜택을 누리게 된다.이기수 의학전문기자 kslee@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239.txt

제목: 스웨덴 연구팀, 인공태양 개발… 밤에도 일광욕?  
날짜: 201502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217171050002  
ID: 01100201.20150217171050002  
카테고리: IT\_과학>IT\_과학일반  
본문: 실내생활을 주로 하는 현대인들은 햇빛에 노출될 시간이 적은 것이 문제다. 일정량의 햇빛을 쬐지 않을 경우 우울증, 수면장애, 비만, 심지어는 암에 걸릴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과학자들은 경고한다. 이런 상황에서 스웨덴 룬드대 토르뵈른 라이케(사진)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이 실내에서도 태양광과 같은 효능을 인체에 줄 수 있는 ‘인공태양’을 선보여 화제가 되고 있다고 영국 BBC방송 등이 15일(현지시간) 전했다. 이 인공태양은 청색 계열의 밝은 빛을 모아놓은 것으로 인체에는 실제 태양 노출과 비슷한 효과를 준다고 BBC는 설명했다. 연구팀은 이 인공태양 기술을 활용해 ‘데이지메터(Daysimeter)’란 장비를 개발 중이다. 이 장비는 인체가 햇빛에 얼마나 노출됐는지 측정하고 부족한 만큼 보충해주는 역할을 한다. 장비가 개발되면 야간 근무 등으로 낮에 햇빛을 충분히 접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라이케 교수가 이 연구에 뛰어든 것은 북반구 중에서도 고위도 지역에 속해 겨울철에 유난히 일조량이 적은 스웨덴의 지리적 특성 때문이다. 연구팀에 따르면 스웨덴에서는 겨울철에 유난히 피로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다. 인체는 수면과 기상에 대한 일정한 흐름을 유지하는데 이 기준이 빛에 대한 노출이다. 때문에 적절한 양의 빛을 받지 못하면 수면장애가 오고 피로가 쌓이게 돼 건강을 해치게 된다는 것이다.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240.txt

제목: [암과의 동행] “표적치료제 중심 탈피 면역조절 항암제시대 도래”  
날짜: 201502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21610016317340  
ID: 01100201.2015021610016317340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현재까지 나와 있는 항암제는 특정 부위에 발현한 종양을 사멸시키는 표적치료제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암 치료의 면역체계가 표적이 되는 시대로 전환되고 있습니다.”<br/><br/> 대한소화기암학회가 주최하는 제2회 국제심포지엄에 참석하고자 방한을 한 구스타프 가우더넥(사진) 노르웨이 오슬로 라디움 대학병원 교수는 “<span class='quot0'>이제는 면역 기능을 활성화 해 암세포를 사멸시키는 면역 조절 항암제 시대에 도래했다</span>”며 “<span class='quot0'>제약사들도 면역체계를 활용한 항암제 개발을 중요 과제로 삼고 있다</span>”고 강조했다. <br/><br/> 최근 암치료를 위한 면역치료가 세간의 관심을 받고 있다. 현재 미국 등 전 세계에서 개발 중인 항암제 제품 중 100여개의 제품이 암과 관련한 백신으로, 면역치료가 암치료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br/><br/> 그는 면역세포를 활성화해 암을 사멸시키는 항암치료 백신 GV1001을 개발한 장본인이다. GV1001은 바이오기업 젬백스가 보유한 췌장암 치료 백신이다. 1989년부터 가우더넥 교수는 ‘인간의 노화는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가설로 해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암세포에 특이적으로 과다 발현되는 텔로머라아제 효소를 발견하게 됐고 많은 시간을 소요해 백신을 개발하게 됐다. <br/><br/> 가우더넥 교수는 GV1001의 작용 기전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GV1001은 암세포에서 과다 발현되는 텔로머라제(hTERT)에서 유래된 펩타이드로 다양한 암 질환에 적용 가능한 범용적인 항암 백신이다. 텔로머라제는 세포의 무한증식을 막는 텔로미어를 유지시켜 세포 분열이 이뤄지게 만드는 물질”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GV1001은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췌장암 치료제 신약으로 허가를 받은 바 있다. 그는 “<span class='quot0'>GV1001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충분히 입증된 치료제</span>”라고 말했다.<br/><br/> GV1001은 지난 2000년도부터 10여개가 넘는 임상시험(1∼3상)을 미국, 영국, 프랑스를 포함한 전 세계 12개 국가에서 진행했다. 2006년 미국FDA와 유럽 EMA에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됐다. 이 치료제는 췌장암 환자의 자기 면역을 극대화 시켜 암세포를 파괴하고, 기존 화학치료제와 병용 투약 시 암환자의 생존기간을 연장 시키는 항암 치료제다. <br/><br/> 하지만 젬백스는 영국에서 실시한 임상시험에서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한 효과가 뚜렷하다는 것을 입증하지는 못했다. 바이오마커인 이오탁신이라는 특정 생체지표가 높은 대상 환자에서 생존일이 연장됐다는 것이 입증됐다. 가우더넥 교수는 “<span class='quot0'>GV1001은 췌장암을 비롯한 다양한 암에서 실시한 임상시험에서도 부작용이 발견되지 않았다</span>”며 “<span class='quot0'>이오탁신 수치는 GV1001을 투여할 경우 생존기간 연장을 예측하는 지표가 될 수 있다</span>”고 말했다. 이어 그는 “<span class='quot0'>이 백신의 안정성이 입증돼 현재 진행하는 전립선암, 비소세포폐암, 흑색종에 대한 추가 적응증의 가능성이 높아졌다</span>”고 덧붙였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241.txt

제목: 암환자 임상시험 정보 어떻게 얻나  
날짜: 201502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21610016317288  
ID: 01100201.2015021610016317288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임상시험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서울의 한 대형병원을 찾았다. ‘시험’이 주는 불확실성 때문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했던 임상시험은 신약을 만나는 유일한 통로로 인식되며 암환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더 이상 기존 방법의 치료효과가 없는 경우 더욱 그러하다. 그렇다면 암환자는 임상시험 정보를 어디서, 어떻게 접하는 것일까. 이를 보여주는 국가적 차원의 통계는 없다. 다만 국내 암 전문가들은 세 가지 경우를 꼽았다. 일단 주치의로부터 제안을 받게 되는 경우다. 혈액종양내과 의료진 가운데 새로운 항암제를 연구 중인 경우 이를 자신의 환자에게 제안해볼 수 있다. 위암환우회 회장 심순복씨도 이 같은 경우였다. 심씨는 “첫 암진단을 받을 때부터 상황이 좋지 않았다. 거의 포기할 때쯤 병원을 옮겨 찾아간 곳에서 임상시험을 권유받았다. 막연한 두려움도 있었지만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다’는 주치의의 말을 믿고 참여했다”고 말했다.<br/><br/> 두 번째는 환우회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경우다. 일단 회원수가 많은 환우회는 그 안에서 정보 교류가 활발하다. 또한 특정 대형병원에서 만들어진 환우회일수록 간호사가 임원인 경우가 많아 임상시험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다. S병원 임상연구간호사는 “신약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효능비교 임상시험에 참여할 때 자신이 가짜약 군(group)에 속할까봐 오히려 걱정하는 환자들이 있다. 제비뽑기를 통해 결정되는데, 자신이 임상신약 군에 뽑힐 수 있도록 알려달라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br/><br/> 마지막으로 대형병원에서 임상시험 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경우다. 환자들은 이곳에서 임상시험의 종류와 시험기간, 의료혜택 여부 등을 알 수 있다. 일일이 물어보며 발품 파는 수고를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 임상시험을 대하는 환자들의 적극적인 태도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A병원의 혈액종양내과 교수는 “임상시험이 지나치게 미화되어서 환상을 갖고 참여했다가 효과가 없어 크게 실망하는 바람에 오히려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많다. 환상 속 신기루 같은 이미지는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br/><br/> 국내 임상시험 수준은 수많은 시행착오 단계를 지나 안정기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임상시험센터를 갖춘 대형병원에서는 피험자보호센터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 피험자보호센터는 병원 내에서 이뤄지는 임상연구가 윤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되는지 심의함으로써 연구에 참여하는 피험자를 보호하는 기관이다. 이와 비슷한 성격을 지닌 기관윤리생명심의위원회(IRB)에서는 연구자로부터 제출받은 임상연구계획서를 검토한 뒤 부작용이 우려되는 임상연구에 대해서는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 임상시험 중인 한 교수는 “비윤리적인 실험문제는 더 이상 거론되지 않는다. 그만큼 윤리적인 부분은 해소가 되었다고 본다. 임상시험에 대한 환자의 이해도나 의료진의 이해도가 높아진 덕”이라고 말했다. 김단비 기자 kubee08@kukimedia.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242.txt

제목: [건강 나침반] 치아 신경치료 인한 암 유발 막으려면  
날짜: 201502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21610016317351  
ID: 01100201.201502161001631735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우리 몸의 세포는 일정한 삶의 주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멸과 재생이 반복된다. 재생 과정에서 노화된 세포는 스스로 죽어 주변 세포에 의해 흡수된다. 피부 세포는 노화되면 각질이 되거나 때가 되어 떨어져 나간다. 뼈세포의 경우 복잡한 파괴와 재생 과정을 겪게 되는데 충격적인 사실은 감염과 염증 같은 비정상적인 원인에 의해 파괴와 재생이 일어날 경우 다양한 원인과 경로 그리고 주변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암으로 발전한다는 점이다.<br/><br/> 치아는 뼈와 같은 성분으로 구성돼 있으나 뼈와 달리 파괴와 재생이 잘 되지 않는 구조여서 평생 동안 사용한다. 그래서 정상적인 경우는 물론이고 감염과 같은 비정상적인 경우에도 파괴 시스템으로부터 치아를 보호해야 하는데 이 역할을 담당하는 세포가 바로 상아질모세포이다.<br/><br/> 상아질모세포는 치아 내부의 신경과 치아 사이의 경계면에 배열돼 있는 세포로서 치아를 통해 세균이 침입할 때, 처음 만나는 세포이고 선천적 면역 활동을 조절하는 치아 내부의 피부와 같은 역할을 하는 세포이다. 충치가 생기거나 치아가 마모됐을 때 시린 것을 느끼는 것도 상아질 모세포 돌기가 일차적으로 담당한다. 상아질 모세포는 평소에 상아세관을 통한 세균의 침투를 막으며 충치가 발생하면 균이 우리 몸에 침입하지 못하도록 장벽을 형성하기도 하는 중요한 세포이다. 하지만 충치가 심해지면 상아질모세포는 사망하게 된다.<br/><br/> 상아질모세포가 사망하면 치아 내부의 신경이 들어있는 근관(뿌리내부구멍)에 감염이 무차별로 진행되며 치아 내부의 세포들은 괴사돼 버린다. 이때 치과에서 시행되는 가장 일반적인 치료가 근관치료(신경치료)이다.<br/><br/> 근관치료의 실패율은 최대 15%에 달하고 증상 없이 잘 사용하고 있다고 해도 근관치료가 된 치아의 대부분은 상아질 모세포가 살아 있는 자연치아와는 달리 구조상 세균을 완전히 제거하기가 거의 불가능해 세균이 서식하기 좋으며, 장기적인 감염의 요충지로 작용한다.<br/><br/> 또 상아질모세포가 담당하던 면역 조절기능이 사라져 우리 몸의 면역세포들로부터 치아가 비자기화 물질(이물질)로 판단돼 수지상세포 등에 의한 파괴와 재생 시스템이 가동되게 된다.<br/><br/> 치아손상, 현성감염, 만성적인 불현성감염(증상이 없는 감염), 면역세포들의 인식과 낮은 상태의 만성염증 등이 우리 몸의 전신반응을 유발하게 된다.<br/><br/> 감염에 의한 암 발생 과정과 후생학적 관점에서의 히스톤단백질의 변형, 그리고 뼈단백질 생성 등이 근관치료와 관련돼 암을 유발하고 발전시키는 대표적인 과정이다. 근관치료가 된 치아와 주변 턱뼈에서 발생되는 뼈 단백질인 오스테오폰틴, 상아질기질단백질, 뼈시알로단백질, 상아질 시알로단백질, 기질외인산당단백질 등이 암의 발생과 확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부상되고 있다.<br/><br/> 오스테오폰틴은 대장암 유방암 위암 췌장암 폐암 전립선암 간암 난소암 자궁암 등의 발생 침습 진행 전이와 관련돼 있다. 뼈 단백질들은 암세포의 사멸 방해, 증식 접착, 이동, 기질 파괴, 침투, 대식세포 활성화 및 종양관련대식세포의 분화, 암세포의 혈관 내 이동과 혈관 밖 이동(삼출), 전이, 신생혈관 생성, 암세포 증식, 암세포 생존 등 모든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br/><br/> 궁극적으로는 치아 감염치료가 근관치료가 아닌 보다 덜 침습적이고 확실하게 감염을 차단할 치료법 개발이 매우 시급하다. 감염과 염증과 관련된 암을 예방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충치를 예방하고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다. 기존의 근관 치료가 돼 있는 치아 주변에 뼈가 파괴되는 등의 부작용이 있는 경우 발치를 하는 것이 좋겠다. <br/><br/>황정빈 신세계치과 원장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243.txt

제목: [암과의 동행] “표적치료제 중심 탈피 면역조절 항암제시대 도래”  
날짜: 201502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216170919001  
ID: 01100201.20150216170919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현재까지 나와 있는 항암제는 특정 부위에 발현한 종양을 사멸시키는 표적치료제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암 치료의 면역체계가 표적이 되는 시대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대한소화기암학회가 주최하는 제2회 국제심포지엄에 참석하고자 방한을 한 구스타프 가우더넥(사진) 노르웨이 오슬로 라디움 대학병원 교수는 “이제는 면역 기능을 활성화 해 암세포를 사멸시키는 면역 조절 항암제 시대에 도래했다”며 “제약사들도 면역체계를 활용한 항암제 개발을 중요 과제로 삼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암치료를 위한 면역치료가 세간의 관심을 받고 있다. 현재 미국 등 전 세계에서 개발 중인 항암제 제품 중 100여개의 제품이 암과 관련한 백신으로, 면역치료가 암치료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는 면역세포를 활성화해 암을 사멸시키는 항암치료 백신 GV1001을 개발한 장본인이다. GV1001은 바이오기업 젬백스가 보유한 췌장암 치료 백신이다. 1989년부터 가우더넥 교수는 ‘인간의 노화는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가설로 해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암세포에 특이적으로 과다 발현되는 텔로머라아제 효소를 발견하게 됐고 많은 시간을 소요해 백신을 개발하게 됐다. 가우더넥 교수는 GV1001의 작용 기전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GV1001은 암세포에서 과다 발현되는 텔로머라제(hTERT)에서 유래된 펩타이드로 다양한 암 질환에 적용 가능한 범용적인 항암 백신이다. 텔로머라제는 세포의 무한증식을 막는 텔로미어를 유지시켜 세포 분열이 이뤄지게 만드는 물질”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GV1001은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췌장암 치료제 신약으로 허가를 받은 바 있다. 그는 “GV1001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충분히 입증된 치료제”라고 말했다. GV1001은 지난 2000년도부터 10여개가 넘는 임상시험(1∼3상)을 미국, 영국, 프랑스를 포함한 전 세계 12개 국가에서 진행했다. 2006년 미국FDA와 유럽 EMA에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됐다. 이 치료제는 췌장암 환자의 자기 면역을 극대화 시켜 암세포를 파괴하고, 기존 화학치료제와 병용 투약 시 암환자의 생존기간을 연장 시키는 항암 치료제다. 하지만 젬백스는 영국에서 실시한 임상시험에서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한 효과가 뚜렷하다는 것을 입증하지는 못했다. 바이오마커인 이오탁신이라는 특정 생체지표가 높은 대상 환자에서 생존일이 연장됐다는 것이 입증됐다. 가우더넥 교수는 “<span class='quot0'>GV1001은 췌장암을 비롯한 다양한 암에서 실시한 임상시험에서도 부작용이 발견되지 않았다</span>”며 “<span class='quot0'>이오탁신 수치는 GV1001을 투여할 경우 생존기간 연장을 예측하는 지표가 될 수 있다</span>”고 말했다. 이어 그는 “<span class='quot0'>이 백신의 안정성이 입증돼 현재 진행하는 전립선암, 비소세포폐암, 흑색종에 대한 추가 적응증의 가능성이 높아졌다</span>”고 덧붙였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244.txt

제목: [암과의 동행] 암환자 임상시험 정보 어떻게 얻나  
날짜: 201502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216113634001  
ID: 01100201.20150216113634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임상시험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서울의 한 대형병원을 찾았다. ‘시험’이 주는 불확실성 때문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했던 임상시험은 신약을 만나는 유일한 통로로 인식되며 암환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더 이상 기존 방법의 치료효과가 없는 경우 더욱 그러하다. 그렇다면 암환자는 임상시험 정보를 어디서, 어떻게 접하는 것일까. 이를 보여주는 국가적 차원의 통계는 없다. 다만 국내 암 전문가들은 세 가지 경우를 꼽았다. 일단 주치의로부터 제안을 받게 되는 경우다. 혈액종양내과 의료진 가운데 새로운 항암제를 연구 중인 경우 이를 자신의 환자에게 제안해볼 수 있다. 위암환우회 회장 심순복씨도 이 같은 경우였다. 심씨는 “첫 암진단을 받을 때부터 상황이 좋지 않았다. 거의 포기할 때쯤 병원을 옮겨 찾아간 곳에서 임상시험을 권유받았다. 막연한 두려움도 있었지만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다’는 주치의의 말을 믿고 참여했다”고 말했다. 두 번째는 환우회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경우다. 일단 회원수가 많은 환우회는 그 안에서 정보 교류가 활발하다. 또한 특정 대형병원에서 만들어진 환우회일수록 간호사가 임원인 경우가 많아 임상시험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다. S병원 임상연구간호사는 “신약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효능비교 임상시험에 참여할 때 자신이 가짜약 군(group)에 속할까봐 오히려 걱정하는 환자들이 있다. 제비뽑기를 통해 결정되는데, 자신이 임상신약 군에 뽑힐 수 있도록 알려달라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대형병원에서 임상시험 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경우다. 환자들은 이곳에서 임상시험의 종류와 시험기간, 의료혜택 여부 등을 알 수 있다. 일일이 물어보며 발품 파는 수고를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 임상시험을 대하는 환자들의 적극적인 태도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A병원의 혈액종양내과 교수는 “임상시험이 지나치게 미화되어서 환상을 갖고 참여했다가 효과가 없어 크게 실망하는 바람에 오히려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많다. 환상 속 신기루 같은 이미지는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임상시험 수준은 수많은 시행착오 단계를 지나 안정기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임상시험센터를 갖춘 대형병원에서는 피험자보호센터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 피험자보호센터는 병원 내에서 이뤄지는 임상연구가 윤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되는지 심의함으로써 연구에 참여하는 피험자를 보호하는 기관이다. 이와 비슷한 성격을 지닌 기관윤리생명심의위원회(IRB)에서는 연구자로부터 제출받은 임상연구계획서를 검토한 뒤 부작용이 우려되는 임상연구에 대해서는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 임상시험 중인 한 교수는 “비윤리적인 실험문제는 더 이상 거론되지 않는다. 그만큼 윤리적인 부분은 해소가 되었다고 본다. 임상시험에 대한 환자의 이해도나 의료진의 이해도가 높아진 덕”이라고 말했다. 김단비 기자 kubee08@kukimedia.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245.txt

제목: [암과의 동행-자궁경부암] HPV 예방백신 접종만이 왕도일까… 세포진 검사 통해 전암병변 발견 중요  
날짜: 201502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216170922001  
ID: 01100201.20150216170922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1970년 HPV(Human Papilloma virus, 사람 파필로마 바이러스)가 발견됐고, 이 바이러스가 여성의 자궁경부암 발병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 후로 HPV로부터 여성의 몸을 지키는 백신이 등장했다. 이 백신은 바이러스의 이름을 따서 HPV 예방백신으로 불린다. 그러나 실상은 바이러스 이름이 어렵다는 이유로 자궁경부암 예방백신으로 통용되어 불린다. 이 백신이 자궁경부암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HPV 16형과 18형의 발생을 막는다는 사실은 분명하지만 편의상 불리는 별칭 탓에 오히려 자궁경부암의 발견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HPV백신으로 자궁경부암의 위험에서 일부 보호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접종자 그룹에서 자궁경부암 전 단계의 병변을 발견하는 조기진단의 적극성을 떨어뜨리고 경구피임약 복용, 흡연 등의 위험인자에 대한 경각심을 떨어뜨린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자궁경부암은 암세포의 전 단계라 할 수 있는 전암병변으로부터 시작되므로 암이 되기 전 전암병변을 발견하고 치료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효과적인 암 예방법에 대해 전문가들이 HPV 백신접종과 더불어 자궁경부 세포진 검사를 꼽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미국암협회는 자궁경부 세포진 검사를 통해 지난 30년간 자궁경부암 발생을 절반 이상 줄였다며 조기발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미국암협회는 자궁경부암 조기발견을 위해 성관계를 시작한 여성이 자궁경부암 선별검사의 하나로 자궁경부 세포진 검사를 2∼3년에 한 번 시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자궁경부 세포진 검사는 자궁경부 표면에 떨어져 나온 세포를 채취해 현미경으로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다. 미국암학회의 보고에 따르면 한 해 자궁경부암으로 사망하는 환자들 중 상당수가 검사를 받지 않은 이력이 있다고 밝혔다. 정기적인 자궁경부암 검사만으로 사망률을 현저히 낮출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일부 연구에서 경구피임약의 장기간 복용이 자궁경부암의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제시했다. 경구피임약이 어떻게 자궁경부암을 일으키는지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확인되지 않지만 5년 이상 경구피임약을 복용하는 것이 자궁경부암 발생 증가와 연관 있다는 보고가 나오면서 국내외 암학회에서는 자궁경부암의 예방으로 경구피임약을 복용하는 여성은 자궁경부 세포진 검사의 횟수를 늘릴 것을 권장했다. 한편 부작용이 우려돼 백신 접종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HPV 감염 유무를 알아보는 검사를 시행해 볼 수 있다. 이 검사는 앞서 소개한 세포진 검사와 같이 진행된다. 세포진 검사가 자궁 내 세포가 암으로 변할 조짐이 있는지 알아보는 검사라면 HPV 검사는 세포의 변화와는 관계없이 자궁경부에서 암을 유발하는 고위험군 바이러스가 있는가 없는가를 알아내는 검사다. 따라서 세포의 암성변화 이전에 암으로 발전할 위험도를 예측할 수 있다. 대한산부인과학회는 “<span class='quot0'>HPV 검사로 자신의 위험도를 알 수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이러한 정보로 앞으로 더 열심히 자궁경부 세포진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자궁경부암에 대한 지나친 걱정을 피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것</span>”이라고 밝혔다. 김단비 기자 kubee08@kukimedia.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246.txt

제목: [암과의 동행-자궁경부암] HVP 예방백신 접종만이 왕도일까… 세포진 검사 통해 전암병변 발견 중요  
날짜: 201502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21610016317345  
ID: 01100201.2015021610016317345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1970년 HPV(Human Papilloma virus, 사람 파필로마 바이러스)가 발견됐고, 이 바이러스가 여성의 자궁경부암 발병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 후로 HPV로부터 여성의 몸을 지키는 백신이 등장했다. 이 백신은 바이러스의 이름을 따서 HPV 예방백신으로 불린다. 그러나 실상은 바이러스 이름이 어렵다는 이유로 자궁경부암 예방백신으로 통용되어 불린다. 이 백신이 자궁경부암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HPV 16형과 18형의 발생을 막는다는 사실은 분명하지만 편의상 불리는 별칭 탓에 오히려 자궁경부암의 발견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HPV백신으로 자궁경부암의 위험에서 일부 보호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접종자 그룹에서 자궁경부암 전 단계의 병변을 발견하는 조기진단의 적극성을 떨어뜨리고 경구피임약 복용, 흡연 등의 위험인자에 대한 경각심을 떨어뜨린다는 점이다.<br/><br/> 대부분의 자궁경부암은 암세포의 전 단계라 할 수 있는 전암병변으로부터 시작되므로 암이 되기 전 전암병변을 발견하고 치료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효과적인 암 예방법에 대해 전문가들이 HPV 백신접종과 더불어 자궁경부 세포진 검사를 꼽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미국암협회는 자궁경부 세포진 검사를 통해 지난 30년간 자궁경부암 발생을 절반 이상 줄였다며 조기발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미국암협회는 자궁경부암 조기발견을 위해 성관계를 시작한 여성이 자궁경부암 선별검사의 하나로 자궁경부 세포진 검사를 2∼3년에 한 번 시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자궁경부 세포진 검사는 자궁경부 표면에 떨어져 나온 세포를 채취해 현미경으로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다. 미국암학회의 보고에 따르면 한 해 자궁경부암으로 사망하는 환자들 중 상당수가 검사를 받지 않은 이력이 있다고 밝혔다. 정기적인 자궁경부암 검사만으로 사망률을 현저히 낮출 수 있다는 분석이다.<br/><br/> 일부 연구에서 경구피임약의 장기간 복용이 자궁경부암의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제시했다. 경구피임약이 어떻게 자궁경부암을 일으키는지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확인되지 않지만 5년 이상 경구피임약을 복용하는 것이 자궁경부암 발생 증가와 연관 있다는 보고가 나오면서 국내외 암학회에서는 자궁경부암의 예방으로 경구피임약을 복용하는 여성은 자궁경부 세포진 검사의 횟수를 늘릴 것을 권장했다.<br/><br/> 한편 부작용이 우려돼 백신 접종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HPV 감염 유무를 알아보는 검사를 시행해 볼 수 있다. 이 검사는 앞서 소개한 세포진 검사와 같이 진행된다. 세포진 검사가 자궁 내 세포가 암으로 변할 조짐이 있는지 알아보는 검사라면 HPV 검사는 세포의 변화와는 관계없이 자궁경부에서 암을 유발하는 고위험군 바이러스가 있는가 없는가를 알아내는 검사다. 따라서 세포의 암성변화 이전에 암으로 발전할 위험도를 예측할 수 있다. 대한산부인과학회는 “<span class='quot0'>HVP 검사로 자신의 위험도를 알 수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이러한 정보로 앞으로 더 열심히 자궁경부 세포진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자궁경부암에 대한 지나친 걱정을 피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것</span>”이라고 밝혔다. <br/><br/>김단비 기자 kubee08@kukimedia.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247.txt

제목: [건강 나침반] 치아 신경치료 인한 암 유발 막으려면  
날짜: 201502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216170926001  
ID: 01100201.20150216170926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우리 몸의 세포는 일정한 삶의 주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멸과 재생이 반복된다. 재생 과정에서 노화된 세포는 스스로 죽어 주변 세포에 의해 흡수된다. 피부 세포는 노화되면 각질이 되거나 때가 되어 떨어져 나간다. 뼈세포의 경우 복잡한 파괴와 재생 과정을 겪게 되는데 충격적인 사실은 감염과 염증 같은 비정상적인 원인에 의해 파괴와 재생이 일어날 경우 다양한 원인과 경로 그리고 주변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암으로 발전한다는 점이다. 치아는 뼈와 같은 성분으로 구성돼 있으나 뼈와 달리 파괴와 재생이 잘 되지 않는 구조여서 평생 동안 사용한다. 그래서 정상적인 경우는 물론이고 감염과 같은 비정상적인 경우에도 파괴 시스템으로부터 치아를 보호해야 하는데 이 역할을 담당하는 세포가 바로 상아질모세포이다. 상아질모세포는 치아 내부의 신경과 치아 사이의 경계면에 배열돼 있는 세포로서 치아를 통해 세균이 침입할 때, 처음 만나는 세포이고 선천적 면역 활동을 조절하는 치아 내부의 피부와 같은 역할을 하는 세포이다. 충치가 생기거나 치아가 마모됐을 때 시린 것을 느끼는 것도 상아질 모세포 돌기가 일차적으로 담당한다. 상아질 모세포는 평소에 상아세관을 통한 세균의 침투를 막으며 충치가 발생하면 균이 우리 몸에 침입하지 못하도록 장벽을 형성하기도 하는 중요한 세포이다. 하지만 충치가 심해지면 상아질모세포는 사망하게 된다. 상아질모세포가 사망하면 치아 내부의 신경이 들어있는 근관(뿌리내부구멍)에 감염이 무차별로 진행되며 치아 내부의 세포들은 괴사돼 버린다. 이때 치과에서 시행되는 가장 일반적인 치료가 근관치료(신경치료)이다. 근관치료의 실패율은 최대 15%에 달하고 증상 없이 잘 사용하고 있다고 해도 근관치료가 된 치아의 대부분은 상아질 모세포가 살아 있는 자연치아와는 달리 구조상 세균을 완전히 제거하기가 거의 불가능해 세균이 서식하기 좋으며, 장기적인 감염의 요충지로 작용한다. 또 상아질모세포가 담당하던 면역 조절기능이 사라져 우리 몸의 면역세포들로부터 치아가 비자기화 물질(이물질)로 판단돼 수지상세포 등에 의한 파괴와 재생 시스템이 가동되게 된다. 치아손상, 현성감염, 만성적인 불현성감염(증상이 없는 감염), 면역세포들의 인식과 낮은 상태의 만성염증 등이 우리 몸의 전신반응을 유발하게 된다. 감염에 의한 암 발생 과정과 후생학적 관점에서의 히스톤단백질의 변형, 그리고 뼈단백질 생성 등이 근관치료와 관련돼 암을 유발하고 발전시키는 대표적인 과정이다. 근관치료가 된 치아와 주변 턱뼈에서 발생되는 뼈 단백질인 오스테오폰틴, 상아질기질단백질, 뼈시알로단백질, 상아질 시알로단백질, 기질외인산당단백질 등이 암의 발생과 확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부상되고 있다. 오스테오폰틴은 대장암 유방암 위암 췌장암 폐암 전립선암 간암 난소암 자궁암 등의 발생 침습 진행 전이와 관련돼 있다. 뼈 단백질들은 암세포의 사멸 방해, 증식 접착, 이동, 기질 파괴, 침투, 대식세포 활성화 및 종양관련대식세포의 분화, 암세포의 혈관 내 이동과 혈관 밖 이동(삼출), 전이, 신생혈관 생성, 암세포 증식, 암세포 생존 등 모든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궁극적으로는 치아 감염치료가 근관치료가 아닌 보다 덜 침습적이고 확실하게 감염을 차단할 치료법 개발이 매우 시급하다. 감염과 염증과 관련된 암을 예방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충치를 예방하고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다. 기존의 근관 치료가 돼 있는 치아 주변에 뼈가 파괴되는 등의 부작용이 있는 경우 발치를 하는 것이 좋겠다. 황정빈 신세계치과 원장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248.txt

제목: [암과의 동행] 임상시험 제약사 위주 편중 연구자 주도 독립진행 바람직  
날짜: 201502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216170924001  
ID: 01100201.20150216170924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임상시험이 다양해질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있다. 국내에서 진행 중인 임상시험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뉜다. 제약회사에서 시판허가를 위해 신약의 안전성과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실험과 기존에 나와 있는 약물을 서로 비교하며 우월성을 따져보는 실험이다. 국내 임상시험의 현주소는 신약을 내놓기 위해 제약사가 주도하는 임상시험이 상당수라는 점이다. 서울아산병원 종양내과 강윤구 교수는 “기존 약들의 효과를 비교해 무엇이 더 우월하다는 것이 입증되면 표준치료법이 달라질 수 있다. 외부의 의뢰 없이 연구자 독립적으로 진행되는 임상시험은 더 나은 치료법을 발견하는 기회다. 환자에게 불필요한 치료로 인한 고통의 시간을 줄이고 또 불필요한 건강보험 재정의 낭비를 줄일 수 있어 국가에도 이득”이라고 말했다. 특히 연구자 주도 임상시험에서는 서로 다른 약물의 효능을 비교하는 실험 외에도 치료기간별 효능을 비교한 시험을 진행해 중대한 정보를 발견하기도 한다. 일례로 허가 당시에는 ‘효과를 위해 환자는 1년간 약을 복용해야 한다’는 것이 결론이었는데, 6개월간 복용한 환자와 1년간 복용한 환자에서 차이가 없다는 것이 임상시험을 통해 드러나면 환자는 6개월만 약을 복용하는 것으로 치료안이 바뀔 수 있다. 제약사 입장에서는 이익이 절반으로 줄어들지만 환자는 복용스트레스가 절반으로 줄고 의료비도 절반으로 줄어들게 된다. 여기서의 문제는 약물을 비교하는 임상이 국가의 지원 없이는 사실상 어렵다는 데 있다. 제약회사는 약물효능 비교실험에서 자사의 제품이 열등하다는 것이 입증될까봐 임상시험에 참여하지 않는다. 임상시험에 필요한 약과 경제적 자원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의료진이나 연구진이 직접 임상시험을 진행해야 하는데, 의사 혼자 이 모든 것을 추구하기가 어렵다. 연구를 위한 재정도 문제고, 제약사로부터 약을 공급받을 수도 없기 때문이다. 강윤구 교수는 정부의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강 교수는 “제약회사 중심의 임상시험이 있고, 연구자 중심의 임상시험이 있다. 후자는 연구자가 하고 싶은 주제로 실험을 진행해 나가는 거다. 가령 제약사의 눈치를 보지 않고 서로 다른 항암제의 효능을 비교해볼 수도 있고 기존 약물을 혼합해 새로운 치료법을 만들어 볼 수도 있다. 국내 임상시험은 제약사 중심의 임상시험 비중이 높고 연구자 중심의 임상시험 수는 매우 적은 편이다. 공적 지원 없이는 한계가 있다. 향상된 치료법 개발을 위해 미국의 시스템을 따라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국립암연구소에서는 의료진에게 재정적 후원을 하며 새로운 암 치료법 개발을 돕고 있다. 연구자 주도의 임상시험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기존 치료법의 한계를 메우는 역할을 한다. 일례로 유방암 치료에 있어 수술과 방사선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근치적 유방절제술보다 효과적이라는 것을 입증했고, 유방암 재발률이 높은 상태에서 특정 항암제를 복용하면 발병률을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 정보 모두 생명연장에 기여한 면이 크다. 강 교수는 “임상시험에 지원하는 비용이 아깝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엽적인 사고다. 멀리 보면 불필요한 치료제의 지출을 아껴 국가 재정에도 도움이 된다. 약물요법을 비교하는 임상시험에 대한 국가 지원이 많아져야 하는 이유는 자명하다”고 말했다. 김단비 기자 kubee08@kukimedia.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249.txt

제목: [암과의 동행] 임상시험 제약사 위주 편중 연구자 주도 독립진행 바람직  
날짜: 201502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21610016317347  
ID: 01100201.2015021610016317347  
카테고리: 사회  
본문: 임상시험이 다양해질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있다. 국내에서 진행 중인 임상시험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뉜다. 제약회사에서 시판허가를 위해 신약의 안전성과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실험과 기존에 나와 있는 약물을 서로 비교하며 우월성을 따져보는 실험이다. 국내 임상시험의 현주소는 신약을 내놓기 위해 제약사가 주도하는 임상시험이 상당수라는 점이다. 서울아산병원 종양내과 강윤구 교수는 “기존 약들의 효과를 비교해 무엇이 더 우월하다는 것이 입증되면 표준치료법이 달라질 수 있다. 외부의 의뢰 없이 연구자 독립적으로 진행되는 임상시험은 더 나은 치료법을 발견하는 기회다. 환자에게 불필요한 치료로 인한 고통의 시간을 줄이고 또 불필요한 건강보험 재정의 낭비를 줄일 수 있어 국가에도 이득”이라고 말했다. 특히 연구자 주도 임상시험에서는 서로 다른 약물의 효능을 비교하는 실험 외에도 치료기간별 효능을 비교한 시험을 진행해 중대한 정보를 발견하기도 한다. 일례로 허가 당시에는 ‘효과를 위해 환자는 1년간 약을 복용해야 한다’는 것이 결론이었는데, 6개월간 복용한 환자와 1년간 복용한 환자에서 차이가 없다는 것이 임상시험을 통해 드러나면 환자는 6개월만 약을 복용하는 것으로 치료안이 바뀔 수 있다. 제약사 입장에서는 이익이 절반으로 줄어들지만 환자는 복용스트레스가 절반으로 줄고 의료비도 절반으로 줄어들게 된다. <br/><br/> 여기서의 문제는 약물을 비교하는 임상이 국가의 지원 없이는 사실상 어렵다는 데 있다. 제약회사는 약물효능 비교실험에서 자사의 제품이 열등하다는 것이 입증될까봐 임상시험에 참여하지 않는다. 임상시험에 필요한 약과 경제적 자원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의료진이나 연구진이 직접 임상시험을 진행해야 하는데, 의사 혼자 이 모든 것을 추구하기가 어렵다. 연구를 위한 재정도 문제고, 제약사로부터 약을 공급받을 수도 없기 때문이다. 강윤구 교수는 정부의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강 교수는 “제약회사 중심의 임상시험이 있고, 연구자 중심의 임상시험이 있다. 후자는 연구자가 하고 싶은 주제로 실험을 진행해 나가는 거다. 가령 제약사의 눈치를 보지 않고 서로 다른 항암제의 효능을 비교해볼 수도 있고 기존 약물을 혼합해 새로운 치료법을 만들어 볼 수도 있다. 국내 임상시험은 제약사 중심의 임상시험 비중이 높고 연구자 중심의 임상시험 수는 매우 적은 편이다. 공적 지원 없이는 한계가 있다. 향상된 치료법 개발을 위해 미국의 시스템을 따라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br/><br/> 미국국립암연구소에서는 의료진에게 재정적 후원을 하며 새로운 암 치료법 개발을 돕고 있다. 연구자 주도의 임상시험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기존 치료법의 한계를 메우는 역할을 한다. 일례로 유방암 치료에 있어 수술과 방사선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근치적 유방절제술보다 효과적이라는 것을 입증했고, 유방암 재발률이 높은 상태에서 특정 항암제를 복용하면 발병률을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 정보 모두 생명연장에 기여한 면이 크다.<br/><br/> 강 교수는 “임상시험에 지원하는 비용이 아깝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엽적인 사고다. 멀리 보면 불필요한 치료제의 지출을 아껴 국가 재정에도 도움이 된다. 약물요법을 비교하는 임상시험에 대한 국가 지원이 많아져야 하는 이유는 자명하다”고 말했다. <br/><br/>김단비 기자 kubee08@kukimedia.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250.txt

제목: 거침없는 팀 쿡의 애플  
날짜: 2015021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212170310001  
ID: 01100201.20150212170310001  
카테고리: IT\_과학>모바일  
본문: 팀 쿡 체제의 애플이 스티브 잡스가 이끌던 시절을 능가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애플이 10일(현지시간) 주당 122.02달러로 거래를 마쳐 시가총액 7107억 달러(약 780조원)를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미국 기업이 시가총액 7000억 달러를 넘어선 건 애플이 처음이다. WSJ는 애플의 시가총액이 각각 구글의 2배, 월마트의 2.5배, 뱅크오브아메리카의 4배, 맥도날드의 8배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애플 주식은 1년 전보다 64%가 올랐다. 캐나다 증권사 캐너코드 제뉴이티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애플이 지난해 4분기 전 세계 스마트폰 사업의 이익 93%를 가져갔다고 분석했다. 삼성전자는 9%에 불과했고, 마이크로소프트(MS)는 2% 손실을 기록했다. 삼성전자와 애플의 4분기 스마트폰 판매량이 대등한 수준이었음을 고려하면 고가 제품 중심인 애플의 수익성이 매우 높았다는 것이 증명된다. 쿡 체제의 애플이 돋보이는 건 수익성뿐만 아니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서도 눈에 띄는 행보를 보이기 때문이다. 쿡 CEO는 이날 골드만삭스의 ‘기술과 인터넷’ 콘퍼런스에 참석해 태양광발전에 8억5000만 달러를 투자한다고 발표했다. 태양광 패널 업체 퍼스트 솔라와 협력해 캘리포니아 북부에 태양광 발전소를 짓는 프로젝트다. 쿡은 “지구온난화는 실제로 벌어지고 있으며 이제 얘기만 할 때가 아니라 행동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태양광 발전소는 280메가와트(㎿)의 전기를 생산하며, 애플은 25년간 130㎿의 전기를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했다. 쿡은 “쿠퍼티노에 짓는 신사옥과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6만 가구에 전기를 공급하기에 충분한 양”이라고 설명했다. 애플은 현재 데이터센터도 재생에너지를 사용해 가동 중이다. 쿡 CEO는 자신의 색채를 분명하게 할 신제품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드러냈다. 아이폰6가 잡스의 유산을 계승·발전시킨 것이라면 애플 페이와 애플 워치는 쿡의 결과물이다. 4월에 나올 애플 워치에 대해 그는 “시장에 나와 있는 스마트 워치 중 사용자 삶의 방식을 변화시킨 제품은 없다”면서 “소비자들이 애플 워치를 보면 깜짝 놀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활동량 추적 기능을 예로 들면서 “가만히 있으면 손목에 진동이 와서 움직이라고 한다. 많은 의사들이 앉아 있는 걸 새로운 암이라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애플 페이에 대해선 “적용되는 속도가 점점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애플 전문매체 나인투파이브맥은 애플이 최근 개발자들에게 배포한 iOS 8.3 베타버전에 중국 진출과 관련한 단서가 들어 있다고 전했다. 애플 페이 관련 코드에 중국 유니언페이(은련) 카드 이름이 포함돼 있었다는 게 근거다. 이 전망이 실현된다면 애플 페이는 세계 최대 스마트폰 시장인 중국을 놓고 모바일 결제 분야에서 알리바바의 ‘알리페이’와 경쟁을 벌이게 된다.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251.txt

제목: 당뇨병 약 ‘메포민’, 위암 환자 재발률 낮춘다  
날짜: 2015021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210165900001  
ID: 01100201.20150210165900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국내 의료진이 기존 당뇨병 치료제에서 위암 세포를 효과적으로 죽이는 새 항암제를 찾았다. 연세암병원 위암센터는 위장관외과 노성훈·형우진 교수팀이 종양내과 정현철·라선영·정민규(사진) 교수 연구팀과 함께 당뇨를 가진 위암 수술 환자에게 ‘메포민(Metformin)’이란 약물을 복용케 한 결과 암 재발률이 낮아지고 생존율도 높아졌다고 9일 밝혔다. 메포민은 인슐린 분비기능이 떨어진 제2형 당뇨병(후천성 당뇨) 치료제로 사용되는 약이다. 이 약이 위암 재발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는 처음이다. 메포민은 유방암과 전립선암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암세포 증식에 관여하는 효소인 ‘엠토르’(mTOR)의 활성을 억제하는 효능이 있어 주목을 받았다. 정 교수팀은 연세암병원에서 위암수술을 받은 당뇨병 환자 326명을 두 그룹으로 나누고, 한 그룹(132명)에겐 메포민을 복용케 하고 다른 그룹(194명)에겐 인슐린주사 등 다른 당뇨 약을 쓰도록 한 뒤 각각 6년2개월간 추적 조사했다. 그 결과 메포민 복용 그룹의 암 재발 위험도가 다른 약을 쓴 환자 그룹보다 무려 37%나 낮아진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위암 수술을 받은 환자가 당뇨병을 갖고 있을 경우 메포민을 꾸준히 복용하면 당뇨가 없는 일반 위암 환자와 비슷한 치료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뜻이다. 정 교수팀은 “<span class='quot0'>메포민이 당뇨 위암 환자뿐 아니라 다른 암 환자에게도 효과가 있는지 후속 연구를 통해 항암효과를 더 규명할 계획</span>”이라고 말했다. 연구결과는 외과학 분야 국제학술지 ‘애널스 오브 서저리(Annals of Surgery)’ 최신호에 게재됐다.이기수 의학전문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252.txt

제목: 전립선암 수술 후 악성도 가늠자, 유전자 변이 발견  
날짜: 2015020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203165057001  
ID: 01100201.20150203165057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전립선암은 서구에서 남성의 장기에 발생하는 각종 고형암 중 발생빈도 1위로 꼽히는 암이다. 국가암등록 통계에 따르면 전립선암은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남성 암 중 발생률 5위를 기록 중이다. 일반적으로 전립선암 발생 위험과 치료 효과는 개인차가 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환자에 따라 악성도가 큰 차이를 보이고 항암화학요법 및 수술 등 치료에 대한 반응도 다르다. 도대체 이런 차이는 왜 생기는 것일까. 그 비밀이 인종이나 사람마다 다르게 발현되는 유전적 차이에 있음을 국내 의료진이 밝혀냈다. 분당서울대병원 비뇨기과 변석수·오종진 교수팀은 최근 국내에서 전립선암 진단을 받고 바로 근치적 전립선 적출수술을 받은 환자 257명에게서 얻은 유전체 24만2221개의 단일염기다형성(SNP) 정보를 분석했다. 그 결과 15개의 SNP가 전립선암 수술 후 악성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번 염색체에 존재하는 ‘rs33999879’ 유전자에 변이가 있으면 수술 후 조직검사에서 악성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rs33999879 유전자는 세포가 분열을 할 때 염색체 응축과 유전자 수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유전자다. 간암 및 림프종의 진행에도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유전자의 변이가 전립선암의 진행에도 관여한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는 처음이다. 변 교수는 “<span class='quot0'>전립선암 적출수술을 하면서 얻은 검체에서 향후 악성도를 가늠할 수 있는 유전자 변이가 발견됨에 따라 수술 후 환자의 상태나 예후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적절한 대책을 세우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span>”고 말했다. 연구결과는 미국 공공과학도서관이 발행하는 국제학술지 ‘플로스원(PLos ONE)’ 최신호에 게재됐다.이기수 의학전문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253.txt

제목: “창조섭리에 반하는 유전자치료 연구 안돼”… 교계, 법률 개정 반대 의견서 제출  
날짜: 2015012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129164600002  
ID: 01100201.20150129164600002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생윤협·상임공동대표 박재형 교수)와 성산생명윤리연구소(소장 박상은 원장)가 국회 차원의 유전자치료 연구요건 완화 움직임에 우려를 나타냈다. 유전자치료란 원하는 유전자를 세포 안에 넣어 형질을 발현시켜 잘못된 유전자의 기능을 대신하는 방법이다. 이들 단체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 유전자치료의 연구 범위를 예측할 수 없고 나아가 미용의 목적이나 신체, 체질과 같이 질병과 무관하지만 타고난 형질을 인위적으로 변화시키는 등 다른 목적으로 남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법률안 개정에 반대하는 뜻을 분명히 했다. 앞서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 등 12명은 지난달 26일 유전자치료의 연구허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유전질환, 암, 에이즈 등 생명을 위협하거나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는 질병 치료 연구’와 ‘이용 가능한 치료법이 없거나 유전자치료의 효과가 다른 치료법보다 현저히 우수할 것으로 예측되는 치료를 위한 연구’라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유전자치료제 개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개정안은 이 두 가지 요건 중 한 가지만 충족해도 유전자치료 연구를 허용하도록 한 것이다. 의원들은 개정안에서 “<span class='quot0'>기술 발달로 유전자치료는 맞춤의료의 기반이 되는 미래 핵심 분야로 떠오르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신약에 대한 환자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유전자치료에 관한 연구 범위를 제한하지 않고 있는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의 사례를 고려할 때 생명윤리 및 안정성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연구허용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span>”고 주장했다. 박재형 상임공동대표는 “<span class='quot1'>유전자치료는 여러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1'>연구 편의성 등을 이유로 치료가능 범위를 확대하면 유전자치료를 받는 사람은 물론 다음세대에까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span>”고 경고했다.유영대 기자 ydyoo@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254.txt

제목: 방사선의학硏 박인철 연구팀, 폐암 치료효과 저하 효소 첫 발견  
날짜: 2015012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127164229001  
ID: 01100201.20150127164229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같은 방사선 치료를 해도 환자에 따라 폐암 사멸 효과가 다른 이유를 국내 연구진이 밝혀냈다. 한국원자력의학원(원장 조철구)은 최근 방사선의학연구소 박인철(사진) 박사팀이 폐암에 방사선을 쪼일 때 치료 효과를 반감시키는 히스톤 탈아세틸화 2번 효소를 발견했다고 26일 밝혔다. 히스톤 탈아세틸화 효소는 암 억제 유전자들을 방해해 암을 유발하거나 방사선 및 항암제의 저항성을 갖도록 인도하는 물질이다, 이 효소가 방사선 치료의 효과를 떨어트리는 주범이라는 사실이 밝혀지기는 처음이다. 이 효소는 폐암 세포가 먹잇감으로 좋아하는 단백질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 박 박사팀이 히스톤 탈아세틸화 2번 효소의 작용을 방해하는 유전자를 폐암 세포에 주입하고 방사선을 쪼이자 암세포 퇴치 효율이 종전보다 약 40% 증가했다. 박 박사팀은 방사선 치료에 반응이 없는 폐암 환자 40명에게서 이를 확인했다. 연구결과는 암 전문 국제 학술지 ‘온코타깃’(Oncotarget) 최신호에 게재됐다. 이기수 의학전문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255.txt

제목: 암 유발 확률 5∼15배 높아… 담배보다 무서운 전자담배  
날짜: 2015012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123163910001  
ID: 01100201.20150123163910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흡연자들이 금연의 차선책으로 선택하는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보다 암에 걸릴 확률이 5∼15배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전자담배에 함유된 발암물질 ‘포름알데히드’ 때문이다. 일반 담배보다 니코틴 흡입량도 배 가까이 많다. 정부는 ‘전자담배=담배’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미국 포틀랜드대 연구진은 5V 전압에서 전자담배 용액을 하루 3㎖ 흡입할 경우 포름알데히드 14㎎을 마시게 된다는 실험 결과를 얻었다고 AFP통신이 22일 보도했다. 일반 담배 한 갑을 피울 때 마시는 포름알데히드(3㎎)보다 5배 정도 많은 양이다. 연구진은 “<span class='quot0'>기화된 연기 전체를 대상으로 한 실험이 아니라서 보수적인 결과가 나왔다</span>”며 “<span class='quot0'>전자담배를 오래 사용하면 암에 걸릴 확률이 일반 담배를 피울 때보다 최대 15배 높을 것</span>”이라고 말했다. 다만 3.3V의 낮은 전압으로 전자담배를 피우면 포름알데히드가 나오지 않았다. 전자담배는 니코틴 용액을 기체 형태로 빨아들이게 만든 기기다. 중독성 물질인 니코틴뿐 아니라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 아세트알데히드, 담배특이니트로사민, 여성 불임 및 남성 정자 감소를 일으키는 환경호르몬(내분비계 장애물질) 프탈레이트 등이 들어 있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자담배를 통해 흡입하는 기체의 포름알데히드는 니코틴 용액에 포함된 것보다 193배 많았다. 강한 독성을 가진 포름알데히드는 노출량이 30ppm 이상이면 인두염 기관지염에 걸리고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니코틴 함량은 전자담배 10모금(니코틴 0.41∼2.2㎎)이 일반 담배 1개비(니코틴 0.1∼1.4㎎)보다 배 정도 높다. 이렇게 전자담배의 유해성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가 잇따라 나오고 있지만 최근 전자담배를 찾는 인구는 되레 늘고 있다. 담뱃값 인상에 따른 풍선효과로 보인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14일까지 전자담배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0배 이상 뛰었다. 정부는 전자담배도 담배라는 점을 강조한다.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분류돼 연초담배와 똑같은 규제를 받는다. 다만 니코틴이 없는 전자담배는 담배가 아닌 ‘의약외품’으로 구분돼 청소년도 약국에서 살 수 있다. 일각에서는 전자담배 관리 체계가 엉망이라고 지적한다. 현재 전자담배는 일반적인 공산품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다. 인터넷으로 구매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당국은 전자담배가 어떤 경로를 통해 얼마나 판매되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성규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연구위원은 “<span class='quot1'>청소년이 약국에서 니코틴 없는 전자담배를 산 뒤 니코틴 용액을 따로 구입해 넣는 방식으로 전자담배를 피울 수 있다</span>”며 “<span class='quot1'>전자담배에 대한 세밀한 규제가 필요하다</span>”고 말했다.문수정 조성은 박세환 기자 thursday@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256.txt

제목: [암과의 동행] 생활밀착형 관리에 중점 둬야… 암 생존자도 의사결정 참여 필요  
날짜: 2015011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119163120001  
ID: 01100201.20150119163120001  
카테고리: IT\_과학>IT\_과학일반  
본문: “암수술이나 방사선 치료, 항암치료를 받는 중이거나 치료를 마치고 생존한 분들의 경우 적절한 영양, 재활, 정신상담 등을 받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삶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암 생존자 관리는 암 치료 후 겪는 정서적인 문제, 신체의 외형적·기능적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장기 생존 암환자들을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국내 의학자들이 암 생존자 관리의 학문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 지난해 설립한 한국암생존연구회. 연구회를 이끌고 있는 김성(사진) 회장은 “<span class='quot0'>암치료 후 장기 생존자들에 대한 연구, 교육, 정책개발을 통해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암 생존자 관리 기준을 만들어 이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연구회의 출발점</span>”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3년 8월 대한암학회 산하로 모임이 결성된 한국암생존연구회는 지난해 5월 발기인대회와 12월 창립기념 심포지엄을 통해 본격적인 활동을 알렸다. 김 회장은 “이미 5년 이상 장기 암 생존자가 100만명을 넘어섰다. 또 항암치료제와 암치료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장기 암 생존자들은 더 증가할 것”이라며 “단순히 암 생존자의 건강관리나 질환관리 차원을 넘어 ‘암은 평생 가는 것이다’라는 개념으로 암 생존자의 적극적인 치료 후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암생존연구회는 암 생존자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데이터 축적, 근거 중심의 학문적 기반 마련 등을 우선 과제로 꼽았다. 또한 장기 암 생존자에 대한 개념 정리와 암 생존자 관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 등도 연구회가 해결해야 할 몫이다. 특히 연구회의 역할 중 암 생존자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장기적으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보건복지부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국가 차원의 암환자 정보를 갖고 있는 정부기관과 함께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한 이유다. 김 회장은 “암 생존자에 대한 근거중심의 데이터를 만들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관련 정부 기관과 연구회가 함께 공동연구를 수행하거나 데이터 산출 등을 함께 하는 방안도 고민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암생존연구회는 국내의 암 생존자 관리 가이드라인과 교육프로그램을 구체화시키고, 지역사회 일차의료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암 생존자 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는 것도 목표이다. 김성 회장은 “<span class='quot1'>이러한 활동을 통해 장기 암 생존자 관리에 대한 보험수가와 관리지침 개발, 암 전문의와 일차의료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효율적인 암 생존자 관리와 네트워크 구축, 국가 차원의 암 생존자 데이터 축적을 통한 연구 활성화 등이 모두 암생존연구회가 해야 할 일</span>”이라며 “<span class='quot1'>이를 위해 국가 차원의 장기 암 생존자 관리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넓히는 데 힘쓸 것</span>”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암 생존자 관리는 시스템과 인식변화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암환자 스스로가 자신의 치료와 관리를 위한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며 “환자 스스로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의사결정이 치료 효과를 높이고 치료 후 삶의 질 개선에도 큰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송병기 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257.txt

제목: [건강 나침반] 임플란트도 암 발생시키는 한 원인  
날짜: 2015011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119163047001  
ID: 01100201.20150119163047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암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질병이지만 몇 가지 특징으로 정리할 수 있다. 세포들은 일정한 삶의 주기가 있고, 비정상적으로 손상된 세포는 예정된 과정에 의해서 죽는다. 이를 ‘예정세포사’라고 하는데 암세포는 예정된 세포의 죽음에 저항하며 정상세포보다 오래 산다. 세포 복제를 계속하며 불멸성을 가진다. 종양의 경우 주위에 새로운 혈관을 생성한다. 암세포는 처음 발생한 곳에서 먼 곳으로 이동하는 전이 능력이 있으며 임파절이나 주변 조직, 그리고 다른 장기로 침투하는 성질을 가진다. 세포 내 유전자가 불안정하거나 돌연변이를 가지고 있다. 통합적으로 백혈구라고 부르는 면역세포들의 면역감시 체계를 회피하거나 교란하는 능력을 가지기도 한다. 세포가 소비하는 에너지 대사 과정이 정상 세포와 다르다. 종양을 촉진하는 염증을 동반한다. 암의 가장 큰 원인은 불운이라고 한다. 전체 암 발생에서 3분의 2가 유전적 요인이 아닌 후천적인 환경에 의해 발생했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현재 치과에서 보편적으로 많이 시술하고 있는 임플란트는 잇몸아래 뼈에 심어진 있는 부분과 잇몸 밖으로 나와 있는 부분으로 구성돼 있다. 임플란트 시술은 잇몸을 절개하고 뼈에 임플란트를 심어 넣는 1차 수술을 시행한 후 2개월 정도의 뼈가 회복할 시간이 지나서 잇몸을 다시 절개한다. 이미 심어진 임플란트에 나머지 부분을 나사로 조여서 연결한다. 이때 두 부분을 연결하는 연결부에는 공간이 생긴다. 이 공간은 시간이 지나면 금속의 변형으로 인해 틈이 벌어질 수 있다. 벌어진 틈 사이는 혐기성 세균이 머물기에 최적의 조건이 된다. 결국 임플란트 내부는 백혈구들이 기능을 할 수 없어 미세한 세균들의 천국이 된다. 임플란트 연결부에 서식하는 혐기성 세균들 중에서 진지발리스라는 균은 몸속에 감염될 경우 혈관을 통해 온몸으로 퍼져 심혈관, 뇌혈관 질환, 당뇨, 치매, 류머티즘, 건선 등을 유발시킨다. 최근의 연구에서 진지발리스는 다른 세균과 달리 세포 속으로 들어가서 세포의 여러 기능을 방해하며 암을 유발한다고 알려졌다. 진지발리스균은 면역세포들에 대한 면역감시체계를 회피하거나 교란하는 능력이 있고 자신이 들어가서 살고 있는 감염된 세포의 예정세포사를 방해한다. 세포의 사멸주기를 연장한다. 감염된 세포를 오래 살게 하고 세포에 노화를 가져오며 감염된 세포의 유전자 변형을 가져온다.진지발리스에 감염된 암환자의 경우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사망률 또한 더 높다. 진지발리스균에 의한 감염의 증상과 암세포의 특성은 매우 유사하며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변하는 데 진지발리스균은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주요한 역할을 한다. 치과임플란트를 장기간 사용하게 되면 신선한 혐기성 세균이 계속 몸속으로 공급돼 암 발생의 원인이 된다. 암 발생과 전신질환 유발 가능성에 있어서 틀니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위험하다. 암은 대개 원인 발생 후 암의 종류에 따라 짧게는 5년에서 20년, 길게는 40년이 걸린다는 추정 기간이 있다. 불완전한 근관치료(신경치료)의 경우 유사한 이유로 장기적으로 암을 유발할 수 있다. 치과 임플란트의 시술이 가지는 위험성에 대하여 환자들이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국민의 보건은 국가의 책임이다. 위험한 의술과 의료기기에 대한 관리 책임은 국가에 있다.황정빈 신세계치과 원장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258.txt

제목: [암과의 동행] 미역귀, 암세포 자살유도하는 ‘후코이단’ 풍부… 다양한 항암기능 밝혀지며 인기 급상승  
날짜: 2015011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119163053001  
ID: 01100201.20150119163053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조금은 생소한 식재료, 미역귀가 암환자들 사이에서 필수식품으로까지 불리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미역귀는 미역 뿌리 바로 위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미역의 포자가 방출되는 생식기관이다. 우리가 흔히 먹는 미역의 엽채(葉菜) 부분에 비해 다소 두껍고 부드러운 맛이 떨어져 식용으로는 잘 사용하지 않았던 게 사실. 그러나 최근 미역귀에 천연항암물질인 ‘후코이단’이 함유돼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대접이 완전히 달라졌다. 천덕꾸러기 식재료에서 귀한 약용식품으로 변신한 것이다. 미역귀를 귀하신 몸으로 탈바꿈시킨 후코이단은 1996년 55차 일본 암학회를 통해 ‘암세포를 자살로 유도한다’는 기전이 밝혀져 일약 스타덤에 오른 물질이다. 올해까지 발표된 국제학술지 논문만 이미 1200편이 넘었다. 지금까지 후코이단을 연구한 다양한 논문들을 보면 △암세포를 자살로 유도하는 아포토시스 유도기능 △신생혈관을 억제해 종양의 성장을 막는 기능 △암세포의 혈소판 점착을 방해해 전이를 막는 기능 △면역력을 증강시키는 기능 △방사선 치료의 부작용을 감소시키는 기능 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사)엘란비탈암의학연구소 정일훈 소장은 “<span class='quot0'>미역귀의 후코이단은 암세포의 세포주기에 관여해 암이 성숙한 성체가 되는 것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이미 성숙한 암세포의 소포체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유발해 스스로 죽게 만드는 작용을 한다</span>”며 “<span class='quot0'>그 외에 부가적인 항암기능 역시 뛰어나기 때문에 암환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물질로 볼 수 있다</span>”고 설명했다. 또한 정 소장은 “<span class='quot0'>물론 암 환자의 경우 후코이단을 추출·농축한 상태로 만든 것을 먹는 것이 좋겠지만, 암 예방이 목적인 일반인이라면 미역귀를 자주 먹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된다</span>”며 “<span class='quot0'>해조 섭취는 암을 예방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아주 좋은 식습관</span>”이라고 덧붙였다. 주목할 것은 우리 인근해에서 자란 미역귀에 양질의 후코이단이 함유돼 있다는 사실이다. 후코이단의 품질 및 효능 지표로 황산기 함량이 꼽히는데, 우리 인근해에서 자란 미역귀의 경우 황산기 함량이 평균 30% 가량으로 대단히 높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더욱 강력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난 2005년 해양수산부, 전라남도, 완도군의 공동지원사업을 통해 설립된 해림후코이단 이정식 사장은 “완도, 고흥 등 우리 인근해의 미역귀로 후코이단을 생산할 경우 황산기 함량이 평균 30%, 많은 경우는 35%까지도 나오고 있다. 국제 후코이단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모즈쿠(큰실말) 후코이단의 2배에 달해 품질면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셈”이라고 강조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259.txt

제목: [항암제 이야기-HM61713·뉴라펙·슈펙트] “항암주권 찾자”… 국내 제약사 약진  
날짜: 2015011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119163056001  
ID: 01100201.20150119163056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한국인 사망원인 1위인 암(癌). 글로벌제약사의 항암제에만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암을 극복하기 위해 ‘항암주권’ 확보는 필수다. 하지만 아직까지 국내 제약업계가 항암제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표적항암제 개발에 매진하고 있는 국내 주요 제약회사들이 있다. 국내 제약업체 중 가장 많은 금액의 R&D 투자를 하고 있는 한미약품은 표적항암제 개발에 매진하는 대표적인 제약사다. 한미약품이 개발 중인 표적항암제는 ‘HM61713’, ‘포지오티닙(Poziotinib)’, ‘HM95573’로 크게 3가지다. 세계의 주목을 받은 항암신약은 암세포 성장에 관여하는 신호전달 물질인 EGFR(상피세포성장인자수용체) 돌연변이만을 선택적으로 억제하는 폐암 표적항암제인 HM61713이다. HM61713은 현재 서울대병원 등에서 1, 2상을 진행하고 있다. 미국임상종양학회(ASCO)에서 이 약물에 대한 임상결과를 발표한 김동완 서울대병원 종양내과 교수는 “<span class='quot0'>HM61713이 현재 EGFR 돌연변이 양성 폐암환자의 표준치료제로 쓰이고 있는 1세대 EGFR 저해제의 내성을 극복할 수 있는 치료제로 가능성을 보였다</span>”고 평가했다. 또 다른 표적항암제 포지오티닙은 HER2, HER3, HER4의 신호전달을 차단하는 표적항암제로 보건복지부 항암신약개발사업단(국립암센터 소재)과 함께 비소세포폐암을 비롯해 위암, 두경부암 등에 대한 국내 임상 2상을 진행하고 있다. 더불어 올해부터 서울아산병원에서 흑색종 고형암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HM95573도 글로벌 신약으로의 가능성이 높은 물질로 평가 받고 있다. 녹십자는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바이오항암제 분야를 선정하고 관련 연구·개발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항암제 분야 첫 품목인 호중구감소증치료제 ‘뉴라펙’의 출시를 앞두고 항암제 사업부를 강화하며 글로벌 시장 진입 준비를 가속화하고 있다. 뉴라펙은 암환자의 항암제 투여 시 체내 호중구 수치가 감소해 면역력이 떨어지는 부작용을 예방하는 항암보조제다. 녹십자는 지난 8월에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이 의약품의 시판 허가를 획득해 올해 출시할 예정이다. 2012년부터 2013년까지 14개 기관에서 진행한 뉴라펙의 임상 3상 결과, 대조약인 암젠의 뉴라스타와 맹검시험을 통해 유효성을 비교한 결과 비열등성을 보였으며, 안전성 측면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일양약품의 ‘슈펙트’는 국내 기술진이 자체 개발한 아시아 최초 ‘만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제’다.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에서 물질특허를 획득한 슈펙트는 현재 2차 치료제로 출시돼 있으며, 1차 치료제 허가를 위한 다국가 다임상 3상이 올해 2월말에 완료됨에 따라 하반기에는‘1차 치료제’로서 허가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슈펙트는 2세대 약물 중 제일 저렴한 ‘경제적 약가’로 국민건강 보험재정 건실화에 기여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JW중외제약은 ‘Wnt’라는 신호전달경로를 차단해 암 전이의 원인인 암줄기세포를 사멸시켜 암을 치료하는 표적항암제 CWP231A를 개발 중이다. 현재 임상1상 시험을 진행 중이다. 이 회사는 지난해 일본 바이오기업 프리즘파마와 표적항암제 개발 기술을 수출하는 라이선스 아웃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260.txt

제목: [암과의 동행-갑상선암] 저평가된 수술 수가 현실화 시급  
날짜: 2015011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119163108001  
ID: 01100201.20150119163108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갑상선암은 외부로 노출되는 목 부위에 흉터가 남는다. 특히 젊은 여성 환자의 비율이 많은 갑상선암의 특성상 수술 전부터 미용적인 측면을 고민하는 환자들이 많다. 갑상선암에 대한 전통적인 수술법들은 대개 보험급여가 인정되기 때문에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수술을 받을 수 있으나 수술 후 흉터를 개선시킬 수 있는 치료법에 대해서는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다. 흉터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환자들을 위해 수술 흉터를 줄이는 다양한 치료법에 대해서도 보험급여가 인정되길 바란다. 갑상선암 수술은 암이 발생한 갑상선과 암이 퍼진 림프절까지 완벽하게 제거하는 것이다. 갑상선 주변에는 성대의 움직임과 목소리의 높낮이를 조절하는 신경이 지나가기 때문에 수술 시 자칫 손상될 위험도 있다. 이 같은 고난도 수술임에도 저평가돼 있어 국내 갑상선암 수술 수가는 다른 외과술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돼 있다. 이런 이유로 외과의들이 보상 없이 어렵기만 한 갑상선 수술을 기피해 일부 대형병원에서만 수술을 시행하다 보니 환자들이 큰 병원으로만 몰리는 현상이 벌어진다. 정교함과 기술력을 요하는 갑상선암 수술에 대한 저평가는 갑상선외과 기피현상을 일으키고 결과적으로 갑상선암 수술을 잘하는 의사는 더욱 부족해질 것이다. 갑상선암을 진단하는 데에는 다양한 검사법이 있다. 이중 가장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 미세침흡인 세포검사를 시행하는데, 가느다란 주사바늘로 혹에 세포를 뽑아 병리검사를 실시하는 것이다. 이 경우 BRAF 유전자 검사도 함께 실시한다. 특히 한국인은 서양인에 비해 BRAF 돌연변이 발생률이 전체 유두암종에서 약 2배 높다. 세침흡인 세포검사를 단일검사로 시행했을 때보다 유전자 검사를 병행했을 때 양성과 악성을 선별하는 정확도를 높이고 향후 예후를 예측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알 수 있어 두 검사를 함께 하는 경우가 상당수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세침검사만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고 유전자검사는 제외돼 있다. 많은 환자들이 세침검사와 유전자검사를 함께 하므로 동시에 인정해주는 편이 환자의 부담을 줄이고 예후와 치료율을 높이는 방법이다. 갑상선암의 최신 의료장비들은 수술 후 기능적인 측면뿐 아니라 미용적인 측면도 수술 이전의 삶과 거의 동일하도록 도움을 준다. 그러나 의료장비의 개발 및 보급 속도에 비해 보험급여로의 전환이 늦어지는 편이라 최신 의료기법의 혜택을 받은 환자는 소수에 그치고 있다.박해린 강남차병원 외과 교수(대한갑상선내분비외과학회 총무이사)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261.txt

제목: [항암 밥상-황태 달걀국] 겨울에 어울리는 풍미… 떨어진 입맛 돋우기 제격  
날짜: 2015011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119163058001  
ID: 01100201.20150119163058001  
카테고리: 문화>생활  
본문: 건강을 지키는 식생활의 기본은 제철 식재료를 활용, 음식 궁합을 고려해 먹는 것이다. 특히 한국인은 음식을 먹을 때 여러 식재료와 반찬을 활용한 푸짐한 상차림을 즐기기 때문에 음식 궁합은 단순히 맛의 차원에서 나아가 건강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음식 궁합은 각각의 음식이 가지고 있는 맛과 영양을 보완하고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키는 과학적인 조합을 말한다. 예를 들면, 고기를 구워 먹을 때 배처럼 항암 효과가 높은 음식을 함께 먹으면 체내 발암 유발 물질을 빠르게 배출시켜 주는 효과가 있다. 또한 토마토와 브로콜리를 함께 먹으면 영양적으로 보완이 될 뿐만 아니라 암을 치유하는 능력 자체를 높여주기도 한다. 오늘은 이렇게 음식 궁합이 탁월한 제철 식재료 요리를 소개한다. 보통 겨울이 제철인 명태는 찬바람이 불면 잡히기 시작해 초봄까지 맛이 좋다. 명태는 손질하는 방법에 따라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데, 갓 잡아 올린 싱싱한 것은 생태, 생태를 얼린 것은 동태, 말렸다 얼리기를 반복한 것은 황태, 바싹 말린 것은 북어, 코에 꿰어 반쯤 건조시킨 것은 코다리라고 부른다. 또한 명태를 어떻게 손질하느냐에 따라 함유하고 있는 영양소도 달라지는데, 황태는 생태보다 단백질이 2배 이상 많고 지방이 거의 없어 더 건강한 식재료로 꼽힌다. 특히 황태는 고단백, 저지방 식품으로 콜레스테롤이 거의 없고 신진대사를 활성화시켜 주어 성장기 아동이나 나이 드신 분들에게 좋다. 뿐만 아니라 머리를 맑게 해주는 효과가 있어 수험생들에게도 좋다. 황태는 해독작용을 하는 식품이기도 하다. 공해와 다량의 인스턴트 식품 속 유해물질 섭취로 인해 현대인들에게 고질적으로 나타나는 ‘몸 안에 쌓인 독’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어 암과 질병을 예방하기도 한다. 이런 황태와 궁합이 잘 맞는 식재료는 달걀이다. 황태에는 간을 보호해주는 메티오닌, 리신, 트립토판과 같은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한데, 연말연시에 밥상에 올리기 적합한 황태국을 끓일 때 달걀을 넣으면 시각적인 효과와 더불어 황태 속 단백질의 흡수율을 상승시키는 역할을 해주어 영양을 보완할 수 있다.조규봉 기자 ckb@kukimedia.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262.txt

제목: 신선한 채소 ‘항암효과’ 더할 나위 없네∼  
날짜: 2015010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106161342001  
ID: 01100201.20150106161342001  
카테고리: 문화>생활  
본문: 위암, 대장암, 폐암은 대한암협회가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에서 가장 화제가 된 세 가지 암으로 꼽은 암들이다. 40대 초반의 가수 출신 방송인 고(故) 유채영씨가 지난해 7월, 가수 고 임윤택씨와 배우 고 장진영씨가 각각 2013년과 2009년에 같은 위암으로 유명을 달리했다. 대장암과 폐암은 지난해 11월 배우 김자옥씨를 쓰러뜨렸다. 2008년과 2012년 각각 대장암과 폐암 진단을 받은 김씨가 말기 암과 싸우다 숨지자 사회적으로 큰 반향이 일었다. 대장암은 우리나라에서 갑상선암과 위암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이 생긴다. 폐암은 간암 및 췌장암과 더불어 진단 후 5년 생존율이 가장 낮다. 대한암협회 구범환 회장은 5일 “<span class='quot0'>2015년에도 이 같은 추세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span>”며 “<span class='quot0'>암 공포로부터 벗어나려면 가능한 한 정기검진을 통해 초기에 발견하고, 평소 동물성 고지방 음식보다는 암 억제 효과가 있는 천연 채소류, 생선, 해조류를 섭취하는 것이 좋다</span>”고 조언했다. 최근 일본 교토의대 생화학교실 니시노 호요쿠 교수가 새로 펴낸 ‘암 억제 식품사전’(전나무숲)에서 국내 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대장암과 폐암 예방에 도움이 되는 항암식품을 발췌, 소개한다(별표 참조). ◇호박·당근=호박만큼 우리 생활에서 익숙한 채소도 드물다. 호박죽 호박엿 호박고지떡 호박나물 호박전 호박찌개 등 쓰임새가 다양하다. 항암 효과로는 호박 중에서 겨울철 별미로도 으뜸인 단호박찜이 제일이다. 당근과 마찬가지로 배타카로틴, 알파카로틴 등 천연 카로티노이드 성분이 풍부해 암 억제 작용을 하는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다. 특히 우리 체내에서 비타민A로 바뀌는 베타카로틴은 세포막이나 유전자를 해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며, 암 억제 유전자의 발현을 촉진하고, 세포돌연변이에 관여하는 인지질 대사를 억제하는 항산화물질로 유명하다. 단호박에는 알파카로틴도 많이 함유돼 있다. 니시노 교수팀의 쥐 실험 결과에 따르면 이 물질은 폐암, 간암, 피부암에 대항하는 저항력이 베타카로틴보다 몇 배 높다. 알파카로틴은 당근에도 단호박 못지않게 많이 들어있다. 니시노 교수는 “<span class='quot1'>단호박, 당근, 파슬리, 샐러리 등을 적당한 크기로 채 썰어 수시로 샐러드를 만들어 먹으면 폐암 등의 예방에 도움이 된다</span>”고 말했다. ◇시금치=디즈니 만화영화 ‘뽀빠이’ 때문에 힘이 솟는 채소로 유명한 시금치는 오랫동안 암을 막는 녹황색 채소의 대표주자이자 영양의 보고로 자리매김했다. 시금치에는 실제로 항산화 효과가 뛰어난 비타민A 공급원인 카로티노이드(베타카로틴) 성분이 100g당 4200㎍이나 들어있다. 시금치는 최근 풍부한 루테인 성분 때문에 다시 주목받고 있다. 루테인 역시 강력한 활성산소 제거 작용으로 피부암과 대장암을 억제하는 효과를 나타내는 항산화물질이다. 니시노 교수팀은 책에서 실험용 쥐 30마리에 인위적으로 피부암을 유발한 뒤 시금치에서 추출한 루테인 성분을 지속적으로 주입한 결과 65%에서 암 세포가 줄어들거나 사라지는 변화가 일어났다고 밝혔다. 시금치는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의 보고다. 특히 겨울 시금치는 100g당 비타민C 함유량이 60㎎에 이른다. 여름 시금치의 3배다. 시금치를 조리할 때는 ‘단시간 빨리’가 기본이다. 비타민C가 수용성이라 물에 빨리 녹는데다 가열하면 쉽게 파괴되기 때문이다. 유효성분 루테인 역시 오래 가열하면 파괴된다. ◇신선초=한방에서 생약 재료로 애용하는 미나리과 채소다. 향이 산뜻하고 생명력이 왕성하며 건강에 좋은 성분도 많아 주목을 받는 암 억제 식품이다. 신선초 줄기를 꺾으면 나오는 노란색 액체(황즙)가 폐암 억제 작용을 한다는 보고가 있다. 연구결과 신선초의 황즙 속에는 ‘칼콘’과 ‘트리테르페노이드’라는 물질이 들어있는데 이 물질이 피부암, 폐암, 대장암 발생을 억제하는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밝혀졌다. 일본 메이지약대 오쿠야마 교수팀은 미나리과 식물 14종에서 각각 추출한 즙을 피부암에 걸린 쥐한테 투여하고 20주 동안 관찰하는 실험을 했다. 그 결과 신선초의 황즙이 가장 뚜렷한 피부암 억제 효과를 보였다. 그러나 신선초의 약효를 과신하는 것은 절대 금물이다. 오쿠야마 교수는 “<span class='quot2'>실험결과 신선초의 항암 효과는 예방에만 도움이 될 뿐 이미 암이 진행된 상태에서는 큰 도움이 안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span>”며 “<span class='quot2'>치료 식이보다는 일상생활에서 발암억제 식품 또는 쌈 채소 정도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span>”는 의견을 내놨다. 쑥갓이나 고들빼기와 같이 쓴 맛이 나는 채소를 좋아하는 이들에게 적합하다. ◇고구마=변비 해소 및 겨울철 다이어트 식품으로 애용되는 고구마가 어떤 버섯류나 약차보다 훌륭한 항암작용을 한다는 사실을 아는 이가 얼마나 될까. 일본 유리노키클리닉 사마루 요시오 박사는 도쿄대 의과학연구소에서 모두 82종류의 채소를 대상으로 항암 효과를 평가하는 실험을 진행했다. 그 결과 놀랍게도 익힌 고구마의 암세포 분열 및 증식 억제율은 98.7%, 안 익힌 날 고구마는 94.4%로 각각 1, 2위에 올랐다. 그 다음으로 암세포 분열 및 증식 억제율이 높은 식품은 아스파라거스(93.7%), 파슬리(83.7%), 가지(74,8%), 셀러리(73.7%) 등이었다. 고구마의 강력한 항암 효과는 ‘강글리오시드’란 성분이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우석대전주한방병원 송호철 원장은 “<span class='quot3'>고구마, 신선초, 단호박 등 자연식품이 각종 암 발생을 억제하는 작용과 이미 생긴 암의 증식을 억제 또는 소멸시키는 작용을 똑같이 설명할 수는 없지만 녹황색 채소류와 일부 뿌리 식품 및 푸른 생선 등을 자주 섭취하면 암으로 사망할 위험도가 낮아지는 것은 분명하다</span>”고 말했다.이기수 의학전문기자 kslee@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263.txt

제목: 암 치료 임상과 자연 의학에 대한 정보 가득  
날짜: 2014122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1224155554001  
ID: 01100201.20141224155554001  
카테고리: 문화>출판  
본문: 노태성 원장은 최근 이미 출간돼 인기를 끌어 온 ‘노박사의 따뜻한 암치료’(생명나무)란 저서의 증보판(표지사진)을 냈다. 이미 이 책은 많은 암환자들에 이해하기 쉽고 치료에 많은 도움이 되는 책이란 평가를 받으며 인기리에 읽혀 왔다. 따라서 이번에 다시 많은 자료가 업데이트 되어 더 큰 호응이 기대되고 있다. 또 책 일부는 노 원장의 동생인 노태진 박사(제일진단방사선과의원 원장)도 함께 집필해 형제 공저로 책이 출간됐다. “크리스찬투데이란 주간신문에 건강칼럼을 연재한 것을 모은 것인데 매주 정성을 다해 썼어요. 암환자는 물론 그 가족이나 예방의학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아주 도움이 되는 책입니다.” 모두 11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질병에 대한 전반적인 해설과 이해는 물론 특히 암치료에 대한 많은 지식을 제공해 주고 있다. 노박사가 양의사 이면서도 자연의학에 해박한 지식과 임상을 경험한 내용이 빼곡하다. 1부는 자연의학 들어가기를 소개했고 이어 생사의 갈림길을 사례를 통해 정리한 전환점을 2부에 담았다. 이어 노 박사는 본격적인 저술에 들어가 ‘몸과 마음의 정화’ ‘암이란 무엇인가’ ‘암환자의 건강관리’ ‘암치료 안내’ ‘암치유 명상’‘신앙에세이’ ‘상세치료’ ‘사잔검사’ 등을 차례로 다루고 있다. 이 책은 현재 의학계에서 암에 대한 치료에 적용하고 있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하고 환자나 가족이 판단할 수 있는 기준과 유의점을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아주 유익하다. 암세포의 실체를 알고 이들 세포가 자연소멸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안다면 더이상 암은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준다는 점이 특징이다. “우리 몸은 늘상 암세포가 생기고 사라지는 것을 반복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암세포를 죽이는 백혈구를 많이 갖고 있어 이를 차단하지만 그렇지 못하면 암세포가 퍼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노 박사는 이 책에서 “어떤 암치료를 한다해도 우리의 면역기능이 암세포를 용인하면 암과의 전쟁에서 결국 패한다”며 “따라서 체내의 독소를 없애고 온갖 스트레스를 버려 마음을 깨끗이 하고 적절한 운동과 영양섭취로 혈액순환과 산소공급을 충분히 해 줌으로 암이 자리를 잡지 못하도록 근본원인을 없애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건강서적으론 두꺼운 편인 352페이지에 달하는 ‘노박사의 따뜻한 암치료’는 노 박사의 오랜 암치료 임상과 연구, 신앙을 통해 촘촘히 배어나온 알찬 내용이란 점에서 일반인은 물론 특히 크리스천에게 일독을 권할 만한 건강지침서이다. 김무정 선임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264.txt

제목: 경매로 팔린 노벨상 메달 원주인인 왓슨에 돌아간다  
날짜: 2014121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1211153511001  
ID: 01100201.20141211153511001  
카테고리: 국제>유럽\_EU  
본문: DNA의 이중나선 구조를 밝혀 1962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미국의 과학자 제임스 왓슨(86·사진)이 생활고에 쫓겨 경매로 팔았던 노벨상 메달을 돌려받게 됐다.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는 9일(현지시간) 영국 프리미어리그 축구단 아스널을 소유한 러시아 재벌 알리셰르 우스마노프(61) 회장이 지난 4일 뉴욕 크리스티 경매에서 475만 달러(약 53억원)에 산 왓슨의 노벨상 메달을 돌려줄 계획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우스마노프 회장은 부친이 암으로 사망한 사실을 공개하면서 “<span class='quot0'>암 치료 연구에 밑거름을 제공한 왓슨을 도우려고 경매에 참여했다</span>”고 말했다. 그는 “<span class='quot0'>뛰어난 과학자가 자신의 업적을 기리는 메달을 팔아야 하는 상황을 지켜볼 수만은 없어 ‘정당한 주인’에게 선물로 돌려주려 한다</span>”면서 “<span class='quot0'>내가 지불한 돈은 과학 연구를 뒷받침하는 데 쓰이길 바란다</span>”고 밝혔다. 왓슨은 2007년 영국 선데이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span class='quot1'>흑인이 백인과 동일한 지적능력을 갖췄다는 전제 아래 이뤄지는 서구의 아프리카 정책은 잘못됐다</span>”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그는 노벨상 메달을 내놓은 이유에 대해 “<span class='quot1'>그간 나를 지원해준 여러 교육기관에 기부할 돈이 필요했다</span>”고 말했다. 임세정 기자 fish813@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265.txt

제목: [암과의 동행] “온열요법은 고대부터 사용 암 치료 기본전략 포함 기대”… 대한온열암연구회 학술대회  
날짜: 2014120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1201151749001  
ID: 01100201.20141201151749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암 치료방법 중 최근 몇 년 사이 주목을 받고 있는 온열암치료법은 암조직이 정상조직에 비해 열에 약하다는 원리를 이용한 치료방법이다. 온열암치료는 암 조직에 열을 가해 암 세포의 괴사와 세포자살을 유도하는 암 치료법이다. 국내에서도 의학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해, 지난 2010년 설립된 대한온열암치료연구회 주도로 임상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 대한온열암연구회는 지난달 15일 ‘온코써미아, 기초과학에서 임상까지’를 주제로 제5차 학술대회를 개최했다(사진).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방사선 생물학과 온열암치료의 세계적 권위자인 미네소타대학교 송창원 교수가 ‘암과의 전쟁에서 온열암치료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주제로 특강을 펼쳤다. 또한 기초연구 분야로 온열암 치료장비인 ‘온코써미아’의 분자기전, 면역증강제와의 상승효과, 동물실험에서 여러 장비의 비교 및 세포수준에서의 온도 상승기전 등이 발표됐다. 이어 임상연구 분야에서는 국립암센터와 분당서울대병원 등 국내 4개 센터에서 실시 중인 온코써미아 임상시험 내용이 제시됐다. 송창원 교수는 “온열요법은 고대로부터 암치료에 사용됐다. 현대에는 암조직에만 가열할 수 있는 기술 발달과 더불어 많은 연구를 통해 암치료 효과가 입증됐다. 하지만 아직까지 암치료의 주요한 기본 치료 전략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오늘 발표된 임상연구들이 좋은 성과를 거둬 온열암치료가 기본 치료전략의 하나에 추가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한온열암치료연구회 정태식 회장은 “과거 온열암치료도 경험했고 현재의 온열암치료 장비인 온코써미아로 1500여명의 환자를 치료한 경험으로 본다면, 온열암치료는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는 데 비해 저평가돼 있다.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온열암치료 방향에 고민하고 연구한다면, 앞으로 온열암치료가 암치료의 제4의 기본 치료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온열암 장비 온코써미아를 공급하는 하스피케어 박혜순 대표는 “온코써미아는 와버그 효과, 센트죄르지 효과, 스촨 효과, 타임 프렉탈 효과 등 20세기 후반과 21세기 초에 정립된 최첨단의 생물·물리학의 이론에 의한 효과를 바탕으로 한 장비이다. 일반적으로 치료에 적용되고 있는 온열암치료 제품들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며 “이러한 이론과 효과를 바탕으로 한국에서도 많은 임상의들이 관심을 갖고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스피케어에 따르면 현재 온코써미아는 임상에 참여하고 있는 병원을 포함해 종합병원 20여개 등 모두 70여개 국내 병원에서 90여대가 설치 운영되고 있다. 송병기 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266.txt

제목: [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맞춤형 치료 어떻게… 진단 시기·병기 따라 다양한 요법 시술  
날짜: 2014120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1201151745001  
ID: 01100201.20141201151745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유방암은 원인 인자에 따라 치료법이 다양한 암이다. 암이 얼마나 진행이 됐는지 여부와 암의 병리학적 특징에 따라 치료 접근 전략이 달라진다. 수술이 가능한 경우에는 외과적 수술 및 수술 후 보조요법 등의 순으로 치료를 한다. 하지만 암이 퍼져있거나 수술이 불가능 경우에는 증상 완화를 목적으로 항암화학요법, 항호르몬 요법, 방사선 치료를 적절히 이용한다. 사람마다 얼굴이 다르듯, 유방암의 원인도 다양하다. 이에 따라 유방암 원인에 따라 환자별 ‘맞춤형’ 치료 전략이 필요하다. 유방암은 언제 진단을 받았는지, 어떤 국면에 와 있는 지에 따라 치료가 달라진다. 유방암은 진행에 따라 0기에서 4기로 구분한다. 암을 여러 병기로 나누는 이유는 병의 진행과 예후를 평가하고 치료방법에 따라 결과를 비교하기 위함이다. 유방암 0기로 불리는 ‘상피내암’은 암세포가 상피 내에 국한된 경우를 말한다. WHO에 따르면 암이 아닌 양성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1기는 침윤성 유방암이라 일컬어지며 암세포가 상피뿐만 아니라 주위 유방조직에 침범한 경우다. 1기는 침윤성 유방암 중 가장 초기로 종양의 크기가 2cm 이하이면서 겨드랑이 림프절에 전이가 없고 전신 전이도 없는 경우다. 암 진행에서 매우 초기 단계이므로 재발과 전이가 적어 생존율이 매우 높다. 또한 2기 유방암은 종양 크기가 2cm를 초과하면서 림프절 전이가 심하지 않거나 종양 크기가 2cm 초과 5cm 이하이면서 림프절 전이가 심하지 않는 경우다. 3기는 더욱 진행된 암으로, 종양 크기가 5cm 이하이면서 림프절 전이가 심하거나 5cm 초과이면서 림프절 전이가 있는 경우다. 4기는 말기로도 불리며, 목의 림프선, 뼈, 폐, 간 등의 전신 전이가 있는 경우다. 종양의 대부분은 유관 및 유엽 세포 등에서 발생한다. 초기에 발생 지점이 유방 관련 조직에서 시작한다고 해서 전신으로 전이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혈류 및 림프절을 통해 암 세포가 퍼져 나가 다른 장기에서도 종양이 발견되는 경우를 유방암의 ‘전이’라고 하는데, 병기 구분 상 4기 유방암이 여기에 해당한다. 유방암의 병기는 예후를 결정하는 중요 인자로써, 크게 종양의 크기와 겨드랑이 림프절 전이 여부, 폐나, 뼈, 간 등 전신 전이 여부로 나뉜다. 유방암은 암의 병리학적 특징에 따라 예후가 다르다. 이 때문에 단일한 치료 요법으로 접근하기가 어려운 암 중 하나다. 유방암은 크게 HER2 수용체 양성 여부, 호르몬 수용체 양성 여부 등 원인에 따라서 치료법도 달라진다. 실제 전체 유방암 중 약 70%는 호르몬 양성에 의한 것이며, 약 20%는 HER2 양성이 원인이 된다. 나머지 삼중음성 등 다양한 요인으로 암이 발병한다. HER2 수용체 양성인 경우 HER2 표적 치료에 반응이 좋으며, 호르몬 수용체 양성인 경우 항호르몬 요법을 사용한다. 또 HER2 수용체 음성, 에스트레겐 수용체나 프로게스테론 수용체 등이 모두 음성인 경우를 ‘삼중 음성’ 유방암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 비(非)삼중음성 유방암보다 치료 예후가 불량하다. 유방암의 원인에 따라 치료 전략은 천차만별이다.장윤형 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267.txt

제목: [암과의 동행-알아두세요] 유방암의 숨은 복병 ‘HER2 양성 전이성 유방암’  
날짜: 2014120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1201151742001  
ID: 01100201.20141201151742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유방암은 5년 생존률 90%를 상회하는 치료가 상대적으로 ‘쉬운’ 암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병기와 암의 특성에 따라 같은 유방암이라도 치료 난이도가 크게 달라진다. 5년 생존률이 90%를 웃도는 유방암은 대부분 조기에 발견한 경우다. 폐나 뼈 등 다른 장기로 전이된 상태인 4기 유방암의 경우, 환자들의 절반 이상이 5년 내에 사망한다. 또 조기에 발견돼 치료했다고 하더라도 재발 및 전이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유방암 환자 10명 중 4명은 재발 해 다른 장기로 암이 전이되어 다시 힘든 치료를 받아야 한다. 유방암은 다른 암에 비해 진행이 느려 10년 뒤에도 재발 하는 경우가 많다. 재발 및 전이는 유방암 환자들에게 가장 큰 두려움이자 스트레스 요인이다. 실제로 해외 연구 결과에 따르면 189명의 유방암 재발 환자 및 환자 가족을 대상으로 삶의 질을 평가한 결과, 재발로 인해 환자뿐 아니라 환자 가족이 신체적, 기능적, 정서적 장애를 경험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전이성 유방암(3기∼4기)은 초기 유방암과 치료 접근방법이 다르다. 다른 장기로 전이가 된 상태에서는 완치가 어렵기 때문에 환자의 생존기간 연장과 삶의 질 유지가 주요한 치료 목표다. 따라서 암 치료에 대한 반응과 환자 특성을 고려해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며, 호르몬 수용체(HR) 양성 여부와 HER2 수용체 양성 여부를 구분하여 치료한다. 호르몬 수용체 양성과 HER2 수용체 양성 중 예후가 좋지 않은 유방암은 HER2 양성 유방암이다. HER2 수용체는 정상세포 및 암세포의 표면에 모두 존재하며, 세포의 성장 및 분열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한다. HER2 수용체가 암세포 표면에 비정상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경우를 HER2 양성 유방암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 재발 위험이 높고 생존기간이 짧다. 유방암 환자의 대략 25% 가량에서 HER2 수용체가 과발현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다행히 HER2 수용체만 표적해 작용하는 일명 표적치료제가 등장했다. 표적치료제는 치료 효과는 높이면서도 치료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때문에 HER2 양성인 경우 표적 치료를 통해 우수한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때문에 유방암 진단 후 유전자 검사를 통해 HER2 양성 여부를 확인해 환자 특성에 맞는 치료제를 사용해야 한다. 오늘 날 유방암 환자들의 95%가 HER2 수용체 양성 여부를 검사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외 및 국내 가이드라인에서도 전이성 유방암이면서 HER2 양성인 경우 표적 치료제를 기반으로 한 치료를 권장하고 있다. 표적 치료제와 세포독성 항암제를 병용할 경우 치료 효과의 개선을 기대할 수 있는 데, 경우에 따라서는 표적치료제 2개를 동시에 사용하는 것도 가능 하다. HER2 표적치료제도 점차 진화하고 있다. HER2는 다른 HER 수용체들과 결합해 짝을 이루는 ‘이합체화’라는 과정을 통해 암세포의 성장 촉진 신호를 보내게 된다. 최근 이런 이합체화 과정에서 HER2 수용체를 표적해 짝을 이룰 수 없도록 억제하는 기전의 치료제가 등장했다. 또 유방암에서도 표적치료제와 세포독성 구성성분이 결합한 기전의 항체-약물접합체가 개발됐다. 항체-약물접합체는 암 세포를 표적하는 항체를 사용해 세포독성 약물을 종양세포에 직접 전달 할 수 있어 표적치료제와 세포독성 구성요소의 장점이 조합된 치료제다. 이런 치료제들의 발전이 재발 및 전이로 고통 받는 환자들에게 좋은 치료 옵션으로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장윤형 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268.txt

제목: [김동욱 교수의 백혈병 이야기] 바야흐로 표적항암제의 완승 모드  
날짜: 2014120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1201151804001  
ID: 01100201.20141201151804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지난 14년간 만성골수성백혈병 세포와 과학자들 간에 지루했던 샅바 싸움이 끝날 전망이다. 새로운 표적항암제들이 개발되면서 치료제로 인한 내성 돌연변이 발생의 위험성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만성골수성백혈병은 조만간 표적항암제의 완승으로 인해 ‘완치가 가능한 최초의 혈액암’이 될 것으로 조심스럽게 내다보고 있다. 최근 만성골수성백혈병이 백혈병 줄기세포에 의해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지며 서서히 초기 발병 과정의 베일이 벗겨지고 있는 것도 표적항암제만으로의 완치를 크게 기대하게 하는 중요한 이유다. 백혈병 줄기세포란 무엇일까. 우선 백혈병 줄기세포는 정상적인 혈액 세포를 만들어 내는 정상 혈액 줄기세포와 모양이 같고, 구별이 어려워 이제까지 일부 과학자들의 상상 속에만 존재하는 세포였다. 하지만 골수에 존재하는 혈액 세포 중에 ‘BCR-ABL1’ 유전자 이상을 보이며 동시에 모든 혈액 줄기세포 표면에서 발견되는 ‘CD34’ 항원 단백질을 가진 세포가 만성골수성백혈병 줄기세포로 성공적인 분리가 가능해지게 되면서 상상이 아닌 현실 속의 세포가 된 것이다. 백혈병 줄기세포는 1% 미만의 암세포만이 세포 증식에 동원돼 활동하며 대부분의 세포들은 대사를 멈춘 휴면 상태에 있기 때문에 표적항암제들이 작용해 이들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기는 쉽지 않다. 즉, 이제까지 개발된 표적항암제들은 백혈병 줄기세포를 근본적으로 없애지 못한 채 그들이 만들어 내고 있는 자손 세포들만 제거하는 부분적인 역할을 해 온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백혈병 줄기세포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치료제가 개발되기 전에는 치료 과정에서 재발은 필연적인 숙제로 남게 되고, 암환자들은 평생 치료제를 복용해야만 한다는 등식이 성립된다. 최근 한국을 포함한 프랑스, 일본, 호주 등의 글리벡 표적항암제 중단 연구 결과들을 보면 비록 백혈병 줄기세포가 인간의 몸속에 남아 있다 하더라도 인체에 손상을 줄 정도까지 늘어나지 않고 아주 적은 수준으로 지속되는 현상들이 관찰됐다. 이에 ‘완치를 위해 반드시 모든 백혈병 줄기세포를 제거해야만 할까?’라는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다. 즉, 백혈병 줄기세포가 남아있더라도 지속적인 치료로 그 수준이 진단 시 백혈병 세포의 약 5만배 이상 감소해 장기간 지속됐다면, 항암제 치료를 중단하고도 백혈병 세포가 늘어나지 않는 ‘기능적 완치’라는 개념이 정립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표적항암제는 평생을 복용해야 한다는 게 의학계의 정석이었다. 표적항암제는 백혈병 줄기세포에 직접적으로 작용하지 못해 백혈병 세포의 완전 제거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백혈병 줄기세포에 대한 대사 과정 연구와 표적항암제 중단 임상연구에 의해 이러한 고정 개념이 서서히 깨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2010년부터 보건복지부 암정복추진기획단의 지원으로 ‘한국 글리벡 중단 다기관 중개융합연구’를 통해 약 100명의 환자가 성공적인 표적항암제 중단이 가능한 기능적 완치 상태에 도달했고, 5년간 10억원을 투자한 이 임상연구를 통해 현재까지 다국적제약사로부터 글리벡을 수입하지 않아 절약한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약 45억원에 이르고 있다. 즉, 백혈병 줄기세포 연구와 결합된 표적항암제 중단 연구는 환자들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였으며, 건강보험재정을 건실하게 하는 국가 암정복 추진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다. 김동욱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혈액내과 교수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269.txt

제목: [건강 나침반] 치매 예방 첫걸음은 건강한 구강 유지부터  
날짜: 2014120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1201151807001  
ID: 01100201.20141201151807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치매는 구강세균에 의한 감염이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치아를 둘러싼 잇몸 조직은 혈관이 잘 발달돼 있어 구강세균은 혈관을 타고 전신으로 퍼진다. 특히 공기가 없는 곳에 살아가는 혐기성 세균은 공기가 희박한 혈관 내 먼 거리로 이동해서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당뇨를 비롯한 혈관 관련 질환과 만성면역성 질환을 유발한다. 세균 감염은 종양 괴사인자나 인터루킨 및 C-반응성단백질 등의 염증 분자를 생산하고 이들은 인슐린의 작용을 방해해 인슐린 저항성 당뇨를 유발하게 된다. 인슐린의 저항 당뇨 환자에서 고인슐린혈증이 발생되면 혈관 내피세포의 산화질소, 프로스타사이클린(PGI2), 과산화수소 등이 관련된 혈관 내피세포 기능장애가 발생한다. 염증으로 생긴 종양괴사인자는 혈관의 형태학적, 생체역학적, 동적변화를 초래하게 되는데 뇌혈관의 경우 혈액뇌장벽(blood-brain barrier)이 무너진다. 염증에 의해 혈액뇌장벽의 혈관투과성이 증가하면 미세하게 출혈이 생겨 적혈구의 철분이 뇌에 쌓이게 된다. 철분은 반응성 산소종을 생기게 하는 촉매 역할을 하게 돼 혈관뇌장벽(BBB)의 파괴를 가속화해 치매로 이어진다. 알츠하이머나 치매는 이러한 과정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신경내분비 질환으로 여겨지기도 하지만 한마디로 염증에 의한 신경퇴행성 질환이라고 특징짓는다. 구강 내 세균 중에서 혐기성세균인 포르피로모나스 진지발리스가 치매의 원인균으로 알려졌다. 진지발리스는 구강잇몸을 통해 혈관 내피 세포에 침투, 유전자 변이를 통해 암을 일으킨다. 진지발리스는 NDK, LPS, PAD, Gingipain 등의 효소와 당단백질을 가지고 있다. NDK는 진지발리스를 사람 세포내 침투작용을 하고 LPS는 혈관 투과성을 증가시켜 혈전을 유도해 혈전증을 일으킨다. PAD와 Gingipain은 피브리노겐, a-에놀라제와 같은 단백질들을 시트룰린으로 변화시켜 치매를 유발한다. 진지발리스는 혈관을 통해 이동하다 E-Selectin, P-selectin 등의 부착분자에 의해 혈관세포에 부착해 뇌혈관 등 각종 혈관 질환을 일으키기도 한다. 정리하면 구강 내 혐기성세균에 의한 염증이 전신질환을 일으키고 혈관질환을 일으킨다. 뇌의 기능 저하로 이어져 치매를 유발하는 것이다. 때문에 구강 건강이 열악한 사람들의 경우 치매가 걸릴 확률이 높다. 얼핏 구강이 건강해 보이는 사람도 치매가 올 수 있다. 진지발리스균의 감염을 눈으로 확인할 수 없어 위험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 감염 여부를 알기 위해 유전자 검사가 필수적이며 필요하면 혈액검사가 추가 돼야 한다. 치매의 예방을 위해서 조기 검사가 매우 중요하다. 치매는 감염과 당뇨와의 연관성이 매우 높고 감염과 당뇨의 진행 정도는 체내 AGE축적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혈액이나 뇌 척수액에서 AGE를 측정해 초기 치매를 진단할 수 있다. 바늘로 채혈하는 혈액검사보다 자외선을 피부에 조사해 AGE를 측정하는 방법도 효과적이다. 치매예방을 위해 조기검진과 올바른 치과치료, 그리고 환자자신의 현명함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황정빈 신세계치과 원장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270.txt

제목: 항균 물비누 ‘트리클로산’ 발암 위험… 미 UC 교수 논문서 주장  
날짜: 201411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1120104416002  
ID: 01100201.20141120104416002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항균 물비누, 보디워시, 치약 등에 많이 쓰이는 항균제 ‘트리클로산’이 간섬유화(liver fibrosis)와 암을 일으킨다는 동물 실험 결과가 나왔다. 미국 캘리포니아대(UC) 샌디에이고의 로버트 튜키 교수와 UC 데이비스의 브루스 해먹 교수 등은 이런 내용을 포함한 논문을 17일(현지시간) 발행된 미국 학술원회보(PNAS)에 실었다. 논문에 따르면 6개월간 트리클로산에 노출된 쥐는 간 종양에 걸릴 확률이 더 높았고, 종양 크기도 더 컸다. 이 노출 기간은 사람으로 따지면 약 18년에 해당한다. 연구진은 또 트리클로산 노출로 쥐의 발병이 늘어나는 기전을 검토한 결과 인간에게도 마찬가지 위험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튜키 교수는 특히 유사한 작용을 하는 다른 화합물과 함께 트리클로산에 노출될 때 위험이 더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튜키 교수는 생활 주변에서 채취된 샘플에서 트리클로산이 검출되는 사례가 늘고 소비자용 제품에서 이 물질이 널리 쓰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span class='quot0'>이 물질을 사용하는데 따른 이득은 그리 크지 않은데 쥐와 마찬가지로 사람에 대한 간 독성 위험이 있다</span>”고 지적했다. 트리클로산은 미국의 강에서 가장 흔히 검출되는 화합물 7개 중 하나이며, 수유를 하는 산모의 모유 중 97%, 검사 대상자 중 75%의 소변에서 이 물질이 검출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해먹 교수는 “<span class='quot1'>트리클로산 사용에 따른 이득이 적다면 이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트리클로산의 인체·환경 노출을 줄일 수 있다</span>”고 제언했다. 그는 다만 “<span class='quot1'>치약은 트리클로산 사용량이 적고 건강에 좋은 영향을 주므로 그대로 써도 좋다</span>”고 했다.손병호 기자 bhson@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271.txt

제목: [항암제 이야기-넥사바] 신장암·간암 적용되던 다중표적제, 분화 갑상선암까지 치료영역 확대  
날짜: 2014111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1118145932001  
ID: 01100201.20141118145932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한 가지 암뿐 아니라 여러 가지 암을 치료할 수 있는 항암제가 있다. 특정 암 세포만 선택적으로 표적해 치료하는 단일 표적항암제에서 더 진화된 다중표적항암제가 주목을 받고 있다. 바이엘헬스케어의 ‘넥사바’는 신장암, 간암에 이어 갑상선암을 치료하는 다중표적항암제다. 단일 표적 치료제가 암세포 또는 혈관 내피세포 중 하나를 차단하는 원리라고 한다면, 다중표적항암제는 표적항암제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개념이다. 다중표적항암제는 정상세포에는 거의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암세포는 물론이거니와 암세포에 영양을 공급하는 혈관 내피세포까지 선택적으로 차단한다. 따라서 다중표적항암제는 종양의 증식과 혈관 생성을 효과적으로 차단해 치료 효과를 높이는 반면, 기존의 세포 독성 항암제들이 정상세포에까지 영향을 미쳐 생겼던 탈모, 구토 등의 부작용을 줄여준다. 넥사바는 지난 2005년 12월 세계 최초의 경구용 진행성 신장 세포암 치료제로 시판 허가를 받은 데 이어, 2007년 11월에는 간 세포암 환자의 생존율을 유의하게 연장시킨 최초의 경구 치료제로서 절제수술이 불가능한 간 세포암 치료제로 미국 FDA의 승인을 획득했다. 국내에서는 지난 2006년 신장 세포암에 대한 적응증 승인에 이어, 2008년 간 세포성 암에 대한 허가를 받았다. 또 2011년 11월부터 간암에 대한 건강보험급여가 적용되면서 많은 간암 환자들에게 치료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최근 넥사바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방사성 요오드에 불응한 국소 재발성 또는 전이성의 진행성 분화 갑상선암 치료제로 승인 받았다. 갑상선암은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내분비계 암종 중의 하나다. 전 세계적으로 매년 약 3만5000명의 환자가 사망에 이른다. 한국에서는 2011년 기준, 약 4만 명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21만5000명 정도의 환자가 갑상선암으로 치료 받고 있다. 넥사바는 방사성 요오드에 불응한 국소 재발성 또는 전이성의 진행성 분화 갑상선암에 대해 허가받은 표적항암제다. 넥사바는 국내에서 간세포성암 및 사이토카인(cytokine) 치료에 실패 경험이 있거나 이러한 요법이 적절하지 않은 진행성 신장세포암 치료제로 허가받아 사용되고 있다. 넥사바에 대한 이번 국내 승인은 방사성 요오드 치료에 반응하지 않은 국소 재발성 또는 전이성의 진행성 분화 갑상선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DECISION 3상 임상시험의 결과에 근거한 것이다. DECISION 연구 결과에 따르면 위약군의 무진행 생존기간의 중앙값이 5.8개월인 데 비해, 넥사바 치료군은 10.8개월로 무진행 생존기간을 5개월 연장시켰다. 또 위약군에 비해 질병의 진행이나 사망 위험을 41% 유의하게 감소시켰다. 이 연구결과는 제49회 미국임상종양학회(ASCO) 연례학술대회에서 발표됐다. 노상경 바이엘헬스케어 전문의약품 사업부 대표는 “<span class='quot0'>넥사바의 유용성이 진행성 분화 갑상선암의 치료에까지 확대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대부분의 분화 갑상선암이 치료된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표준치료법에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 환자들이 있는 만큼 넥사바가 이 환자들에게 새롭고 효과적인 치료 옵션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span>”고 말했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272.txt

제목: [암과의 동행] 일본·호주선 자궁경부암 부작용 논란… 백신 연관성 밝혀지지 않아  
날짜: 2014111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1118104235001  
ID: 01100201.20141118104235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지난해 일본에서는 자궁경부암 백신을 맞은 여성들이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라는 이상 반응을 보였고, 이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파장이 커지며 자궁경부암 백신 안전성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일본에서 자궁경부암 백신을 접종하고 이상증세가 나타났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일본과 근접한 한국에서 유독 크게 논란이 되면서 백신 접종률이 급감하기도 했다. 자궁경부암 백신에 대한 부작용 논란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한동안 자궁경부암 백신을 기피하는 여성들이 많았다. 자궁경부암은 세계적으로는 2분마다 1명씩, 국내에서 하루에 3명씩 사망하는 대표적인 여성암이다. 이에 지난 몇 년간 정부기관이나 학회는 자궁경부암의 위험성을 알리고 예방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캠페인을 펼쳐왔다.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은 가장 좋은 예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많은 여성들은 이 백신에 대해 의구심이 많다. 백신 접종에 관심이 있는 여성들은 ‘백신을 10대에 맞아도 되는 건지’, ‘부작용 문제는 없는지’, ‘자궁경부암을 100% 예방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궁금해 한다. 이에 자궁경부암 백신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짚어본다. 지난해 일본에서 자궁경부암 백신 부작용 사례가 보도되며 불안감이 높아졌다. 자궁경부암 백신의 안전성에 문제는 없을까. 주웅 이대여성암병원 부인종양센터 교수는 “<span class='quot0'>백신 접종 후 발생했다고 주장되는 신경학적 이상이나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백신 접종과 선후 관계만 있을 뿐 인과관계의 증명은 되지 않았다</span>”며 “<span class='quot0'>선후관계만 보고 인과관계 결론을 내리는 것은 과학적이지 않다</span>”고 밝혔다. 실제 일본에서 보고된 부작용 사례는 아직까지 명확한 백신과의 인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일본 후생노동성에서는 이상 반응이 심인성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호주에서도 학교 집단 접종 초기 여학생들이 주사를 맞고 실신을 하는 등의 이상 반응이 보고 된 바 있지만 이 역시 백신과의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백신에 들어있는 알루미늄 성분이 원인이라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알루미늄염은 80년 넘게 백신에 사용됐으며 전체 백신의 80%가량이 이를 포함하고 있다.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국제기구에서도 백신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WHO 산하 단체인 국제 백신 안전성 자문위원회(GACVS)에서는 HPV 백신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음을 밝혔다. 가장 흔한 부작용으로 팔의 통증이나 두드러기 등의 경미한 증상이 있을 수 있으나, 대부분 금방 사라진다. 소아 청소년의 경우도 HPV 예방 백신 접종이 필요할까. 주 교수는 “<span class='quot1'>자궁경부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성생활을 시작하는 연령이 되기 이전에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span>”고 설명했다. 최근 가다실 등 자궁경부암 백신은 2회 접종으로 변경·승인되며 접종의 경제적 부담을 줄였다. 백신을 맞으면 자궁경부암이 100% 예방이 될까. 주 교수는 “<span class='quot1'>현재 시판되는 백신은 이론적으로 자궁경부암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중 70%를 막아 주도록 개발됐다</span>”며 “<span class='quot1'>실제 접종을 해보니 그 보다 더 높은 예방률을 보이고 있다</span>”고 설명했다. 장윤형 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273.txt

제목: 스마트 가발·안구 마우스… 웨어러블 컴퓨터 경진대회서 기발한 아이디어의 작품 봇물  
날짜: 2014111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1114145407001  
ID: 01100201.20141114145407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암 환자를 위한 ‘스마트 가발’(사진), 후방카메라와 내비게이션이 장착된 오토바이 운전자용 헬멧, 수중 구조 활동을 돕는 스마트 물안경, 루게릭병 환자를 위한 ‘안구 마우스’. 카이스트(한국과학기술원·KAIST)가 13일 개최한 ‘웨어러블 컴퓨터 경진대회’에 기발한 아이디어로 무장한 작품들이 나왔다. 웨어러블 컴퓨터는 언제든 손쉽게 쓸 수 있도록 몸이나 옷 일부분에 착용하도록 만든 컴퓨터다. 인터넷에 기반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 안경 ‘구글 글래스’, 스마트 시계 ‘갤럭시 기어’ 등은 이미 상용화됐다. 출품작 중 ‘암 환자를 위한 스마트 가발’은 가발 안에 심박수와 체온을 재는 센서가 내장돼 있다. 환자가 갑자기 쓰러지는 등 응급사고가 생기면 보호자에게 스마트폰으로 알려준다. 잠수부의 수중 구조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초음파 센서를 활용한 스마트 물안경’도 출품됐다. 스마트 물안경은 가시광선이 아닌 초음파로 시야를 확보한다. 깊은 물 속이나 매연, 분진 등이 많은 사고 현장에서 구조대원들의 시야를 확보하는 장비로 쓰일 수 있다. 실시간 수심을 체크해 주는 ‘스마트 구명조끼’도 있다. 물 밖에 있는 사람에게도 수심 정보가 전송돼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 만약 사고가 나더라도 버튼을 누르면 현재 위치가 미리 등록된 번호로 전송되는 기능도 장착됐다. ‘스마트 슈즈’는 사용자가 어떻게 걷는지에 따라 신발 모양이 조절돼 가장 편안하게 걸을 수 있도록 착용감을 조절해준다. ‘내비게이션이 장착된 깔창’도 출품됐다. 깔창에 내비게이션이 달려 있어 미리 계획한 여행 경로를 설정해 놓으면 진동을 통해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구동된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대학생 52개팀이 지원했고 15개팀이 본선에 올랐다. 건강관리 제품이 6개, 오락·정보 제품이 9개다. 시상식은 14일 열리고 11개팀이 수상 예정이다.문수정 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274.txt

제목: [인포그래픽] 몸의 동력 혈액, 질병 진단 보고서…  
날짜: 2014102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1029142800001  
ID: 01100201.20141029142800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이미지를 크게 보려면 국민일보 홈페이지에서 여기를 '클릭' 하세요혈액학적 검사 여기에는 혈구 검사, 즉 CBC(Complete Blood Count)가 있다. 이것은 혈색소, 헤마토크릿(혈구용적),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수, 백혈구의 세포백분율 등을 측정하는 것이다. 혈색소가 감소된 경우 빈혈의 진단을 내릴 수 있으며, 멍이 잘 들고 혈액 응고에 문제가 발생하는 혈소판 감소증을 알 수 있고 백혈구 수의 증감, 백혈구 백분율의 변화를 보면 백혈병 등 백혈구 질환의 잠정적인 진단을 얻을 수 있다. CBC에서 이상 소견이 나타나면 혈액도말 검사(혈액을 슬라이드에 얇게 발라 염색하여 혈구의 모양, 수 등을 직접 현미경으로 관찰), 골수 검사 등을 시행하여 CBC에서 나타난 혈액 질환에 대해 더 자세한 진단을 내리게 된다. 미생물학적 검사세균 검사를 말한다. 박테리아, 결핵균, 바이러스, 곰팡이균 등에 대한 배양 검사가 모두 시행될 수 있어 감염의 원인을 밝혀 적절한 항생제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검사이다.혈청 생 화학 검사혈액 내의 각종 물질의 농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혈당이 기준치 이상으로 높아지는 당뇨병을 진단할 수 있으며, 간과 관련된 각종 효소 즉, AST, ALT, Gamma-GT, 알칼라인 포스파타제 등을 측정하여 간염, 지방성 간 질환, 간경화, 간암 등의 진단과 치료 효과를 보는 데 이용한다. 또한 여러 원인에 의해 발생되는 황달의 경우 그 정도를 수치로 표현해 주는 빌리루빈 등도 측정한다. 또한 노폐물을 걸러 주는 신장 기능에 이상이 왔을 때 증가되는 BUN, 크레아티닌 등이 포함된다. 이외에도 각종 특수 화학 검사가 시행되는데 이는 심근경색증, 갑상선기능항진증 및 저하증, 각종 대사 산물은 선천성, 또는 후천성 대사 질환의 진단을 내려준다. 화학 검사에는 암표지자 검사가 포함되는데 이들은 특정 암을 직접 진단해 주지는 못하지만 암의 진단을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수혈 검사기본적으로 혈액형 검사가 있으며 수혈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적혈구 항체를 규명하는 검사도 포함된다. 각종 적혈구 항원 검사와 조직적 합성 항원(HLA) 검사를 같이하여 친자 감별도 실시한다. 유전학 검사는 혈액 내에서 DNA, RNA 등 핵산을 추출하여 유전자 검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각종 유전자 이상을 진단한다.면역 혈청 검사각종 세균 및 바이러스에 대한 항원, 항체 검사가 포함된다. 즉, B, C형 간염, 에이즈, 매독 등에 대한 항원·항체 검사로 이들 감염증을 진단한다. 또한 류머티즘 질환 진단과 함께 각종 면역 세포의 기능도 혈액에서 이들 면역 세포를 분리해내어 실시할 수 있다. 기타 알레르기의 각종 원인이 되는 물질에 대한 혈액 내의 특정 면역 글로블린을 측정함으로써 알레르기의 원인을 밝힐 수 있다.혈액질환혈우병(Hemophilla)엄마나 아빠 염색체에 있는 X염색체가 자식 염색체로 유전된다. 혈우병A는 제8 응고인자가, 혈우병B는 제9 혈액응고인자가 유전적으로 결핍되어 생긴다. 혈우병 유발 유전자는 X염색체에 존재하며 열성으로 유전된다.혈소판 감소증(Thrombocytopenia)골수에서 혈소판을 못 만들거나 만들어진 혈소판이 어떤 원인에 의해 소모 또는 파괴될 때 발생한다. 자가면역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 등 : 혈소판이 항체에 의해 제거되었을 때. 파종성 혈관내 응고증 등 : 혈액응고에 의해 소모되었을 때. 백혈병, 재생불량성 빈혈, 암전이 등 : 골수에 병이 생겨 혈소판을 제대로 만들지 못할 때.백혈병(Leukemia)골수에 백혈병 세포가 자랄 때 정상기능을 하는 백혈구는 물론 적혈구와 혈소판도 제대로 만들 수 없는 상태가 된다. 미성숙 백혈구들이 지나치게 증가하고 박테리아에 대한 방어능력이 없어져 세균 감염 또는 출혈로 사망할 수 있다. 백혈병 환자들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특히 혈소판 수혈에 의지하여 투병한다.Rh신생아 용혈성 질환 Rh(D)음성 임산부가 Rh(D) 양성 아기를 가졌을 때 출산 또는 유산 등의 과정을 통하여 아기의 적혈구가 엄마의 혈액 내로 유입되면 엄마 몸의 면역 반응에 의해 엄마는 Rh항체(anti-D) 를 가진다. anti-D를 가진 여성이 Rh(D) 아기를 다시 임신하면 아기의 Rh 양성 적혈구를 파괴하여 아기에게 심한 황달, 빈혈 등이 나타난다.빈혈적혈구가 부족한 상태로 산소공급이 원활하지 못하여 쉽게 숨이 차고 심장이 빨리 뛰게 되고 기운이 없어진다. 철결핍성 빈혈 : 헤모글로빈 생성시 필수적인 철이 부족하여 생기며 철분제제를 공급하여 치료한다. 백혈병 재생불량성 빈혈 : 골수에 병이 생겨 발생하며 항암제 치료 또는 골수이식을 한다. 자가면역성 용혈성 빈혈 : 자가항체에 의해 일찍 제거되어 발생하며 자가 항체가 감소되도록 치료한다.혈액형이란생명체들의 다양성을 나타내는 형질 중의 하나. ABO, Rh, MNSs, P, Li, lewis, Duffy, Kidd, Kell 등 수백가지가 존재. 적혈구 표면에는 수많은 구조물이 있고, 적혈구 표면에서 중요한 일을 하고 있으며, 이런 구조물 때문에 ABO, Rh, MNSs, P, Li, lewis 등 수많은 적혈구 ABO혈액형 이외의 항원들은 수혈 후 비예기 항체(unexpected antibody)를 만들 수 있어 ABO혈액형이 맞더라도 용혈성 수혈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우리나라 비예기 항체 빈도는 0.2∼0.6%이다.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275.txt

제목: [암과의 동행] 2014 웰니스 케어 컨퍼런스… 스마트 시대의 건강관리 주제  
날짜: 201410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1021102627001  
ID: 01100201.20141021102627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국민일보 쿠키뉴스는 맞춤형 웰니스케어 산업 추진 현황을 살피고, 국내 헬스케어 산업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오는 11월 27일(목) 오후 1시부터 서울 광화문 올레스퀘어 1층 드림홀에서 ‘2014 웰니스 케어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스마트 시대의 건강관리’를 주제로 한 이번 컨퍼런스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공동 주최하고 국민일보 쿠키뉴스가 주관한다. 이번 웰니스 케어 컨퍼런스는 웰니스, 스마트기술 분야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미래성장동력 핵심 분야인 맞춤형 웰니스케어 산업의 추진 전략과 정책 현황, 소비자 대상의 헬스케어 기기 및 서비스 동향을 공유하고, 국내 헬스케어 시장 재도약의 기반을 모색한다. 특히 이번 컨퍼런스에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 의원이 공동 조직위원장으로 참가한다. 컨퍼런스는 ‘미래성장동력, 맞춤형 웰니스케어 산업 추진 전략’(백롱민 분당서울대병원 부원장) 주제의 기조강연과 △개인건강관리 관련 정책 현황 △소비자 대상의 헬스케어 기기 및 서비스 동향 △ICT융합 기반의 맞춤형 건강 웰니스 서비스 사례 △해외 주요국의 웨어러블 디바이스 활용 사례 등이 발표된다. 한편, 부대행사로 ‘스마트 건강관리 아이디어 공모전’이 10월 23일(목)부터 11월 16일(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공모전은 ‘착용형 스마트기기’, ‘지능형 사물 인터넷’ 기술의 발전에 따라 다양한 디바이스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생활 속에서 누구나 손쉽게 할 수 있는 ‘스마트 건강관리’ 문화의 확산을 위해 마련됐으며, 시상식은 컨퍼런스 당일 함께 개최된다. 송병기 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276.txt

제목: [암과의 동행] 인하대병원 인천 유일 ‘사이버나이프’ 치료  
날짜: 201410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1021141721001  
ID: 01100201.20141021141721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3년전 건강검진을 받던 A(62·남)씨는 전립선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상승해 전립선암 진단을 받았다. 직장생활을 하던 A씨는 장기간 입원이 힘들어 인하대병원을 찾아 의료진과 상담 후 사이버나이프 치료를 결정했다. A씨는 입원을 하지 않고 매일 1시간30분 동안 통원치료로 사이버나이프 수술을 5일간 받았다. 치료 종료 후 3주간 약간의 배뇨통 이외에는 별다른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고, 현재 재발 없이 건강하게 살고 있다. ◇입원 없이 통원 치료와 빠른 일상 복귀 가능=외과적수술 없이 암 수술을 하는 최첨단 장비가 ‘사이버나이프(Cyber Knife)’다. 이는 첨단 로봇기술과 컴퓨터 기술을 방사선종양학분야에 접목한 방사선수술 장비로, 신체 어느 부위라도 안전한 방사선 수술을 시행할 수 있도록 개발된 정위 방사선 치료 프로그램이다. 이 장비는 말 그대로 보이지 않는 사이버 칼(나이프)인 방사선을 이용한 치료법으로, 종양 부위에 방사선을 집중적으로 쪼여 종양을 괴사시킨다. 기존 감마나이프와 달리 로봇팔에 의해 1248개의 방향에서 원하는 신체 부위로 방사선을 조사(照射)하면서 치료하는 것이 장점이다. 인천지역에서 유일하게 지난 2008년부터 사이버나이프 장비를 운영하고 있는 인하대병원 사이버나이프센터 김우철 소장(방사선종양학과 교수)은 “<span class='quot0'>사이버나이프는 방사선 수술 전용장비로 종양에 방사선을 집중적으로 다량 조사해 종양을 죽이는 첨단 장비</span>”라며 “<span class='quot0'>기존 방사선치료와 달리 세밀하고 정확하게 방사선을 조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span>”고 설명했다. 특히 사이버나이프 수술은 1회 치료 시 기존의 방사선치료와 비교해 3∼8배 이상의 방사선을 조사해 치료 기간이 짧고, 환자들의 회복도 빠른 장점이 있다. 적용 대상 암은 뇌전이암을 포함한 뇌종양, 폐암, 간암, 전립선암, 두경부암 등이다. 하지만 사이버나이프도 제한은 있다. 김 소장은 “모든 종양에서 사이버나이프가 적용되지는 않는다. 크기가 적은 암, 조양의 크기가 대략 5㎝이하인 경우에 가능하다”고 말했다. ◇검증된 암 장비로 지역사회 암 극복=A씨처럼 전립선암의 경우 기존 방사선치료 장비보다 치료 범위 정확도가 높아 좁은 범위에 더 많은 양의 방사선을 쪼일 수 있다. 윤상민 인하대병원 비뇨기과 교수는 “<span class='quot1'>주변 조직에 방사선을 노출시키지 않아 방사선에 의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고, 전립선에는 방사선량을 높여 효과는 최대화할 수 있다</span>”고 설명했다. 폐암의 경우에는 종양이 움직이는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해 정확한 방사선 조사가 가능하다. 따라서 폐암환자가 숨을 쉴 때마다 움직이는 폐 조직의 미세한 움직임을 정확히 추적해 조직에 붙어있는 암세포만을 제거하고 주변 정상 조직의 손상을 줄여 최대의 수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류정선 인하대병원 폐암센터 교수는 “<span class='quot1'>기존 방사선 치료는 10일에서 60일이 소요되는 반면 인하대병원 사이버나이프 치료는 대부분 1주일 안에 치료를 끝낼 수 있고 외래 통원치료가 가능하다</span>”고 장점을 꼽았다. 이러한 첨단 치료법을 통해 지역사회 암 극복을 위해 최근 인하대병원은 환자들의 치료비용을 낮추기로 결정했다. 김 소장은 “<span class='quot0'>첨단 장비를 통한 치료비용 부담이 크지만, 인하대병원은 지역사회 암 극복을 위해 비용 부분을 적절히 조정해 보다 많은 암 환자들이 장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span>”며 “<span class='quot0'>사이버나이프를 포함한 모든 암 치료 시 환자들이 의료진을 믿고 암을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기를 바란다</span>”고 당부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277.txt

제목: [항암 밥상-애호박 젓국찌개] 찬바람 불때 따뜻한 국물… 넉넉한 즐거움  
날짜: 201410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1021141752001  
ID: 01100201.20141021141752001  
카테고리: 문화>생활  
본문: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하루에 다섯 가지 색깔을 가진 다양한 과일과 채소를 400g 이상 섭취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한 연구기관에서는 여러 색깔의 채소와 과일을 섞어 하루 권장량(400g) 이상을 섭취하면 암 발생률을 최소 20% 정도 낮출 수 있다고 밝혔다. 각종 색깔 채소와 과일에는 다양한 종류의 비타민, 미네랄뿐만 아니라 각종 생리활성물질이 들어 있어 암, 심혈관 질환, 노화 예방 등에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그중 여름의 더위와 강렬한 햇살에도 마르지 않는 생명력을 자랑하는 호박은 밝은 주황색을 대표하는 채소로, 주변에서 흔히 구할 수 있으며 암을 예방하는 항암효과 역시 탁월하다. 지난 2008년에는 뉴욕타임스가 ‘푸대접 받고 있지만 진가를 알아야 할 식품 11가지’ 중 첫 번째로 호박과 호박씨를 선정할 만큼 체내에서 유용한 역할을 하는 성분이 다량 포함돼 있다. 호박 속에서 노란 빛을 띠는 베타카로틴은 암세포의 생성과 증식을 억제하는 항암 효과를 가진 물질이며, 호박에 풍부하게 들어 있는 칼륨은 체내의 나트륨 배출을 용이하게 해 주고 혈액 속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 주어 혈압을 조절하게 하는 기능이 있다. 또한 호박은 저칼로리 식품으로 섬유소와 비타민, 미네랄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다이어트 음식으로도 좋다. 하지만 다른 양념이나 기름을 첨가하게 되면 칼로리가 올라가므로 된장찌개나 국 등에 넣어 먹는 방법이 바람직하다. 그중 ‘애호박’은 다른 호박에 비해 소화 흡수가 잘돼 소화력이 약한 환자나 아이들이 먹기에도 좋으며, 엽산 성분이 풍부해 임신 중인 산모와 태아에게도 아주 좋은 식재료이다. 애호박으로는 호박나물, 호박전, 호박찜, 호박찌개 등 다양한 응용이 가능하며, 가늘게 채 썰어 고명으로 얹기도 한다. 호박은 새우젓과 음식 궁합이 좋은데, 새우젓을 넣고 조리하면 호박이 무르지 않고 뭉그러지지 않도록 조리할 수 있다. 새우젓은 발효하는 동안 새우 껍질에 존재하는 키틴이라는 성분의 일부가 분해돼 ‘키틴 올리고당’이 생기는데, 키틴 올리고당은 면역에 관여하는 대식 세포를 활성화하고, 면역 담당 세포를 강화시켜 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음식 궁합뿐만 아니라 항암 효과까지 있는 애호박과 새우젓을 이용해, 쌀쌀한 날씨에 따뜻하게 즐길 수 있는 애호박젓국찌개를 끓여 보자. 조규봉 기자 ckb@kukimedia.co.kr도움말:샘표요리과학연구소 지미원 / 송지희 영양사&고효정 셰프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278.txt

제목: [암과의 동행] 모바일 헬스케어 지금부터 시작  
날짜: 201410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1021141735001  
ID: 01100201.20141021141735001  
카테고리: IT\_과학>인터넷\_SNS  
본문: 애플, 구글, 삼성 등 글로벌 국내외 기업이 IT와 헬스케어가 접목된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에 진출하고 있다. 아직 명확한 가이드라인도 없고, 나아갈 방향도 정해지지 않아 정부나 산업계도 선도기업들의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에 의료기기업체 쿡메디칼코리아가 학계와 정부, 산업계가 모여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는데 연자로 나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박순만 실장과 행사를 주최한 쿡메디칼코리아 이승재 지사장에게 모바일 헬스케어시대에 나아갈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쿡메디칼코리아의 ‘생각리더십’ 포럼은. △이 지사장=국내 헬스케어 업계의 최대 화두 중 하나인 ‘모바일 헬스케어와 빅데이터’를 주제로 의료기기 및 의료계, 학계, 정부 등 관련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나아갈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모바일 헬스케어와 빅데이터 어디까지 왔나. △박 실장=2000년 뉴헬스 바람에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산업 활성화까지는 가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 모바일 헬스나 빅데이터 등 디지털 헬스케어 바람은 좀 다른데 전통적인 의료영역의 회사가 아닌 애플, 삼성, 구글 등 IT 공룡기업들이 관심을 갖고 미래 먹거리로 생각해 뛰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이 지사장=쿡메디칼은 전통적인 제조업체로 IT와 직접 연관은 없다. 업계 차원에서 보면 모바일(무선)이 활성화돼 있고, 빅3 회사들도 시장의 틀을 만들고 있어 접목하는 회사들이 많아질 것이다. 아직은 모바일 헬스가 단지 수치를 보여주는 측정에 지나지 않지만 소비자의 의식변화와 기술이 발전되면 더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예방 기능 위주의 모바일 헬스케어 제품은 의료기기인가. △박 실장=법적으로 의료기기의 정의는 있지만 현재 나오는 제품들을 구분하기는 힘들다. 규제당국이 메디컬 영역을 축소해서 볼지 확대해서 볼지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빨리 판단해서 사업자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만약 웨어러블이 나오면 의료기기 포함 여부 등 분류체계와 가이드라인을 재빨리 마련해 제공해야 처음 진입하는 사업자에게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 경계영역의 제품들은 항상 나오기 때문에 규제 환경으로 들어가야 한다면 빨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알려주는, 즉 정부가 산업 발전을 위해 선제적·능동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대형 기업의 헬스케어 산업 진출이 득일까 실일까. △이 지사장=IT 업체가 헬스케어 산업에 진출하려면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존 의료기기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규제해결에 나설 수 있다. 자체적으로 조직을 구성하는 것보다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또 우리나라의 경우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협력시스템이 약해 중소기업이 피해볼 것이라는 생각이 많은데 각각의 특성을 강화해 시너지를 만드는 고민도 필요하다. 특히 하드웨어 활용만으로는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기업이든 정부든 플랫폼이 만들어진다면 몰려들 것이고 협력을 통한다면 IT업체, 의료기기업체, 비용 측면에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다. △박 실장=기존의 전통 의료기기 업체들도 웨어러블로 확대할 것이고, IT 전문기업도 헬스케어 산업으로 진출할 것이다. 특히 선도기업들이 플랫폼을 만들고 있어 모바일 헬스케어 생태계가 구성될 것이고 업체들 협력과 선투자도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모바일 헬스케어의 방향은. △박 실장=최근의 화두 중 하나가 사물인터넷인데 가전·가구 등이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아 효용가치가 높은 분석 결과를 낸다는 것으로 헬스케어도 사물인터넷 환경에서 생체데이터가 모여 빅데이터가 만들어지고 분석을 통해 결과가 피드백되어 자신의 다음 행동으로 이어주는 시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모든 정보는 자신이 설정하고 동의한 상태에서 진행될 것이다. 특히 법·제도적 시스템에 국가가 선투자한다면 웨어러블이나 건강관리 서비스를 하는 민간사업자가 개인 건강관리뿐 아니라 질병치료를 위한 의료환경으로 연결하는 서비스 등으로도 확장이 가능하고, 우리나라가 모바일 헬스케어 산업에 선도적으로 나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최종적으로는 기존 의료영역이 진단과 치료를 통해 의료행위와 연결됐다면 디지털 헬스케어 시대에는 IT 기업들이 개인 건강관리를 중심으로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오게 돼 메디컬에서 헬스케어 영역으로 확대되고 개인들은 건강관리에 관심을 갖고 식단 등 여러 행동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치료보다는 예방중심의 패러다임이 실현될 것이고, 사람들은 건강해져 삶의 질이 높아지며, 국민 의료비는 절감돼 헬스케어 산업에 재투자되는 선순환구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소비자의 요구인데 아직은 시작단계이다. 정리=조민규 기자 kioo@kukimedia.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279.txt

제목: [안웅식의 빛으로 치료하는 암] 2014년부터 포토프린 사라지고 3세대 광과민제들 사용될 듯  
날짜: 201410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1021141740001  
ID: 01100201.20141021141740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광역학 치료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광과민제와 이를 충분히 활성화시킬 수 있는 빛, 체내 산소가 필요하다. 이중 광과민제는 포르피린을 포함하는 1세대와 크롤린을 포함하는 2세대로 나뉜다. 최근에는 기존에 사용 중인 광과민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새로운 약제에서 높은 파장의 흡수와 빠른 대사를 보여 보다 효과적으로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광과민제 개발이 활발하다. 3세대 광과민제는 나노물질과 결합해 진단과 치료를 겸하는 것으로 점차 변화하고 있고, 최근에 초음파를 이용한 치료를 병행하기 위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상적인 광과민제의 요건은 △빛에 노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독성이 없는 것 △병소 부위에 선택적으로 축적되는 것 △광흡수 스펙트럼이 600∼900nm 범위에 있는 것 △triplet quantum yield가 높은 것 △active oxygen(single oxygen, oxygen redicals) quantum yield가 높은 것 △일정한 형광 quantum yield가 있는 것 △물에 녹는 것이어야 한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광과민제는 헤마토폴피린 유도체(HpD)를 근간으로 구성되며, 대표적인 것이 포토프린이다. 이 약제는 실제 임상에 쓰이고 있고 적용 범위를 점차 확대해 많은 환자에서 완전관해, 부분관해의 효과가 보고되고 있다. 헤마토폴피린류의 광과민제는 주로 종양의 혈관 손상을 야기해 혈행을 차단시킴으로써 간접적으로 세포괴사를 일으킨다. 그러나 체내에서 배설되는 시간이 길어 광역학 치료 시 광과민제가 완전히 대사될 때까지 빛을 차단해야 하는 시간이 길어지는 단점이 있다. 광과민제는 폴피린 기반과 그 외의 것으로 구분된다. 임상적으로 사용이 허가된 광과민제의 거의 모두가 폴피린을 기반으로 한 것이다. 대표적인 1세대 광과민제인 포토프린은 폴피린계 광과민제로 1993년에 처음으로 캐나다에서 방광암의 광역학 치료를 위해 승인을 받은 이후 현재 세계적으로 광역학 치료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포토프린이 60가지 화합물의 혼합물임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유럽에서 암치료제로서 승인을 받았다는 것은 광역학 치료가 갖는 장점을 잘 대변해 주고 있다. 폴피린 기반 광과민제가 정맥 투여된 후 종양에 축적이 되는 메커니즘은 아직까진 명확하지는 않다. 2세대 광과민제에서는 앞에서 언급된 1세대 광과민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중심골격구조의 화학적 변경을 통해 근적외선 파장 영역에서 높은 몰 흡광 계수를 갖는 크롤린계 및 프탈로사이아닌계 유도체를 합성했다. 아프토신 유도체를 비롯한 3세대 광과민제들의 임상 3상시험이 완료되고 있음에 따라, 2014년경부터는 포토프린이 시장에서 사라지고 3세대 광과민제들이 다양한 질병 분야에서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국내의 광과민제 개발은 연구 인력이 적고 소재 개발 원천기술은 선진국에 비해 거의 부재한 실정이다. 광역학 치료와 마찬가지로 초음파를 이용한 역학치료를 할 때에도 초음파 감각제가 필요하다. 현재까지 음향 역학 치료에 사용되는 감각제는 광역학 치료에 사용하는 것을 사용하고 있으며 크롤린 계통의 광과민제 등이 사용되고 있다. 광과민제인 클로린만을 가지고 진단·치료할 수 있는 장점과 침투 깊이가 깊다는 장점이 있어 향후 광역학 치료보다 더 광범위하게 사용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음향 광과민제의 개발이 활발히 연구될 것으로 생각한다.안웅식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280.txt

제목: [암과의 동행-Q&A] 光역학 치료  
날짜: 201410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1021141748001  
ID: 01100201.20141021141748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광역학 치료가 기존의 광선요법과 다른 점은 “광역학 치료는 체내에 주입된 광과민물질이 빛에 의해 화학적 반응을 일으켜 활성 산소를 생성하면 이 활성 산소가 특정 병변 부위나 암세포만을 선택적으로 죽임으로써 병을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레이저 시술이나 광선요법과 차이가 있습니다. 광선요법이 빛을 쏘아 질병을 치료하는 반면, 광역학 치료는 광과민물질을 주입한 후에 조직에서 빛의 작용으로 효과를 보는 것입니다. 광과민물질이 체내에 주입되면 일정 시간이 지난 후 광역학 치료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광역학 치료에 사용하는 레이저시스템은 포르피린 계통의 광과민제가 종양세포에서 효과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특수 파장(630nm)만 나오게 돼 있습니다.” -광역학 치료의 구체적 원리는 “광역학 치료의 세 가지 기본 요소는 산소, 광과민제, 가시광선입니다. 치료의 효과는 선택적으로 종양 세포 내에 응집되는 광과민제의 특성, 가시광선의 조직 내 투과력, 광과민제의 조사된 가시광선의 흡수력에 따라 결정됩니다. 광과민제는 주변의 정상조직에 비해 빠르게 분열하는 세포로 구성된 악성 조직에 더 높은 농도로 존재합니다. 가시광선에 의해 활성화된 광과민제는 조직 내 산소와 상호작용해 매우 짧은 반감기와 작용 반경을 가지는 활성 산소를 생성합니다. 이 활성 산소는 다양한 사이토카인을 분비시키고 미세혈관의 장애를 초래해 직접적인 세포 독성 효과와 함께 종양 세포를 파괴합니다. 적절한 병변의 치료를 위해서는 광과민제의 종류와 용량, 약물과 빛 간의 시간, 방사 강도, 빛의 양 및 파장을 잘 선택해야 합니다.” -광역학 치료 시 환자 주의 사항은 “처음 1∼2주 정도는 광과민제를 투여했으므로 빛으로부터 완전하게 차단해야 합니다. 치료 3주 후에도 빛에 대한 노출을 최소한으로 유지해야 하며 보호의를 착용할 권을 권장합니다. 4주 후에는 광과민성에 대한 검사를 시행한 후 추이를 지켜봅니다. 치료 후 6주 정도가 되면 의사의 권유에 따라 선택적인 보호의만 착용하면 됩니다.” -광역학 치료 시 부작용 위험은 “광역학 치료는 다른 치료법에 비해 큰 부작용은 없습니다. 다만 광과민제가 빛에 민감하기 때문에 치료 후 최소한 30일까지는 태양광선에 의한 직접적인 노출을 피해야 합니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281.txt

제목: [건강 나침반] 당뇨 잡으려면 만성 치과질환도 신경써야  
날짜: 201410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1021141731001  
ID: 01100201.20141021141731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당뇨라고 불리는 만성 대사성 질환은 우울증, 소화기 질환, 암 등 다양한 부작용과 연관 질환을 일으키는 무서운 병이다. 유전, 비만, 스트레스, 고지방의 식단, 흡연, 음주 등이 원인으로 제시되고 있다. 췌장에서 만들어진 인슐린이 세포의 인슐린 수용체에 결합되면 티로신키나제, PI3K, Ras, AMPK 등 다양한 효소와 단백질 분자들의 반응에 의해 당과 단백질 대사가 조절된다. 그러나 조절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당대사를 비롯해 합병증이 생기게 된다. 당뇨 약물 치료는 기전에 따라 인슐린 설폰요소제 메트포르민(metformin) 등이 사용된다. 운동요법과 식단 개선으로 치료가 되지 않는 당뇨 환자는 당을 조절하는 약물 치료를 받게 된다. 만성 치과 질환을 가진 당뇨 환자는 이러한 약물 치료를 어렵게 만든다. 치과 질환이 있는 경우 세균과 면역작용의 부산물들이 당뇨 환자의 인슐린 저항 과정에 개입하게 된다. 대표적으로 인터루킨 같은 각종 사이토킨 및 종양괴사인자(TNF-α)를 포함한 염증 분자와 C-반응성단백질(CRP), 프로스타글란딘 등이 있다. 이들 염증 부산물들은 인슐린이 인슐린 수용체와 결합하는 것을 방해하는 등 정상적인 대사 작용을 방해한다. 최근 치과 질환이 당뇨와 당뇨 합병증을 일으키는 하나의 중요한 원인임이 밝혀지고 있다. 실제 만성적인 치과 질환에 노출된 환자 중에 당뇨 환자들이 많다. 치과 질환이 심할수록 당 조절이 어렵다. 치과 감염과 만성 염증을 가진 인슐린 저항성 당뇨 환자의 경우 구강 내 염증의 원발성 부위를 진단해 제거해야 한다. 입안의 치아와 치아 주변의 잇몸은 감염이 돼도 환자가 불편함을 느끼지 못한다. 세균 감염 후 잇몸이 파괴되면 세균이 몸 안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치아 주변의 조직은 감염이 돼도 세포가 파괴되는 것에 저항하는 성질을 갖고 있다. 이는 급격한 세균 감염을 막아 주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만성 염증을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감염된 잇몸이 아프지도 않고 보기에 멀쩡해 육안으로 감염을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세균 감염 여부는 유전자 검사로 알 수 있다. 감염된 잇몸의 치료는 항생제와 소염제의 투약과 함께 잇몸 수술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 신경 치료를 받은 치아는 감염이 없어도 상아질이 면역 세포에 의해 비자기로 인식돼 오스테오폰틴, 인테그린 등의 종양 지표 물질이나 종양괴사인자(TNF) 세포 외 기질단백질이나 효소들이 생성된다. 이들은 당뇨 환자에서 증상을 더욱 악화시키고 혈관 내에 혈전 형성을 가속화시켜 뇌혈관 질환 등의 당뇨 합병증의 원인이 된다. 본 병원에 내원한 환자의 경우 신경 치료가 돼 있는 치아들을 발치해 세균 검사를 했는데 모두 다량의 혐기성 세균에 감염돼 있었다. 조립형 임플란트는 구조 때문에 조립된 공간에 혐기성 세균이 존재한다. 연결 부위가 점막 내부에 있으므로 혐기성 세균을 우리 몸속에 넣은 셈이다. 임플란트 연결 부위에서 증가된 세균이 지속적으로 혈관에 공급되기 때문에 당뇨 환자에서 당뇨를 악화시킬 수 있다. 정기적으로 치과를 방문, 소독을 해도 완전 멸균은 불가능하다. 소독을 해도 5분에서 3일 이내에 다시 세균의 증식이 일어난다. 당뇨 환자에서 만성 염증에 의한 인슐린 저항성으로 당 조절이 어려운 경우 이들 감염 발생 부위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를 받는다면 당뇨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황정빈 신세계치과 원장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282.txt

제목: 건강 빅데이터 활용… 개인정보 보호 가능한가  
날짜: 2014100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1007101713001  
ID: 01100201.20141007101713001  
카테고리: 사회  
본문: 흡연피해 소송에서 건강 빅데이터를 활용해 산출한 환자의 건보공단부담 진료비가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건강 빅데이터 활용에 다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건강 빅데이터 활용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 방대한 자료를 활용하면 각종 질환에 대한 건강지도(발병의 요인, 형태, 취약자 등 치료와 예방을 위한 근거)를 만들 수 있고, 질병 발생도 예측이 가능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세이다. 문제는 빅데이터를 활용하면서 개인의 정보가 유출되지는 않는가 하는 점인데, 데이터를 제공·활용하고자 하는 측은 데이터 제공 단계에서 중요 개인정보는 삭제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심층적인 연구를 위해서는 개인정보가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현재는 개인정보를 보호할 장치가 없으며, 연구자에게 제공된 데이터들의 폐기관리도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이와 함께 정보를 제공할 때 어느 선까지 제공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한데 연구자 입장에서는 성별·나이·지역 등 개인정보를 제외할 경우 제대로 된 연구결과를 도출하기 힘들기 때문에 구체적 신상정보는 아니더라도 연구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제공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반대 측은 현행 개인정보 관련 법령 체계에서는 공개된 개인정보도 개인정보에 해당되고, 이용내역정보 역시 현행법상 개인정보의 개념에 포함돼 상충되기 때문에 빅데이터 활용에 앞서 개인정보 문제에 대한 구체적 논의와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이 제대로 데이터를 활용하기 어렵다는 데는 모두 동의하고 있다. 그렇지만 의료정보는 정부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중에 가장 큰 분야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문제는 중요하게 논의돼야 하며, 카드사 등의 개인정보 유출로 국민들이 개인정보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만큼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채 빅데이터 활용을 논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전 국민의 건강보험자격 및 보험료, 건강검진 결과, 진료내역, 요양기관 현황, 암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정보, 노인장기요양보험 자료 등 1조3000억건에 달하는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난 2012년 ‘국민건강정보 DB’를 구축했고, 2013년에는 성별·연령별·소득분위별로 대표성 있는 표본(100만명)을 추출해 ‘연구용 표본코호트DB’도 구축해 자료의 공익적 활용을 위해 외부에 공개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입원·외래환자에 대해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모든 내역의 자료를 보유하고 있으며, 보건의료빅데이터센터를 통해 민간에 빅데이터를 개방·공유하고 있다. 조민규 쿠키뉴스 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283.txt

제목: [도약하는 충청·강원] “무병장수 열쇠 찾아서…” 바이오산업의 미래 한눈에  
날짜: 2014093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930135036001  
ID: 01100201.20140930135036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120세 무병장수와 아름다움의 비밀을 밝히다.’ 지난해 5월 미국의 유명 영화배우 앤젤리나 졸리는 양쪽 유방을 제거하고 재건하는 수술을 받았다. ‘BRCA1’이라는 유전자를 보유하고 있어 유방암 발병 확률이 75%에 이른다는 검사 결과가 나오자 실제 발병하지도 않았는데 수술을 한 것이다. 미래의 병을 예측하는 일이 현실로 다가오면서 무병장수라는 인류의 꿈도 무르익고 있다. 바이오 산업의 모든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 2014 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가 ‘생명, 아름다움을 여는 비밀’을 주제로 아쉽게도 10월 12일까지 충북 청주시 오송생명과학단지에서 열리고 있다. 바이오엑스포는 환영의 장, 주제와 체험의 장, 산업의 장, 축제의 장으로 구성됐다. 환영의 장 초대와 만남을 위해 상징꽃 탑과 편의시설 등이 배치되고 주제 체험의 장에서는 바이오미래관, 주제영상관, 건강체험관, 뷰티체험관, 에듀체험관이 들어섰다. 바이오산업의 장은 바이오산업관, 화장품뷰티산업관, 바이오마켓이 마련됐다. 축제의 장에서는 과학과 문화가 결합된 바이오의 축제를 즐길 수 있다. 관람객들의 발길을 가장 먼저 잡는 곳은 바이오미래관이다. 이곳은 포스트 게놈 이후의 바이오 산업화 단계, 현황과 성과, 의료·의약·식량·에너지·융합기술 등 바이오 기술의 미래와 무병장수를 향한 인류의 꿈을 엿볼 수 있다. 바이오산업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것이다. 천연기념물 제540호 동경이의 복제견은 지난 26일 폐사됐다. 지난 7일 태어난 복제견은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의 검증까지 거쳤으나 면역력이 약해 그동안 인큐베이터에서 관리돼 왔다. 이에 따라 복제견 탄생 및 성장 과정에 대한 사진과 영상 자료만 관람할 수 있다. 주제영상관에서는 생명공학의 가치, 바이오산업이 가져올 아름다운 미래 세상을 3D 입체영상으로 보여주고 있다. 바이오 건강체험관에서는 피 한 방울로 간단하게 암·심장병·갑상선질환 등을 진단할 수 있고, 우울증이나 치매를 검사받을 수 있다. 여성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공간은 뷰티체험관이다. 이곳에서는 세계인이 열광하는 K뷰티를 즐기고 바이오 융·복합 화장품 등 미래의 K뷰티를 체험할 수 있다. 개인 맞춤형 피부 진단 컨설팅을 받을 수 있고 피부 노화방지 바이오 화장품, 먹고 입는 화장품을 접해볼 수 있다. 홍보대사인 가수 씨스타의 무대를 마치 실제처럼 생생하게 관람할 수 있는 K뷰티 홀로그램 콘서트도 즐길 수 있다. 학생들은 에듀체험관에서 생명과학의 기초 지식을 쌓을 수 있다. 충북도립대가 진행하는 재미있는 바이오 실험실에서는 해부학과 DNA 추출 실험을 직접 해볼 수 있고 손의 지문으로 자신의 미래직업을 점쳐볼 수 있다. 인체탐험관은 어린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인체의 내부기관을 연상시키는 시설 안에서 직접 만지고 체험하며 오감을 자극시킬 수 있는 체험관이다. 소화 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인체의 내부기관을 표현해 어린 아이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바이오산업관은 국내외 300개 기업들이 참가해 서로의 기술과 제품을 선보이는 경쟁의 자리다. 행사 기간 세계적인 석학과 노벨상 수상자 등이 참여하는 국제 학술회의는 7차례 개최된다. 문화축제는 2014한국산양삼축제, 제12회 국제바이오의과학 실험경연대회, 전국고교생바이오경진대회, 제23회 오송국제미용건강올림픽 등이 열린다. 바이오 엑스포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유발 2383억원, 부가가치 1088억원, 고용창출 4178명에 달한다. 엑스포조직위원회 이차영(53) 사무총장은 “<span class='quot0'>바이오엑스포는 바이오산업의 과거, 현재, 미래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건강한 미래로 가는 비밀을 확인할 수 있다</span>”고 말했다. 이어 “12년 만에 오송에서 다시 열리는 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는 충북이 세계 바이오산업의 중심지로 거듭나는 발판이 될 것”이라며 “2020년 우리나라가 세계 7대 바이오 강국으로 자리매김하는 초석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284.txt

제목: 남성 ‘전립선 질환’ 이렇게 관리해 보세요  
날짜: 2014092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922134052001  
ID: 01100201.20140922134052001  
카테고리: IT\_과학>IT\_과학일반  
본문: 대한전립선학회(회장 유탁근·을지의대 교수)는 올해의 전립선주간(22∼26일)을 맞아 전국 17개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에서 공개건강강좌를 개최하고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앱·사진)도 보급하는 전립선 바로알기 캠페인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전립선질환 중 가장 흔한 전립선비대증은 노화와 더불어 진행되는 남성 질환이며, 전립선암은 경제수준이 높아질수록 증가하는 남성 암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편이다. 이른바 전립선 바로알기 앱은 이를 개선, 고령의 남성들이 전립선질환으로 인해 삶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돕기 위해 개발됐다. 전립선비대증, 전립선염, 전립선암 등 전립선 관련 질환에 대한 설명과 각종 치료법에 관한 정보가 담겨 있다. 특히 전립선비대증과 만성전립선염 자가진단법, 전립선특이항원 검사결과 기록 및 저장 등 앱 사용자가 직접 자신의 몸 상태를 점검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또 자신의 전립선을 건강하게 지킬 수 있게 도와주는 전립선 건강증진 프로그램도 탑재하고 있다. 안드로이드 앱 스토어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충북대병원 윤석중 교수는 “<span class='quot0'>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전립선질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환자와 의료진의 의사소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span>”고 말했다.이기수 의학전문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285.txt

제목: 서울우유-서울대 공동, ‘반짝반짝’ 형광 소… 세계 첫 형질전환 소 생산  
날짜: 2014091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918133829001  
ID: 01100201.20140918133829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서울우유협동조합은 서울우유 생명공학연구소와 서울대 수의과대학의 공동 연구를 통해 세계 최초로 재조합 단백질을 활용해 ‘형질전환 형광소’ 생산에 성공했다고 17일 밝혔다. 또한 트랜스포존(transposon) 방법을 이용한 것도 세계 처음이다. 연구팀은 이와 관련된 특허를 출원했다. 서울우유 생명공학연구소 장건종 소장은 “<span class='quot0'>이번 형광소의 생산은 인간에게 유용한 단백질의 대량 생산 기반을 마련한 것</span>”이라면서 “<span class='quot0'>내년 2월쯤에는 항암치료에 쓰이는 인터루킨 등 유용 단백질을 분비할 수 있는 형질전환 소가 태어날 것</span>”이라고 말했다. 연구를 진행한 서울대 수의과대학 장구 교수는 “<span class='quot1'>이번에 생산된 형광소는 두 가지 유전자를 삽입해 각각의 특질이 순차적으로 나타날 수 있고, 처음의 특질로 돌아갈 수도 있는 게 의미가 크다</span>”고 설명했다. 이번 형광소는 녹색 빛을 내는 ‘녹색형광단백질’을 갖고 있어 불을 끈 채 자외선을 쏘이면 털이 없는 주둥이, 발굽 등은 녹색으로 보인다. 재조합단백질을 주입하면 적색으로 다시 바뀐다는 것이다. 또한 기존에는 형질전환 소를 생산할 때 바이러스를 이용해 외래 유전자를 소의 정자, 난자, 수정란 등에 넣었다. 이는 암 유발 유전자를 활성화하는 단점이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연구진은 본래 자리에서 다른 자리로 끼어들어가면서 역할을 하는 유전자인 트랜스포존을 활용했다. 이번 형광소는 트랜스포존을 직접 미세 주입한 수정란을 대리모에 이식해 생산했다. 김혜림 선임기자 mskim@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286.txt

제목: [암과의 동행] “연구중심 진료시스템 구축… 새 치료법 임상에 신속 적용”  
날짜: 201409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916133504001  
ID: 01100201.20140916133504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우리나라 국민 4명 중 1명이 암으로 사망한다. 암은 가장 큰 부담을 주는 질환으로, 암을 정복하기 위한 노력은 예방, 연구, 진료 활동 등의 형태로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번 ‘암정복프로젝트’에서는 암의 예방과 연구, 진료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국립암센터 이강현 원장을 만나 국민들의 암 치료와 예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번 대담을 통해 국민들이 암을 보다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국민을 암으로부터 보호하는 ‘보루’로서 국립암센터의 향후 전략과 계획을 소개한다.한 포털사이트에서 ‘암이래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라고 묻는 네티즌의 질문에 ‘국립암센터를 가보세요’라는 간단한 답변이 달렸다. 환자가 생각하는 좋은 병원, 지인이 위중한 병에 걸렸을 때 추천할 수 있는 병원, 이것이 국립암센터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다. 최근 2∼3년 사이 대형병원마다 암센터가 들어섰다. 수억원에서 수백억원에 달하는 첨단장비가 들어 차 있는 것은 물론이고 호텔만큼 고급스럽다. 최근에 들어선 암센터의 모습은 하나같이 병원 같지 않은 병원을 지향한다. 그런데 국립암센터는 이와 조금 다른 모습이다. 압도당할 만큼의 규모도 아니고 내부 인테리어도 지극히 ‘병원’스럽다. 그러나 여전히 국민들에게 사랑 받고 있는 병원이란 사실에는 변함없다.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암 진단 시 치료를 희망하는 병원으로 국립암센터가 1위에 뽑혔다는 사실이 이를 방증한다. 국립암센터는 그동안 암환자와 보호자들에게 올바른 암 예방과 치료, 영양관리의 방향을 제시해 왔다. 국립암센터 홈페이지를 접속하면 크게 △국가암관리사업본부 △연구소 △부속병원 △국제암대학원·대학교 등 네 개의 카테고리로 나눠져 있는데 이 중 국가암관리사업본부에서 운영하는 국가암정보센터는 연간 86만명의 방문자수를 기록한다. 국민들은 최고의 암전문의와 암전문간호사, 영양팀의 노하우가 집약된 이곳에서 암 진단부터 치료, 회복 과정에서 갖게 되는 여러 가지 궁금증을 해결한다. 최근 국립암센터의 새로운 수장이 된 이강현 원장(제6대 원장)은 본지와의 취임 인터뷰에서 “<span class='quot0'>국립암센터가 지금의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이 병원만의 숨은 노력과 경영철학이 있었기에 가능했다</span>”고 말했다. -국립암센터가 설립된 지 14년이 됐습니다. “국립암센터는 2000년 1월 정부의 ‘국립암센터법’에 의해 설립된 국내 유일의 암 연구·진료·교육 전문기관입니다. 암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소와 진료를 주 기능으로 하는 부속병원 그리고 국가 암 관리 사업의 정책을 입안하고 수행하는 국가암관리사업본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세계 유일의 기구죠. 연구 중심의 진료시스템을 운영하기 때문에 모든 진료 자료가 연구에 활용되고, 연구에서 도출된 새로운 치료법이 임상에 신속히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연구와 진료업무 연계체제는 다른 대형병원들과 구별되는 차별점입니다. 최근 여러 병원이 실시하고 있는 다학제적 통합진료는 국립암센터에서 처음 선보였던 것으로 성공적인 사례가 많아지자 다른 병원들이 잇따라 통합진료를 실시했습니다.” -암 예방과 진단, 치료 등에 관한 연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요. “주요 연구 분야로는 항암 표적 발굴을 위한 암 발생기전 연구, 첨단 암 진료기술 및 의료기기 개발, 신기술 실용화 지원체계 구축, 암 발생의 유전 및 환경 인자 발굴, 암 위험요인 관리·중재 연구 등입니다. 특히 최근 근거 중심의 암 연구에서 개인 맞춤 치료 연구로 바뀌고 있는 트렌드를 반영해 유전체 연구, 맞춤 검진과 개인의 암위험도 연구 등 유전자적 특성연구 등을 집중적으로 수행할 예정입니다.” -신기술 개발과 보급 체계는 어떻게 갖춰져 있는지요. “암에 대한 신기술이나 표준 진료 지침이 만들어지면 연구 논문이나 워크숍, 암정복포럼 등의 행사 혹은 보도자료, 홍보 등을 통해 적극 발표하고 있습니다. 연구소 분야에서 새로 제시되는 내용은 암정복포럼을 통해 격월로 신기술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입니다. 올해 6월 발표된 대한간암학회-국립암센터 간세포암종 진료 가이드라인은 간세포암종 진료를 담당하는 내과, 외과, 영상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전문가 42명이 참여했고 2009년 개정 이후 5년 동안 더욱 발전한 진단 기술과 치료법 등의 517편 논문을 근거로 현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진료를 제시한 것입니다.” -암 치료를 위한 국내외 협력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국내 다수의 병원 및 기관과 협약을 체결해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국제 협력기관으로는 일본 및 중국 국립암센터와 아시아국립암센터연맹,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암연구소(IARC) 등이 있습니다. 특히 지난 3월 업무협약을 체결한 국제암연구소와는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발생률 2위인 동시에 전 세계적으로 사망률 2위인 위암의 예방을 위해 헬리코박터 치료 및 검진 전략을 개발할 것이며 이는 향후 위암 연구에 관한 우리나라의 임상 연구수준을 강화하고 연구 결과를 전파할 수 있는 모범적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미국 국립암연구소(NCI)와 협약을 체결한 이후 공동연구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분석을 적용한 암정복 연구를 진행하시던데요. “내부적으로는 국가암관리사업본부를 중심으로 빅데이터 TFT를 구성했는데 이 TFT를 중심으로 바이오 빅데이터 시대의 암 연구개발 정책과 비전에 대해 논의하는 기회를 갖고 이에 필요한 실질적인 교류를 통해 미래 R&D 전략과 비전을 제시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립암센터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 4월 암 관리 정책에 필요한 연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암 예방에서 검진, 치료, 생존과 사망에 이르기까지 암 관리정책수립에 필요한 연구를 공동으로 수행하고 국가단위의 빅데이터를 산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양 기관은 ‘암 종합정보 DB’를 기반으로 ‘암 발생의 위험요인 규명’과 ‘치료방법 간 효과 비교·검증’, ‘암 관련 정책에 대한 실증적 평가’를 통해 암 예방 및 관리정책에 필요한 다양한 연구 성과들을 산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해외환자 유치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요. “해외환자 특히 전립선암 환자 유치에 적극적으로 임할 예정입니다. 교포분들에게 암예방 건강검진 또한 적극 추천하여 드릴 예정입니다. 국립암센터가 국민들에게도 자랑스러운 암센터, 해외에 계신 교포나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도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암센터가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4개의 단위 조직이 각 역할을 통해 인류를 위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클 것이라고 생각되며 세계 최고의 암센터라는 비전도 그런 바탕 위에서 세워진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리=김단비 쿠키뉴스 기자 kubee08@kukimedia.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287.txt

제목: [암과의 동행] 국립암센터는… 세계 최고 수준 인력·시설로 ‘국민 암정복 작전’ 최전선에  
날짜: 201409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916133510001  
ID: 01100201.20140916133510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국립암센터는 지난 2000년 설립된 이후 암 연구 수행 및 지원, 암환자 진료, 국가암관리사업 지원, 암 전문가 교육훈련 등을 통해 우리나라 국민의 암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암 관리 정책 개발, 국내 암 연구 진흥, 국내 암 전문 의료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네트워크 강화 등을 통해 2006년도부터 시작된 정부의 제2기 ‘암정복10개년계획’의 추진을 적극 뒷받침하고 있다. 국가 암 예방과 연구, 치료를 위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국립암센터는 세계 최고 수준의 암 전문 인력과 최첨단 연구·진료 장비·시설로 신개념의 연구, 최상의 진료, 세계적 암 전문가 양성 및 효율적 국가암관리사업 지원을 통해 국민을 암으로부터 보호하고 국민에게 희망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립암센터 부속 연구소의 경우 △글로벌 항암 신약 개발 △항암표적 발굴을 위한 암 발생 기전 연구 △첨단 의료 기술 및 기기 개발 △신기술 실용화 지원 체계 구축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부속병원과 연구소가 함께하는 국립암센터의 특성 및 장점을 살려 의료진과 연구진이 서로 협력해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실용화가 가능한 협동 연구와 신약·신의료기술 개발에 나서고 있다. 국립암센터 부속병원은 한 단계 더 도약 발전하기 위해 신축병동 증설을 추진하고 있다. 성공적인 병원경영을 위해서는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지속적 혁신과 비상한 노력이 필요하다. 병원 기능 내실화와 함께 기존의 △환자중심 진료시스템 △최첨단 인프라 구축 △삶의 질 중심의 암 진료 △프로토콜 기반의 임상진료 △신기술 개발 및 도입 △암 임상연구의 중심화 △우수 암 전문 인력 영입 및 양성 △국제 수준의 암 전문 교육 △세계 수준 의료인 양성을 위해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국가암관리사업 분야는 국가암관리 사업의 총괄적 기획, 지원, 평가, 사업수행, 교육 훈련을 시행함에 있어서 정부 부처와의 교감을 강화하며, 미래 지향적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지상 7층 지하 4층 규모의 연구소에서는 종양은행, 동물실험실, Imaging Core Lab, Genomics Core Lab 등 연구 인프라 구축을 통해 국내 암 연구자들이 암과 관련된 심도 있는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국립암센터는 내부 연구자의 연구 활동을 지원하는 국립암센터 ‘기관고유연구사업’과 정부에서 국내 학·연·산·의료계 소속 암 연구자의 연구 활동을 지원하는 ‘암정복추진연구개발사업’ 관리업무를 모두 수행하고 있다. 주요 분야는 항암 표적 발굴을 위한 암 발생기전 연구, 첨단 암 진료기술 및 의료기기 개발과 신기술 실용화 지원체계 구축, 암 발생의 유전 및 환경 인자 발굴, 암 위험요인 관리·중재 연구 등이다. 특히, 요즘 암 연구 트렌드는 근거 중심의 연구에서 개인 맞춤 치료 연구로 바뀌고 있다. 유전체 연구, 맞춤 검진과 개인의 암 위험도 연구 등 유전자적 특성연구 등을 집중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립암센터와 국제암연구소는 임상연구를 통한 위암의 예방을 목적으로 지난 3월 국립암센터에서 합의각서를 체결했다. 이를 통해 국립암센터 기관장 미래 도약 과제로 진행하고 있는 헬리코박터 치료에 관한 다기관 임상 연구를 실시한다. 국립암센터 측은 “<span class='quot0'>이번 협약 체결로 우리나라에서 발생률 2위인 동시에 전 세계적으로 사망률 2위인 위암의 예방을 위한 헬리코박터 치료 및 검진 전략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위암 연구에 관한 우리나라의 임상 연구 수준을 강화하고, 연구 결과를 전파할 수 있는 모범적 사례가 될 것</span>”이라고 밝혔다. 또한 미국 국립암연구소(NCI)와 암유전체 지도구축사업(TCGA:The Cancer Genome Atlas) 참여를 포함한 중개 연구 분야 협업, 인력 및 학술 분야 교류, 연구 자원 교류 등의 내용을 담은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도 했다. 특히 연구 분야에서 지난 4월 세계 최초로 차세대 유전체 분석 기술을 이용한 위암의 전장유전체 분석연구를 통해 위암 중에서 예후가 가장 나쁜 미만성 위암과 관련된 유전체 변형 및 융합유전자를 발견했다. 국립암센터는 앞으로도 한국인의 전장유전체 데이터와 엑솜 분석 데이터 및 기존의 자료들을 분석해 암 환자 치료에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치료제 개발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송병기 쿠키뉴스 기자 songbk@kukimedia.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288.txt

제목: [암과의 동행] 42도 ‘고주파 열’ 쏘아 암세포만 골라 정밀 타격  
날짜: 201409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916133358001  
ID: 01100201.20140916133358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최근 제4의 항암치료로 주목을 받고 있는 ‘고주파온열암치료’. 온열암치료는 암 치료의 기본인 수술, 항암제, 방사선 치료의 보조적인 요법으로 알려져 있다. 고주파온열암치료가 주목을 받는 것은 다양한 암종과 암치료에 따른 환자 부작용이 적다는 장점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온열치료는 환자에게 고주파를 투과해 전기장에 의해 체내에 열을 발생시켜 종양으로 공급되는 영양분을 차단하는 원리로, 암세포가 일반세포보다 열에 더 민감하다는 점을 이용해 세포 주변 온도를 42도가량으로 높여 암세포를 사멸시키는 치료법이다. 온열암치료가 적용되는 암종은 유방암과 갑상선암, 대장암, 전립선암, 간암, 췌장임 등 범위가 넓다. 또 최신 고주파 온열암치료시스템의 첨단 핵심기능을 활용해 암 조직에만 에너지를 집중시켜 치료효과를 높일 수 있다. 이와 관련 대한온열암치료연구회(회장 정태식·고신대복음병원 방사선종양학과 교수)가 지난 2010년 6월 설립돼 국제학술대회 등을 통해 다양한 학술, 연구를 주도하고 있다. 이 연구회는 온열암치료의 체계적인 연구와 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100여개 대학병원 및 전문병원의 의료진 500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대한온열암치료연구회 관계자는 “항암제를 투여 받고 있거나, 방사선 치료를 진행 중인 환자는 물론이고 암이 재발됐거나 다른 장기로 전이돼 치료가 곤란한 환자에게도 효과적이다. 기존 항암요법이나 방사선 치료와 병행할 때보다 효과적인 치료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고주파온열암치료기(Oncothermia)는 지난 2007년 하스피가 국내에 처음 소개했다. 이 장비(온코써미아 EHY-2000)는 암발생 부위 또는 전이 부위에 13.56MHz의 고주파를 통과시켜 암세포만을 선택적으로 자연사 (Apoptosis) 또는 괴사(Necrosis)시킨다. 또한 선택적으로 암 조직에만 에너지를 가해 암 조직에 열을 발생시키는 방식의 이 치료기기는 생체 대사율을 증가시켜 암세포에 산소 공급을 막고 암세포 증식을 억제해 암세포를 파괴한다. 하스피는 이처럼 최근 주목을 받는 고주파온열암치료기기의 선두주자로 암치료시스템 특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하스피 관계자는 “<span class='quot0'>고주파온열암치료는 암치료를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서, 선택적으로 암 조직에만 에너지를 가해 암 조직에 열을 발생시키는 방식</span>”이라며 “<span class='quot0'>이를 통해 생체 대사율을 증가시켜 암세포에 산소가 공급되는 것을 막고 암세포 증식을 억제해 암세포를 파괴하는 치료방법</span>”이라고 설명했다. 고주파온열암치료기는 현재 강남세브란스병원과 분당차병원, 이대목동병원, 고신대복음병원, 유성선병원, 제주중앙병원 등에서 운영 중이다. 성하청 하스피 대표는 “<span class='quot1'>방사선 요법이나 화학요법과 병행할 경우 치료 상승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span>”며 “<span class='quot1'>CT나 MRI와 같은 영상진단 없이도 자동 초점 기능으로 암세포를 집중적으로 자연사 또는 괴사시켜 효율적인 치료도 가능하다</span>”고 말했다. 송병기 쿠키뉴스 기자 songbk@kukimedia,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289.txt

제목: [암과의 동행] ‘투바디 임플란트 부작용’ 관련 반론 보도  
날짜: 201409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916100424001  
ID: 01100201.20140916100424001  
카테고리: IT\_과학>IT\_과학일반  
본문: 본지는 지난 7월 15일자 건강면 “현직 치과의, 투바디 임플란트 부작용, 암 유발 가능성” 제하의 기사에서 임플란트 치주염이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치주질환의 원인이 되는 진지발리스균이 암유발을 일으킨다는 인과관계는 현재까지 규명된 바 없으며, 기사에 인용된 조선대 한박사의 논문은 환자 혀 주위나 임플란트 주위열구보다 임플란트 고정체 내부에는 세균분포가 적었다는 것이 요지이며, 미쇼드 박사의 연구는 임플란트 주위염과 암과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 아니라 흡연인자에 따른 치주질환과 치아상실의 암유발 가능성에 대한 연구라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290.txt

제목: [건강나침반] 암·만성질환 예방 첫걸음은 ‘자연치아 살리기’  
날짜: 201409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916133403002  
ID: 01100201.20140916133403002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잇몸질환이 당뇨, 치매, 파킨슨병, 우울증, 류머티스, 간 질환, 각종 암 등 전신질환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임을 주장하는 논문이 다수 발표되고 있다. 잇몸질환을 유발하는 세균 중 포르피로 모나스 진지발리스(Porphyromonas gingivalis)균은 세포 내로 감염되면 숨어 있는 병원균으로 작용한다. 감염 후 P.진지발리스균은 육안으로는 마치 멀쩡한 것처럼 보여 환자는 물론 의사들도 감염 여부를 알 수 없다. 감염여부는 상피 유전자 검사 등을 통해서 알 수 있다. P.진지발리스균의 감염과 관련된 암 발생은 세포주기와 관련된 사이클린 조절 과정, 예정세포사멸과정(Apoptosis), AKT경로, 표면성장인자(EGF)경로, P53경로, 바탕질단백분해효소(Matrix metalloproteinase) 생성, Bcl-2 신호경로, JAK/STAT신호경로, PI3K 등의 과정을 통해 발생한다. 암 발생의 대상이 되는 줄기세포와 분화된 세포들은 병원성 세균이 침입하거나 손상을 입으면 세포 자체가 터져 정상세포로 대체돼 암 발생을 억제한다. 이는 괴사(Necrosis)나 세포자살(Apoptosis)과 같은 세포사멸과정을 통해 이뤄진다. 그런데 P.진지발리스균은 세포자살과정을 방해한다. 오히려 세포 안에서 살면서 세포의 수명을 늘려 자신의 삶도 늘린다. 잇몸의 각화상피 안에서 살기 때문에 항생제도 효과가 없다. 또 세포 내 미세소관(microtubule)을 통해 감염 세포를 늘려 간다. 또 각종 암 발생 과정에 참여해 유방암 췌장암 신장암 폐암 위암 대장암 자궁암의 발생과 전이를 일으킨다. 문제는 이런 위험한 세균이 어떻게 우리 입안에 존재하고 몸 안에 들어갔을까 하는 것이다. 입에서 항문에 이르는 우리 구강 소화관은 점막으로 이뤄져 있고 점막의 시작인 구강으로 세균이 들어와서 항문으로 배출되는 과정에서 점막에 상처가 있을 때와 일부 세균을 제외한 대부분의 세균들은 우리 몸 안(점막 안쪽)으로 들어 올 수가 없다. 하지만 치아는 구강점막을 뚫고 들어가 있다. 잇몸질환 환자의 경우 치아를 이용해 세균이 우리 점막 내부로 이동한다. 잇몸 질환의 염증과 신경 치료된 치아의 염증 그리고 조립형 치과 임플란트 주변의 염증은 공통점이 있다. 입안에서 환자가 느끼지 못하는 낮은 상태의 만성 염증 상태인 점과 공기가 없는 곳에서 자라는 혐기성 그람 음성 세균이 발견 된다는 점이다. 신경 치료가 된 치아를 빼서 세균을 검사해 보면 P.진지발리스를 비롯한 다양한 병원성 세균이 대량 존재한다. 실제 유전자 검사를 통해 세균의 숫자를 비교한 결과 구강 전체의 세균 수보다 신경 치료된 앞니 하나의 혐기성 세균의 수가 더 많이 검출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결 부 공간에 혐기성 세균이 존재하는 조립방식의 임플란트도 마찬가지로 우리 몸속으로 세균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감염원으로 작용하게 돼 장기적으로 매우 위험하다. 감염 방지를 위해서는 자연치아를 살려야 한다. 신경 치료를 통해서 ‘자연치아를 살린다’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다. 오히려 신경 치료는 자연 치아에 구멍을 내서 자연치아의 구조를 약하게 하고 면역계를 파괴, 외부 세균에 대한 방어력의 손실을 가져온다. 자연치아를 최대한 유지하려면 입안의 위생을 평소에 철저히 관리하고, 치과를 정기적으로 방문해야 한다. 또한 만성염증을 유발하는 잇몸상피세포의 세균 감염을 꼭 점검하고 미리미리 감염을 제거해 전신질환과 암을 예방하는 것이 좋겠다. \*본 칼럼은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황정빈 신세계치과 원장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291.txt

제목: 100% 초음파 세정 치아 마모 걱정 끝… 초음파 전동칫솔 ‘에미 덴트’  
날짜: 201409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916133354001  
ID: 01100201.20140916133354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전 세계 28개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에미-덴트(Emmi-dent) 초음파 전동 칫솔’이 국내에 출시돼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이 제품은 병원에 장기 입원하는 환자들과 항암치료를 받은 암환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으로 입소문을 타면서 판매량이 크게 늘고 있다. 라이넥스(대표 김기홍)가 국내 유통을 담당하는 이 제품은 초음파 기술과 미용제품 전문기업인 EMAG그룹의 일원인 독일 에미-울트라소닉(Emmi-Ultrasonic)사가 개발했다. 김기홍 대표는 “<span class='quot0'>지금까지 대부분의 구강 관리는 일반 매뉴얼 칫솔, 음파식이나 회전식 전동 칫솔, 치간 칫솔 등으로 해 왔으나, 에미-덴트 초음파 전동 칫솔이 잇몸과 치아를 비롯한 구강관리를 거의 완벽히 할 수 있는 시대를 열었다</span>”고 설명했다. 지난 2009년부터 시판된 이 제품은 지금까지 전 세계 28개국에 공급되고 있으며, 회전식, 음파식 전동칫솔이 주를 이루는 시장에서 시장을 개척해 왔다. 특히 이 제품은 기본적으로 칫솔질이 필요 없다는 점이 장점이다. 기존의 단순한 마모를 통한 치아, 잇몸의 세정이 아니라 물리적인 움직임이 전혀 없이 오직 100% 초음파를 통해서 세정하기 때문이다. 김 대표는 “<span class='quot0'>세정 시 칫솔을 치아 표면, 잇몸 주위에 접촉만 시켜주면 치아, 잇몸의 마모 없이 구강위생을 관리할 수 있다</span>”고 강조했다. 에미-덴트 초음파 전동 칫솔은 말 그대로 초음파를 이용해 잇몸 염증 및 치아 관련 질병 예방에 획기적인 도움을 준다. 김 대표는 “1분에 최대 8400만 번의 강력한 초음파 진동을 발생시켜 치아 표면뿐만 아니라 잇몸 속 칫솔모가 닿지 않는 부위에 자리 잡은 박테리아를 살균한다. 구강 속 박테리아는 치주 치은염의 주요 원인일 뿐만 아니라 구취를 발생시키기도 한다”며 “기존의 전동칫솔은 박테리아를 살균하지 못해 구강질환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했지만, 에미-덴트 초음파 세정기술은 박테리아를 살균해 구강질환 예방의 해답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송병기 쿠키뉴스 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292.txt

제목: “구멍 뚫린 오존층 복구되고 있다”  
날짜: 2014091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912100223002  
ID: 01100201.20140912100223002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오존층을 복구하기 위한 25년간의 국제 협력이 결실을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구를 감싸고 있는 오존층은 암을 유발하는 자외선을 차단해주는, 인류에게는 아주 고마운 존재다. 하지만 산업화의 여파로 오존층이 얇아지거나 심지어 남극 주변의 오존층에는 구멍도 뚫렸다. 이 때문에 1989년 몬트리올의정서가 발효됐다. 오존층 파괴의 주범으로 알려진 염화불화탄소 등에 대한 국제 규제로, 이번에 규제의 효과가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유엔환경계획(UNEP)과 세계기상기구(WMO)는 10일(현지시간) 발간한 ‘오존층 파괴에 대한 과학적 평가 2014’에서 오존층이 향후 수십 년 내에 복구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보고서가 나오자 영국 BBC 방송 등 외신들은 일제히 “<span class='quot0'>오존층이 다시 두꺼워지고 있다는 아주 좋은 소식이 나왔다</span>”고 전했다. 보고서는 국제 협력으로 오존층이 회복되고 있으며 오존층이 심각하게 파괴되기 이전인 1980년 수준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구체적으로 오존층은 1980년대와 1990년대에는 계속 얇아지는 추세였지만 2000년부터 변하지 않고 있다. 남극대륙의 오존층 구멍 역시 더 이상 커지지 않고 있다. 보고서는 “10년 뒤면 남극 오존층 구멍이 작아지기 시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몬트리올의정서에 따른 규제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오존층 파괴 물질은 2050년까지 10배로 증가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규제 덕분에 연간 200만건의 피부암이 억제되고 있고, 인간의 눈과 면역체계 손상도 예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야생동물과 농업도 보호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남극의 오존층 구멍 때문에 지구 남반부에서는 이상기후가 많았지만 이 역시 줄고 있다고 밝혔다. UNEP 아킴 슈타이너 사무총장은 “<span class='quot1'>몬트리올의정서는 가장 성공적인 환경 협약</span>”이라고 강조했다. WMO의 미셸 자로 사무총장도 “<span class='quot2'>국제적인 행동으로 환경을 지키기 위한 인류의 성공 스토리가 생겼다</span>”고 기뻐했다.손병호 기자 bhson@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293.txt

제목: [사이언스 토크] 100조 개의 특효약  
날짜: 2014090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906132828002  
ID: 01100201.20140906132828002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아기가 갓 태어나서 누는 암녹색의 배내똥은 냄새가 없다. 똥이나 방귀에서 냄새가 나는 것은 장내 세균이 음식을 소화한 뒤 내놓는 분비물 탓인데 태아의 장은 무균 상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며칠만 지나도 아기 똥에 냄새가 난다. 음식을 먹으면서 대장균과 유산균 등 수많은 세균이 아기의 장에 들어간다는 증거다. 보통 인간의 장 속엔 약 500종에 달하는 세균이 약 100조 마리나 서식한다. 모두 합치면 그 무게가 약 1㎏이나 된다. 우리 몸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병원균의 과도한 증식을 억제하면서 소화를 돕기도 하는 이 장내 세균이 요즘엔 미래 의학의 가장 흥미롭고 유망한 분야로 주목 받고 있다. 최근 과학자들은 몸에 이로운 장내 세균 군집이 붕괴하고 해로운 장내 세균이 득세하면 암이나 당뇨, 비만이 발생한다는 증거를 찾아냈다. 특정 종류의 장내 세균 비율이 낮을 경우 자폐증과 유사한 증상을 나타낸다는 연구결과도 발표됐다. 또 장내 세균이 식품 알레르기로부터 보호해준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이 장내 세균은 영아기 때 항생제를 사용할 경우 감소하는 세균 중 하나라는 점에서, 근래 들어 식품 알레르기 환자가 급증하는 이유를 추정할 수 있다. 비록 실험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들이지만, 장내 세균이 우리에게 질병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획기적 치료법을 제시해 줄 것이 확실해 보인다. 그런데 최근 미국 연구진은 장내 세균이 인간의 식습관 및 음식 선택에 영향을 줘 자신들의 성장에 좋은 특정 영양분을 섭취하도록 조종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어떤 메커니즘으로 인간의 식습관에 영향을 미치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내장은 신경계 등과 연결돼 있다. 따라서 연구진은 장내 세균이 특정 신호전달물질을 분비해 인간의 신경신호를 바꾸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장내 세균이 사람의 기분을 조종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실제로 연구진이 실험쥐를 대상으로 특정 박테리아를 주입한 결과 평상시와는 달리 불안한 행동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이 연구결과대로라면 장내 세균을 이용해 간단하게 개인의 식습관 및 체질을 개선시킬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해조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에게 해조류로부터 주로 영양분을 섭취하는 장내 세균을 이식시킬 경우 자연스레 해조류를 찾게끔 식습관을 바꿀 수 있는 것. 이렇게 되면 언젠가는 아이들의 편식을 고쳐주는 ‘장내 세균 특효약’이 등장할지도 모를 일이다.이성규(과학 칼럼니스트)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294.txt

제목: 엄홍덕 한국원자력의학원 연구팀, 암세포 전이 촉진 효소 발견… 제어하는 메커니즘도 규명  
날짜: 2014090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903132455001  
ID: 01100201.20140903132455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한국원자력의학원 엄홍덕(사진) 박사 연구팀이 암세포의 전이를 촉진하는 효소를 처음 찾아내고 이 효소를 제어하는 메커니즘도 규명했다고 미래창조과학부가 2일 밝혔다. ‘두 번째 암’으로 불리는 전이암은 현재 마땅한 치료법이 없고 전이가 일어나는 원리도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연구팀은 폐암 세포와 쥐를 이용한 실험에서 세포 속 미토콘드리아의 ‘콤플렉스1’ 효소가 암 전이를 촉진하며, 쓸모없는 세포를 죽이는 ‘백스 단백질’이 암 전이에 관여한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이와 함께 세포 성장을 조절하는 ‘p21단백질’이 암 전이 촉진 물질을 분해해 전이를 억제한다는 사실도 규명했다. 태원준 기자 wjtae@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295.txt

제목: “라식 49만원”… 도 넘는 안과 광고 조심하세요  
날짜: 2014090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902132338001  
ID: 01100201.20140902132338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라식·라섹 49만원”, “<span class='quot0'>주중 시술은 10만원 추가 할인</span>” 요즘 버스나 지하철 광고판에서 심심찮게 볼 수 있는 시력교정술 광고다. 39만원, 49만원, 59만원 등 홈쇼핑 광고도 아닌데, 끝자리가 모두 9로 끝난다. 해당 병원의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 각종 최신 레이저기계와 수술법을 소개하며 최고의 병원이라고 자랑한다. 별도 팝업창을 통해 값이 싼 이유에 대해서도 분명한 이유를 들며 환자를 안심시켰다. 수요가 많기 때문에 공급가를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실제 소비자는 광고한 가격대로 해당 시술을 받을 수 있을까. 전화 상담 결과 광고 글이 허위는 아니었지만 그 가격대로 시술할 경우 최신 레이저기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환자 입장에서는 주저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추가 옵션도 적지 않았다. 선택은 소비자 몫이었지만 병원은 안전성을 담보했다. 제시한 추가 옵션들을 선택할수록 시술 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나 후유증의 정도가 줄어든다는 것이다. 추가 옵션을 2∼3개 선택하고 나니 시술비는 처음 제시된 가격의 2배가 돼 있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전문적인 의료상담을 받았다기보다 소위 ‘낚였다’는 느낌을 받기 쉽다. 하지만 일단 시력교정술을 하기로 마음먹은 사람은 병원으로부터 낚였다는 느낌을 받더라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의 의료현실이다. 20년째 한 곳에서 안과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 김모씨는 잘못된 의료광고가 의료시장의 물을 흐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의료행위는 경제적 논리로 따질 수 없다. 암환자가 많다고 수술비가 저렴해지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럼에도 값싼 수술법을 광고하는 안과일수록 환자들이 몰리고 그 병원은 더 잘된다. 과거에는 병원의 성패가 의사 개인의 실력에 달렸지만 지금은 얼마나 언론매체에 노출되는가가 더 중요해졌다. 상대적으로 자본력이 없는 병원은 광고를 못하기 때문에 더욱 힘들어진다”고 말했다. 김씨는 또 “환자가 의료광고를 통해 의사의 정보나 병원의 정보를 알 수도 있지만 기존의 시술방법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도 마치 획기적인 시술처럼 과장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최신 기기가 이전의 기기에 비해 나은 성능을 가진 것은 분명하지만 이전의 기기가 실패하거나 부작용이 많은 것은 결코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입소문을 가장한 바이럴 마케팅도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블로그나 SNS에 후기를 올리는 형식이 그것인데, 실제 시술을 받고 쓴 체험담인지 돈을 받고 호의적으로 쓴 글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한안과의사회 김대근 회장은 “무분별하게 저가마케팅을 벌이거나 과장광고를 벌이는 안과병원에 대해 제재를 가할 법적 권한이 없다. 기껏해야 회원 자격 상실 정도인데, 대부분 의사회를 탈퇴한 병원들이 광고를 통해 더 많은 환자를 유치하고 규모를 불려 나간다. 이는 환자 입장에서도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또 “가격이 저렴한 병원을 선택하기보다 꾸준히 다닌 병원을 선택해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좋은 치료결과를 얻을 수 있다. 특히 저가 마케팅만을 벌이는 병원이라면 일단 의심을 해보고 환자들로부터 신뢰받는 병원인지 알아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김단비 쿠키뉴스 기자 kubee08@kukimedia.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296.txt

제목: [이기수 기자의 건강쪽지] 캡사이신 지나친 섭취, 암 부를 수도  
날짜: 201408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816130545001  
ID: 01100201.20140816130545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매운맛에 길들여져 식사 시 더 맵고 더 독한 것을 찾는 이가 있는가 하면, 매운 거라면 아예 손도 못 대는 이도 있습니다. 저는 평소 매운맛 음식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특히 된장에 찍어 먹는 ‘청양고추’의 매운맛은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으뜸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매운맛을 즐기더라도 고추 섭취를 줄여야 할 듯합니다. 고추의 주성분으로 매운 맛을 내는 ‘캡사이신’을 적당히 먹으면 암 예방에 도움이 되지만 지나치면 되레 암 발생을 촉진할 수도 있다는 실험결과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울산의대 대학원 김헌식 교수(의학과) 연구팀은 최근 우리가 통상적으로 먹는 양보다 과도한 양의 캡사이신을 위암 세포와 혈액암 세포에 각각 투여하고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관찰하는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세포 내 항암 수용체와 결합하고 남은 잉여 캡사이신이 ‘자연살해세포’에 붙어 암세포를 공격하는 활동을 방해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그로 인해 자연살해세포가 위암 및 혈액암 세포를 무력화하는 힘도 각각 33%, 50%나 감퇴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암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캡사이신도 과용하면 좋지 않다는 얘깁니다. 식생활에서 지나침은 모자람 못잖게 인체에 나쁜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새삼 실감하게 됩니다. 김 교수는 “<span class='quot0'>건강을 위해 매운맛도 짠맛 이상으로 조절이 필요해 보인다</span>”고 말했습니다.의학전문기자 kslee@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297.txt

제목: KT ‘인간 뇌’ 연구한다  
날짜: 2014081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813130144001  
ID: 01100201.20140813130144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사람들은 인간의 뇌 기능을 모방해 컴퓨터를 만들었다. 그 결과 컴퓨터는 명령을 내리고 기억을 저장하게 됐다. 하지만 이제는 단순히 명령하고 기억하는 장치를 만들기 위해 뇌를 연구하지 않는다. 뇌를 분석해 정보통신기술(ICT)과 의학을 융합시키고, 사람의 뇌처럼 인지하고 학습하는 기기를 만든다. 글로벌 IT(정보통신) 업계가 ‘뇌 연구’ 작업에 가속도를 붙이고 있는 것이다. KT는 ICT 기술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헬스케어 사업의 기반을 넓히기 위해 뇌 구조 연구에 나섰다. KT는 12일 세계적인 뇌 연구 권위자인 미국 프린스턴대 세바스찬 승 교수와 협약을 맺고 인간의 뇌에 있는 1000억개 신경세포의 연결 구조와 활동 원리를 파악하는 커넥톰(Connectome·뇌 지도)을 완성해가는 프로젝트에 합류했다. 세바스찬 승 교수가 2012년 저서에서 소개한 개념인 커넥톰은 학계에서 게놈 프로젝트 이후 최대의 과학 혁명으로 불리고 있다. 승 교수는 온라인 게임 ‘아이와이어(EyeWire)’를 만들어 세계 최초로 신경세포를 3차원 이미지로 보여준다. 신경세포를 잇는 부분에 색을 칠해서 복잡한 뇌 지도를 3차원 이미지로 만들어 가게 된다. 현재까지 전 세계 100여개국에서 14만명 이상이 아이와이어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망막의 특정 구역 신경세포 348개 중 85개의 구조가 밝혀졌다. KT는 아이와이어에 기술 인프라와 마케팅 채널을 제공하는 등 연구에 참여해 암이나 뇌질환 등 불치병 해결을 앞당기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황창규 KT 회장은 “<span class='quot0'>KT가 선언한 융합형 기가토피아의 중요한 요소는 미래 융합서비스이고 그중 하나는 유전체 분석 솔루션을 통한 예방 중심 헬스케어</span>”라면서 “<span class='quot0'>인간의 기억과 의식에 대한 비밀을 밝혀 치매 우울증 자폐증 등을 치료할 수 있는 ‘뉴로피아(Neuropia)’에 이르는 시간을 현격히 단축시키겠다</span>”고 강조했다. 뇌 연구를 통해 기기에 사람의 뇌처럼 인지하는 역량과 학습하는 기능을 더하는 작업도 빨라지고 있다. 지난 8일 IBM은 삼성전자와 함께 인간 뇌 구조를 닮은 새로운 컴퓨팅 칩을 개발했다고 발표했다. 명령, 저장 능력에서 나아가 뇌의 인지 역량을 적용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다. 이 칩은 고집적도 메모리와 저누설(low-leakage) 트랜지스터로 구성된 삼성전자의의 28㎚(나노미터) 공정 기술로 제작됐다. 지난해에는 퀄컴이 인간의 뇌처럼 학습하는 기능을 가진 프로세서를 개발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임세정 기자 fish813@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298.txt

제목: “세균 유입 경로” VS “50년간 안전성 입증”… ‘투바디 치아 임플란트’ 암 유발 논란  
날짜: 2014080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805125406001  
ID: 01100201.20140805125406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투바디(Two-Body·조립형) 치아 임플란트가 암을 유발하는 혐기성 세균(P.진지발리스)의 유입 경로가 되고 있다."(본보 7월 15일자 참조) 현직 치과의사의 이 같은 임플란트 부작용 주장에 치과계가 임플란트 시술은 50여 년간 높은 성공률을 보여 왔고, 안전성도 임상적으로 입증된 치료방법이라고 반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치과이식학회, 구강악안면임플란트학회, 치주과학회는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투바디 임플란트의 위해성을 보고한 신세계치과(서울소재) 황정빈 원장의 주장에 대해 “학계에서 인정되는 임플란트 부작용은 임플란트 주위염과 보철물의 손상”이라며 “구취는 구강 내 휘발성 화합물에 의한 것이지 임플란트와는 관련성이 낮다. 다만 임플란트 주변의 냄새는 투피스 임플란트를 보수, 유지하기 위해 체결된 부분을 분리했을 때 나타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문제가 된 진지발리스균의 경우 임플란트 고정체와 지대주 사이에 서식지를 형성하는 게 아니라 틈이 있는 모든 곳은 미생물이 서식할 수 있다는 것. 이들 학회는 “구강 내 수복물이 임플란트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듯 수복물과 치아 사이 이음새를 밀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곳에서도 치주질환의 원인균이 서식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피스(One-Piece)형 임플란트는 이음새가 없어 세균 서식의 환경적 요인이 적을 수 있으나 그 주변 역시 기존 임플란트와 같은 연조직을 구성하고 있어 기존 임플란트와 같은 반응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종합하면 치주질환은 진지발리스 세균보다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다인성질환(Multifactorial disease)이며 구강 내에는 700여종의 다양한 세균이 역동적인 환경에서 살고 있으므로 하나의 세균이 모든 질환을 일으킨다는 것은 증명된 바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임플란트와 연관된 암 발생 유발 가능에 대한 황 원장의 주장은 특별한 위험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는 게 이들 학회의 중론(衆論)이다. 치과계의 반박에 황 원장은 또다시 관련 논문을 제시하며 “<span class='quot1'>WHO(세계보건기구)는 말할 것도 없고 국립암센터를 비롯한 수천 명의 과학자가 전신질환과 암의 원인이 세균에 의한 감염이라고 하는데 임플란트에 존재하는 세균이 전혀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없다는 학회의 해명은 선뜻 이해할 수 없다</span>”고 재반박했다. 황 원장은 “<span class='quot1'>구강 내 세균 감염이 암, 당뇨, 류머티스 등의 전신질환을 일으킨다는 보고는 히포크라테스 시절부터 있었다</span>”고 전제한 뒤, “<span class='quot1'>2500년 전 히포크라테스는 류머티스 관절염이 심한 환자의 썩은 이를 뽑아서 관절염을 치료했다</span>”고 역설했다. 실제 류머티스 관절염은 구강 내 세균인 P.진지발리스균이 유발하는 것으로 2009년 네이처(nature)지에서 발표한바 있다. 황 원장에 따르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Helicobacter pylori)’가 위암과 췌장암의 원인 균으로 간주됐고, 최근에는 구강 내 존재하는 치주질환의 원인균인 P.진지발리스균이 췌장암과 유방암, 신장암을 비롯한 구강 소화기암의 주요 원인균으로 제시되고 있다. 황 원장은 미국 플로리다대학 치주과 일마즈(�wzlem Yilmaz) 교수의 논문을 통해 P.진지발리스와 여러 세균들이 입안의 치아와 잇몸 주변에 있는데 경우에 따라 잇몸의 세포 안으로 세균들이 침입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진지발리스는 또 다른 세균에 없는 PAD(Peptidylarginine deiminase)라는 효소를 가지고 있어 시트룰린화(단백질)·MMP(matrix metaooprotease 숙주효소로 자기 몸을 파괴함) 생성 촉진을 통해 류머티스 관절염, 자가면역질환 종양 유방암 등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Peptidylarginine Deiminase and Citrullination 논문). 황 원장은 “<span class='quot1'>P.진지발리스는 항생제에 취약한 균이지만 잇몸의 각질상피세포 내에 있기 때문에 항생제 살균이 어렵다</span>”며 “<span class='quot1'>수술을 통해서만 제거가 가능하다</span>”고 설명했다. 7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해 보험이 적용된 시점에서 투바디 치아 임플란트에 이 같은 논란이 제기됨으로써 적잖은 파장이 일 전망이다. 조규봉 쿠키뉴스 기자 ckb@kukimedia.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299.txt

제목: [암과의 동행] “DNA 백신, 질병 예방 넘어 감염환자 치료도 가능”  
날짜: 2014080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805125349001  
ID: 01100201.20140805125349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DNA 백신은 기존 백신이 지니던 기능이자 한계였던 질병예방 차원을 넘어서 치료개념이 접목된 새로운 개념의 백신입니다. 백신으로 예방할 수 없다고 여겨져왔던 암이나 에이즈 등을 타깃으로 하기 때문에 전염병뿐 아니라 만성질환으로 희생하는 무수한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7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2014 DNA 백신 학술대회에서 대회 의장을 맡은 펜실베이니아대 데이비드 와이너(David Weiner) 박사는 DNA를 이용한 새로운 백신 영역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와이너 박사를 포함해 이노비오 사의 종 조셉 킴(J. Joseph Kim) 박사 등 DNA 백신 분야의 내로라하는 석학들이 모여 DNA 백신 연구의 최신 동향을 소개하고 미래를 전망했다. 백신은 20세기 공공보건에서 가장 큰 성과를 가져온 발명품으로 일컬어진다. 백신 덕에 무수히 많은 전염병이 큰 폭으로 줄어들거나 거의 사려졌다. 콜레라, 결핵, 소아마비, 인플루엔자 등 적절한 치료 기술이 없었던 다양한 종류의 감염성 질환들이 백신의 개발로 효과적으로 퇴치될 수 있었다. 특히 백신 접종률이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백신의 수혜를 많이 입은 나라이기도 하다. 영유아가 홍역으로 집단 감염되어 사망하거나 소아마비 바이러스로 인해 불구가 되는 일이 거의 없다. 하지만 일반적인 백신은 병원체에 노출되기 전 미리 접종해야만 효과를 볼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부작용 논란으로 백신 반대론까지 불거지면서 한때 국가필수예방접종률이 낮아지는 현상을 보이기도 했다. DNA 백신이 주목받는 이유는 기존 백신이 지닌 한계와 단점을 넘어섰다는 데 있다. 우선 ‘예방용’으로 머물러 있던 기존 백신과 달리 DNA 백신은 이미 감염된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치료용’ 백신이다. 또한 DNA 백신은 ‘치료제’로서 역할을 다한 뒤 해당 감염성 질환에 대한 면역원성을 장기간 유지시켜 예방백신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인체는 병원체에 대항하기 위해 두 가지의 면역체계를 작동시킨다. 하나는 항체 생성을 목적으로 하는 체액성 면역과 T세포의 활성화를 통한 세포성 면역이다. 기존의 백신은 항체 생성에만 의존한 탓에 충분한 예방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백신을 접종하더라도 감염되는 이유는 이 탓이다. DNA 백신은 기존 백신과 달리 T세포가 관여하는 세포성 면역을 효과적으로 유도해 강력한 면역반응을 일으킨다. 이와 같은 기술은 종래 백신기술로는 예방이 어려웠던 에이즈나 암 등에 대한 백신 연구·개발이 가능하게끔 한다. 더불어 일각에서 백신 부작용의 원인으로 지목해온 알루미늄이나 수은과 같은 보조제를 사용하지 않아도 돼 기존 백신에 비해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살아있는 병원체를 체내 직접 주입해 면역반응을 유도하는 기존 백신은 실제 감염의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었으나 DNA 백신은 체내에서 병원체의 특정 부분을 만들어내는 유전자를 사용하기 때문에 감염 위험성이 전혀 없다. 이와 관련해 조셉 박사는 유전자가 돌연변이될 일은 전혀 없다고 단언했다. 조셉 박사는 “DNA 백신의 안전성이 확인된 많은 연구가 있다. 미국 FDA도 더 이상 안전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품지 않는다. 흔히 DNA 백신이라고 하면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DNA를 직접 주입한다고 생각하는데 재조합된 플라스미드를 이용해 세포 안에서 항원이 만들어지는 원리이기 때문에 병원성 균이나 바이러스가 잔존하는 위험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학술대회에 국내 바이오기업으로 유일하게 참여한 진원생명과학은 대회 마지막 날 C형간염 바이러스에 대한 DNA 백신 임상1상 결과를 발표해 세계 석학들의 주목을 받았다. 현재 C형간염의 표준치료로 항바이러스제가 사용되고 있지만 내성 문제와 비싼 약값 때문에 조절이 어려운 질환이란 점에서 치료백신 개발은 그 의미가 남다르다. 진원생명과학 박영근 대표는 “항바이러스제는 수주 후에 효과가 없어지는데 이는 내성의 출현과 면역력의 감퇴 때문이다. 하지만 DNA 백신을 이용하면 강력한 면역반응을 일으켜 치료와 예방이 동시에 가능하다. 내년 임상2상 결과발표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샌디에이고=김단비 기자 kubee08@kukimedia.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300.txt

제목: [항암제이야기] 급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 ‘볼라설팁’  
날짜: 2014080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805094434001  
ID: 01100201.20140805094434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급성골수성백혈병(AML)은 골수와 혈액에서 발생하는 공격적인 암으로 모든 백혈병 가운데 생존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환자의 평균 연령은 65∼70세로 주로 연령이 높은 성인에서 많이 발병한다. 현재 권고되는 표준 치료요법은 집중 화학요법이지만 연령이 많고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들은 집중 화학요법을 견뎌내지 못하며, 치료 예후 또한 좋지 않다. 최근 이러한 고령의 급성골수성백혈병 환자들을 위한 치료제가 미국에서 희귀의약품 지정을 받아 주목받고 있다. 베링거인겔하임은 항암제 후보물질인 급성골수성백혈병(AML) 치료제 ‘볼라설팁(volasertib)’이 미국 식품의약국(FDA)과 유럽연합 규제당국으로부터 ‘희귀의약품 지정’ 약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미국과 유럽연합(EU)에서는 치료법이나 진단 방법이 제한적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희귀질환의 치료제에 대해 ‘희귀의약품 지정’ 약물로 선정한다. 희귀의약품지정을 통해 새로운 치료제의 개발과 허가 절차에 도움을 주는 규제 지원 및 장려책을 지원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약물의 기전은 무엇일까. 볼라설팁은 세포 성장 및 과도한 분열을 억제하는 효소를 표적화하는 선택적 Plk(Polo-like kinase) 억제제다. Plk1은 Plk과에 속하며, 그 특성이 가장 잘 규명된 키나제이다. 볼라설팁으로 Plk1을 억제하면 세포 주기가 정지되고 궁극적으로 세포 사멸을 유도할 수 있다. Plk1 활동을 억제하면, 급성골수성백혈병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특징인 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종양 세포 성장을 멈추고 종양 세포의 활발한 분열을 줄이는 효과까지 있어 환자의 생존 기간을 늘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볼라설팁은 급성골수성백혈병 환자를 대상으로 현재 임상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베링거인겔하임이 현재 개발하고 있는 두 개의 후기 임상 단계의 항암제 신약 후보화합물질 중 하나이다. 이는 현재 3상 개발 단계다. 3상 연구인 POLO-AML-2는, 집중 관해유도요법에 적합하지 않으며 이전에 치료받지 않은 65세 이상의 AML환자를 대상으로 저용량 사이타라빈(화학요법의 한 형태)과 볼라설팁의 병용요법을 연구하는 것이다. 볼라설팁은 제1, 2상 임상 시험을 통해 화학요법과 병용 치료할 경우, 고령 급성골수성백혈병 환자의 생존 기간을 늘리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연구 결과는 올해 말 공식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현재 제한된 치료요법으로 인해 급성골수성백혈병 환자들이 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볼라설팁이 향후 출시될 경우 새로운 치료 대안을 제공할 수 있을지 환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베링거인겔하임 측은 “<span class='quot0'>현재 진행 중인 볼라설팁 제3상 임상 연구와 함께 미국과 유럽의 규제 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환자들이 하루 빨리 이 약물의 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span>”이라고 말했다. 엄기성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혈액내과 교수는 “볼라설팁은 미국에서도 임상 진행 중인 약이며 국내 임상 등의 도입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이 약이 급성골수성백혈병 환자에게 획기적인 치료약이 될 수 있을지는 다른 약과의 비교임상 등을 통해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301.txt

제목: [뉴스파일] 서울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세포분열 과정 중 암 발생 원리 규명  
날짜: 2014072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723093749002  
ID: 01100201.20140723093749002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서울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이기원 교수와 박석열 박사, 미국 암 연구소 이경상 박사 연구팀이 세포가 분열하는 과정에서 암이 발생하는 원리를 밝혀냈다. 연구팀은 세포가 분열할 때 중심 역할을 하는 중심체 ‘센트로좀’이 염색체 분열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면서 세포의 유전적 안정성에 문제가 생겨 암이 발생하는 과정을 규명했다고 22일 밝혔다. 세포 내에서 폴로박스가 센트로좀 단백질과 어떤 상호작용을 하는지 입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구결과는 지난달 29일 ‘네이처 구조·분자생물학’ 온라인판에 발표됐다.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302.txt

제목: [암과의 동행] 미역귀에 든 생리활성물질 ‘후코이단’ 암세포 자살 유도하고 면역력 키운다  
날짜: 2014071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715123136002  
ID: 01100201.20140715123136002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이름도 생소했던 미역귀가 최근 항암식품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미역귀에 함유된 생리활성물질 후코이단이 암세포의 자살을 유도하고 암의 성장과 전이를 막는 등 항암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 미역귀(사진)란 미역의 뿌리 바로 위에 달려 있는 머리 부분으로 미역은 다른 해조류와 달리 이 부분에서만 포자를 방출한다. 사실상 미역의 생식기관인 셈. 미역은 소중한 생식기관을 보호하기 위해 수많은 생리활성 물질들을 분비하는데 후코이단도 이 중 하나다. 그런데 이 후코이단에 강력한 항암기능이 있다는 것이 다양한 연구를 통해 밝혀지고 있다. 올해 초 사이언티픽월드저널에 발표된 논문 ‘갈조류의 두 가지 주요 대사물인 후코이단과 후코산틴의 항암, 항종양 잠재효과에 대한 연구’를 보면 후코이단의 종합적 항암기능을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 발표된 60여편의 후코이단 관련 연구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이 논문에서 연구팀은 후코이단의 항암기능을 △암세포 자살유도 기능 △종양의 성장억제 기능 △암의 전이억제 기능 △면역증강 기능 등 4가지로 요약하고 있다. 우선 암세포의 자살유도 기능은 후코이단이 가진 가장 강력한 항암효과로 꼽힌다. 원래 우리 몸의 모든 세포는 일정 기간이 되면 스스로 죽고 그 자리를 싱싱한 세포에게 물려주게 되어 있다. 그러나 암세포는 이러한 기능에 이상이 생겨 영원히 살면서 증식만을 반복하게 된다. 후코이단은 암세포의 망가진 자가소멸 기능을 되살려 스스로 죽도록 만든다. 암의 성장을 억제하는 기능도 두드러진다. 암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혈관을 만들어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하는데 미역귀의 후코이단이 이러한 과정에 개입해 암이 신생혈관을 만들지 못하도록 억제한다. 암의 전이를 막는 기능도 탁월하다. 암세포는 다른 기관으로 이동하기 위해 혈관으로 들어가 혈소판에 달라붙는데 미역귀 후코이단의 황산기가 암세포의 혈소판 점착을 억제하는 기능을 한다. 면역력을 증강시키는 것 역시 미역귀 후코이단의 항암효과 중 하나다. 특히 항암제의 부작용 때문에 면역력이 극도로 떨어진 암환자들의 면역력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다당류인 후코이단이 장에 들어가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장 면역도 상승시키게 된다. 이 때문에 후코이단을 암 치료에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이미 일본과 동남아시아에서는 항암보조요법으로 암환자들에게 후코이단을 처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미국에서도 후코이단을 함유한 음료가 큰 인기를 끌며 연간 1조원 가까운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미역귀 후코이단 전문생산 업체 해림후코이단 이정식 사장은 “<span class='quot0'>후코이단의 항암효과는 이미 다양한 논문과 연구를 통해 입증되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다행히도 우리 바다에서 자란 미역귀에는 황산기 함량이 높은 고품질 후코이단이 들어 있어 세계적으로 불붙고 있는 후코이단 경쟁에서도 유리한 면이 있다</span>”고 밝혔다. 이영수 쿠키뉴스 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303.txt

제목: [암과의 동행] ‘바이오마커’ 이용, 암 발병 쉽게 파악… 단백질·DNA 변화로 측정  
날짜: 2014071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715123144001  
ID: 01100201.20140715123144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대한민국 사망 원인 1위는 ‘암(癌)’이다. 이러한 암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암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의학 기술의 발전과 혁신적인 항암제들의 개발로 암은 더 이상 ‘불치병’이라 불리지 않게 됐다. 암 정복에 가장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게 있다. 바로 암 치료에 있어 핵심이 되는 ‘바이오마커(Bio-marker)’다. 바이오마커란 우리 몸의 단백질이나, DNA, 대사 물질 등을 이용해 몸 안의 변화를 알아낼 수 있는 표지자다. 바이오마커를 활용하면 우리 몸이 정상인지 또는 병리적인 상태인지를 약물에 대한 반응 정도 등을 통해 측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환자가 암에 걸렸다고 가정할 때, 암 세포가 증식하는 과정에서 혈액으로 흘러나오는 암세포가 분비하는 특정 단백질을 찾아내 이 물질의 농도를 측정하면 발병여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바이오마커의 규명이 중요한 이유는 항암 치료 시 치료 대상의 바이오마커 수치 측정을 통해 처방 약물의 치료 결과를 미리 예측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 치료 진행 전 바이오마커 측정을 통해 처방하려는 약물과 환자의 몸 상태 일치 여부도 쉽게 판단 가능해 바이오마커를 활용한 향후 임상시험 성공률이 보다 향상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암에 대한 바이오마커를 분석하면 어떤 암인지, 얼마나 병이 진행됐는지 등의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그만큼 맞춤 치료법을 개발하기도 쉽다. 지금까지 사용된 항암제들은 암세포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정상세포까지 파괴한다. 항암치료 과정에서 탈모, 손발톱 빠짐 등의 부작용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바이오마커 기술은 유도 미사일과도 같다. 암에만 특별하게 발현되는 단백질을 이용해 약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약을 주입하면 특정 암세포만을 겨냥해 파괴하기 때문에 정상세포를 지킬 수 있다. 바이오마커의 유전자형을 진단키트로 사전에 파악하면 특정 항암제에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를 예측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환자는 불필요한 약을 투여할 필요가 없게 된다. 대표적인 유방암 항체치료제인 로슈의 ‘허셉틴’은 바이오마커인 ‘HER2’에서 과발현하는 유방암 환자에 대한 맞춤형 표적치료제다. 유방암 환자라고 해도 모두 허셉틴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HER2에서 과발현하는 환자에서만 이 치료제를 사용할 수 있다. 암젠의 항암제 ‘벡티빅스’는 바이오마커인 ‘K-RAS’라는 유전자를 함유한 대장암에서만 작동한다. ‘얼비툭스’ 역시 대장암의 바이오마커인 K-RAS 정상형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전이성 대장암 환자에게만 사용된다. 아스트라제네카의 폐암 치료제 ‘이레사’, 노바티스의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 등의 특정 표적항암제 선택을 위해서는 반드시 유전자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들 검사는 환자의 유전자 타입이 해당 항암제에 효과가 있을지를 판정해 불필요한 투약을 막는 데 도움을 준다. 최근 국내 바이오기업 카엘젬백스는 항암백신 후보물질 ‘GV1001’과 바이오마커의 상관관계를 입증 한 결과로 전 세계 PCT(국제특허협력조)와 대만지역 출원을 완료했다. 젬백스는 바이오마커인 이오탁신 수치가 높은 환자는 GV1001을 활용한 치료로 생존율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임상시험을 통해 증명했다.장윤형 쿠키뉴스 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304.txt

제목: [암과의 동행] 이대여성암정복특성화연구센터, “암 고통 여성 위해 신기술 개발 최선”  
날짜: 2014071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715123122001  
ID: 01100201.20140715123122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난치성 여성암 분야의 세계적인 전문치료센터로 도약’. 지난 2011년에 이어 올해 보건복지부가 선정하는 병원 특성화 연구센터 지원사업의 2단계 사업 수행 기관으로 선정된 이대여성암정복특성화연구센터(센터장 김승철 이화의대 교수)의 비전이다. 이대여성암병원 부인종양센터장을 겸임하며 특성화 연구를 통해 여성암 정복에 나선 김승철 센터장은 “<span class='quot0'>여성암 정복을 위한 신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상용화해 센터의 자립화와 대학과 병원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목표</span>”라고 설명했다. 이대여성암정복특성화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에는 오는 2016년까지 5년간 정부출연금 49억2000만원을 포함해 총 112억원이 투입되며, 조기예측 진단의 상용화와 맞춤치료법 개발, 인력 양성을 통한 국가 연구개발 경쟁력 강화, 이를 통한 난치성 여성암 분야의 세계적 수준의 전문치료 센터 도약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연구는 △저질량 이온 대사체 분석법을 통한 진단법 개발 △재발 조기 예측을 위한 후성유전학적 진단법 개발 △세포표현형 변이 제어를 통한 여성암 치료법 개발 △조절T림프구 표적 신개념 여성암 면역치료제 개발 등 4개의 세부 과제로 나뉜다. 이와 관련, 연구센터는 2012년부터 2013년까지 1단계 사업을 통해 많은 성과를 도출했다. 이 기간 동안 연구센터는 난치성 여성암 조기 발견을 위한 신개념 진단, 치료법 개발의 초기 연구를 성공적으로 수행했으며, 22편의 관련 논문을 국제학술지에 발표했다. 또한 8건의 특허를 등록하고, 20건의 국내외 특허 출원 성과를 창출했다. 김 센터장은 “<span class='quot0'>연구센터의 사업 비전과 목표는 정부와 학교의 사업 지원을 기반으로 새로운 진단법이나 치료제를 개발하고, 이를 기반으로 진료수익 이외의 병원 수익모델을 창출하는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0'>다양한 임상연구와 제품화, 기술이전 등은 여성암 분야의 국내 연구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연구센터의 책임이 막중하다</span>”고 말했다. 지난해 마무리된 1단계 연구가 기초와 임상의 중개 연구를 통한 원천기술 개발이었다면, 2단계 연구에서는 임상 협력연구를 통해 구체적인 기술을 발굴한다. 연구센터의 2단계 연구는 2016년까지 매년 국비 10억원과 주관기관 대응비 10억원 등 총 60억원이 지원된다. 연구센터가 1단계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고 다양한 성과를 창출해 내면서 2단계 성과에도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센터장은 “<span class='quot0'>이대여성암정복특성화연구센터의 자체 연구 경쟁력뿐만 아니라 이대여성암병원이 보유한 다양한 임상 노하우와 연구진들의 인적 인프라, 연구 협력 네트워크 등이 꾸준히 성과를 낼 수 있는 기반</span>”이라며 “<span class='quot0'>2단계 사업이 마무리되고 그 이후 제품화와 기술이전 등을 통해 환자 치료에 획기적인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span>”이라고 말했다. 특히 현재 연구센터에는 각 세부과제별로 김승철 센터장을 포함해 이화의대 산부인과 주웅 교수, 신장내과 강덕희 교수, 외과 문병인 교수 등이 연구책임자로 참여하고 있다. 김승철 센터장은 “<span class='quot0'>난치성 여성암의 경우 치료 가능한 시기에 조기 발견하고 기존에 없던 새로운 개념의 치료법을 적용한다면 암을 정복할 수 있는 날도 곧 다가올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0'>암으로 고통받는 여성 환자들을 위해 실용화가 가능한 신의료기술을 개발하고, 여성들의 살의 질을 높이는 이대여성암정복특성화연구센터를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기관으로 발전시키도록 노력할 것</span>”이라고 힘줘 말했다. 송병기 쿠키뉴스 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305.txt

제목: [암과의 동행] 현직 치과醫 “투바디 임플란트 부작용, 癌유발 가능성”  
날짜: 2014071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715123124001  
ID: 01100201.20140715123124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김세환(56·가명)씨는 하악 좌·우측으로 각각 4개씩 치아가 없는 상태에서 치주염이 심해 A치과를 방문했다. 이어 진료비 300만원을 지급하고 좌·우측 제1대구치(#36, #46) 2개에 대해 투바디(Two-body)형 임플란트(인공치아 이식술) 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1년 만에 치주염으로 인한 골 파괴로 임플란트를 전부 제거하게 됐다. 김씨는 "임플란트 후 치주염이 더 심해져 결국 해 넣었던 임플란트도 제거했다"고 하소연했다. 치아 임플란트의 부작용 사례다.◇입속 악취, 주위염 예견된 부작용=치아 임플란트는 이가 없는 이에게 씹는 즐거움을 제공하는 반영구적인 치과 시술로 1990년대 초반 보급되기 시작한 이후 2000년대 들어서는 치과의 주요 수입원이 된 비급여 진료과목이다. 당시 임플란트 한 대의 진료비는 400만원에서 800만원까지 호가했다. 실력깨나 있는 치과의사들은 임플란트로 갈아타기 시작했고, 현재는 치과의사 10명 중 9명이 임플란트를 진료과목으로 내걸 정도다. 특히 외국에선 한국 치과의사들의 손기술이 남다르다며 그 실력을 인정하고 있기도 하다. 이 때문에 국내는 물론 외국에서까지 임플란트 환자들이 몰려드는 상황이다. 하지만 환자가 늘어나는 만큼 부작용도 늘고 있다. 부작용 사례 대부분은 임플란트 주위염과 악취다. 그런데 이 같은 부작용에 현직 치과의사가 “이는 이미 예견된 부작용”이라고 밝혀 충격을 주고 있다. 또 치아 임플란트가 유방암 신장암 췌장암 혈액암 등 전신암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보건복지부는 7월부터 만 75세 이상 어르신의 임플란트 시술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급여 적용 대상 임플란트 시술에는 투바디형 임플란트가 포함돼 있어 안정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대의원으로 활동한 신세계치과 황정빈 원장은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투바디형 임플란트의 위해성을 보고했다. 위해성 보고에 따르면 원바디형과 달리 투바디형 임플란트에서는 고정체(Fixture)와 지대주(Abutment) 사이 공간에 치주질환의 원인이 되는 P.gingivalis(폴피로모나스 진지발리스)균 등이 스며들어 서식지를 형성한다. 임플란트 속 서식 공간이 좁을 경우 세균은 밖으로 삐져나오거나 몸 속 혈류를 타고 안으로 들어가기도 한다. 혈류를 타고 들어간 구강 내 세균들은 다른 세포들과 만나 각종 종양세포를 만들어 유방암 신장암 등을 유발시킨다는 것이다. 또 임플란트를 해 넣은 후 구취가 심해지는 것도 음식물을 씹을 때마다 이 틈 사이로 세균들이 들어가 서식하기 때문이라는 게 황 원장의 설명이다. ◇지대주 임플란트서 진지발리스균 발견=황 원장의 이 같은 주장은 국내는 물론 해외의 여러 치과대학에서 투바디 임플란트의 부작용 사례가 논문으로 발표되면서 설득력을 얻고 있다. 조선대학교 대학원 치의학과(한명주 박사논문)에서 ‘임플란트-지대주 연결부 미세누출로 인한 치주질환 관련 세균의 검출’이라는 주제로 연구한 결과는 황 원장의 주장과 일치한다. 연구자는 이 병원 임플란트 센터에서 시술을 받고 현재 임플란트 보철물을 사용 중인 환자 27명을 대상으로 세균검사를 한 결과 지대주 임플란트에서 진지발리스균 등 치주질환의 원인이 되는 공격력 강한 구강 내 세균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연구자는 “<span class='quot1'>임플란트 보철물 사용 환자의 세균조절 실패로 인해 구취, 출혈, 임플란트 주위염 등이 발생할 수 있다</span>”고 경고했다. 황 원장이 투바디형 임플란트의 부작용을 알게 된 것은 논문이 나오기 전 환자 몇 명을 진료하면서부터다. 김영민(45·가명)씨는 악취가 심해 다른 치과에서 임플란트를 했지만 불만족스러워 수소문 끝에 황 원장을 찾았다. 황 원장이 김씨의 상황을 듣고 이전에 식립된 임플란트를 열어본 결과 그야말로 경악스러웠다. 투바디형의 임플란트였는데, 기둥과 기둥 사이에 시커먼 피가 덩어리져 있었던 것. 또 임플란트를 식립한 잇몸뼈 주변은 무너져 내려앉은 데다 벌겋게 변하기까지 해 세균의 침투를 가늠할 수 있었다. 김씨와 같은 임플란트 부작용 환자는 한두 명이 아니었다. 재내원한 환자의 90%는 치주질환에 시달렸고, 식립한 임플란트를 열어 보면 그 안에 마치 하수구를 연상하게 할 정도의 위해물질이 그득했다. 황 원장이 위해정보보고를 한 이유다. 또 경증의 염증이 장기화되면 우리 몸의 백혈구(면역세포) 체계에 이상이 오게 되고 결과적으로 전신 질환을 유발한다는 사실을 인지했기 때문이다. ◇입속 진지발리스균, 혈류 타고 암 등 각종 질병 유발=임플란트 치주염을 방치하면 진지발리스균 등 세균이 가지고 있는 독소와 면역체계에서 나오는 각종 사이토카인(Cytokine·세포 신호 전달을 매개하는 단백질 인자의 총칭)이 몸의 정상적인 활동을 방해해 당뇨나 류머티스 관절염 등 면역질환과 암을 일으키게 된다. 구강 내 세균은 다른 세균과 달리 혈관으로 침투하기가 쉬우며, 이렇게 침투한 세균이 혈관을 타고 우리 몸 여러 곳으로 이동하면서 질병을 유발하게 되는 것이다. 실제 영국 임페리얼대학과 미국 브라운대학의 전염병학 교수인 도미니크 미쇼드 박사팀은 ‘The Lancet Oncology’ 최신호를 통해 40∼75세 남성 4만8000여명을 18년 동안 추적 조사한 결과, 치주질환이 있었던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발생 위험이 췌장암 54%, 신장암 49%, 폐암 36%까지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MIT의 생명공학부 디돈 박사팀도 ‘사이토카인’과 관련된 효소 등이 정상 세포들의 DNA 구조를 손상시켜 암을 유발한다는 논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한편 대한치과의사협회는 국내외 논문과 치료사례를 바탕으로 한 황 원장의 주장에 대해 “<span class='quot2'>임플란트 사용 중 발견되는 p.gingvalis의 세균은 임플란트와 연관된 암 발생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는 않다</span>”며 “<span class='quot2'>임플란트는 자연치아와 마찬가지로 치주질환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적극적인 정기검진과 치주관리를 통해 조절할 수 있다</span>”고 설명했다. 조규봉 쿠키뉴스 기자 ckb@kukimedia.co.kr [“<span class='quot3'>투바디 임플란트 부작용</span>” 관련 반론보도]본지는 지난 7월 15일자 건강면 “현직 치과의, <span class='quot3'>투바디 임플란트 부작용</span>, 암 유발 가능성” 제하의 기사에서 임플란트 치주염이 암 유발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이에 대해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치주질환의 원인이 되는 진지발리스균이 암유발을 일으킨다는 인과관계는 현재까지 규명된 바 없으며, 기사에 인용된 조선대 한박사의 논문은 환자 혀 주위나 임플란트 주위열구보다 임플란트 고정체 내부에는 세균분포가 적었다는 것이 요지이며, 미쇼드 박사의 연구는 임플란트 주위염과 암과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 아니라 흡연인자에 따른 치주질환과 치아상실의 암유발 가능성에 대한 연구라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306.txt

제목: [건강나침반] 면역 떨어진 암경험자 예방접종을  
날짜: 2014071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715123134001  
ID: 01100201.20140715123134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암경험자에게 예방 접종은 장기적으로 볼 때 매우 중요한 건강 행동이다. 암경험자는 암 치료과정 이후 면역 저하 상태일 수 있어 그로 인한 예방 접종으로 예방 가능한 질환에도 취약할 수 있다. 의료인은 암경험자의 예방접종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지만 환자의 상태를 고려해 적절한 예방접종과 시기를 결정하고 있다. 암경험자를 위한 예방접종 가이드라인이 현재는 마련돼 있지 않지만 몇 가지 사항들을 유의해 일반 성인 예방접종 권장을 따라 예방접종을 하면 된다. 모든 면역 이상이 없는 암경험자에게 권장하는 예방접종은 인플루엔자, 폐렴사슬알균, 디프테리아-파상풍 백신, B형 간염 백신이다. 이외 필요시 A형 간염 백신, 대상포진 백신 등도 접종할 수 있다. 권장되지 않는 백신으로는 수두, 홍역-볼거리-풍진과 같은 생백신으로 암경험자에게 주의를 요한다. 인플루엔자는 매년 9월부터 다음 해 4월까지 유행하는 전염병으로 소위 ‘독감’이라고 불리는 병이다. 인플루엔자 백신은 일반적으로 생후 6개월 이상의 모든 연령층에게 접종하도록 하는데 암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매년 1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 가급적 9∼10월경 인플루엔자 유행이 시작되기 이전에 받도록 한다. 폐렴사슬알균은 폐렴, 급성 중이염, 수막염 등을 일으키는 세균이다. 미국에서 시행된 연구에 따르면 폐렴사슬알균에 의한 감염은 10만명당 8.8명 관찰된 것에 비해 암경험자의 경우에는 암종의 따라 300∼500명 발생했다. 특히 혈액암 환자의 경우 사망위험이 높은 폐렴이 발생할 수 있어 가능한 한 빨리 예방접종을 해야 한다. 폐렴사슬알균 백신은 23가 백신과 13가 백신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이 두 백신의 선택은 환자의 나이와 면역 상태 등에 따라 고려된다. 폐렴사슬알균 백신은 암 진단 후 바로 시작하는 것이 좋다. 파상풍-디프테리아 백신은 유아기 때 접종하는 DTP백신과 달리 성인에게는 부작용을 고려해 함량을 낮춘 Tdap 백신을 처방한다. 일반적으로 사망을 줄일 수 있고 비용-효과 면에서 우수하여 암경험자에게 접종이 권장되는 백신이다. B형 간염은 간경변과 간암의 중요한 원인으로 20대 이상의 항체가 없는 모든 성인은 예방접종 대상이다. 그러나 암경험자의 경우 연령에 상관없이 B형 간염 항체가 없으면 3회의 접종을 받아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암경험자의 예방접종률은 많이 낮다고 알려져 있다. 이것은 암경험자에게 예방접종의 필요성이 충분히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암경험자는 건강 상태에 대한 평가와 치료 일정을 고려하여 의료진을 통한 적절한 예방접종을 안내받아야 하겠다. 그리고 예방접종은 암경험자뿐만 아니라 같이 생활하는 암경험자 가족에게도 필요한 것으로 이를 통해 암경험자의 장기적인 건강 증진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안아름 건국대병원 암 치료 후 건강관리 클리닉교수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307.txt

제목: [암과의 동행] 세계 학회 이목 집중시킨 한미약품 항암·바이오신약… 매년 매출액 15% R&D 투자  
날짜: 2014071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715123127001  
ID: 01100201.20140715123127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기존 약제에 내성이 생긴 폐암환자에게 쓸 수 있는 표적항암제, 일주일에 한 번 또는 한 달에 한 번만 맞으면 약효가 유지되는 당뇨병치료제, 당뇨와 비만을 동시에 치료할 수 있는 신개념 치료제. 이는 국내 대표 제약기업인 한미약품이 글로벌에서 활발한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현재진행형’의 바이오·항암신약이다. 어려운 제약환경 속에서도 매년 매출액 15%대의 R&D 투자를 고수하고 있는 한미약품의 뚝심이 가시화되고 있다. 실제, 지난해 한미약품은 국내 코스피 제약기업으로는 최초로 R&D 투자액 1000억원을 돌파하며 R&D에 대한 신념을 현실에 적용하고 있다. 한미약품은 현재 약효 지속, 투약용량 최소 바이오신약과 내성이 생긴 암환자 또는 부작용에 노출된 암환자에게 투여할 수 있는 차세대 표적항암제 등 20여건의 치료제를 국내외에서 개발 중이다. 이러한 결과들은 최근 미국, 유럽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개최된 글로벌 학회에서 발표돼 관련 분야 임상전문가, 전 세계 제약 연구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특히, 표적항암제인 HM61713은 최근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임상종양학회(ASCO)에서 구연발표되면서 세계적 관심이 집중됐다. ASCO는 1964년 창립된 세계 최대 임상종양학회로, 한미약품은 폐암부문 주요 심포지엄 중 주제 ‘EGFR 타깃항암제 향후 10년’ 세션에서 구연연제로 채택, 표적항암제 HM61713의 임상 1/2상 결과를 책임연구자인 김동완 서울대병원 종양내과 교수가 발표했다. HM61713은 암세포 성장에 관여하는 신호전달 물질인 EGFR(상피세포성장인자수용체) 돌연변이만을 선택적으로 억제하는 표적항암제로, 기존 치료제에 내성을 보인 T790M 돌연변이 양성 폐암환자 48명 중 36명(75%)에서 질환 조절효과가 있었고 이 중 14명(29%)은 실질적 종양감소를 보였다. 발표에 나선 김동완 교수는 “<span class='quot0'>이번 연구결과는 현재 EGFR 돌연변이 양성 폐암환자의 표준 치료제로 쓰이고 있는 1세대 약물의 내성을 극복할 수 있는 치료제로 가능성을 보였다</span>”고 말했다. 또 전 세계 1만5000명 이상의 당뇨병 관련 전문가가 참석하는 당뇨국제학회인 미국당뇨병학회에서는 바이오의약품의 약효 지속시간을 획기적으로 늘려주는 기반기술 ‘랩스커버리(LAPSCOVERY)’를 접목한 한미약품의 다양한 바이오신약들이 소개됐다. 한미약품은 LAPSCA-Exendin4, LAPSInsulin , LAPSInsulin 115 , LAPSGLP/GCG 등 투약 주기를 늘리거나 용량을 줄인 당뇨신약, 비만과 당뇨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신개념 당뇨신약들을 대거 발표했다. 이 외에도 한미약품은 최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유럽류머티스관절염학회(EULAR)에도 참가해 자가면역질환 치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HM71224의 임상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잇따라 개최된 세계 학회에서 파이프라인을 대거 선보인 한미약품은 항암, 바이오신약들의 개발 속도를 높여 글로벌 치료제로서의 가능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관순 한미약품 사장은 “<span class='quot1'>R&D와 신약개발은 한미약품의 미래이자, 인류 건강을 위해 존재하는 제약기업의 소명</span>”이라며 “<span class='quot1'>개발 중인 신약이 당뇨와 암 등 질환으로 고통 받는 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갖고 개발에 전념하겠다</span>”고 말했다. 이영수 쿠키뉴스 기자 juny@kukimedia.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308.txt

제목: 분당차병원, 암 치료 ‘다빈치 로봇수술’ 100건 돌파  
날짜: 2014071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714122939001  
ID: 01100201.20140714122939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분당차병원(원장 지훈상)은 최근 다빈치 로봇수술을 이용한 암 절제 수술 100건을 돌파했다고 13일 밝혔다. 로봇수술은 기존 개복수술 대신 복강경과 로봇을 병용하는 최신 수술법이다. 개복수술의 경우 암 덩어리를 포함한 장기를 제거할 때 복벽 피부를 길게 절개해야 했으나 로봇수술은 복벽에 작은 구멍 몇 개만 뚫어 그 틈으로 수술기구를 넣고 수술을 진행한다. 따라서 출혈량이나 수술 후 통증이 적어 회복이 빠르고 흉터도 적어 미용적으로도 환자 만족도가 높다. 로봇수술은 또한 고배율의 3차원 영상을 지원해 시술자의 수술 시야를 확대해주는 장점도 갖고 있다. 분당차병원이 그동안 로봇수술로 치료한 질환은 전립선암, 신장암, 신우암, 요관암, 방광암 등 비뇨기암과 자궁경부암, 자궁내막암, 난소암 등 여성 암들이 포함돼 있다. 이 밖에 산부인과(자궁근종, 자궁적출, 난관미세수술), 외과(갑상선암, 담낭질환, 위암, 직장암), 흉부외과(폐암, 식도암, 종격동암, 심장판막질환) 등에도 로봇수술을 활발히 시행 중이다. 지훈상 분당차병원장은 “<span class='quot0'>앞으로 전 외과 계열의 고 난이도 중증수술에도 로봇수술을 적용, 수술 정밀도와 치료 성공률을 더욱 높일 계획</span>”이라고 말했다.이기수 의학전문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309.txt

제목: [기획] 바둑 소재 영화·드라마 인기… 반상의 승부, 킬러 콘텐츠 될까  
날짜: 2014071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710122657001  
ID: 01100201.20140710122657001  
카테고리: 문화>영화  
본문: 가로 세로 19개의 줄. 그 줄이 만든 361개의 점 위에서 흑돌과 백돌 간 접전은 뜨겁고 집요하다. 공격과 수성이 있고, 다음 수를 노린 의도적인 퇴각도 있다. 집을 만들고 허무는 과정에서 판 위 돌들은 살거나 죽는다. 바둑이 인생에 비유되는 이유다. 바둑을 소재로 한 영화와 드라마가 잇달아 제작돼 주목받고 있다. 최근 2편의 영화가 개봉한 데 이어 하반기엔 인기 웹툰 ‘미생’이 드라마로 재탄생한다. ‘내기 바둑’ ‘프로를 꿈꾸는 아마추어’ ‘바둑으로 비유한 직장생활’ 등 바둑을 소재로 한 점에서는 같아도 풀어내는 방법은 다양하다. ‘국내 최초 바둑 영화’란 타이틀을 달고 지난달 12일 개봉한 영화 ‘스톤’(감독 조세래). 천재 아마추어 바둑기사인 민수(조동인 분)가 폭력조직의 보스 남해(김뢰하 분)의 바둑 선생이 되면서 벌어지는 일을 담았다. 프로를 꿈꾸는 아마추어들의 교감이 돋보인다. 바둑 소설 ‘승부’의 저자이면서 오랫동안 바둑 소재 영화를 기획해 온 감독 덕분에 현실감이 뛰어나다. 조 감독이 지난해 암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스톤’은 그의 유작이 됐다. 바둑의 승부사적 특성을 강조한 작품은 지난 3일 개봉한 영화 ‘신의 한 수’(감독 조범구)다. 프로기사 태석(정우성 분)과 살수(이범수 분)가 복수를 꿈꾸며 내기 바둑에 나서는 범죄 액션 영화다. 배우 정우성 이범수 안성기 등 화려한 캐스팅에 실감나는 액션신이 입소문을 탔다. 9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 따르면 개봉 6일째인 지난 8일 기준 149만 관객을 불러, 박스 오피스 1위 자리에 올랐다. 오는 10월 방영 예정인 케이블 채널 tvN 드라마 ‘미생-아직 살아 있지 못한 자’는 캐스팅 단계에서부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직장 생활의 바이블’로 불린 동명 원작(작은 사진)의 인기 때문에 시청자들의 기대감이 크다. 프로기사 입단에 실패한 청년 장그래가 대기업 종합상사에 일하면서 경험한 에피소드를 바둑판 위에 은유적으로 담아낸다. 지난해 모바일 영화 ‘미생 프리퀄’이 제작된 데 이은 두 번째 변신. 당시 장그래 역을 맡았던 임시완이 다시 한 번 물망에 오르고 있다. CJ E&M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장그래의 직장 동료 안영이 역에는 강소라가, 완벽한 스펙을 자랑하는 신입사원 장백기 역에는 강하늘이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다</span>”고 밝혔다. 죽도록 일하지만 출세하지 못하는 만년 과장 오상식 역에는 이성민이 확정됐다. 오는 10월부터 20부작 금토드라마로 편성된다. 바둑이 대중문화 콘텐츠의 소재로 각광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평론가들은 그간 다뤄지지 않았던 신선한 소재라는 점, 바둑판 위에 삶을 대입시켜 다양한 인생사를 풀어낼 수 있다는 점 등을 꼽았다. 황진미 영화평론가는 “<span class='quot1'>바둑은 그간 성인 만화와 소설 등에서는 다뤄졌지만 영화의 소재가 된 건 최근</span>”이라며 “<span class='quot1'>소재의 신선함이 흥미를 끄는 것 같다</span>”고 설명했다. 한상덕 대중문화평론가는 “<span class='quot2'>바둑은 한 수 차이로 지고 이기는 게임</span>”이라며 “<span class='quot2'>작은 실수와 운명에 따라 결과를 알 수 없다는 점에서 인생 이야기를 풀어낼 수 있는 무궁무진한 재료가 된다</span>”고 말했다. 또 “경쟁 관계 속에서 긴장감이 유발되지만 정적인 면도 갖추고 있어 제작자들에게 매력을 주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김미나 기자 mina@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310.txt

제목: 환경과학원 실험해보니… 아파트 화장실 흡연땐 5분내 위·아래층 솔솔  
날짜: 2014070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709122602001  
ID: 01100201.20140709122602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아파트 화장실에서 환풍기를 켠 채 담배를 피워도 위·아래층 가정으로 5분 안에 니코틴·미세먼지·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유입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담배 유해물질은 입자가 작아 20여 시간을 공기 중에 떠다녀서 집안 흡연자가 있는 가정은 지하철 승강장보다도 공기 질이 떨어지는 것으로 측정됐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있어 층간소음에 이어 실내 흡연은 또 다른 이웃 간 갈등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8일 아파트 실내 흡연과 유해물질 확산의 특성을 연구·분석해 결과를 발표했다. 아파트 화장실에서 환풍기를 켜고 담배를 피울 경우 담배연기는 최대 1초에 20㎝씩 위·아래층으로 퍼졌다. 환기 통로를 통해 위·아래층 화장실로 담배연기가 도달하는 데는 5분이 걸리지 않았다. 이번 실험은 지난해 분양을 앞둔 신축 아파트 1개 동의 4개 층에서 이뤄졌다. 그러나 위·아래층 가구가 모두 화장실 환풍기를 켜놓을 경우 담배연기는 그대로 옥상으로 배출됐다. ‘흡연자의 화장실→환기통로→위·아래층 화장실 환풍기’ 경로로 담배연기가 이동하지만 각 층의 환풍기가 돌면 담배연기가 차단되는 효과가 생긴다. 이웃의 담배연기를 막으려면 항상 화장실 환풍기를 돌려야 한다는 결론이다. 환경과학원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소음·관리 등의 문제 때문에 대부분의 가정에서 화장실 환풍기를 켜놓지 않을 것</span>”이라며 이웃집의 담배연기 피해 가능성을 말했다. 닫힌 방(24㎥ 기준)에서 담배를 2개비만 피워도 지하철 승강장 수준으로 공기가 오염됐다. 이 경우 미세먼지의 중금속 농도는 비소 0.004㎍/㎥, 크롬 0.018㎍/㎥, 카드뮴 0.003㎍/㎥로 측정됐다. 지하철 승강장의 비소 0.002㎍/㎥, 크롬 0.011㎍/㎥, 카드뮴 0.001㎍/㎥ 농도를 웃도는 수치다(2012년 국립환경과학원 조사 결과). 담배 10개비를 피우면 납 농도는 0.185㎍/㎥로 치솟는다. 지하철 승강장의 평균 납 농도인 0.092㎍/㎥의 배가 넘고 실내주차장(0.032㎍/㎥), 버스터미널 대합실(0.039㎍/㎥) 납 농도의 4∼6배나 된다. 환기를 하지 않을 경우 담배 유해물질은 공기 중에 오래 잔류했다. 실내에서 담배 2개비를 피울 때 20시간이 지나야 담배연기 미세먼지가 모두 가라앉았다. 10개비를 피우면 24시간이 지나도 그 미세먼지가 공기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과학원 관계자는 “<span class='quot0'>기계식 환기에 의존하는 밀폐형 공동주택이 미세먼지 등 실내오염물질을 줄이려면 상시 환기를 해야 한다</span>”고 권했다. 의학계는 직접흡연이든 간접흡연이든 담배연기는 폐암의 주된 원인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소세포폐암을 일으키는 최대 요인으로 주목하고 있다. 비흡연자에게서 발생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기 때문이다. 소세포폐암은 일반 폐암의 15% 비율로 나타나지만 치명적이다. 암 덩어리가 작고 일부에 국한됐더라도 일단 확진을 받으면 암이 전신으로 전이되고 있는 것으로 본다. 항암제에 대한 내성이 강해 항암치료·방사선치료 등으로 호전돼도 첫 치료 후 2∼3개월이 안돼 재발하기 쉽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311.txt

제목: [헬스파일] 소세포폐암  
날짜: 2014070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707122258001  
ID: 01100201.20140707122258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원발성)폐암은 전 세계적으로 발생률이 높고 사망률도 1위인 암이다. 폐암은 조직 유형에 따라 크게 비(非)소세포폐암과 소세포폐암으로 나뉜다. 폐암을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는 소세포폐암이 치료법과 예후 면에서 비소세포폐암과는 확연히 다른 점이 있기 때문이다. 소세포폐암은 폐암의 약 15% 정도를 차지한다. 비소세포폐암에 비해 발생빈도가 낮지만 훨씬 더 치명적인 암이 소세포폐암이다. 소세포폐암은 거의 대부분 흡연으로 인해 발생한다. 비(非)흡연자에게서 소세포페암이 발생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소세포폐암의 증상은 비소세포폐암과 비슷하다. 기침, 가래, 객혈, 호흡곤란 등의 일반적인 호흡기계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원거리 장기인 뇌나 뼈로 전이가 된 후 해당 장기의 이상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소세포폐암이 자라서 상대정맥을 압박하면 혈액순환장애를 일으켜 얼굴과 팔이 심하게 붓게 되고 호흡곤란이 유발된다. 상대정맥은 머리, 얼굴, 어깨, 팔 등 상반신으로 혈액을 모으는 혈관이다. 이밖에 부종양증후군이라고 하여 암세포가 만들어낸 일종의 호르몬과 같은 물질을 분비해 전해질 이상을 일으키기도 한다. 소세포폐암은 아무리 크기가 작고, 한 곳에 국한됐더라도 진단과 동시에 전신 질환으로 간주한다. 왜냐 하면 눈에 보이는 종양이 흉곽(가슴 속)에만 있을지라도 눈에 띄지만 않을 뿐 온몸에 이미 미세 전이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치료도 흉부 방사선 치료가 가능한 ‘제한 병기’와 암세포가 흉부 밖으로 벗어나 방사선을 이용한 집중 치료가 어려운 ‘확장 병기’로 나눠 실시한다. 말하자면 제한병기는 항암화학요법과 방사선요법을 동시에 진행하고, 확장 병기엔 전신 항암화학요법을 중심으로 대응하는 식이다. 소세포폐암은 초기엔 항암치료나 방사선치료에 70∼90%가 좋은 반응을 보인다. 하지만 곧 재발하는 게 문제다. 이유는 무엇보다 암세포가 금방 항암제에 대한 내성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그나마 첫 치료 후 6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재발하는 것은 나은 편에 속한다. 첫 치료 후 2∼3개월도 안 돼 재발하기 일쑤다. 이 때는 ‘항암제에 불응성이 있다’고 하며, 2차적으로 어떤 항암제를 써도 효과를 보기 어렵다. 비소세포폐암에서의 ‘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 유전자’와 같은 초강력 암 유발 유전자가 밝혀지지 않아 표적치료제를 쓸 수가 없고, 맞춤 치료제를 개발하기도 쉽지 않은 것도 소세포폐암 환자들의 생존율을 떨어트리는 원인이다. 결국 피할 수만 있다면 소세포폐암은 피하는 게 상책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금연해야 한다. 아울러 현재 담배를 피우고 있거나 금연을 실천한 지 15년 미만인 55세 이상인 사람들은 방사선 노출이 적은 저선량 흉부CT 촬영검사를 이용한 폐암검진을 받아보길 권한다. 문용화 연세암병원 종양내과 교수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312.txt

제목: [메디컬 뉴스] 광선각화증 치료제 ‘피카토 겔’ 출시 外  
날짜: 2014070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707092822001  
ID: 01100201.20140707092822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광선각화증 치료제 '피카토 겔' 출시레오파마는 최근 ‘인게놀메뷰테이트’ 성분의 국소 광선각화증 치료제 ‘피카토 겔’을 새로 출시했다. 광선각화증은 자외선에 노출된 피부가 딱딱해지는 것으로, 피부암으로 발전할 위험이 높은 질환이다.피부관리법·화장품 고르기 앱 출시에이오씨((AoC)는 최근 피부과전문의 이창남 원장이 개발한 화장품 성분분석 및 정보제공 어플리케이션 ‘화장품멘토-화장품의 모든 것을 말하다’를 출시했다. 진료 과정에서 환자들이 궁금해 하던 피부관리법과 좋은 화장품 선택요령 등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다.호스피스·완화의료 수강생 모집가천대 길병원 암센터는 제3기 호스피스·완화의료 표준교육에 참가할 수강생을 11일까지 모집한다. 대상은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관심이 있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성직자 등이다. 교육은 17일부터 9월 25일까지 주1회(목요일)씩 총 11주간 진행된다. 수강료는 교재비 및 실습비 포함 50만원이다(032-460-8485).삼킴장애 클리닉 이달부터 운영한림대강동성심병원(원장 송경원)은 7월부터 연하장애(삼킴장애)클리닉을 본격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연하장애는 뇌졸중, 파킨슨 병, 뇌성마비와 같이 신경계에 손상이 있거나 치매와 같이 인지 기능이 저하됐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다.예방·재활까지 '통합 암치유센터' 개소삼성서울병원 암병원은 예방부터 치료 후 재활까지 모든 암 극복과정을 포괄적으로 종합관리해주는 ‘통합 암치유센터’(센터장 이정권·가정의학과 교수)를 이달부터 새로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이곳을 이용하면 각 암 클리닉의 암과 관련된 다양한 의료정보를 수시로 제공받을 수 있다.불면증 치료제 '서카딘' 수입 판매건일제약㈜은 멜라토닌 성분의 불면증 치료제 ‘서카딘’을 이스라엘 뉴림사로부터 직수입, 판매한다고 6일 밝혔다. 수면 호르몬으로 알려진 멜라토닌을 지속적으로 공급, 불면증 환자들이 쉽게 잠들 수 있게 해주는 약이다.고려대구로병원 180병상 늘려고려대구로병원(원장 백세현)은 최근 새 병상 180개를 추가, 병상수를 총 1140개 규모로 늘렸다. 1983년 300여 병상으로 시작한 이 병원은 10여년 만에 병상수가 3배 가까이 늘었다.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313.txt

제목: [알쏭달쏭 약 이야기-대장암 표적치료제 ‘얼비툭스’] 암세포 성장 차단  
날짜: 2014070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701121719001  
ID: 01100201.20140701121719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대장암은 육류와 고지방식 등 우리의 식습관이 서구화되면서 우리나라에서 3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암이다. 특히 남성에게서 더 많이 발생한다. 대장암은 기본적으로 외과적 수술로 암세포를 제거하면 완치될 수 있다. 수술 후에는 방사선 치료나 항암약물치료를 하기도 한다. 하지만 암세포가 혈관을 타고 다른 장기에도 자리를 잡거나 재발한 경우에는 수술이 불가능하다. 이때는 환자상태에 따라 항암약물치료를 한다. 수술과 방사선 치료는 암세포가 한 곳에만 있을 때 진행하는 치료이고, 항암약물치료는 암세포가 몸 곳곳으로 퍼진 경우에 필요한 치료이기 때문에 치료방법은 환자상태에 따라 결정하게 된다. 최근에는 치료전략을 세우기 위한 환자상태를 확인할 때 유전자검사도 함께 진행한다. 특정 유전자의 상태에 따라 항암치료제의 반응효과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특히 표적치료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치료효과를 미리 판별해 볼 수 있는 유전자검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표적치료제는 정상세포는 손상시키지 않고 암세포만 골라서 공격하는 항암제로 기존 항암제보다 부작용은 줄이고 치료효과는 높인 차세대 항암제이다. 이런 표적치료제는 암세포의 성장과 관련된 특정요인을 표적해 공격하는 치료제이므로, 이런 표적인자 상태에 따라 치료효과도 달라진다. 한국머크 얼비툭스(성분명 세툭시맙·사진)는 대표적인 대장암 표적치료제이다. 암세포에게 성장신호를 보내는 물질과 결합해 명령신호가 전달되지 못하도록 한다. 모든 세포는 세포 생산을 촉진하는 단백질에 영양분이 공급되고 생산, 증식하라는 명령신호가 전달돼 성장하는데, 이를 차단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세포독성으로 암세포를 직접적으로 공격하기도 한다. 이를 통해 암세포를 제거하거나 크기를 줄여 수술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준다. 얼비툭스는 사전에 유전자검사가 꼭 필요하다. 암세포 성장에 관련된 신호전달체계에 있는 유전자가 돌연변이를 일으키지 않아 본래 기능을 정상적으로 할 때 얼비툭스로 통제가 잘 되므로, 확실한 치료효과를 보인다. 이때 확인하는 유전자는 암세포 성장과 관련된 라스(RAS) 유전자이다. 임상연구에 따르면 라스(RAS) 유전자가 돌연변이를 일으키지 않으면 얼비툭스는 환자의 전체생존기간을 평균 7.5개월 정도 더 연장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치료예후가 좋아 얼비툭스 치료 이후에 2차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더 늘리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따라서 대장암 환자가 라스(RAS) 유전자가 돌연변이가 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확인하면 얼비툭스를 사용하는 게 효과적이다. 이처럼 얼비툭스 유전자검사를 통해 치료효과가 있는 환자군을 미리 찾아내는 것은 효과없는 치료로 인한 환자들의 고통과 막대한 치료비용을 줄여준다. 정부에서도 얼비툭스의 우수한 치료효과를 인정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얼비툭스 사용에 필요한 유전자검사도 건강보험을 인정해 검사비용에 대한 부담이 10만원 이하로 줄어들었다. 하지만 현재 대장암 표적치료제는 전이성 대장암으로 진단받은 후 1차 치료제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건강보험을 인정하고 있어 유전자검사로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이영수 쿠키뉴스 기자 juny@kukimedia.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314.txt

제목: 서울아산병원·연세암병원 글로벌 신약네트워크 가입  
날짜: 2014063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630092512003  
ID: 01100201.20140630092512003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서울아산병원(원장 박성욱)과 연세암병원(원장 노성훈)이 최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범 세계적 신약 개발 연구혁신 네트워크 ‘윈(WIN) 컨소시엄’에 가입했다. 이로써 한국인 암 환자들의 특성에 맞는 최고의 개인 맞춤 치료제 개발의 물꼬가 트였다. 다국적 제약사들이 그동안 서양인 중심의 개인 맞춤치료제 개발에 우선순위를 뒀기 때문이다. WIN 컨소시엄은 개별 맞춤형 암 치료제 개발 및 향후 3년 이내에 암 환자의 생존율과 삶의 질을 크게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미국 MD 앤더슨 암센터 등 세계 유수의 암 전문병원, 화이자 및 아스트라 제네카 등 다국적 제약사, 파운데이션 메디슨 같은 유전체 검사기관, 오라클과 GE헬스케어 등 의료기기 회사까지 빅 데이터 운영기관들이 참여하고 있다. 암 극복의 최신 경향은 유전체 분석을 통한 표적치료제 중심의 개인 맞춤 치료로 집중되고 있다. 폐암과 유방암 등에는 이미 개인 맞춤 치료가 시작됐고, 다른 종류의 암에 대해서도 100개 이상의 표적 치료제들이 개발되고 있다.이기수 의학전문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315.txt

제목: [상반기 히트상품] 혁신·감성·약속 키워드로 당신의 욕구 채워준다  
날짜: 2014062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625092305001  
ID: 01100201.20140625092305001  
카테고리: 경제>산업\_기업  
본문: 불황일수록 소비자들은 각각의 상품이 지닌 특징에 주목한다. 지갑이 얇아진 탓에 같은 값이면 성능·디자인 등에서 높은 만족감을 주는 상품에 손이 가는 것이다. 국민일보가 선정한 2014년 상반기 히트상품 16개도 연장선 위에 있다. 히트상품들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혁신, 감성, 약속이다. 혁신하면 주로 기업경영에서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거나 기발한 제품을 개발하는 정도로 받아들인다. 하지만 혁신은 아주 사소한 곳에서 시작할 수도 있다. 소비자가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편함이나 필요를 바탕으로 작지만 중요한 변화를 일으키는 것도 혁신이다. 삼성전자의 대표 모바일 브랜드 ‘갤럭시’는 스마트 기기의 혁신을 주도해왔다. 갤럭시S5는 카메라, 헬스케어, 방수방진, 안전 및 편의기능 등 소비자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본질적인 기능을 강화했다. 사용자 명령에 즉각 반응하는 스마트폰으로 인간의 감각을 새롭게 진화시켰다. 사용자와 한 몸처럼 반응하며 건강관리를 도와주는 ‘기어 핏’도 혁신의 산물이다. 레드페이스 아쿠아 샌들은 ‘다용도’를 지향하며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비에 젖은 아스팔트는 물론 바위가 많은 계곡과 가벼운 하이킹까지 활용도가 높다. 편안한 착용감, 뛰어난 접지력·내구성은 덤이다. 또한 소비자를 자극하는 감성은 마케팅에서부터 제품 기능까지 영역을 확장했다. 삼성전자의 곡면 초고화질(커브드 UHD) TV는 궁극의 화질, 화면이 공중에 떠 있는 듯한 감성적인 곡선 디자인으로 눈길을 끌고 있다. 삼성화재가 고령자 전용 암보험상품으로 내놓은 ‘시니어암’도 감성을 공략한 제품이다. 100세까지 보장, 고혈압·당뇨가 있어도 가입 가능하다는 점이나 치료비가 많이 드는 암일수록 집중 보장하는 구조는 소비자가 가려워하는 곳을 긁어준다. 이밖에 소비자와 약속을 강조하는 제품도 인기를 끌었다. 21년동안 ‘신선함’이라는 약속을 지켜온 서울우유의 ‘아침에주스’가 대표적이다. 1993년 냉장유통주스로 첫 출시된 이래 보여준 한결 같음이 최대 무기다. 동아오츠카의 제로칼로리 탄산음료 ‘나랑드사이다’는 소비자 건강을 먼저 생각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설탕, 색소, 카페인이 없는 탄산음료다.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316.txt

제목: 대한암학회 이사장에 노동영  
날짜: 2014062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624121033002  
ID: 01100201.20140624121033002  
카테고리: 사회  
본문: 노동영(59·사진) 서울대학교 암병원장이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40차 대한암학회 학술대회에서 신임 이사장에 선출됐다. 임기는 2년이다. 노 교수는 유방암 연구와 진료 분야의 권위자로 대한암학회에서 기획재무이사와 함께 외과계 암 임상 발전에 주력해 왔다.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317.txt

제목: [암과의 동행] 암 예방, 이젠 유전 정보 분석으로 해결하세요  
날짜: 201406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617120211001  
ID: 01100201.20140617120211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50대 임원 유재석(가명)씨는 2010년 회사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 중 대장 내시경에서 용종이 2개 발견돼 절제술을 받았다. 2년 후 유씨는 개인 유전 정보 분석 서비스를 받았고 그 결과 자신이 다른 사람에 비해 대장암 발생 위험이 1.3배 높다는 것을 알았다. 대장암 고위험군에 속한다는 유전 정보를 확인한 유씨는 이후 식이조절과 운동 등으로 건강관리를 하는 한편 대장 내시경을 건강검진에 항상 포함시켜 지속적으로 관리해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있다. 개인 유전 정보 분석을 통해 향후 발생할 위험이 있는 암 등의 질병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맞춤형 예방의학 시대가 도래했다. ‘개인 유전 정보 분석’이란 질환과 관련된 유전체 내의 변화를 검출하기 위해 인간의 DNA, RNA, 단백질의 유전자 산물을 검사해 분석하는 것이다. 유전자 검사는 진단적 검사와 예측적 검사로 나뉘는데 이 중 예측적 검사는 만성질환, 암 등과 관련된 유전자를 분석해 일반인과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해 질병의 발생 확률(감수성)을 예측하는 검사다. 예를 들어 똑같이 흡연을 하더라도 폐암의 유전적 소인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위험도는 동일할 수 없다. 유전 정보 분석을 통해 특정 질환에 대한 감수성을 사전에 인지하게 되면 그에 대한 집중적 관리를 통해 중증 질환을 사전에 예방할 기회를 얻게 된다. 유전 정보 분석 서비스를 위한 검사는 간단히 소량의 혈액을 채취하는 과정만 필요하기 때문에 건강검진과 달리 복잡한 절차 없이 간편하게 끝낼 수 있다. 검진자는 의료기관에서 결과 및 맞춤관리방안 등을 상담 받아 건강관리를 하게 된다. 분석 시간은 유전자 분석 항목에 따라 최소 10일에서 최대 8주까지 소요된다. 이러한 유전자 분석 서비스는 국내에서 지난해부터 본격화됐다. 한국에서도 간암 대장암 유방암 위암 자궁경부암 폐암 등 발병률이 높은 암뿐만 아니라 고혈압 뇌졸중 고지혈증 치매 파킨슨병 등의 발병 가능성을 알아볼 수 있다. SK케미칼은 디엔에이링크와, 유한양행은 테라젠이텍스와 손잡고 이러한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SK케미칼 관계자는 “유전 정보 분석 서비스를 통해 특정 질환에 대한 감수성을 사전에 인지하게 되면 그에 대한 집중적 관리를 통해 중증 질환을 사전에 예방할 기회를 얻게 된다. 따라서 이 서비스는 치료에 따른 비용 절감은 물론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말했다. 장윤형 쿠키뉴스 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318.txt

제목: [암정복 프로젝트] 유근영 아·태 암예방기구 사무총장 “1차 예방에 주력해야”  
날짜: 201406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617120209001  
ID: 01100201.20140617120209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암 경험자 110만 시대. ‘암’은 소리 없이 자라기 때문에 자각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평소 건강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암에 걸렸다는 말을 자주 듣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그동안 암 치료 기술 발달로 암환자의 치료 후 생존율은 50%를 넘어섰고, 조기에 발견한 암환자 완치율은 95%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암환자 발생이 늘면서 사회·경제적 부담은 늘고 있다. 따라서 암 예방은 시대적 과제가 되고 있다. 암 예방의학자로 현재 아시아·태평양암예방기구(APOCP) 사무총장인 유근영 서울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한국뿐 아니라 아시아 전역의 암 예방 및 관리를 위해 헌신하고 있다. 유 교수를 통해 암 정복 선결 과제인 ‘암 예방’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봤다. 유 교수는 “<span class='quot0'>우리나라 국민을 암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암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일차 예방에 전략적으로 집중해야 한다</span>”고 말했다. 암 예방에는 3가지 접근 전략이 있다. 그가 강조하는 것은 ‘1차 예방’이다. 폐암을 예방하기 위해 금연을 하고, 위암을 예방하고자 짠 음식을 피하고 채소를 섭취하는 것이 1차 예방이다. ‘2차 예방’은 암을 조기에 발견함으로써 암으로 생명을 잃는 것을 막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국가암조기검진 지침이나 건강검진을 통한 선별검사는 암을 조기에 치료하도록 하는 이차 예방법들이다. ‘3차 예방’은 암 예방에 실패한 경우라도 암으로 인한 생명 손실을 줄이고 삶의 질을 유지하도록 조치하는 과정이다. 암 예방을 위한 연구에 헌신하게 된 계기가 있느냐고 물었다. 그는 “30년 전 어머니를 암으로 잃었다. 당시 의과대학 학생이던 나는 대한민국 최고의 병원에서도 암환자에 대해 치료해 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현실에 좌절하면서 이 난적을 예방하는 일을 필생의 과업으로 삼았다”고 답했다. ‘왜’ 누구는 암에 걸리고 누구는 암에 안 걸리는 것일까. 유 교수는 “<span class='quot0'>최근 연구에 의하면 몇 가지 유전자가 변형됐을 때 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사실이 밝혀졌다</span>”고 말했다. 전체 암의 5% 정도는 특정 유전자의 변이에 의한 감수성의 변화에 의해 유발된다. 일례로 BRCA1 유전자에 변이가 생긴 가계에서는 유방암과 난소암에 걸릴 가능성이 높으며 이 유전자의 변이가 일어난 여성에서 유방암 확률은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 2∼3배 높다. 한국인의 위암 발생률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그가 ‘한국인 암 코호트’ 연구를 통해 건강한 한국인 2만명을 20년간 장기간 추적·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 위암의 발생에는 ‘헬리코박터 파이로리’라는 박테리아균이 관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짠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은 위암 발병률이 높다. 유 교수는 “한국인은 탕류 음식을 먹을 때 국물까지 ‘싹’ 먹는 버릇이 있다. 고쳐야 할 우리의 식습관”이라고 말했다. 암을 100% 예방하는 것이 가능할까. 유 교수는 “암 조기검진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이 건강하다고 착각하기 때문이다. 암은 10년 이전부터 인체 내에서 소리 없이 서서히 자라고 있다. 이것이 조기 검진이 중요한 이유”라며 “암의 위험요인이 무엇인지 알고 금연이나 건강한 식습관, 주기적 운동, 예방접종 등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만으로도 암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장윤형 쿠키뉴스 기자vitamin@kukimedia.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319.txt

제목: [암과 맞서 싸우는 병원-이대여성암병원] 개원 5주년 맞아 글로벌 경쟁력 강화로 제2도약 선언  
날짜: 201406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617120218001  
ID: 01100201.20140617120218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여성암 치료 분야를 특화시키기 위해 지난 2009년 3월 문을 연 이대여성암병원(원장 백남선·사진)은 개원 5주년을 맞아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통한 제2도약을 선언했다. 이대여성암병원은 차별화된 진료 시스템과 여성의 마음을 헤아리는 여성친화적인 진료 서비스로 여성암 환자들의 큰 호응을 받으며, 5년 만에 국내 여성암 치료 대표 브랜드로 자리매김했다. 실제 이 병원의 유방암 수술 건수는 2012년 국내 5위를 기록하는 등 개원 초 대비 5배에 이르는 증가율을 기록했다. 갑상선암 수술 건수도 개원 초 대비 약 4배 늘어 ‘여성암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국내 여성암 대표병원’이라는 위상을 확보했다. 지난해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실시한 유방암 수술 적정성 평가에서 전문 인력 구성 여부와 기록충실도, 수술 분야 항목에서 모두 만점을 기록하는 등 총 99.82점을 기록해 1등급을 받았다. 또한 지난 2011년 7월 JCI 인증 획득 이후 해외환자 유치에 적극 나서 성과를 내고 있다. 해외환자의 국내 체류기간을 줄인 ‘외국인 환자 우선 진료 시스템’과 국가별 외국어가 가능한 코디네이터의 1대1 맞춤 서비스 등으로 경쟁력을 확보했다. 이는 몽골, 중국, 러시아, 유럽, 미국, 중동 등 60개국 여성암 환자들이 이 병원을 찾는 성과로 이어졌다. ◇차별화된 시스템과 ‘삶의 질’ 높이는 병원=가장 눈에 띄는 것은 신속하고 빠른 진료서비스이다. 암 진단 후 1주일 이내 시술, 방문 당일 한 공간에서 진료와 검사를 함께 실시하는 원스톱 서비스, 신속한 암 진단을 제공하는 동결조직검사와 암 유전자 검사 등이 대표적이다. 국내 최초로 여성 건강검진을 별도 공간에서 시행하는 여성건진센터/건강증진센터, 여성암 환자 전용인 레이디병동의 안정되고 편안한 입원실 등도 환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수술 후 여성암 환자의 사회복귀를 돕는 ‘파워 업(Power-up)’ 프로그램도 환자들의 효과적인 암 치료와 건강한 생활에 도움을 주고 있다. 핵심 경쟁력인 전문 의료진으로는 유방암 치료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로 꼽히는 백남선 이대여성암병원장과 김승철 부인종양센터장, 문병인 유방암·갑상선암센터장 등이 있다. 이들 여성암 전문 의료진은 수술 분야에서도 세계적인 인정을 받고 있다. 유방보존 수술법을 국내에서 최초로 시행했으며, 유방암 수술 환자의 약 75%를 유방보존술로 시행해 여성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있다. 성형외과와 함께 암 수술 후 유방재건술을 바로 시행함으로써 여성의 상징인 유방을 상실한 환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첨단 장비 도입과 여성암 관련 임상 연구 활성화=암 진단과 치료의 정확성을 강화하기 위한 첨단 장비 도입도 꾸준하다. 2010년 11월 국내 최초이자 아시아 두 번째로 도입한 첨단 영상 진단장비 ‘128채널 PET-CT(양전자방출단층촬영기)’와 2011년 12월 가동이 시작된 방사선 암 치료기 ‘트릴로지(Trilogy)’, 다빈치 로봇, 유방 감마스캔, 고주파 온열암 치료기, 2012년 10월 도입한 첨단 유방 촬영기 ‘디지털 3차원 맘모그라피’ 등이 대표적이다. 이대여성암병원은 중장기 발전과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임상연구 활성화도 적극 추진한다. 2012년 3월 설립된 이화융합의학연구원은 이대여성암병원과 함께 연구 역량을 고도화해 연구와 진료가 균형을 이루고 시너지를 발휘하도록 한다. 공동연구를 통해 혁신적인 보건의료 시술을 발굴하고, 이를 빠르게 제품화로 연결하는 것이 목표다. 또한 이대여성암정복특성화연구센터는 ‘병원 특성화 연구센터 지원사업’에 선정돼 1단계 사업(2012∼2013년)을 진행한 데 이어, 올해 2단계 사업에 선정됐다. 1단계 사업에서는 난치성 여성암의 조기 발견을 위한 신개념 진단, 치료법 개발 초기 연구를 통해 22편의 국제학술지 논문 발표, 20건의 국내외 특허 출원 등의 성과를 창출했다. 올해부터 2016년까지 총 60억원을 지원받는 2단계 사업을 통해 이 센터는 ‘난치성 여성암 정복을 위한 특성화 연구사업’으로 혁신적인 연구 결과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낼 계획이다. 송병기 쿠키뉴스 기자 songbk@kukimedia.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320.txt

제목: [암과의 동행] 표적항암제 선택의 기준 ‘유전자 검사’ 健保 적용  
날짜: 201406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617120203001  
ID: 01100201.20140617120203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정상세포와 암세포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 무한정 증식해야하는 암세포에는 정상세포와 달리 특이하게 발현되는 특정 단백질이 있다. 이같이 암세포에서 많이 발현되는 특정 단백질을 표적으로 삼는 것이 표적항암제(targeted agent)다. 결과적으로 표적항암제는 정상세포를 건드리지 않고 암(癌)적인 성격을 지닌 세포만을 골라 죽이게 된다. 하지만 표적항암제가 암세포와 정상세포를 구분 짓는 능력이 있다고 해서 모든 암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앞서 설명한대로 특정 유전자 단백질을 지닌 암환자에게 잘 듣는다. 따라서 표적항암제 사용하기 전, 유전자 검사를 통해 자신에게 특정 유전자가 있는지 알아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유전자 검사는 암환자의 유전자 타입이 특정 표적항암제 치료에 효과가 있을지 미리 판별해 불필요한 항암제 투약을 막고 치료과정 중 항암제에 대한 내성이 생겼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도와준다. 암환자의 표적항암제 선택을 위해 필수적인 유전자 검사 8종이 오는 6월부터 건강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대장암·폐암·백혈병·GIST의 표적치료제 선택에 필요한 검사 8종을 보험급여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같은 결정에는 유전자 검사의 필요성과 효과가 인정된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암세포만을 공격하는 표적항암제가 개발돼 환자들의 삶의 질 개선에 일정부분 기여를 했지만 치료효과에 대한 보증이 없는 상태에서 고가의 치료비용을 부담해야 했기 때문에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컸다. 유전자 검사 8종에 급여가 인정됨에 따라 치료비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그 중 대장암은 표적치료제를 선택하기 전에 유전자 검사가 꼭 필요한 대표적인 암이다. 대장암 표적치료제 선택을 위한 유전자 검사 3종도 이번 건강보험 적용대상에 포함됐다. 대장암 환자는 암세포 성장에 관여하는 라스(RAS)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발생했는지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표적항암제가 달라진다. 임상연구 결과, 라스(RAS) 유전자가 돌연변이 없이 정상형일 때 사용되는 표적항암제는 다른 약제보다 환자의 생명을 더 연장시키고 수술이 가능한 수준으로 암세포의 크기를 줄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환자의 2차 치료기간을 연장시켜주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폐암과 백혈병 표적치료제 선택에 필요한 유전자 검사들도 보험급여로 전환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급여 전환으로 유전자 검사에 대한 환자부담금이 14만원∼34만원에서 1만6000원∼6만원으로 줄어들고 연간 2만5000명의 암환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단비 쿠키뉴스 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321.txt

제목: [안웅식의 빛으로 치료하는 암] 레이저 빛에 예민한 광감작제 이용 암 조직 죽인다  
날짜: 201406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617120112001  
ID: 01100201.20140617120112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레이저는 Light[광], Amplification[증폭], Stimulated[유도], Emission[방출] Radiation[방사(전자파)]의 의미이다. 이는 ‘유도방출에 의한 광증폭(light amplification by stimulated emission of radiation)’의 머리글자를 따온 말이다. 레이저 광의 생물학적 작용에는 ‘광열작용(Photothermal interaction)’, ‘빛작용(Light interaction)’, ‘광화학적 작용(Photochemical interaction)’, ‘광절제(Photoablation)’ 4가지가 있다. ‘광열작용’은 레이저광과 조직 사이의 상호작용 유형 중 열작용은 레이저광을 조직에 조사 시 조직 내에서 빛을 흡수해 열이 발생되고 그 열의 온도에 따른 조직의 변화를 초래하는 비특이성 반응이다. 열작용은 조직 내의 온도 변화에 따라 효소의 변성과 세포막의 변화, 응고, 기화, 탄화로 크게 4가지로 구분된다. ‘빛작용’은 열작용과 마찬가지로 레이저광의 생물학적 작용으로 생체자극 범주에 속한다. 빛작용에 의한 생체반응의 대표적인 예는 저출력 레이저치료(LLLT)이다. 레이저가 방출하는 많은 광자들 대부분은 피부의 진피와 표피의 여러 층에서 흡수되지만 일부는 피부에 침투하지 못한다. 레이저 광선을 흡수한 신체 세포들은 광에너지를 세포의 손상을 치유할 수 있는 화학적인 에너지로 전환시켜, 이를 손상된 부위의 치유 및 통증완화에 이용하게 되는데 이는 섬유모세포의 이동속도, 엔도르핀 생성, 미세혈액순환 등을 촉진시킨다. 저출력레이저에 의한 대표적인 생체촉진 효과는 항염증 효과, 면역억제 효과, 혈관확장, 혈액순환 촉진, 진통 효과, 항부종 효과, 상처치유 효과 등이다. ‘광화학적 작용’의 대표적인 예는 광역학 치료(Photodynamic therapy: PDT)와 광역학 진단 (photodynamic diagnosis: PDD)이다. 이것은 조직에서 레이저 빛이 조직 혹은 고분자물질과의 화학적 효과나 화학반응을 하는 실험적 관찰에서 착안됐다. 광역학 치료의 기본 원리는 체내의 풍부한 산소와 외부에서 공급되는 레이저와 레이저 빛에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광감작제를 이용해 암 조직을 제거하는 것이다. 광감작제를 환자에게 투여하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암조직에 정상 조직보다 많은 양의 광감작제가 축적되고, 광감작제에 맞는 특정 파장의 레이저를 조사하면 정상조직에는 아무런 반응을 일으키지 않은 채 레이저가 조사된 암조직만을 특이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 광역학 진단은 암조직에 축적된 광감작제의 형광을 이용하는데, 이러한 형광은 광감작제에 특정 파장의 레이저를 조사하면 발생된다. 원리는 광역학 치료와 같이 광감작제를 투여하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암조직에 광감작제 축적이 정상조직보다 많아진다. 이때 특정파장 레이저를 조사하면 암조직에만 형광이 나타나는 원리다. 이를 이용해 광감작제 종류에 따라 암 진단과 치료를 동시에 시행할 수 있다. ‘광절제’는 자외선과 같은 고 에너지를 흡수해 조직 내 유기고분자결합(organic polymer bond)의 분자 결합을 떨어지게 해 조직 괴사가 없이 조각을 분출시키는 현상이다. 조직 사이의 공유결합을 분리시키기에 충분한 빛 에너지가 빠른 시간 내에 조직의 특정 부위에 집중적으로 축적될 경우 빛을 흡수하는 흡수체의 온도가 임계점을 넘어 기화되면서 주위 조직이 튀어나오면서 절제된다. 빛 파장이 적외선 영역에 있는 경우 주된 흡수체는 물이므로, 물이 기화돼 기포를 형성하고 그 에너지가 주위 조직의 탄성한계를 넘어서면 조직의 광절제가 일어난다. 이때 폭발로 인한 반동압과 기포가 깨지면서 생기는 충격파로 인해 주위 조직에 추가적인 기계적 손상이 가해지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안웅식 국제광역학학회 회장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322.txt

제목: [암과의 동행] 표적항암제, 정상세포 손상 덜해… 대장암 치료에 효과적  
날짜: 201406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617120201001  
ID: 01100201.20140617120201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국민일보 쿠키뉴스는 암 환자와 가족, 일반인들의 암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는 '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기획연재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기획은 암환자들과 함께 호흡하는 대한민국 암 명의(名醫)들의 조언으로 올바른 암 질환 치료·예방 정보를 제공합니다. '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대장암 표적치료제와 유전자 검사'편에서는 안중배 연세암병원 대장암센터장(종양내과 교수)이 강사로 나서 대장암 환자들과 표적항암제 유전자 검사, 대장암 치료와 수술 후 관리 등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난 10일 연세암병원 암지식정보센터에서 열린 ‘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에서는 안중배(종양내과 교수·사진) 연세암병원 대장암센터장이 강연자로 나서 표적항암제에 대한 환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이날 안 교수는 암 치료방법에 대해 설명하며 항암치료와 방사선치료는 치료목표가 다르므로 일방적으로 비교해서 안 된다고 설명했다. 안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항암치료의 부작용을 걱정해 이를 대신해 방사선치료를 받겠다고 요청하는 환자도 있다고 한다. 안 교수는 “<span class='quot0'>방사선치료는 국소적 암 발생부위에 사용하기 때문에 전이되지 않은 환자의 암 크기를 줄이는 치료법이고 반면 항암치료는 여러 곳으로 전이된 암을 치료하는 방법</span>”이라고 설명했다. 가장 효과적인 암 치료법은 수술로 암 조직을 떼어내는 것이다. 그러나 전이되어 수술이 어렵다면 항암치료가 대안이 될 것이다. 항암제는 빠르게 성장하는 특성을 가진 암세포를 공격한다. 이 때문에 암세포 외에도 빨리 자라는 머리카락 세포나 장 점막 세포 등 정상세포도 공격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안 교수는 “항암치료는 분열이 빠른 세포를 파괴하기 때문에 성장속도가 빠른 암의 치료에 좀더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구토와 탈모, 손발 저림, 백혈구 감소, 설사 등 항암치료의 부작용도 무시할 수 없다. 기존 항암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보다 정교하게 암세포만을 타깃으로 삼는 표적항암제의 연구개발이 활발해지면서 환자들의 약제 사용도 늘고 있다. 최근에는 값비싼 표적항암제가 보험급여로 전환되면서 환자들이 치료비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표적항암제는 기존 항암제보다 정상세포를 죽이지 않아 구토와 설사 등 항암제의 부작용이 덜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 교수는 표적항암제의 장단점에 대해 “환자들 가운데 표적항암제라면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환자상태와 꼭 맞는 표적항암제의 경우 치료 효과가 극적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존재한다. 표적항암제를 사용하기에 앞서 환자의 유전자 유형을 분석해 어떤 약제를 선택했을 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지 알아보는 검사과정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안 교수는 “그동안 표적항암제의 가장 큰 단점은 지나치게 비싼 약값이었다. 이로 인해 의료진은 약효가 좋을 것을 알면서도 한 달에 몇 백 만원 되는 표적항암제를 환자들에게 쉽게 권유할 수 없었다. 하지만 올해부터 대장암 표적치료제와 유전자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많은 환자들이 유전자 검사 결과에 따른 맞춤형 표적항암제 치료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돼 의사 입장에서도 기쁘다”고 말했다. 강연 말미에 안 교수는 “수술과 방사선 치료, 항암치료 이 세 가지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에 따라 암 치료성적이 좌우된다. 연세암병원 대장암센터에서는 외과, 종양내과, 방사선종양학과 등 각 과의 의료진이 한 곳에 모여 환자의 상태에 따른 치료방침을 결정한다. 다양한 전문가의 견해를 종합해 치료계획을 세우는 것이 우수한 치료성적을 거두는 이곳 대장암센터만의 비결”이라고 통합진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Q. 표적항암제와 기존 항암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항암제는 빠르게 분열하고 성장하는 세포를 죽이는 내과적 약물치료를 말합니다. 기존 항암제는 암세포만을 골라 죽인다기보다 빨리 분열하는 세포를 죽이기 때문에 암세포뿐만 아니라 정상세포까지 영향을 미쳐 이로 인한 부작용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와 달리 표적항암제는 암세포가 자라는데 필요한 특정요소를 억제함으로써 암세포의 증식과 성장을 억제시키는 약물입니다. 정상세포에 대한 손상은 상대적으로 덜해 기존의 항암제와 함께 병용하면 치료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Q. 모든 암환자가 표적항암제를 사용할 수 있나요. -대장암 표적항암제로 알려진 얼비툭스와 아바스틴은 전이성 4기 대장암에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진단 당시 수술이 불가능한 간전이를 동반한 대장암의 경우 표적치료제와 기존항암제를 병용해 항암치료를 해 수술 가능할 정도로 병변을 감소시켜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표적항암제 중 얼비툭스는 기존 항암제와 병용뿐만 아니라 기존의 세포독성 항암제 사용 후 실패한 환자에서 단독요법으로도 사용하기도 하는데, 유전자 변이 여부를 확인해 K-RAS 유전자 변이가 없는 환자에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Q. 대장암 표적항암제 얼비툭스와 아바스틴, 두 개의 차이점은 무엇인지요. -아바스틴은 암세포를 자라게 하는 혈관을 파괴하고, 새 혈관이 생기는 것을 억제해 암세포에 적절한 영양과 산소 공급을 차단해 암세포를 없애는 기전입니다. 얼비툭스는 암세포 표면의 표피성장인자수용체에 결합해 암세포의 성장과 증식을 일으키는 신호전달체계에 신호를 보내는 것을 차단하는 작용을 합니다. 아바스틴은 유전자검사를 할 수 없어 치료환자군을 표적하기 어렵고, 얼비툭스는 유전자 검사를 통해 RAS 유전자 돌연변이 유무를 확인해 사용한다면 보다 나은 치료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Q. 기존 항암제로 치료효과를 보지 못한 환자가 표적항암제로 치료효과를 볼 수 있나요.-기존 항암제 치료에 실패하고 2차 치료로 항암제와 표적치료제를 사용한 경우 항암제 단독으로 치료한 것보다 생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기존 항암제에 실패 후 기전이 다른 항암제와 함께 표적치료제를 사용하거나 표적치료제만을 사용하는 경우 수주에서 수개월의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Q. 표적항암제 선택 시 유전자 검사가 중요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유전자 검사는 무엇이며 왜 중요한지요. -표적항암제는 말 그대로 표적이 있어야 효과가 있는 항암제를 뜻합니다. 표적이 없는 상태에서 표적치료제를 사용하게 되면 효과도 기대할 수 없을뿐더러 항암제의 독성만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유전자 검사는 특정 유전자의 유무를 확인하는 검사로 기존에 진단을 위해 시행했던 조직검사 시 획득한 조직이나 수술 조직을 이용해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검사 결과는 기관마다 차이는 있지만 일주일 정도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해 6월부터 K-RAS 유전자 검사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Q. 4년 전 대장암 2기 판정을 받고 절제술과 보조항암치료를 받았습니다. 현재 간 전이가 발견됐습니다. 기존 항암제를 병용해서 사용하나요, 표적항암제를 바로 적용해야 하나요. -이 경우 K-RAS 유전자 검사를 시행해서 K-RAS 정상형일 때 얼비툭스와 항암제 또는 K-RAS 검사 결과와 상관없이 아바스틴과 항암제 병용요법을 모두 시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표적치료제의 독성(과민반응, 심각한 피부발진, 고혈압, 단백뇨, 혈전 등)이 있는 경우 표적치료제를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런 부분은 주치의의 판단이 중요합니다.김단비 쿠키뉴스 기자 kubee08@kukimedia.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323.txt

제목: [암과의 동행] 김치·카레, 암세포 증식 막는다  
날짜: 201406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617120227001  
ID: 01100201.20140617120227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음식을 잘 먹으면 몸 속 항암물질이 늘어나면서 암을 막아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속속 발표되고 있다. 특히 발효식품인 김치나 건강식품으로 각광받는 카레가 동서양의 대표적인 항암음식으로 인기를 모으고 있다. 김치는 소금에 절인 채소에 젓갈과 양념을 혼합해 저온에서 발효시킨 음식으로, 한국의 대표 음식일 뿐만 아니라 세계가 인정한 건강식품이다. 김치에는 비타민과 섬유질뿐 아니라 소화를 향상시키는 유산균이 풍부해 암세포 증식을 막아준다. 농촌진흥청 연구 결과에 따르면 김치에는 요구르트보다 4배 많은 유산균이 함유돼 있으며, 이 유산균은 대장 내부를 청소해주는 정장 작용은 물론 다른 유해균의 성장을 억제하고 발효 중 비타민 B군의 함량을 증가시켜 주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치 1g당 1억 마리 이상의 유산균, 항암효과=김치의 주 재료인 배추 무 파 갓 등 채소에는 유산균이 풍부해 대장암 예방에 도움을 준다. 특히 이 유산균은 내장 지방 축적을 예방하고 대장 건강을 지켜준다. 또 바이러스 질환에 걸릴 위험성을 낮춰주며 항암효과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김치는 유기산, 유산균, 식이섬유소 등을 함유하므로 변비와 대장암 예방에 좋다. 나아가 암을 일으키는 미생물 효소의 활성을 감소시킨다. 김치는 ‘발효’ 과정을 통해 건강식품으로 확실히 변하게 된다. 소금에 절여 발효시키는 동안 염분에 강한 내염성 세균인 ‘젖산균’이 살아남는데, 이 젖산균은 다른 유해 병원균의 번식을 억제함으로써 면역력 향상에 도움을 준다. 젖산균 내 ‘펩티드글리칸’과 같은 성분이 돌연변이나 종양 생성을 억제해 대장암, 고형암 치료에 효과를 나타낸다는 연구 결과가 여러 번 보고된바 있다. 문성준 대상FNF 종가집 팀장은 “<span class='quot0'>김치의 유산균 수치는 일반 발효유 제품보다 10배 이상 많으며, 김치가 잘 익었을 때는 그 수가 1만 배 이상 많다</span>”며 “<span class='quot0'>최근에는 김치의 유익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다양한 기능성 김치 개발을 위한 연구도 하고 있다</span>”고 말했다. ◇카레 커큐민 유방암 예방=카레는 한국인이 즐기는 대표 음식 중 하나이다. 맛도 좋지만 건강에도 유익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효능과 요리법에 대한 관심도 날로 높아지고 있다. 대한암예방학회는 2007년 ‘암을 이기는 한국인의 음식 54가지’ 중의 하나로 강황 속에 많이 들어 있는 커큐민을 선정한바 있다. 최근 오뚜기 후원으로 열린 ‘제4회 카레 및 향신료 국제심포지엄’에서 카레의 주성분인 커큐민과 함께 커큐민을 체내에서 흡수가 잘되도록 나노입자 형태로 변형한 ‘나노커큐민’을 유방암 고위험군 실험쥐의 유관에 주입한 결과, 탁월한 유방암 예방효과를 보였다는 내용이 발표돼 눈길을 끌었다. 외국에서도 카레의 항암효과에 대한 소개가 이어지고 있다. 미국 과학논문 소개 사이트 유레칼러트(www.eurekalert.org)는 카레의 주원료인 강황에 들어 있는 커큐민과 여러 가지 향신료에 든 성분이 항암·항산화 효과를 보이고 치매 예방에도 도움을 준다고 소개했다. 미국 앰디 앤더슨 암센터 Bharat Aggarwal 교수는 “<span class='quot1'>인도인들이 즐겨 먹는 카레의 원료인 강황 정향 펜넬 쿠민 훼누그릭 등의 향신료가 암을 유발시킬 수 있는 단백질인 NF-κB의 활성을 억제해준다</span>”고 설명했다. 영국의 래스터대학 카렌 브라운 박사 연구팀은 “대장암 수술 후 실제 종양조직을 가지고 실험한 연구 결과 강황이 암의 재발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다”고 밝혔다. 조규봉 쿠키뉴스 기자 ckb@kukimedia.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324.txt

제목: [건강 나침반] 가슴이 크면 유방암에 잘 걸린다?  
날짜: 201406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617120114001  
ID: 01100201.20140617120114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선생님! 가슴이 크면 유방암이 잘 생기나요?” “저는 가슴도 작은데 왜 유방암이 생긴 거죠?” 진료를 보는 과정에서 환자들에게 종종 듣는 질문이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하자면 일단 ‘아니다’고 말하고 싶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다. 다소 모호한 답변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선 유방암의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아야 한다. 유방암은 모든 암 중에서 가장 연구가 많이 된 암 중의 하나이다. 하지만 환경적 요인과 유전적 요인 두 가지에 의해 발생한다는 모호한 지식이 일반화돼 있을 뿐 아직 확실하게 유방암의 원인으로 밝혀진 것은 없다. 유방암의 발생 원인은 하나가 아니라 여러 복합적인 요소들에 의해 작용된다고 생각하는 의료진이 많기 때문이다. 다만 여러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발암 과정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것은 확실하다. 유방 세포는 에스트로겐의 자극에 의해 증식하기 때문에 유방암 발생 위험은 에스트로겐에 노출되는 기간이 길수록, 즉 초경이 빠르거나 폐경이 늦을수록 증가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장기간의 피임약 복용이나 폐경 이후 장기간의 호르몬 대체요법도 원인이다. 그 외 고지방, 고칼로리의 서구화된 식이, 젊은 나이의 과도한 음주, 비만, 출산을 하지 않거나 늦은 첫 임신 등이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유방암은 유전적 요인이 잘 밝혀진 암의 하나로 꼽히는데, BRCA1, BRCA2 유전자의 변이는 유방암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유전자 검사로 예방적 유방절제를 받은 유명인은 세계적인 할리우드 스타인 안젤리나 졸리이다. 안젤리나 졸리는 유전자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고 예방적으로 양측 유선을 모두 절제한 후 보형물을 삽입해서 유방모양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안젤리나 졸리의 어머니 역시 과거 유방암으로 투병했다는 사실이 보도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유방암의 유전성에 대한 개연성이 알려지게 되었다. 따라서 가족들 중 유방암 환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할 것을 권유한다. 모든 유방암 환자가 이러한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유방암 환자의 30% 정도는 이러한 알려진 위험인자가 없는 경우인데, 그것은 여성이라면 누구나 유방암에 걸릴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유방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위험인자를 제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주기적으로 유방전문센터 검진을 통해 이상 유무를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이 정도면 질문에 대한 답은 나온 것 같다. 가슴이 큰 것이 유방암에 걸릴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는 없지만, 비만한 사람이 당연히 가슴이 클 것이고, 날씬하더라도 가슴이 큰 사람들은 유방암이 발생하는 유선조직이 많기 때문에 암이 생길 확률이 높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손두민 원장·선두외과의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325.txt

제목: [항암제 이야기] 치명적 ‘폐암’도 표적치료제 개발 후 치료 희망  
날짜: 201406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617120210001  
ID: 01100201.20140617120210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국내 폐암 환자수가 매년 증가해 연간 2만명이 넘었다. 폐암은 전체 암 중 4번째로 발생률이 높지만, 발병 초기에 증상이 없어 진단을 받을 당시 환자들이 수술치료가 어려운 3∼4기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다. 5년 이상 장기 생존하는 환자는 전체 폐암 환자의 약 20%로 다른 암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폐암은 암세포 크기와 형태에 따라 비소세포폐암과 소세포폐암으로 구분한다. 국내 폐암 환자의 약 80%는 비소세포폐암이다. 비소세포폐암 환자 중 수술 치료가 가능한 환자는 약 25%에 불과하며 대다수의 환자들은 ‘항암화학요법’을 통해 생명을 연장하는 치료를 하고 있다. 폐암은 백혈병, 유방암, 위암과는 다르게 1970년대부터 2000년도까지 치료법의 발전이 거의 없었다. 박근칠 삼성서울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는 “1960∼1970년대에는 4∼5개월만 살 수 있었고 항암치료가 시작된 이후 1990년대까지 평균 생존기간은 6∼8개월에 그쳤다. 항암치료로 인한 부작용 때문에 중도에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폐암 진단을 받으면 사형선고를 받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인식이 많았다. 폐암은 치명적인 암으로 알려져 있지만 2000년대 초반 1세대 표적치료제 등장 이후 여러 차세대 표적치료제들이 나오면서 치료 환경이 달라지고 있다. 표적치료제(표적항암제)는 암세포가 증식하도록 명령을 전달하는 수용체에 붙어서 신호 전달을 막아 암세포를 죽이는 역할을 한다. 유전자 돌연변이와 분자생물학적 표지자로는 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EGFR) 및 VEGF, ERCC1 등이 있다. 특히 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라는 유전자 돌연변이가 대표적인 표적으로 이에 대해 양성 반응을 보이는 환자들은 표적항암제를 통해 좋은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초기 치료제들은 특정 변이에 대해 양성 반응을 보이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억제가 가능하고 내성이 생기기 쉽다는 아쉬움이 있었다. 10년이 지난 지금 표적항암제도 진화를 통해 개선된 임상결과를 보여줘 암도 관리할 수 있는 만성질환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주고 있다. 1세대 표적치료제의 한계는 치료 초기에 좋은 반응을 보이던 환자들에게 내성이 생기는 문제였다. 최근에는 이런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2세대 표적치료제인 아파티닙(제품명 지오트립) 등의 새로운 표적치료제들이 등장했다. 아파티닙은 전임상 연구에서 기존 1차 표적치료제보다 더욱 강력하고 나아가 일부 내성 출현의 경우에도 효과를 보여서 많은 임상연구가 이뤄졌다. 또한 1세대 표적항암제들은 계속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수용체에 붙었다 떨어졌다 하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수용체에 붙어 신호 전달을 억제하는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 반면 2세대치료제는 수용체에 결합되면 쉽게 떨어지지 않는 비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강력하게 암세포 성장을 억제한다. 장윤형 쿠키뉴스 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326.txt

제목: [암과의 동행] 대장암 환자 식단에 필수… 청국장 냄새 타박하지 마세요  
날짜: 201406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617120228001  
ID: 01100201.20140617120228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청국장 하면 떠오르는 것은 지독한 냄새다. 고약한 냄새 때문에 청국장을 싫어하는 사람도 많다. 하지만 지독한 냄새에 비해 효능은 뛰어나다. 특히 면역력을 높여주고 항암에도 도움을 주는 고마운 식품이다. 그래서 대장암 환자의 식단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게 청국장이다. 장의 기능을 활발하게 해주기 때문에 변비에도 효과적이다. 이는 과학적으로 증명됐다. 최근 한국식품연구원은 청국장에 함유돼 있는 고분자 다당성분이 면역력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한국식품연구원에 따르면 쥐를 이용한 시험에서 14∼28일간 정상 쥐에 청국장 다당체 추출물을 투여(200㎎/㎏수준)한 결과 면역기관(비장)을 활성화시키고 면역세포의 증식 및 외부세균이나 암세포 등을 제거하는 대식세포의 활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었다. 다당은 글리코겐이나 셀룰로오스 등과 같이 단당분자들이 결합한 것을 말한다. 천연물에서 나오는 다당체는 식품첨가물로 활용돼 왔으나 최근에는 항당뇨, 장기능 개선, 항암, 면역기능 증진 등 기능성 소재로 주목받고 있다. 청국장은 바실러스균을 이용해 콩 전체를 단기간 발효시켜 만든 전통발효식품으로 이소플라본, 레시틴, 점질물질인 폴리감마글루탐산(poly-γ-PGA) 등의 유용성분을 함유하고 있으며 청국장 분말 100g당 12g 정도의 고분자 다당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한편 청국장의 주재료인 콩은 비뇨기암 중 전립선암 예방에도 도움을 준다. 비뇨기암은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인해 아시아지역에서 발병률이 급격히 높아진 암이다. 소고기 돼지고기 등의 고지방 단백질 음식을 과다하게 섭취할 경우 발병률이 더 높아진다. 단백질은 필수 영양소이기 때문에 섭취를 하지 않을 수도 없는 게 문제다. 전문가들은 청국장 등 콩을 통한 섭취방법을 권유한다. 윤철용 고려대 구로병원 암병원 비뇨기암센터 교수는 “<span class='quot0'>저지방인 콩에는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풍부하여 암세포 성장을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pan>”고 설명했다. 조규봉 쿠키뉴스 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327.txt

제목: 진행성 흑색종, 니볼루맙+이필리무맙 병용요법 혜택 커  
날짜: 2014061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612100000062  
ID: 01100201.20140612100000062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T세포가 종양을 공격하는 데 방해가 되는 단백질을 억제하는 니볼루맙(nivolumab)과 항CTLA-4 단일클론항체인 이필리무맙(ipilimumab)을 병용 시 진행성 흑색종암 환자에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가 최근 시카고에서 열린 제50회 미국임상종양학회(ASCO) 연례학술대회에서 발표됐다.<br/><br/>이번 연구는 18세 이상 진행성 흑색종 환자 136명을 대상으로 니볼루맙과 이필리무맙을 병용했을 경우 흑색종 종양의 크기가 얼만큼 줄어드는지 살펴봤다.<br/><br/>추적결과 환자 42%가 36주 후 종양의 크기가 80% 가까이 감소했다. 하지만 이전에 이 병용요법으로 치료 받은 환자에서 몇주 동안 반응이 있다고 알려졌지만 이번 연구에서는 그 기간까지 도달하지 못했다. 단 반응을 보인 22명의 환자 가운데 14명이 24주 이상 약물 효능이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br/><br/>또 이번 연구에서 나타난 약물과 관련된 3/4 등급 수준의 이상반응을 보인 환자는 53%였다.<br/><br/>연구팀은 "두 약물을 병용해서 약물 치료를 시작했을 때 전이성 흑색종암 환자의 생존기간을 유의하게 늘리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특히 BRAF 유전자가 흑색종암 환자에게 전이되는 경우가 많는데 이 돌연변이 유전자의 유무를 떠나 두 약물의 병용요법은 효과적이였지만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br/><br/>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칼업저버 박미라 기자 mrpark@monews.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328.txt

제목: 그냥 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피부암’  
날짜: 2014061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611100000007  
ID: 01100201.20140611100000007  
카테고리: 사회  
본문: 자외선 노출로 피부암 증가… 흑색종 피부암 생존율 낮아<br/><br/><br/><br/>김상수(76, 가명)씨는 2년 전에 왼쪽 뺨 부위에 작은 상처가 생겼다. 그는 집에 있던 상처치료 연고를 바른 후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다. 하지만 상처는 낫지 않았고 오히려 진물이 나고, 상처부위가 점점 커지고 부풀어 오르더니 2.5cm 정도 크기의 혹이 생겼다. 통증도 없고, 크게 불편한 점은 없었다. 하지만 사람을 만날 때 마다 얼굴에 생긴 혹을 쳐다봐서 신경이 쓰였고, 병원에 가보라는 자식들의 성화에 못 이겨 병원을 찾았다.<br/><br/>조직검사 결과 피부암의 일종인 편평세포암으로 진단 받았다.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상적인 피부를 포함해 넓은 부위를 절제해야만 했다. 다행히 편평세포암을 제거하는 동시에 노화로 늘어진 피부를 암을 제거한 부위에 이식했다. 수술 후 흉터는 거의 없어졌고, 더 젊어 보이기까지 했다. 그는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해 고해상도 초음파검사 및 PET-CT 검사를 통해 재발 여부를 확인하고, 흉터를 관리해야 한다.<br/><br/><br/><br/>김순자(74,가명)씨는 오른쪽 부위에 있던 조그만 점이 점차 진해지고, 1.5cm 크기로 커졌다. 그리고 그 부위에 상처가 생긴 후 피가 멈추지 않아 병원을 찾았다. 조직검사 결과 흑생종으로 진단을 받았다. 종양은 수술로 깨끗이 제거를 했지만 5년 동안은 주기적으로 육안관철을 비롯해 고해상도 초음파검사 및 PET-CT 검사를 통해 재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br/><br/>올해도 일찍 더위가 찾아왔는데 지나친 자외선은 피부 노화, 시력 손상, 백내장, 피부암 등 각종 질환의 원인이 된다. 특히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피부암 환자가 크게 늘고 있다.<br/><br/>하지만 통증이나 가각증상이 뚜렷하지 않고, 아직까지 백인들에게 많이 생기는 질환으로만 생각해 피부암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은 편이다.<br/><br/>피부암은 기저세포암, 편평세포암, 흑색종, 카포시육종, 파젯병, 균상식육종 등 여러 가지 악성 피부질환을 총칭하는 말이다. 일반적으로 하얗고 얇은 피부는 상처가 빨리 낫고 흉터가 잘 생기지 않지만, 피부암에 잘 걸린다. 그래서 피부암은 백인을 비롯한 피부색이 옅은 사람에게 흔히 발행한다.<br/><br/>피부암은 오랜 자외선 노출, 만성적 피부 자극이나 각종 발암성 화학물질 노출, 바이러스 감염 및 유전적 요인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한다. 그중 자외선 노출이 가장 큰 원인이다. 우리나라도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자외선 축적량이 많은 고령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더불어 사람들의 야외활동 증가로 자외선에 대한 노출이 많아져 피부암 환자는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br/><br/>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질병통계에 따르면 피부암으로 진료를 받았거나 입원했던 환자 수는 2009년 11만명에서 2013년 16만명으로 45% 증가했다.<br/><br/>피부암은 크게 흑색종과 비흑색종으로 나눈다. 흑생종은 멜라닌세포나 모반세포가 악성화된 종양으로 다른 암처럼 전이가 잘 되고, 항암치료에 반응을 잘 하지 않아서 생존율이 낮은 치명적인 질환이다. 반면 비흑색종은 편평세포암, 기저세포암 등을 말한다. 조기에 발견하면 조직검사 및 레이저치료가 가능하지만, 피부 병변이 일정 크기 이상 커지면 수술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진행 속도가 느리고 전이가 잘되지 않아 늦게 발견하더라도 수술만 잘하면 거의 완치된다. 구리고 항암치료나 방사선치료와 같은 보조요법이 필요할 수도 있다.<br/><br/>◇피부에 이상한 징후 나타나면 바로 병원 찾아야=몸에 이상한 점이 생기거나 원래 있던 점의 색깔이 달라지거나 커지면 피부암을 의심해 볼 수 있다. 또 피부 속으로 만져지는 혹이 있을 경우나 이유 없이 피부가 헐고 진물이 날 때, 상처에서 피가 나고 멈추지 않을 경우는 병원을 방문해서 진료를 받는 것이 좋다.<br/><br/>점이 비교적 크고(6mm 이상), 모양이 비대칭적이고, 경계가 불규칙하며, 색이 얼룩덜룩하면 흑색종을 의심해야 한다. 또 얼굴이나 노출부위에 가려움증이 없이, 빨갛거나 갈색으로 진물이 나는 상처가 생기고, 일반적인 연고를 발라도 전혀 호전되지 않는다면 비흑색종성 피부암을 의심할 수 있다.<br/><br/>서인석 한림대강남성심병원 피부암클리닉(성형외과) 교수는 “<span class='quot0'>대부분의 환자가 단순한 점이나 검버섯 혹은 만성적인 종기나 상처 등으로 치부하고 내버려두다가 피부암이 상당히 진행된 후에야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다</span>”며 “<span class='quot0'>피부에 이상한 징후가 보일 때에는 병원을 방문하여 피부과 전문의와 상담을 해야 한다</span>”고 말했다.<br/><br/><br/><br/>◇기능 보존하고 흉터 최소화 위해 재건 수술 중요=피부암 수술은 암을 완전히 절제해 재발을 방지하고, 수술 후 눈 코 입과 같은 안면 구조물의 뒤틀림을 최소화하면서 흉터를 최대한 남기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보통 기저세포암의 경우는 0.5~1cm, 편평세포암은 1~3cm, 악성흑색종은 2~3cm 이상의 정상조직을 함께 제거해야 재발을 막을 수 있다. 넓은 면적의 피부를 절제하면 피부이식을 받게 되는데 이때 치료기간이 길어지고 흉터가 남으면 대인관계가 위축되고 우울증이 생겨 삶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br/><br/>서인석 교수는 “<span class='quot1'>피부암 주위 조직의 변형 및 흉터를 최소화해 수술하는 것은 미적 기준을 가진 성형외과 전문의의 풍부한 경험이 필요하다</span>”며 “<span class='quot1'>피부과, 성형외과, 방사선종양학과 등 관련 진료과의 협진을 통하면 치료효과를 높일 수 있다</span>”고 말했다.<br/><br/>서 교수는 또 “<span class='quot1'>피부암은 피부 어느 부위에서도 생길 수 있다</span>”며 “<span class='quot1'>일주일 이상 낫지 않는 피부병변이 있다면 빨리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고, 평소 자외선 차단제를 꾸준히 바르는 등 자외선 노출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span>”고 말했다.<br/><br/>◇자외선 차단을 위한 패션센스=옷차림이나 모자, 선글라스 등의 소품으로 일광 노출을 줄이는 방법도 고려해 볼 만하다.<br/><br/>자외선 노출 빈도가 높은 계절에는 몸에 딱 맞는 옷보다는 헐렁한 옷을 입는 게 좋은데, 몸에 딱 맞을 경우 햇빛이 옷감 사이로 침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물에 젖은 옷이 자외선을 더 잘 막아줄 것 같지만, 사실은 물기가 많을수록 자외선 차단 효과가 떨어진다.<br/><br/>자외선 차단 효과는 옷의 색깔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 흰 티셔츠는 SPF 5∼9 정도의 효과가 낮지만, 짙은 색 청바지의 경우는 SPF 1000 정도로 자외선 차단 효과가 아주 높다.<br/><br/>모자를 착용하는 것도 자외선 차단에 도움이 되지만,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야구모자의 자외선 보호 효과는 매우 낮으며 등과 목은 보호할 수 없다. 따라서 될 수 있으면 챙이 넓은 모자를 쓰는 게 좋다.<br/><br/>선글라스를 구입 시 튀는 패션도 중요하지만, 자외선 차단 표면처리, 눈부심 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표면처리 여부를 꼼꼼히 살펴, 사용 목적에 따라 색상과 모양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다. 질이 나쁜 렌즈는 안과 질환이나 두통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믿을 만한 곳에서 구입을 할 필요가 있다.<br/><br/>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포뉴스[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329.txt

제목: “국내 피부암환자 증가 추세”  
날짜: 20140611  
기자: 김단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611100000023  
ID: 01100201.20140611100000023  
카테고리: 사회  
본문: # 김상수(76세·가명) 씨는 2년 전에 왼쪽 뺨 부위에 작은 상처가 생겼다. 그는 집에 있던 상처치료 연고를 바른 후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다. 하지만 상처는 낫지 않았고 오히려 진물이 나고, 상처부위가 점점 커지고 부풀어 오르더니 2.5cm 정도 크기의 혹이 생겼다. 통증도 없고 크게 불편한 점은 없었지만 조직검사 결과 피부암의 일종인 편평세포암이었다.<br/><br/># 김순자(74세·가명) 씨는 오른쪽 부위에 있던 조그만 점이 점차 진해지고, 1.5cm 크기로 커졌다. 그리고 그 부위에 상처가 생긴 후 피가 멈추지 않아 병원을 찾았다. 조직검사 결과 흑생종으로 진단을 받았다. 종양은 수술로 깨끗이 제거를 했지만 5년 동안은 주기적으로 육안관철을 비롯해 고해상도 초음파검사 및 PET-CT 검사를 통해 재발 여부를 확인해야 했다.<br/><br/>올해도 일찍 더위가 찾아왔다. 뙤약볕을 피하기 위해 자외선 차단제에 양산, 선글라스 등 온갖 방법을 동원한다. 적당한 햇볕은 인체의 혈액순환을 돕고 비타민D의 합성과 살균작용을 하지만 지나친 자외선은 피부 노화, 시력 손상, 백내장, 피부암 등 각종 질환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br/><br/>◇야외활동 증가로 서서히 증가하는 피부암<br/><br/>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질병통계에 따르면 피부암으로 진료를 받았거나 입원했던 환자 수는 2009년 11만명에서 2013년 16만명으로 45% 증가했다.<br/><br/>피부암은 기저세포암, 편평세포암, 흑색종, 카포시육종, 파젯병, 균상식육종 등 여러 가지 악성 피부질환을 총칭하는 말이다. 일반적으로 하얗고 얇은 피부는 상처가 빨리 낫고 흉터가 잘 생기지 않지만, 피부암에 잘 걸린다. 그래서 피부암은 백인을 비롯한 피부색이 옅은 사람에게 흔히 발행한다.<br/><br/>피부암은 오랜 자외선 노출, 만성적 피부 자극이나 각종 발암성 화학물질 노출, 바이러스 감염 및 유전적 요인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한다. 그중 자외선 노출이 가장 큰 원인이다. 우리나라도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자외선 축적량이 많은 고령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더불어 사람들의 야외활동 증가로 자외선에 대한 노출이 많아져 피부암 환자는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br/><br/>◇생명을 위협하는 피부암도 있어<br/><br/>피부암은 크게 흑색종과 비흑색종으로 나눈다. 흑생종은 멜라닌세포나 모반세포가 악성화된 종양으로 다른 암처럼 전이가 잘 되고, 항암치료에 반응을 잘 하지 않아서 생존율이 낮은 치명적인 질환이다. 반면 비흑색종은 편평세포암, 기저세포암 등을 말한다.<br/><br/>조기에 발견하면 조직검사 및 레이저치료가 가능하지만, 피부 병변이 일정 크기 이상 커지면 수술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진행 속도가 느리고 전이가 잘되지 않아 늦게 발견하더라도 수술만 잘하면 거의 완치된다. 구리고 항암치료나 방사선치료와 같은 보조요법이 필요할 수도 있다.<br/><br/>◇일반인이 구분하기 어려운 피부암 초기증상<br/><br/>피부암은 통증이나 가각증상이 뚜렷하지 않고, 아직까지 백인들에게 많이 생기는 질환으로만 생각해 국내에서는 인식이 매우 낮은 질환이다.<br/><br/>몸에 이상한 점이 생기거나 원래 있던 점의 색깔이 달라지거나 커지면 피부암을 의심해 볼 수 있다. 또 피부 속으로 만져지는 혹이 있을 경우나 이유 없이 피부가 헐고 진물이 날 때, 상처에서 피가 나고 멈추지 않을 경우는 병원을 방문해서 진료를 받는 것이 좋다.<br/><br/>점이 비교적 크고(6mm이상), 모양이 비대칭적이고, 경계가 불규칙하며, 색이 얼룩덜룩하면 흑색종을 의심해야 한다. 또 얼굴이나 노출부위에 가려움증이 없이, 빨갛거나 갈색으로 진물이 나는 상처가 생기고, 일반적인 연고를 발라도 전혀 호전되지 않는다면 비흑색종성 피부암을 의심할 수 있다.<br/><br/>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 피부암클리닉(성형외과) 서인석 교수는 “<span class='quot0'>대부분의 환자가 단순한 점이나 검버섯 혹은 만성적인 종기나 상처 등으로 치부하고 내버려두다가 피부암이 상당히 진행된 후에야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다</span>”며 “<span class='quot0'>피부에 이상한 징후가 보일 때에는 병원을 방문하여 피부과 전문의와 상담을 해야 한다</span>”고 조언했다.<br/><br/>◇기능 보존하고 흉터 최소화 위해 재건 수술 중요<br/><br/>피부암 수술은 암을 완전히 절제해 재발을 방지하고, 수술 후 눈·코·입과 같은 안면 구조물의 뒤틀림을 최소화하면서 흉터를 최대한 남기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보통 기저세포암의 경우는 0.5~1cm, 편평세포암은 1~3cm, 악성흑색종은 2~3cm 이상의 정상조직을 함께 제거해야 재발을 막을 수 있다. 넓은 면적의 피부를 절제하면 피부이식을 받게 되는데 이때 치료기간이 길어지고 흉터가 남으면 대인관계가 위축되고 우울증이 생겨 삶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br/><br/>서인석 교수는 “<span class='quot0'>피부암 주위 조직의 변형 및 흉터를 최소화해 수술하는 것은 미적 기준을 가진 성형외과 전문의의 풍부한 경험이 필요하다</span>”며 “<span class='quot0'>피부과, 성형외과, 방사선종양학과 등 관련 진료과의 협진을 통하면 치료효과를 높일 수 있다</span>”고 말했다.<br/><br/>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 피부암클리닉은 수술 전 검사를 통해 환자의 전신 상태 및 피부암의 진행 정도와 그에 따른 적절한 치료계획을 수립해 내원에서부터 치료 후 퇴원에까지 one-stop으로 진행한다.<br/><br/>환자의 빠른 회복을 위해 피부암 부위를 완벽하게 제거하고 노화로 늘어진 피부를 이용해 덮어주는 재건방법으로 수술 후 흉터를 최소화하고 피부가 당겨져 젊어 보이는 효과도 얻게 된다.<br/><br/>수술 후 일주일 정도면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으며, 6개월 후면 흉터가 피부주름에 감춰져 눈에 잘 띄지 않게 된다. 수술 후에는 테이핑 및 자외선 차단제와 같은 절개 흉터에 대한 전문적인 흉터 관리가 이루어지고, 3개월 주기로 초음파 검사를 통해 피부암 재발을 평가하고 관리하게 된다.<br/><br/>서인석 교수는 “<span class='quot0'>피부암은 피부 어느 부위에서도 생길 수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일주일 이상 낫지 않는 피부병변이 있다면 빨리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고, 평소 자외선 차단제를 꾸준히 바르는 등 자외선 노출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span>”고 말했다.<br/><br/>◇자외선 차단을 위한 패션 tip<br/><br/>옷차림이나 모자, 선글라스 등의 소품으로 일광 노출을 줄이는 방법도 고려해 볼 만하다.<br/><br/>자외선 노출 빈도가 높은 계절에는 몸에 딱 맞는 옷보다는 헐렁한 옷을 입는 게 좋은데, 몸에 딱 맞을 경우 햇빛이 옷감 사이로 침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물에 젖은 옷은 자외선 차단 효과가 떨어진다.<br/><br/>자외선 차단 효과는 옷의 색깔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 흰 티셔츠는 SPF 5∼9 정도의 효과가 낮지만 짙은 색 청바지의 경우는 SPF 1000 정도로 자외선 차단 효과가 아주 높다.<br/><br/>모자를 착용하는 것도 자외선 차단에 도움이 되지만,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야구모자의 자외선 보호 효과는 매우 낮으며 등과 목은 보호할 수 없다. 따라서 될 수 있으면 챙이 넓은 모자를 쓰는 게 좋다.<br/><br/>선글라스를 구입 시 자외선 차단 표면처리, 눈부심 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표면처리 여부를 꼼꼼히 살펴, 사용 목적에 따라 색상과 모양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다. 질이 나쁜 렌즈는 안과 질환이나 두통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믿을 만한 곳에서 구입을 할 필요가 있다.<br/><br/>김단비 기자 kubee08@kukimedia.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330.txt

제목: 강동경희대한방병원 MD앤더슨암센터와 ‘한의학 암치료 효과’ 성과 제시  
날짜: 20140610  
기자: 송병기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610100000067  
ID: 01100201.20140610100000067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SCI(E)급 저널에 발표, 국제암중개학회에서도 초청 강연 펼쳐<br/><br/>국내 의료진이 미국 엠디앤더슨암센터 연구진과 수행한 임상연구를 통해 암 발생과 전이를 촉진시키는 물질(NF-kB)을 억제시키는 한약제의 효과를 입증하는데 성공했다.<br/><br/>강동경희대학교한방병원은 최근 한방암센터 한방내과 윤성우 교수(사진)팀이 암 치료 분야에서 세계 최고 권위의 미국 텍사스의대 엠디앤더슨암센터 바랏 B. 아가왈(Bharat B. Aggarwal) 교수팀과 공동으로 한의학 암 치료와 암 예방 효과에 대한 기초, 임상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10일 밝혔다.<br/><br/>이번 연구 성과는 통합종양학 분야의 유명 저널(Integrative Cancer Therapies (Impact factor 2.354, SCIE)에 게재됐다. 또한 엠디앤더슨암센터가 지난 2월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한 국제암중개학회(International Conference on Translational Cancer Research)에 초청돼 구두 발표를 실시했다.<br/><br/>◇한약재의 암 발생, 전이 억제 효과 입증…한의학적 암 치료, 새로운 견해 제시<br/><br/>연구팀에 따르면 암 환자의 경우, 우리 몸 세포 내에서 유전자의 발현을 조절하는 물질(NF-kB)이 지속적으로 항진되어 만성염증과 함께 암의 발생과 암의 전이를 촉진시킨다.<br/><br/>이와 관련 바랏 아가왈 교수팀이 확인한 결과 NF-kB를 억제시키는 한약재들은 약 30종(뇌공등, 와송, 건칠, 필발, 상황, 오수유, 정향, 유향, 용규 등)이다. 이는 전통적으로 암 치료에 많이 사용돼 왔고, 현재 강동경희대한방병원 한방암센터에서 암환자에게 처방하는 해암탕(解癌湯)의 근간이다.<br/><br/>이러한 한약재들은 항암화학요법이나 방사선치료의 가장 큰 문제점인 정상세포의 손상을 막아주고, 다약제 내성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동시에 항암화학요법이나 방사선치료의 치료 효과는 높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r/><br/>윤성우 교수는 “<span class='quot0'>이러한 한약재를 항암화학요법이나 방사선치료와 병행했을 경우 부작용은 줄이면서 생존기간은 연장시키게 된다</span>”며 “<span class='quot0'>암성통증, 암성피로, 식욕부진, 전신쇠약과 같이 암환자들의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들은 다양한 한의학적 치료들로 많이 개선될 수 있다는 임상연구 결과들도 같이 발표됐다</span>”고 말했다.<br/><br/>특히 이번 연구에서는 암이 발생하는 체내 환경의 개선뿐만 아니라 암세포의 억제와 함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이 균형 있게 유지돼야만 암환자의 생존기간이 연장되고 삶의 질이 상승된다는 ‘한의학적 암 치료원칙’을 제시해 주목을 받고 있다.<br/><br/>윤성우 교수는 “<span class='quot0'>이번 연구를 통해서 우리나라 전통한의학의 독창적인 암 치료개념을 널리 알리고 현재 고착상태에 빠져있는 현대적 암 치료의 접근방법에 대해 새로운 견해를 제시했다</span>”며 “<span class='quot0'>전통적으로 암 치료에 사용돼 왔던 한약재들이 과학적으로도 실제 암을 억제하고 암환자의 생존을 늘린다는 것을 증명한 매우 가치 있는 연구</span>”이라고 강조했다.<br/><br/>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331.txt

제목: 렌바티닙, 갑상선암 생존기간 위약대비 6배 늘려  
날짜: 2014061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610100000059  
ID: 01100201.20140610100000059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렌바티닙(Lenvatinib)이 난치성으로 알려진 방사성요오드치료 저항성 분화형 갑상선암(RR-DTC) 환자의 무진행 생존기간(PFS)을 연장시킨다는 결과가 최근 미국임상종양학회(ASCO)에서 발표됐다.<br/><br/>SELECT 연구에 따르면, 렌바티닙군의 무진행 생존기간은 18.3개월로 위약군인 3.6개월에 비해 6배 가량 연장시켰다(P<0.0001)<br/><br/>2차 평가변수로 전체종양반응률(ORR)과 전체생존기간(OS) 그리고 안전성을 평가하였는데, 완전 반응(CR)를 보인 환자의 비율은 렌바티닙 투여군에서 1.5%(4명)인 반면, 위약 투여군에서는 관찰되지 않았다.<br/><br/>부분 반응(PR)은 렌바티닙군과 위약군에서 각각 63.2%(165명), 1.5%(2명)이었다. 렌바티닙 투여 후 반응을 보이는 데 걸린 평균 기간은 2.0개월이었다. 전체 생존기간(OS)은 아직 최종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br/><br/>렌바티닙에서 많이 발생한 부작용으로서는 고혈압(67.8%), 설사(59.4%), 식욕 감퇴(50.2%), 체중 감소(46.4%), 메스꺼움(41.0%) 등으로 3등급 이상의 부작용은 고혈압(41.8%), 단백뇨(10.0%), 체중 감소(9.6%), 설사(8.0%), 식욕 감퇴(5.4%) 등이 나타났다.<br/><br/>이번 연구의 주 저자이자 프랑스 구스타브 로시 암 연구소 책임자인 마틴 슐럼버거(Martin Schlumberger) 교수는 "렌바티닙은 치료법이 제한적인 RR-DTC 같은 공격적인 암종에 대해 긍정적인 효과를 증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총평했다.<br/><br/>한편 분화 갑상선암은 모든 갑상선 암종 가운데 95%를 차지하고 있는 가장 흔한 암종이다. 이 중 방사성요오드치료 저항성 분화 갑상선암은 수술과 방사성요오드치료법으로는 쉽게 치료할 수 없기 때문에, 환자가 선택할 수 있는 치료법은 매우 한정돼 있다.<br/><br/>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칼업저버 박상준 기자 sjpark@monews.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332.txt

제목: 파나진, 유전자 진단제품 3종 건강보험급여 적용  
날짜: 20140609  
기자: 장윤형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609100000051  
ID: 01100201.2014060910000005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유전자 진단제품 전문업체인 ‘파나진’의 유전자 진단제품 3종이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됐다.<br/><br/>보건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이달 1일부터 암환자의 표적항암제 선택 및 치료경과 확인을 위해 필수적인 유전자검사 8종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9일 고시했다.<br/><br/>유전자검사는 환자의 유전자 타입에 따라 특정 표적항암제 치료에 대한 효과를 미리 판정해 불필요한 항암제 투약 방지와 치료과정 중 항암제에 대한 내성 여부를 판단하도록 도와준다.<br/><br/>이에 파나진은 자사의 핵심기술인 ‘PNA 기반의 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 클램핑법’이 적용된 PNAClampTM Mutation Detection Kit 제품군 중 EGFR(폐암) 유전자검사, KRAS(대장암) 유전자검사 2종에 대해 건강요양보험 급여가 적용됨에 따라 맞춤형 항암치료를 위한 유전자검사 시장에 유리한 지위를 확보하게 됐다고 밝혔다.<br/><br/>파나진 관계자는 “<span class='quot0'>EGFR, KRAS 유전자 돌연변이검사 및 인유두종바이러스 유전자형 검사 등 총 3종이 건강요양보험 급여항목으로 지정됨에 따라 환자들은 줄어든 비용으로 정확한 진단을 통한 처방을 받을 수 있게 됐다</span>”며 “<span class='quot0'>현재 중국(CFDA) 및 대만(TFDA)에도 인허가 승인을 진행하며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도모하고 있다</span>”고 말했다.<br/><br/>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333.txt

제목: 카엘젬백스, GV1001의 바이오마커 전세계 PCT 특허 출원  
날짜: 20140609  
기자: 장윤형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609100000077  
ID: 01100201.20140609100000077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카엘젬백스는 지난 5일 암치료에 있어 GV1001의 바이오마커 입증의 한 결과로 전세계 PCT 및 대만출원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PCT 출원은 바이오마커를 규명해 지난해 6월에 유럽출원을 완료 한 후 전세계를 대상으로 한 출원이다.<br/><br/>이번 특허의 주된 내용은 영국에서 진행된 글로벌 췌장암 임상 3상 텔로백 환자 분석결과를 통해 규명된 GV1001의 바이오마커 이오탁신이 췌장암환자의 생존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얼마 전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세계 최대 임상종양학회인 ASCO 2014 에서 텔로백 임상 총책임자이자 췌장암에 있어 세계적인 권위자인 영국 국립암센터 리버풀대학병원 존 네옵톨레모스 교수에 의해 발표 된 바 있다.<br/><br/>이오탁신의 역할은 우리 몸안에서 염증이 발생했을 때, 염증이 유발된 자리로 백혈구를 이동시켜 줌으로써 면역반응을 유도하는 사이토카인이다.<br/><br/>카엘젬백스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이번 출원으로 인해 카엘젬백스가 글로벌 제약회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신약 개발역량을 갖춰을 뿐 아니라 국내 바이오업계의 선두주자로써 세계적인 글로벌 회사로 도약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입증했다</span>”라고 말했다.<br/><br/>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br/><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334.txt

제목: [김양규 박사의 성서한방보감] 적근과 백근  
날짜: 2014060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607115245002  
ID: 01100201.20140607115245002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인체 세포에는 산소 없이 에너지를 생산하는 ‘해당계(解糖界)’와 산소가 있어야 되는 ‘미토콘드리아계’가 공존한다. 에너지 생산 방식이나 성질이 다른 두 가지 시스템이 한 세포 안에 공존하고 있는 것이다. 해당계는 산소 없이 혐기성 당질만으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단순한 과정이기에 작동이 아주 빠르다. 따라서 위급상황에서 대처를 잘할 수 있게 된다. 미토콘드리아계는 산소뿐 아니라 당질, 지질, 단백질, 햇빛까지 복합적인 재료를 쓰는 호기성 세포여서 에너지 생성 과정이 복잡하고 느리지만 효율이 높다. 해당계는 효율은 떨어지지만 순발력은 탁월하다. 그리고 분열증식이 왕성해 피부, 점막, 정자, 근육 중에서도 순발력이 요구되는 백근(속근·速筋)에 많이 분포되어 있다. 미토콘드리아계는 효율이 높아 지구력이 탁월하며 분열증식 대신 성장, 성숙하는 특징이 있다. 뇌신경, 심장, 난자, 근육 중에도 지구력의 적근(지근·赤筋)에 주로 분포되어 있다. 분열증식이 왕성한 암세포는 미토콘드리아가 100개도 안된다. 평균 세포에 분포하는 5000개에 비해 아주 낮다. 암세포가 저체온, 저산소에서 잘 발생하는 건 이 때문이다. 정자와 난자도 그 점에서 대조적이다. 정자는 분열증식을 해야 하고, 난자는 성숙성장을 해야 한다.때문에 정자는 해당계에서 에너지를 얻고, 난자는 미토콘드리아계에서 에너지를 얻는다. 해당계는 산소가 필요 없기에 남자의 고환은 차게 하는 것이 좋고, 미토콘드리아계는 산소가 있어야 하기에 여성은 아랫도리를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좋다. 나이에 따라 에너지를 쓰는 모드가 달라진다. 사춘기를 지나 성장이 멎을 즈음부터 차츰 순발력의 해당계 우위에서 지구력의 미토콘드리아계 우위로 넘어간다. 중년이 되면 두 시스템이 거의 균형잡힌 생활을 하다 고령이 될수록 지구력 우위로 넘어간다. 중년을 넘겨서도 계속 순발력 위주의 해당계 우위 생활을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엄청난 스트레스를 안고 사는 생활의 연속이면 혈액순환이 안 되고 저산소, 저체온 상태로 된다. 미토콘드리아계 활성이 떨어지고 호기성 세포는 적응을 위해 혐기성, 해당계로 전환, 분열증식을 시작한다. 이게 암이다. 암뿐만이 아니다. 모든 생활습관병도 마찬가지다. 어른이 되어도 지구력 대신 순발력으로 달리다 보면 쓰러진다. 달리기와 비교해보자. 단거리 선수는 숨을 안 쉬고 순발력만으로 달린다. 한계가 400미터다. 올림픽 기록이 50초가 채 안된다. 사람이 숨 안 쉬고 달릴 수 있는 게 고작 1분이다. 순발력만으로 달려야 하니 단거리 선수는 속근을 발달시켜야 한다. 이게 해당계의 백근이다. 단거리 선수가 역도선수처럼 번들거리는 근육질인 것은 백근이 발달한 때문이다. 그에 비해 장거리 선수는 나약하게 보인다. 말라 보인다. 지구력으로 뛰어야 하기 때문에 미토콘드리아계의 지근(遲筋)이 발달한다. 지근은 색깔이 붉어서 적근이라고도 부르며, 신체 깊숙이 있어서 내근이라고도 한다. 유산소의 지구력으로 달리기 때문에 단거리 선수에 비해 급격한 피로는 한결 덜하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다. 젊을 때는 해당계의 에너지 분출이 많아 순발력이 강하므로 역동적이고 다양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게 된다. 하지만 중년 이후 점차 활동을 줄이고 기도생활에 전념하는 것이 좋다. 중년 이후에는 한 템포 늦추어 뒤에서 조용히 기도하는 사역을 하는 것이 좋다. 전면에 나서서 활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해당계의 활동이 활발한 젊은 분들에게 맡기고 한 템포 물러서는 연습을 하는 것이 좋다. 교회에서 처음엔 꼭 필요한 사람,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만 나중에는 없어도 되는 사람, 자리를 물려줄 후계자를 양성해놓고 물려줄 수 있는 사람, 그래도 교회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신앙생활 역시 우리의 생체 사이클에 맞게 잘 조절하는 것이 성전 된 우리 몸을 잘 건사하는 지혜가 아닐까 싶다.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335.txt

제목: 자외선과다노출 ‘흑색종’ 발병위험 높아져 주의  
날짜: 20140605  
기자: 송병기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605100000005  
ID: 01100201.20140605100000005  
카테고리: 사회  
본문: 자외선에 많이 노출될수록 피부암 발병위험이 많아진다. 특히 자외선은 피부건강을 위해 항상 주의가 필요하다. 자외선에 과다하게 노출되면 피부미용에도 좋지 않을뿐더러 피부암을 일으키는 가능성도 높다.<br/><br/>피부암 중에서 피부종양의 일종인 흑색종(Melanoma)은 주로 기저층에 산재한 멜라닌 세포에 발생하는 암이다. 보통 피부에 발생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 암 중에서 악성도가 가장 높다. 흑색종은 별다른 자각증세가 없어 검푸른 반점이나 검은 점으로 보여 식별하기가 어렵고, 암이 진행된 후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발견되더라도 이미 암이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이며, 림프관이나 혈관을 따라 폐, 간, 뼈 등의 다른 기관으로 전이될 가능성도 높다.<br/><br/>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피부의 악성 흑색종으로 진료받은 인원은 2007년 1894명에서 2011년 2576명으로 5년간 약 682명이 증가했고, 연평균 증가율은 8.0%로 나타났다. 국내에서의 흑색종 발생빈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에 속하지만 최근 환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관심이 집중되는 질병이다.<br/><br/>통합면역암치료를 시행하는 방선휘한의원 방선휘 원장은 “<span class='quot0'>흑색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외선 차단에 신경쓰는 것이 중요하다</span>”며 “<span class='quot0'>외출하기 전에 태양광선을 차단할 양산이나, 모자, 자외선 차단제 등을 준비하고 태양광선이 강한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까지의 야외활동은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좋으며, 흑색종이 발병한 경우는 면역암치료를 통해 환자 스스로 몸의 면역력을 강화시켜 질병에 대한 치유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span>”고 조언했다.<br/><br/>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336.txt

제목: 폐암 항암치료 부작용 개선 등 ‘한의학 R&D'에 41억 지원  
날짜: 20140603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603100000024  
ID: 01100201.20140603100000024  
카테고리: 사회  
본문: [쿠키 건강] 보건복지부가 한방을 이용한 폐암이나 뇌졸중, 당뇨, 고지혈증 치료 등 한의학 분야 R&D사업에 총 41억원을 지원한다. 최근 복지부는 2014년도 한의약분야 R&D 사업 신규공모 과제를 확정하고 지원계획을 확정했다.<br/><br/>이들 과제 중에는 폐암 환자 등에 주로 사용되는 항암제 시스플라틴의 부작용을 완화시키는 한약제제 개발이 포함되어 있어 암 환자들의 관심을 끈다.<br/><br/>대부분의 암 환자들은 수술, 항암화학요법, 방사선 치료 등 표준 치료법으로 우선 접근하게 된다. 하지만 암이 너무 진행되었거나 치료 후 재발한 환자들의 경우 표준치료로도 완치나 장기 생존을 기대하기 어렵고, 항암 치료 등의 부작용으로 인해 오히려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이 때문에 암 환자들과 가족들은 표준 치료 이외의 방법에 대한 관심이 다른 질병에 비해 높은 편이다.<br/><br/>특히 국내에서 항암 치료의 단점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의 한방병행치료는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치종단, 치종탕, 넥시아 등 옻나무 추출물을 활용한 한방암치료는 더 이상 낯설기만한 개념은 아니다. 1990년대에 이미 이런 개념이 소개되었으며, 현재까지도 이런 치료를 통해 폐암 뿐만 아니라 위암, 대장암 등에서도 완치 혹은 장기생존을 이루어낸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다.<br/><br/>김보근 하나통합한의원 원장은 “<span class='quot0'>지금 당장은 한방 치료를 통해 암을 치료한다는 목적의 연구는 물론, 한방치료와 항암 치료를 병행했을 때 치료효과가 높아진다는 목적의 연구를 수행하기도 쉽지 않은 환경</span>”이라며 “<span class='quot0'>하지만 실제 임상에서 한방 암치료의 효과는 단순한 부작용의 개선보다 훨씬 뛰어나고, 이를 증명하는 연구 성과도 차츰 나오고 있다</span>”고 말했다.<br/><br/>김보근 원장은 SCI(E)급 국제 학술지 BMC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에 게재가 확정된 논문을 통해, 옻나무 추출물을 활용한 한방치료제 치종단Ⅱ(일명 티버스터)의 천연물 항암제로써의 가능성을 확인했다.<br/><br/>이에 대해 김 원장은 “<span class='quot0'>치종단Ⅱ(일명 티버스터)는 caspase 단백질 활성과 ribosome 생성관여 단백질을 억제하여 자연사멸을 유도하는 기전을 통해 항암작용을 보인다</span>”며 “<span class='quot0'>이러한 연구 결과는 옻나무 추출물을 활용한 한방암치료가 단순히 환자의 면역력을 높여주는 보조적인 역할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항암효과도 있다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span>”이라고 설명했다.<br/><br/>이와 같은 연구들이 계속해서 나오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복지부에서 지속적인 투자를 시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337.txt

제목: 한-영 연구중심병원 국제포럼, 서울에서 열려  
날짜: 20140603  
기자: 조민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603100000004  
ID: 01100201.20140603100000004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연구사례 공유, 공동연구분야 발굴 등 협력방안 논의<br/><br/>韓-英 연구중심병원 서울 국제포럼이 3일(화) 오전 10시부터 서울대학교 암연구소 이건희홀에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 연구중심병원, 영국 연구중심병원(Academic Health Science Centre) 공동주최로 개최된다.<br/><br/>이번 포럼은 연구중심병원 제도를 먼저 도입해 연구성과의 조기 사업화에 성공한 영국과 우수한 보건의료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연구중심병원 도입은 후발주자인 한국간 협력을 진전시키고자 기획됐다.<br/><br/>한국과 영국의 연구중심병원 핵심관계자, 전문가 등 약 70여명은 이번 국제 포럼에 참석해 연구중심병원간 정책·정보·인력교류 등 협력방안과 국제공동연구 협력모델에 관해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다.<br/><br/>이날 포럼에서는 기조연설로 영국 Peter St. George Hyslop 교수(캠브리지대학)가 ‘영국 연구중심병원의 공동연구를 위한 협력모델’을 소개하고, 한국 송시영 교수(연세대 세브란스)는 ‘韓·英 연구중심병원의 국제협력을 위한 전략’에 대해 발표한다.<br/><br/>패널토론은 ▲뇌과학분야의 양국 협력방안 ▲암분야의 양국 협력방안 ▲양국 국제협력을 위한 실행전략을 주제로 진행되는데 영국 Kei Cho 교수(브리스톨대학), Paul M.Matthews 교수(임페리얼대학), 한국 함기백 교수(분당차병원) 등 5명이 연구 사례 중심으로 양국의 치료동향과 연구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br/><br/>또 영국 David Rubinsztein 교수(브리스톨대학) 등 2명은 중개연구 분야 국제협력 전략 및 의학연구인력 국제교류 사례 등을 소개해 향후 한-영 연구중심병원간 네트워크 구축의 구체적인 방향과 실행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다.<br/><br/>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행사가 양국의 연구중심병원 정책과 경험을 이해하고 공유함으로써 상호협력 진전을 위한 장을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 양국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협력 성과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br/><br/>한편 보건복지부는 연구중심병원이 국가 HT(Health Technology) 분야에서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고 연구개발과 사업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br/><br/>병원에 축적된 임상지식을 기반으로 첨단보건의료 기술·의약품·기기의 연구개발과 사업화를 통한 세계적 수준의 병원으로 육성하고자 지난해 4월 10개 의료기관을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하고, 오는 7월에는 연구중심병원 산학연 개방형 융합연구 플랫폼 구축 및 전략적 중점연구를 위한 R&D사업에 100억원을 지원할 예정(현재 과제 공모중)이며, 병원의 연구활동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br/><br/>현재 한국은 가천길병원·경북대병원·고려대안암병원·고려대구로병원·분당차병원·삼성서울병원·서울대병원·서울아산병원·아주대병원·연세대세브란스병원 등 10개 기관이, 영국은 캠브리지·임페리얼·UCL·킹스칼리지·맨체스터 등 5개 기관이 연구중심병원(World BEST Research-driven Hospital)으로 지정돼 있다.<br/><br/>조민규 기자 kioo@kukimedia.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338.txt

제목: 스티브잡스 사망원인이었던 신경내분비종양 관련 심포지엄 서울 개최  
날짜: 20140603  
기자: 이영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603100000089  
ID: 01100201.20140603100000089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종양내과, 병리학과 등 신경내분비종양 전문의 50여명 한자리에서 정보 공유<br/><br/>[쿠키 건강] 한국노바티스는 최근 신경내분비종양 전문의를 대상으로 신경내분비종양 치료의 최신 지견을 공유하는 ‘NETour 2014’를 그랜드하얏트서울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br/><br/>이번 NETour 2014 심포지엄은 캐나다 오데뜨암센터(Odette Cancer Center)의 시므론 씽 박사 (Dr. Simron Singh)를 포함해 총 50여명의 국내외 전문의들이 참여한 가운데, 손진희 성균관의대 교수와 전후근 가톨릭의대 교수, 박영석 성균관의대의 교수가 좌장을 맡아 성황리에 끝났다.<br/><br/>서울에서 진행된 이번 NETour 2014에서는 한국 환자사례에 대한 연구결과가 발표되는 등 신경내분비종양 전반에 대한 의미 있는 발표와 논의가 이어졌다.<br/><br/>특히, 김경미 성균관의대 교수가 발표한 1999년부터 2013년 5월까지 총 72명의 한국인 소화기계 신경내분비종양 환자들의 데이터를 분석한 연구결과는 참석 전문의들의 주목을 끌었다. 이번 김경미 교수의 발표에 따르면, 국내 간 전이성 소화기계 신경내분비종양 환자 중 35%는 원발부위를 알 수 없으며,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않은 환자에 비해 약물치료를 받은 환자의 전체생존기간(OS, Overall Survival)이 현저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br/><br/>더불어 캐나다 오데뜨암센터 시므론 씽 박사는 이번 심포지엄에서 산도스타틴 라르 치료가 신경내분비종양의 증상완화 및 종양억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고 강조했다. 씽 박사는 PROMID 임상연구 결과, 산도스타틴 라르는 종양세포의 진행위험을 66%까지 감소시켜 원발부위가 중간창자이거나 중간창자로 추정되는 소화기계 신경내분비종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원발부위가 중간창자로 추정되는 환자들에 대해서도 치료를 포기하지 말고 산도스타틴 라르를 중요한 치료옵션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br/><br/>이번 NETour2014 심포지엄의 좌장을 맡은 박영석 성균관의대 교수는 “<span class='quot0'>신경내분비종양 치료에서 원발부위는 치료방법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span>”라며. “<span class='quot1'>이번 NETour 2014에서 원발부위가 중간창자이거나 중간창자로 추정되는 환자들에 대한 약물치료 요법에 대해 의미 있는 논의가 이뤄질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span>”고 전했다.<br/><br/>심포지엄을 주최한 곽훈희 한국노바티스 항암제사업부 대표는 “한국노바티스는 그 동안 신경내분비종양 환자들에게 다양한 치료옵션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신경내분비종양을 포함해 다양한 암 질환으로 고통 받는 환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br/><br/>신경내분비종양은 신경내분비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증식해 발생하는 내분비계 희귀질환으로 발생부위에 따라 소화기계 신경내분비종양과 췌장계 신경내분비종양, 호흡기계 신경내분비종양 등으로 분류한다. 신경내분비종양은 설사나 복통, 홍조 등 다른 종류의 질환과 증상이 유사하고 모호해 증상만으로는 진단이 쉽지 않아 환자들이 진단 및 치료 시기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다.<br/><br/>노바티스는 이런 신경내분비종양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전세계 전문의들과 공유하기 위해 신경내분비종양 전문가그룹을 만들고 세계 각국을 방문해 NETour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br/><br/>이영수 기자 juny@kmib.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339.txt

제목: 계명대 동산병원 ‘로봇수술 500례’ 달성  
날짜: 20140530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530100000301  
ID: 01100201.201405301000003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쿠키 건강] 계명대 동산병원이 로봇수술 시작 3년만에 500례를 달성했다.<br/><br/>30일 동산병원에 따르면 로봇수술센터장 조치흠 교수(산부인과)가 지난 28일 자궁선근증 환자 김씨(47·여) 수술을 단일공 로봇장비로 시행하면서 500번째 로봇수술을 성공했다.<br/><br/>동산병원은 2011년 6월 다빈치Si 로봇수술을 도입한 이래 갑상선암, 전립선암, 부인암, 직장암, 위암, 폐암 등 다양한 영역에서 로봇수술을 시행하고 있다. 로봇수술기기 다빈치 Si는 3차원 입체화면뿐 아니라 육안으로 보는 것보다 최대 15배까지 시야가 확대되기 때문에 신경이나 혈관이 잘 보여 수술로 인한 신경손상이나 출혈, 통증이 적다. 또 인간 손의 한계를 뛰어넘는 로봇팔의 자유로운 동작으로 보다 안정적이고 정교한 수술이 가능하다.<br/><br/>따라서 전립선이나 자궁, 직장과 같이 수술시야가 협소하고 수술공간이 좁아 까다로운 부위의 암환자들에게 더욱 효과적이다. 일반 복강경 수술에 비해 수술 후 회복속도도 현저히 빠르고, 상처가 작고 입원기간이 일주일 이상 짧아 환자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br/><br/>동산병원은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지난해 폐암과 심장판막성형수술을 지역 최초로 성공해 주목을 받기도 했다. 지난 2월에는 ‘단일공 로봇수술’을 지역 처음으로 시작해 부인과 영역에서 국내 최다 단일공 로봇수술 성적을 보유하고 있다.<br/><br/>로봇수술은 기본적으로 복부에 4개의 구멍을 내어 진행되지만, 단일공 로봇수술은 배꼽 위에 1인치 미만의 구멍을 한 개만 뚫어(단일공) 시행하는 고난도 수술이다. 단일공 로봇수술은 안전성과 정교함뿐 아니라 통증이 적고 수술후 상처가 거의 없는 무흉터수술이 가능해 여성 환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br/><br/>조치흠 센터장은 “<span class='quot0'>로봇수술 500례 달성은 치료효과에 있어 환자들이 로봇수술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span>”며 “<span class='quot0'>동산병원만이 가진 복강경 수술의 풍부한 경험과 유기적인 협진시스템을 바탕으로 향후 로봇수술을 이용한 새로운 수술법과 연구에 매진하며 환자 치료효과를 올리는데 더욱 힘쓰겠다</span>”고 밝혔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340.txt

제목: 이대목동병원, 급성기 뇌졸중 적정성 평가 최고 등급  
날짜: 20140529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529100000206  
ID: 01100201.20140529100000206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쿠키 건강] 이대목동병원(원장 유권)이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4 급성기 뇌졸중 적정성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1등급 평가를 받아, 뇌졸중 치료 전국 최우수 병원에 선정됐다.<br/><br/>급성기 뇌졸중 적정성 평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전국 종합병원 이상 201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번 평가에서 이대목동병원은 종합점수 100점 만점으로 최우수 병원으로 선정됐으며, 의료 서비스의 질이 우수한 기관에 부여하는 가산금까지 지급받았다.<br/><br/>이대목동병원 뇌졸중센터는 외래진료 뿐만 아니라 응급실과 뇌졸중 집중 치료실, 혈관 시술팀 등을 체계적으로 통합 운영한다. 또한 촌각을 다투는 응급환자 치료를 위한 ESC(Ewha Stroke Code) 시스템을 구축해 365일 24시간 가동체제를 유지하고 있다.<br/><br/>이와 함께 특정 질환(암, 심부전,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등)에 대한 진료 프로그램과 환자의 치료 결과에 대한 우수성을 국제적으로 인증해 주는 제도인 JCI CCPC에서 뇌졸중 진료에 대한 인증을 획득했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341.txt

제목: 진행성 암 환자 항암치료, 면역치료와 병행해야  
날짜: 20140529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529100000241  
ID: 01100201.20140529100000241  
카테고리: 사회  
본문: [쿠키 건강] 항암치료의 주된 대상은 진행성 암 환자들이다. 수술 전후 보조적 항암요법도 많이 활용되지만, 수술적 요법으로 암을 제거하기에는 너무 크거나 전이가 많이 되어 있어 전신적인 치료 접근이 필요한 경우가 항암치료의 주된 대상이다.<br/><br/>항암화학요법이란 항암제를 활용해 암을 치료하는 것으로 전신에 퍼져있는 암세포에 작용하는 치료법이다. 따라서 진행성 암이나 전이암에 유효하지만, 암 세포 뿐 아니라 정상세포에까지 영향을 미쳐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낟.<br/><br/>항암 치료의 가장 흔한 부작용 중 하나가 바로 골수기능억제에 의한 면역력 저하이다. 그리고 이러한 부작용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인체가 정상적인 면역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결과가 암이기 때문이다.<br/><br/>이런 이유로 최근에는 항암치료와 한방 면역치료를 병행하는 통합의학적 치료 접근이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암세포 자체를 공격하는 항암치료의 장점은 살리면서, 부족한 면역력을 채워주는 한방 면역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치료 효과는 물론 삶의 질에 있어서도 훨씬 우수하다는 관측이 많기 때문이다.<br/><br/>이러한 한방 면역치료라는 개념은 비교적 익숙해졌지만, 아직까지 그 범주는 명확하지 않다. 치종단, 넥시아 등으로 유명해진 옻나무 추출물이나, 면역력 강화를 위한 약침 치료, 가장 전통적인 뜸과 침 치료 등은 모두 면역치료를 표방한다.<br/><br/>치종단, 치종탕 등의 개발자인 하나통합한의원 박상채 원장은 “<span class='quot0'>한의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인체의 면역력을 강화해서 병을 스스로 이겨낸다는 개념에서 출발한다</span>”며 “<span class='quot0'>하지만 암 환자에게 적합한 맞춤형 면역치료를 위해서는 많은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span>”고 설명했다.<br/><br/>이렇듯 면역력 개념에서 접근하는 한의학적 면역 치료법들의 공통적인 약점으로 지적되는 것이 과학적인 근거의 부족이다. 암 환자의 통증과 부작용 완화에 침 치료가 효과적임이 과학적으로 입증되기 시작한 것조차 최근의 일이며, 여타 한약재들을 활용한 치료법들은 아직까지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br/><br/>그런 와중에 치종단, 치종탕, 넥시아 등 한방 암 치료제의 주성분인 옻나무 추출물의 항암 효과를 규명하는 논문이 SCI급 국제학술지에 발표가 확정되어 관심을 끈다. 하나통합한의원 김보근 원장은 옻나무 추출물을 활용한 한방 암 치료제인 치종단Ⅱ(일명 티버스터)를 활용한 A549 폐암 세포주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치종단Ⅱ(일명 티버스터)가 항암제의 보조효과 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항암작용도 한다는 결과를 발표했다.<br/><br/>김보근 원장은 “<span class='quot1'>치종단Ⅱ(일명 티버스터)가 caspase 단백질 활성과 ribosome 생성관여 단백질을 억제하여 자연사멸을 유도하는 기전을 통해 항암작용을 보인다</span>”고 설명했다.<br/><br/>이어 김보근 원장은 “<span class='quot1'>암 치료에 효과가 있으리라 기대되는 한약재들은 많지만, 이를 이용해 실제로 환자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생각만큼 쉽지 않다</span>”며 “<span class='quot1'>이런 연구결과들을 통해 보다 많은 암환자들이 한방치료를 신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span>”고 당부했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342.txt

제목: 서울성모병원-한국노바티스, 글로벌 초기 임상연구 협력 MOU 체결  
날짜: 20140528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528100000366  
ID: 01100201.20140528100000366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쿠키 건강]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과 한국노바티스가 글로벌 초기 임상연구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br/>두 기관은 527일 오후 4시반 병원 본관 21층 대회의실에서 서울성모병원 승기배 원장, 전후근 암병원장, 양철우 연구부원장 김동욱 암병원 연구부장과 한국노바티스 브라이언 글라스덴 대표, 곽훈희 항암제 사업부 대표를 비롯한 양 기관 주요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글로벌 초기 임상연구 협력 MOU 체결식을 진행했다.<br/>이번 공동 연구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신약 개발을 위한 공동 암 임상시험연구의 추진 및 초기 임상시험 연구의 확대하고 긴밀한 상호 협력과 교류를 통해 공동 연구 발전과 학술 교류를 실시한다.<br/>서울성모병원은 신약 개발과 관련한 제반 연구를 진행하고, 임상연구에 필요한 의학적, 임상적 정보의 공유 및 임상시험을 수행할 예정이다. 한국노바티스는 세계적인 의약품 개발 능력을 바탕으로 항암제 신약 후보물질 개발 후 임상 연구를 위한 시험 약물을 제공한다. 이밖에도 양 기관은 학술 및 기술 정보의 원활한 교류를 통해 공동연구 및 학술, 기술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해 국가 연구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br/>승기배 병원장은 “<span class='quot0'>이번 협악을 통해 병원의 임상연구 활성화와 위상 및 인지도를 국제적으로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을 확신하며 병원 차원에서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span>”고 밝혔다.<br/>브라이언 글라드스덴 대표는 “<span class='quot1'>서울성모병원은 글로벌 초기 임상연구를 위한 경험있고 노련한 의사와 최첨단 인프라가 구축된 병원으로 향후 양 기관이 더 큰 관계로 발전하여 세계 암 연구와 치료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데 노력하겠다</span>”고 말했다.<br/>한편 1996년 설립된 노바티스는 스위스 바젤에 본사를 두고 있는 항암제 분야의 선두주자로, 환자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혁신적인 의약품 연구 개발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다국적 제약사다.<br/>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br/><br/>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 국민일보 쿠키뉴스(www.kuki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343.txt

제목: 선병원, 日 메디폴리스병원과 암 치료·연구 협약  
날짜: 20140527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527100000229  
ID: 01100201.20140527100000229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쿠키 건강] 선병원(이사장 선두훈)은 지난 26일 유성선병원 강당에서 세계적 수준의 양성자 암병원으로 평가받는 일본 메디폴리스병원(이사장 료이치 나가타)과 암치료 연구 및 진료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br/><br/>이번 협약으로 양 병원은 ▲정기적인 국제심포지엄 개최 ▲암 전문 의료진의 상호 연수 및 교환 ▲암 기초연구와 임상연구를 통한 신약 및 신의료기술 조기도입 ▲화상통신을 통한 다학제 협진 등 암치료 연구, 진료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강화한다.<br/><br/>선병원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최신 암치료로 각광받고 있는 양성자 암치료에 관한 연구 및 진료 사례를 공유해 암 분야에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br/><br/>양성자 암치료는 양성자를 가속 암을 치료하는 기법으로 암 조직만을 정확하게 공격해 부작용이 적어 암환자의 삶의 질과 생존율을 향상시키고,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치료가 가능하다. 미국, 유럽, 일본 등을 중심으로 폐암, 간암, 두경부암, 전립선암 등의 치료에 많이 이용되고 있다.<br/><br/>선승훈 선병원 의료원장은 “<span class='quot0'>이번 협약으로 보다 수준 높은 암치료 의료기술 인프라 구축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span>”며 “<span class='quot0'>향후 국내 암 환자들에게도 세계적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한다</span>”고 말했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344.txt

제목: 한방 암 치료, 옻나무 추출물은 효과 있을까?  
날짜: 20140527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527100000226  
ID: 01100201.20140527100000226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쿠키 건강] 국가암정보센터 자료에 의하면 2011년 파악된 한국의 전체 암 발생자 수는 21만8017명으로 나타났다. 2007~2011년도 전체 암의 5년 생존율은 93~95년도의 41.2%보다 25.1% 증가한 66.3%에 달해 많은 발전을 이뤄냈지만, 통계청의 사망원인통계에 의하면 2012년 전체 사망자 26만7221명 중 암으로 인한 사망은 74,990명으로 전체의 28% 가량을 차지, 한국인의 사망 원인 중 1위를 차지했다.<br/><br/>의학의 발전으로 인해 많은 암 환자들이 수명을 연장했다는 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아직까지 의학이 암을 정복하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 역시 부인하기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이다.<br/><br/>대부분의 암 환자들은 수술, 항암화학요법, 방사선 치료 등 표준 치료법으로 우선 접근하게 된다. 하지만 암이 너무 진행되었거나 치료 후 재발한 환자들의 경우 표준치료로도 완치나 장기 생존을 기대하기 어렵고, 항암 치료 등의 부작용으로 인해 오히려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br/><br/>이 때문에 암 환자들과 가족들은 표준 치료 이외의 방법에 대한 관심이 다른 질병에 비해 높은 편이다. 실제로 한의학이나 여러 보완대체의학을 접목한 치료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런 현상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도 많다. 근거가 불명확한 치료방법은 환자에게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다.<br/><br/>그런 와중에 치종단, 치종탕, 넥시아 등 한방 암 치료제의 주성분인 옻나무 추출물의 항암 효과를 규명하는 논문이 SCI급 국제학술지에 발표가 확정되어 관심을 끈다.<br/><br/>김보근 하나통합한의원 원장은 옻나무 추출물을 활용한 한방 암 치료제인 치종단Ⅱ(일명 티버스터)를 활용한 A549 폐암 세포주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치종단Ⅱ(일명 티버스터)가 항암제의 보조효과 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항암작용도 한다는 결과를 발표했다.<br/><br/>김보근 “원장은 치종단Ⅱ(일명 티버스터)가 caspase 단백질 활성과 ribosome 생성관여 단백질을 억제하여 자연사멸을 유도하는 기전을 통해 항암작용을 보인다”고 설명했다.<br/><br/>하지만 이 같은 연구 결과가 표준 치료를 거부하고 한방 치료만을 받겠다는 결론으로 이어지면 안 된다는 것이 옻나무 추출물을 이용한 한방 암 치료제 치종단, 치종탕, 티버스터 등의 개발자인 하나통합한의원 박상채 원장의 설명이다.<br/><br/>암 치료의 접근은 크게 완치 목적의 치료와 생명 연장을 목적으로 한 고식적 치료, 말기 환자에서의 완화 의료로 나뉜다. 한방 암 치료는 대부분 생명 연장을 목적으로 한 고식적 치료에 해당하므로, 처음에는 완치 목적의 치료 가능성을 최대한 높이기 위한 표준 치료와의 병행 치료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br/><br/>박상채 원장은 “<span class='quot0'>굉장히 많은 환자들이 더 이상 병원치료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한의원을 찾아온다</span>”며 “<span class='quot0'>하지만 최선은 병원치료와 한방치료를 병행함으로써 병원 치료가 유효한 기간을 최대한 늘리는 것이며, 대체요법으로서 한방치료를 고려하는 것은 그 다음 문제</span>”라고 말했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345.txt

제목: 고대구로병원 오상철 교수, 아스트라제네카와 항암 신약 공동연구  
날짜: 20140527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527100000235  
ID: 01100201.20140527100000235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아스트라제네카-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항암분야 연구지원자 선정<br/><br/>[쿠키 건강] 고려대 구로병원 암병원 오상철 교수(종양내과)가 글로벌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AZ)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지원하는 항암분야 연구지원 프로그램(Oncology Research Program)에 선정됐다.<br/><br/>오상철 교수는 구로병원 연구중심병원 연구전담의사를 맡아 위암과 대장암 등 소화기암 분야에서 독보적인 연구개발 역량을 국내외에서 인정받고 있다. 지난 2011년 대장암 유전자 타입에 따른 맞춤형 항암치료에 대한 연구발표로 국제적으로 큰 센세이션을 일으킨 장본인이기도 하다.<br/><br/>이번 글로벌 연구자 선정은 오 교수의 임상 연구 뿐만아니라 중개연구의 국제적인 역량을 인정받은 것으로 평가된다.<br/><br/>오 교수는 이번 선정으로 AZ로부터 항암분야 초기 중개연구 프로젝트를 전폭 지원받는다. 오 교수는 연구 지원금은 물론 AZ의 오픈이노베이션 플랫폼의 일환으로 AZ 항암제 신약 후보 물질 중 일부를 전임상 시험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AZ 항암연구개발팀의 기술자문과 협력, 세계 항암 연구자와의 네트워크 구축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받는다.<br/><br/>오상철 교수는 “<span class='quot0'>세계적인 항암제 연구개발 전문 기업과 신약개발기술, 노하우를 공유하는 등 공동연구를 통해 암 치료를 위한 신약 연구개발에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0'>궁극적으로 머지않은 미래에 암 치료를 위한 기초에서 임상 연구는 물론 실용화해 환자에게 바로 적용해 완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span>”고 말했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346.txt

제목: 암 유전자 변이 새 검색엔진 개발… 박종철 교수 연구팀, 암 정복 도움  
날짜: 20140523  
기자: 문수정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523100000097  
ID: 01100201.20140523100000097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국내 연구진이 암 유발 유전자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찾을 수 있는 인터넷 검색엔진을 개발했다.<br/>카이스트 전산학과 박종철(사진) 교수 연구팀은 암 유전자에 특화된 검색엔진 ‘온코서치’(oncosearch.biopathway.org)를 개발했다고 미래창조과학부가 22일 밝혔다. 암 연구를 효과적으로 하려면 암 관련 유전자에 대한 과거 연구결과를 빠르게 수집하고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 검색엔진 개발로 암 정복을 위한 연구가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br/>국제적으로 암 관련 유전자에 대한 수많은 생물학·의학 연구가 진행됐고 그 데이터베이스(DB)가 300만건에 이른다. 자료가 너무 방대하다 보니 필요한 정보를 찾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 정확한 자료를 찾는 데도 한계가 있었다. 이번에 개발한 온코서치를 이용하면 모든 논문에서 1700종 이상의 악성 종양과 7500여개의 유전자 관련 문헌정보를 손쉽게 검색할 수 있다. 또 각 유전자가 암 진행에 기여하는 정도를 문장구조 분석과 추론을 통해 명확한 표현이 없어도 필요한 정보를 찾아내는 게 장점이다.<br/>이번 성과는 생물학 분야 국제학술지인 핵산연구(Nucleic Acids Research) 온라인판 9일자에 실렸다.<br/>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347.txt

제목: 암 관련 유전자 정보 검색엔진 ‘온코서치’ 개발  
날짜: 2014052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523100000181  
ID: 01100201.2014052310000018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카이스트 전산학과 박종철 교수팀, 300만건 정보 쉽게 검색 가능<br/><br/>[쿠키 건강] 국내 연구진이 암 관련 유전자를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찾을 수 있는 특화된 검색엔진을 개발했다. 메드라인에 탑재된 300만 건에 육박하는 암 관련 유전자에 대한 연구문헌을 통해 암-유전자 관련성에 대한 정보를 빨리 검색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br/><br/>카이스트(KAIST) 전산학과 박종철 교수팀이 지스트(GIST) 이현주 교수와 함께 수행한 이번 연구는 언어학, 컴퓨터공학, 생물학 및 의학을 포괄적으로 연계하는 융합연구로 미래창조과학부가 추진하는 중견연구자지원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됐고, 연구결과는 생물학 분야 학술지 핵산연구(Nucleic Acids Research) 온라인판 5월 9일자에 게재됐다.<br/><br/>암은 수천 개 이상 유전자의 비정상적 변화와 그에 따른 신호전달 체계 교란이 주요 원인으로, 암의 원인을 이해하고 치료하기 위해서는 유전자의 변화와 암과의 연관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br/><br/>연구팀은 의학 및 생물학 연구문헌에서 유전자의 발현량 변화와 유전자 변화에 따른 암 상태 변화를 기술하는 문장을 찾아내는 검색엔진 온코서치(OncoSearch, http://oncosearch.biopathway.org)를 개발했다.<br/><br/>온코서치는 텍스트마이닝 기술인 사건 정보 추출 시스템과 엔트로피 분류기를 사용해 문장의 구조를 심도 있게 분석, 유전자 발현량의 증감 및 암의 진행상태를 파악하도록 했다.<br/><br/>기존의 암 관련 유전자 정보 수집 기법들과는 달리, 암 관련 유전자 역할에 대한 명시적인 표현(oncogene, tumor suppressor 등)이 없어도 관련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br/><br/>또한 메드라인에 등재된 모든 논문에서 1700종 이상의 악성종양과 7500개 이상의 유전자에 관한 문헌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검색, 정보를 쉽게 수집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암 연구의 질적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연구팀은 기대했다.<br/><br/>박 교수는 “온코서치가 첨단 텍스트마이닝 기술을 사용해 연구문헌에서 자동으로 수집한 암 관련 유전자 정보를 검색 가능하게 한다. 향후 자동 추론기술 등을 통해 암 연구를 위한 새로운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고 의의를 밝혔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칼업저버 임솔 기자 slim@monews.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348.txt

제목: 항암 치료 부작용, 옻나무 추출물로 극복  
날짜: 20140522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522100000185  
ID: 01100201.20140522100000185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쿠키 건강] 60대 여성 김모씨는 폐까지 전이된 간암 4기 판정을 받았다. 병원에서는 수술, 방사선 치료 등이 모두 불가하다고 진단, 항암 치료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경구용 항암제고, 표적치료제라는 말을 들었기에 큰 부담 없이 치료에 접근했지만 이내 후회하기 시작했다.<br/><br/>부작용이 너무 심했기 때문이다. 김씨는 구토, 설사 등은 물론이고 손끝이 아프고, 마디마다 누런 수포가 생기는 등 증상이 너무 심해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할지 고민이었다.<br/><br/>항암 치료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비교적 많이들 인지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 부작용이 어떤지는 환자가 아니고서는 체감하기 힘들다. 많은 환자들이 부작용을 견디지 못해 항암 치료를 포기하고 있으며, 때에 따라서는 기대할 수 있는 이익보다 부작용이 더 커 의료진과의 상의 끝에 항암 치료를 중단하기도 한다.<br/><br/>김씨는 항암 치료를 계속 받기로 결정했다. 옻나무 추출물을 활용한 한방병행치료를 통해 부작용을 많이 감소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한약재가 간에 좋지 않다는 인식 때문에 망설였지만, 전문 한의사와의 상담 이후 생각을 바꿨다.<br/><br/>김씨의 한방암치료를 담당한 하나통합한의원 박상채 원장은 “<span class='quot0'>많은 환자들이 한약재가 간에 나쁘다고 알고 있는데, 이는 일부만 사실</span>”이라며 “<span class='quot0'>해당 질환을 잘 알고, 해당 한약재를 잘 아는 전문가는 이를 조절할 능력이 있다</span>”고 말했다.<br/><br/>이와 관련 박 원장은 대한암한의학회지에 실린 논문을 통해 옻나무 추출물을 활용한 한방 암 치료제를 복용한 암 환자에서 간기능검사 결과가 나빠지지 않았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br/><br/>일부에서는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한약재들은 혈류를 통해 독성물질이 배출되는 것을 돕기 때문에 오히려 간기능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하기도 한다. 실제로 한의학에서 항암치료 부작용에 활용하는 많은 약재들이 그와 같은 효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박 원장의 설명이다.<br/><br/>옻나무 추출물의 한약재명은 건칠(乾漆)로, 혈액 순환을 개선하는 효능을 지닌 대표적인 한약재 중의 하나이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349.txt

제목: 미국임상종양학회 50주년, 항암치료신약 3상 데이터 대거 공개  
날짜: 2014052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522100000208  
ID: 01100201.20140522100000208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2014 ASCO 1주일 앞으로…주목해야 할 연구는?<br/><br/>[쿠키 건강] 올해 50주년을 맞는 미국임상종양학회(ASCO) 연례 학술대회에서는 그 명성에 걸맞게 사상 최대 규모의 항암신약 데이터가 쏟아질 전망이다.<br/><br/>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미국 시카고에서 개최되는 이번 학회에서는 2만5000여 명의 종양 전문가가 참석해 암환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치료전략과 함께 새로운 면역치료제와 표적치료제에 대한 연구 결과들이 대거 소개된다. 50주년을 기념해 지난 반세기 동안의 암정복 성과를 조명하고 미래의 도전과제들을 발굴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별도의 세션도 마련됐다.<br/><br/>지난 14일에는 학회 개막에 2주 앞서 약 5000건의 연구 초록이 공개됐는데, 이날 공개된 예비 데이터를 중심으로 올해 ASCO에서 주목할만한 연구들을 살펴봤다.<br/><br/>◇대세는 표적치료제, 암세포만 골라잡는다!<br/><br/>글리벡이 출시된지 10여 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암 환자 치료에 있어 대세는 표적치료제다.<br/><br/>ASCO는 3세대 EGFR 타이로신키나아제억제제(TKI)인 아스트라제네카의 'AZD9291'에 주목했다. AZD9291은 1상임상 결과 EGFR 돌연변이가 있는 비소세포성폐암(NSCLC) 환자의 51%에서 종양수축 효과를 입증했고, 그 중에서도 EGFR T790M 변이가 있는 환자의 경우 전체반응률(ORR)이 64%에 달했다(95% CI; 53%, 74%). 자세한 결과는 대회 둘째날인 31일 Clinical Science Symposium의 폐암 섹션에서 발표된다(Abstract #8009).<br/><br/>그 밖에도 Late Breaking Session을 통해 다양한 표적치료제가 성적 공개를 기다리고 있다.<br/><br/>재발성 난소암 환자를 대상으로 PARP 억제제인 올라파립 단독요법과 올라파립 + 세디라닙의 2제요법을 평가한 2상임상 결과는 두 표적치료제의 만남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Abstract #LBA 5500). 이미 올라파립은 BRCA 변이가 있는 백금 기반 재발성 난소암 환자의 단독요법으로 최근 FDA의 우선검토 승인을 받았고, 세디라닙은 ICON6 3상임상을 통해 동일 환자군에서 항암화학요법과 병행 시 전체생존기간(OS) 및 무진행생존기간(PFS)에 대한 유의한 개선 효과를 입증한 바 있다.<br/><br/>진행성 비소세포성폐암 환자의 2차 치료제로서 도세탁셀 + 라무시루맙의 병용 효과에 대한 REVEL 3상임상(Abstract #LBA8006)과 재발성 또는 불응성 만성림프구성백혈병(CLL) 노인 환자에서 이브루티닙과 오파투무맙을 비교한 3상임상의 중간분석 결과(Abstract #LBA7008), 방사성요오드-불응성 분화갑상선암에 대한 렌바티닙의 SELECT 3상임상 결과도 나온다(Abstract #LBA6008).<br/><br/>◇떠오르는 샛별, 면역항암조절제!<br/><br/>한편, 최근 각광받고 있는 면역항암요법에 대한 연구 성과도 기대되는 토픽이다.<br/><br/>최근 3상임상을 개시한 아스트라제네카의 면역조절항암제 MEDI4736은 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트레멜리무맙과의 병용 효과를 평가한 1상임상 데이터가 ASCO 기간 중인 6월 2일에 공개된다.<br/><br/>같은 날 Late Breaking Session에서는 재발 위험이 높은 3기 흑색종 환자에 대한 이필리무맙 보조요법의 3상 데이터(Abstract #LBA9008)와 진행성 흑색종 환자에서 항PD-1 항체인 니볼루맙 + 이필리무맙의 병용 효과(Abstract #LBA9003)와 함께 전이성 자궁경부암 환자를 대상으로 새로운 HPV 타깃 입양면역치료(adoptive T-cell therapy)의 효과를 평가한 초기 임상 결과(Abstract #LBA9008)도 확인할 수 있다.<br/><br/>향후 면역조절항암제가 암환자 치료의 새로운 표준요법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칼업저버 안경진 기자 kjahn@monews.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350.txt

제목: [암 정보 게시판] 국립암센터 5월 28일 국제심포지엄 개최 外  
날짜: 201405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520100000015  
ID: 01100201.20140520100000015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국립암센터 28일 국제심포지엄 개최<br/>국립암센터는 오는 28일 국가암예방검진동 8층 국제회의장에서 ‘Seeing is Believing and Beyond’ 주제로 개원 13주년 기념 ‘제8회 국제심포지엄’을 연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스탠퍼드대 크리스토퍼 컨택 박사, 샌프란시스코주립대 데니얼 비그네론 박사, 가천의대 조장희 박사 등이 참석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PET-MRI와 분자영상을 포함한 초정밀 영상기법을 통한 암 진단법, 영상유도 수술로 완전히 제거하는 신기술 등이 소개된다.<br/>복지부, 직·결장암 치료제 비용 고시<br/>최근 보건복지부는 고시를 통해 전이성 직·결장암 치료제 얼비툭스주에 대해 월 투약비용을 약 450만원(건강보험 적용시 환자 부담 약 23만원, 월 기준)으로 결정했다. 또한 다발성 골수종치료제 레블리미드캡슐은 월 투약비용 약 600만원(건강보험 적용시 환자 부담 약 30만원, 월 기준)으로 산정했다.<br/>두경부종양학회 30주년 학술대회<br/>대한두경부종양학회(회장 소의영)는 오는 29일부터 이틀간 밀레니엄서울힐튼호텔에서 창립 30주년을 기념해 ‘두경부종양학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함께’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노영수 학술위원장(이대목동병원 두경부암·갑상선센터장)은 “<span class='quot0'>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외과, 성형외과, 혈액종양내과, 방사선종양학과 분야의 세계적 두경부종양학 석학들이 모여 다학제 연구와 최근 연구 성과를 공유할 예정</span>”이라고 말했다.<br/>이화의료원, 난치성 여성암 정복 나서<br/>이대여성암정복특성화연구센터(센터장 김승철)가 2014년 보건복지부 ‘병원 특성화 연구센터 지원사업’ 2단계 사업에 돌입한다. 연구센터는 2016년까지 60억원을 지원받아 ‘난치성 여성암 정복을 위한 특성화 연구사업’을 통해 원천기술 상용화에 나선다.<br/>서울아산병원 22일 부인암 치료 강좌<br/>서울아산병원은 22일 오후 2시부터 병원 동관 6층 대강당에서 ‘자궁근종과 부인암의 최신 치료’ 주제로 건강강좌를 연다. 이날 강좌는 산부인과 김대연 교수가 강사로 나서, 자궁근종과 부인암의 조기진단법과 최신 치료법을 소개한다(문의: 02-3010-3051∼4).<br/>시각장애인 위한 암예방 점자책 발간<br/>국립암센터는 최근 시각장애인을 위한 암예방 점자책 ‘암을 알아야, 암을 이깁니다’를 발간·배포했다. 이 책은 시각장애인의 건강 형평성 개선 차원에서 올바른 암 정보 인식과 암 예방 실천 수준 향상을 위해 출간됐으며, 국민 암 예방 수칙, 국가 암 검진 프로그램, 중증 암환자 본인부담 감면 신청방법, 암환자 의료비 지원 등이 수록됐다.<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351.txt

제목: 방선휘한의원, 면역력 증강으로 항암부작용 줄여  
날짜: 20140520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520100000183  
ID: 01100201.20140520100000183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쿠키 건강] 우리나라 암 발병률은 110만명에 육박하고 있으며, 항암치료를 받는 상당수의 암 환자들에게서 기력저하, 손발저림, 탈모등과 같은 많은 부작용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br/><br/>대부분의 암 환자들이 항암치료와 방사선치료를 받게 된다. 하지만 많은 암 환자들이 항암치료과정에서 오는 극심한 고통과 부작용으로 암세포는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력저하로 인해 치료를 중단하는 사례들도 늘고 있다.<br/><br/>한방면역암치료는 이 같은 점을 보완해주는 한방치료법으로, 항암치료의 부작용을 감소시키고 면역기능을 증강시켜 항암효과를 높이고 전이재발을 억제한다.<br/><br/>방선휘한의원 방선휘 대표원장은 “환자의 면역력저하, 체질, 기력의 상태 등에 따라 항암치료를 지속하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며 “항암치료효율과 그로인해 발생하는 부작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인 면역력을 증강시키는 것이 중요하므로 항암치료와 한방 암 면역치료를 병행해 치료받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br/><br/>부산지역에서 통합면역암치료를 시행하는 방선휘한의원에서는 항암부작용으로 인한 손발저림, 림프부종, 개구장애등 항암부작용집중관리 프로그램(면역약침, 온열뜸치료,에어마사지, 오일림프마사지, 비훈치료, 개별맞춤 면역탕제)을 제공하고 있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352.txt

제목: [암과의 동행-인터뷰] 이양구 동성제약 대표이사 ‘광역학 치료’ 연구에 몰두  
날짜: 20140520  
기자: 이영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520100000014  
ID: 01100201.20140520100000014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고(故) 이선규 동성제약 명예회장은 암 치료에 대한 관심과 집념이 남달랐다. 특히 이 명예회장은 고통 없는 암 치료와 희망을 주는 의약품 개발에 지대한 관심을 가졌었다. 이러한 유지를 받아 이양구 대표는 암 치료의 새로운 영역으로 부상되고 있는 광역학 치료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며 연구에 몰두하고 있다.<br/>광역학 치료는 약물과 빛의 조합에 의한 치료로 우연한 기회에 광과민물질이 처음 개발된 이후, 폭넓은 임상적 사용을 위한 광과민제의 추가 승인과 더불어 다양한 부위의 종양에 대한 임상적 성공이 현재 확인되고 있다. 광역학 치료는 화학요법, 방사선요법, 수술요법과 다르기 때문에 단독 치료 또는 기존 치료법과의 병용 모두에서 효과를 보인다. 방사선 치료와 달리 반복적인 주입과 치료가 가능하며 정상조직을 보존하기 때문에 향후 암 치료의 새로운 대안으로 평가되고 있다.<br/>광역학 치료는 1903년 피부암의 치료에 처음 사용된 이후 최근에는 위암, 대장암 등의 소화기계 암과 유방암에까지 적용돼 비교적 좋은 치료결과를 보이고 있다. 국내는 2003년 처음 러시아에서 개발된 광과민제 포토젬(Photogem)이 소개된 이후 일부 병원에서 한정된 적응증에 사용하고 있고, 현재도 하나의 광과민제만이 희귀의약품으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1세대 광감제는 주사 48시간∼72시간 후 레이저 시술하며 약 40∼50일의 차광시간이 필요하고 치료할 수 있는 종양의 깊이도 약 4mm에 불과한 반면 동성제약에서 도입한 광과민제 포토론(Photolon)은 주사 3시간 후에 레이저 시술하며 최대 3일이면 퇴원할 수 있고 치료할 수 있는 종양의 깊이도 18mm에 달한다. 1세대 광감제에 사용하는 레이저 조사기는 파장이 630nm로 665nm가 필요한 2세대 광감제에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동성제약은 지난 2012년 10월에 의료용 레이저 조사기 UPL-FDT를 허가받았다.<br/>회사는 이미 광역학 기술을 러시아에서 도입해 이를 보완, 허가를 위해 노력 중이며, 지난해 서울에서 개최된 제14차 세계광역학 학술대회에서 회사의 광역학 치료 기술을 발표했다. 또 피부기저세포암뿐만 아니라 자궁경부암, 자궁경부상피내종양 등의 임상을 계획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동성제약은 광역학 치료 외 음향역학치료(SDT), 저출력 레이저 광선요법(LLLT) 또한 준비하고 있다.<br/>한편, 동성제약은 지난해 말 ‘광과민제 및 아연 프탈로시아닌 나노선을 사용하는 광역학 항암 치료기술 개발’과 관련,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에 선정되기도 했다. 이 과제는 동성제약과 안웅식 원광대학교 산부인과 교수 연구팀이 공동 수행하는 것으로 중기청 지원과제 선정에 따라 오는 2015년 11월 30일까지 2년간 연구를 수행하며, 약 15억원의 연구비를 지원받게 됐다.<br/>이와 관련해 이양구 대표는 “<span class='quot0'>이러한 광의학 치료용 광감각제 연구와 관련해 최근에는 정보통신(IT)·바이오(BT)·나노(NT) 기술 등의 융합 의료 개발기술을 시도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광의학 기술에 대한 연구가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광의학적인 암의 조기진단과 함께 광의학적인 암의 치료기술이 발전돼 가고 있다</span>”고 말했다.<br/>이영수 쿠키뉴스 기자 juny@kukimedia.co.kr<b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353.txt

제목: [암과의 동행] 완치 가능한 만성골수성백혈병… 치료 소홀히 하면 악화  
날짜: 20140520  
기자: 장윤형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520100000030  
ID: 01100201.20140520100000030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김동욱 서울성모병원 교수·환우들 CML 주제 좌담회<br/>[편집자 주] 국민일보 쿠키미디어는 올바른 암 질환 치료·예방 정보 제공을 위해 ‘암과의 동행’ 섹션에 ‘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기획연재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기획은 의료 현장에서 암 환자들과 함께 호흡하는 대한민국 암 명의(名醫)들의 조언을 통해 암 예방과 치료, 일상생활 관리 등의 정보를 담았습니다. 지난 4월 30일 진행된 ‘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백혈병 편’에서는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혈액내과 김동욱(사진) 교수가 강사로 나서 백혈병 환우(루산우회·한국백혈병환우회)들과 함께 만성골수성백혈병(CML)에 대한 대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br/>조기 발견·지속적 모니터링 중요<br/>◇만성골수성백혈병 지속적 치료와 관리로 완치 가능=만성골수성백혈병(CML, Chronic Myeloid Leukemia)은 9번과 22번 염색체 이상으로 인해 조혈모세포가 병든 혈액세포를 만드는 혈액암이다. 과거 ‘백혈병’ 하면 불치병으로 여겨져 왔지만, 지난 10년간 다양한 표적항암제가 개발돼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고 관리하면 완치까지 가능해졌다. 하지만 치료를 소홀히 하면 언제든지 병이 악화될 수 있으며, 가속기를 거쳐 급성기로 전환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 CML 치료의 권위자인 김동욱 교수는 이날 ‘백혈병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를 주제로 열린 환우들과의 좌담회에서 “CML의 경우 초기에 증상이 거의 없다. 병이 악화되더라도 사망 6개월에서 1년 전에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br/>김 교수는 특히 ‘유럽백혈병네트워크(ELN)’에서 만든 제3차 CML 국제표준치료 지침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미국·유럽 등을 주축으로 전 세계 백혈병 전문가 32명이 회의를 거듭한 끝에 지난해 ELN 2013 표준지침이 완성된 것. ELN 국제표준지침은 전 세계 70% 이상의 국가 및 병원에서 진단·치료에 적용하는 기준자료가 된다. 김동욱 교수도 유럽백혈병네트워크 패널위원으로 선정돼 ELN 국제표준지침 제정에 참여했다. 최근 개정안에서는 첫 치료 후 3개월부터 유전자검사를 통해 치료 결과를 평가하도록 하는 지침이 신설됐다. 최근 허가된 이클루시그와 보술립, 오마세탁신 등의 항암제와 한국에서 개발된 신약인 슈펙트의 치료효과도 언급돼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이날 김 교수는 암 유전자 검사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그는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치료제 투여 후 첫 3개월이 제일 중요한 시점”이라며 “정밀한 유전자 정량 검사를 통해 3개월마다 백혈병 유전자 소멸 여부를 살펴 완전유전자 상태에 도달하도록 하는 것이 치료의 핵심”이라고 말했다.<br/>◇환자에 맞는 표적항암제 선택과 꾸준한 복용 필수=표적항암제 투여는 백혈병 치료에 있어 핵심이다. 최근 획기적인 표적치료제들의 잇단 개발로 생존율이 높아지자 환자들은 매일 항암제를 복용하면서 암과 동반자가 돼 살아가는 문제를 놓고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시점에 와 있다. 치료제로는 글리벡, 타시그나, 스프라이셀, 슈펙트 등이 대표적이다. 한 환우는 “어떤 항암제를 선택하는 것이 좋은가”를 물었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약마다 특성이 다르고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모든 환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유일한 항암제는 없다. 다만 환자 개개인이 자신에게 맞는 치료제를 처방 받아 꾸준히 사용하게 되면 CML을 당뇨 등의 만성질환처럼 평생 관리하며 치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환자들 중에는 약을 깜박하고 먹지 않거나, 부작용을 이유로 임의로 약을 중단하는 경우도 많다. 김 교수는 “<span class='quot0'>피부발진, 울렁거림 등의 부작용을 이유로 약을 중단하면 치료 가능한 병에서 불치병으로 바뀔 위험이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선택된 약제가 환자에게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복약 순응도를 높여 최상의 치료효과를 내도록 해야 한다</span>”고 말했다.<br/>‘한 번 먹으면 평생 복용’ 인식 변화<br/>현재 백혈병 표준 치료약으로 글리벡이 있다. 또 최근에는 글리벡 내성으로 치료가 어려운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2세대 만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가 등장했다. 여기에 국산 CML 신약인 슈펙트 등 새로운 신약들이 1차 치료제로 등장할 경우 ‘글리벡’(2013년 6월 특허만료)과 글리벡의 부작용 및 내성을 극복한 2세대 치료제인 스프라이셀, 타시그나와 본격적인 경쟁을 하게 된다.<br/>한 환자는 항암제 복제약의 효능에 대해 물었다. 국내에서 수십종의 글리벡 복제약이 쏟아졌지만 처방은 보훈병원과 경찰병원 등 국가에서 운영하는 일부 병원에 불과하다. 김 교수는 “현재 글리벡 복제약과 오리지널 글리벡에 대한 객관적인 비교 연구는 없다”며 “다만 사우디와 인도, 러시아 등 일부에서 진행한 복제약의 임상 치료 보고에 따르면 복제약의 경우 부작용이 늘고 치료 효과는 저하됐다는 보고가 있는가 하면, 일부에서는 복제약과 오리지널 약의 치료 효과가 동일하다는 보고도 있다.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br/>항암제는 한 번 복용하면 평생 먹어야 하는 약으로 여겨지고 있지만 최근 이러한 인식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한 환우는 글리벡 복용을 중단하는 연구에 대해 물었다. 김 교수는 “<span class='quot0'>글리벡을 복용한 108명의 환자들을 추적 관찰한 암정복 정부과제 연구에서 약 70%는 약을 끊은 뒤 약 1년 6개월간 암 유전자가 다시 만들어지지 않았다</span>”며 “<span class='quot0'>유전자검사상 완전유전자반응 상태가 3년 이상 유지된 경우의 환자는 약 복용을 중단해도 될 것이라고 예측한다</span>”고 답했다.<br/>아시아 최초 백혈병 치료제 슈펙트<br/>◇국산약 ‘슈펙트’ 출시 후 다른 치료제도 약값 인하…환자 부담 줄어=국산 신약 슈펙트(성분명 라도티닙)의 안전성 및 효능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김 교수는 “<span class='quot0'>슈펙트는 글리벡 내성 환자에게서 치료효과가 우수하지만 다른 치료제처럼 부작용도 있으므로 환자 개개인에게 맞는 적정한 용량 조절이 필요하다</span>”고 말했다. 슈펙트의 장점은 저렴한 약값과 아시아 최초의 백혈병 치료제라는 점이다. 최근 글리벡 치료에 실패했던 환자들을 대상으로 슈펙트 2상 임상을 진행한 결과가 유럽혈액학회의 공식잡지인 ‘Haematologica’에 임상 연구 논문으로 게재됐다. 슈펙트는 유럽혈액학회(EHA)와 미국혈액학회(ASH) 등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2012년 1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글리벡 치료에 실패한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의 2차 치료제로 슈펙트를 승인했다. 현재 국내의 슈펙트 복용 환자는 약 200명 정도로 전체 환자(약 3600명)의 6% 수준이다.<br/>평생을 복용해야 하는 환자들에게 고가의 항암제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한다. 미국 혈액학회지(Blood)에서는 2013년 사설을 통해 각 국가별 CML치료제의 경제적 비용 문제를 다룬 바 있다. 김 교수는 “약값이 저렴해지면 환자들에게도 이익이 돌아간다”며 “미국이나 유럽은 약값이 국내보다 3∼5배 비싼 편이며 동남아도 신약의 약가가 한국보다 2배 비싼 데다 여전히 글리벡이 주된 약으로 쓰인다. 한국은 슈펙트가 개발된 이후 다국적 제약사가 기존 백혈병 치료제의 약값을 낮추는 결과를 얻어 CML 약값이 제일 싼 나라가 됐다”고 말했다. 뉴욕타임스는 전 세계에서 한국의 CML 치료제의 비용 부담이 가장 저렴하다고 지적하고, 이는 슈펙트 등 새로운 신약의 등장으로 인한 가격경쟁에서 기인한다고 보도한 바 있다. 다만 아직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제한이 있는 것은 문제로 지적된다. 18세 미만의 청소년에게는 2세대 표적항암제 투여가 불가능하며, 글리벡을 투여하지 않고 2세대 표적항암제를 교차 투여할 경우 보험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사전 심의를 통해 허용하겠다는 심평원의 입장을 과도한 규제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br/>한 환자는 “항암제 복용 중 임신을 할 경우 출산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김 교수는 “<span class='quot0'>여성의 경우 뱃속에 아이가 있는 상태에서 약을 복용하면 기형아 발생률이 100배가량 높아진다</span>”며 “<span class='quot0'>일정 기간의 항암제 복용으로 완전유전자반응을 얻은 후 2년 이상 약물 치료를 중단한 상태에서 임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다</span>”고 조언했다.<br/>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2001년 30%였던 만성골수성백혈병의 5년 생존율이 2011년에는 약 94%가 됐다. 김 교수는 “<span class='quot0'>중요한 것은 정확한 국제 표준지침에 따라 선택된 약제가 환자에게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최상의 치료효과를 내도록 환자와 함께 의사가 지속적으로 고민하는 것</span>”이라고 강조했다.<br/>장윤형 쿠키뉴스 기자 vitamin@kukimedia.co.k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354.txt

제목: 삼진제약, 인천대와 표적항암제 공동개발 나선다  
날짜: 20140520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520100000192  
ID: 01100201.20140520100000192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쿠키 건강] 삼진제약이 인천대학교 생명과학부와 함께 표적 항암제 신약 개발에 나선다.<br/><br/>삼진제약 중앙연구소는 최근 인천대 신약개발연구소 안순길 교수팀과 글로벌 표적항암제 혁신 신약개발 공동연구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삼진제약과 인천대는 전 세계적으로 많은 환자가 많은데도 효율적인 치료제가 없는 난치성 고형암 및 혈액암 발병에 관련된 질환 단백질 활성을 억제하는 분자 표적 항암 신약을 개발할 계획이다. 전 세계 표적항암제 시장은 2016년 약 30조원 규모로 예측되고 있다.<br/><br/>두 기관이 공동 연구를 시작할 우선 과제로는 위암, 대장암의 진행 및 전이에 핵심 역할을 하는 발암관련 질환을 표적으로 하는 항암제 개발이 선정됐다.<br/><br/>이를 위해 인천대학교는 암 유발 단백질의 구조규명 기술과 구조기반 선도물질 발굴 및 in-vitro평가를 담당한다. 또한 삼진제약 중앙연구소는 질환 표적 단백질 구조 규명, 선도물질 최적화, 생물활성도 in-vivo 평가 및 항암기작 연구를 담당하며, 합성기술을 바탕으로 후보물질합성연구, 물리화학적 특성연구, 제제학적연구, 약동력학연구, 질환동물 약효평가 및 초기독성평가를 전담한다.<br/><br/>신희종 삼진제약 중앙연구소장은 “<span class='quot0'>분자 표적 항암제는 전통적인 세포사멸 항암제와는 달리 암세포에만 선택적으로 작용하므로 비교적 독성이 낮아 최근 항암제 연구개발 방향의 주류가 되고 있다</span>”며“<span class='quot0'>기존 항암제의 부작용인 일반적 세포 독성이 없고 여러 경로를 통해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탁월한 항암작용이 증명되고 있어 암 성장과 전이 억제, 항암 치료 내성도 억제하는 이상적인 항암제로 개발될 가능성이 크다</span>”고 밝혔다.<br/><br/>한편, 삼진제약 중앙연구소는 2006년 항암신약후보물질을 미국 임퀘스트(ImQuest)사에 기술이전 하는 등 지속적으로 혁신형 항암제 개발연구에 노력해 왔다. 새로운 표적항암제 선도후보물질 발굴을 담당한 안순길 인천대 교수는 종근당 종합연구소장을 역임하고 혁신신약개발 바이오벤처에서 다년간 항암신약개발을 수행하여 온 신약개발 전문가이자 베테랑 연구자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juny@kmib.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355.txt

제목: [암과의 동행] 스마트폰 앱 “암환자 건강관리 도와드려요”  
날짜: 20140520  
기자: 조민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520100000031  
ID: 01100201.20140520100000031  
카테고리: 사회  
본문: 스마트폰이 활성화되면서 다양한 건강관리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이 개발되고 있다. 기본적인 질환 설명부터 치료 일정 관리, 치료 후 관리까지 못하는 것이 없다. 특히 치료도 복잡하고 용어도 어려운 암의 경우는 이 같은 앱이 큰 도움이 된다. 문제는 너무나 많은 앱이 개발돼 있어 나에게 맞는 앱을 찾기 어렵다는 것인데 대형병원에서는 자체 개발한 앱을 통해 환자들의 치료를 돕고 있어 눈길을 끈다.<br/>삼성서울병원에서 만든 ‘건강다이어리-암환자수첩’은 △일정(치료나 검사, 외래 등의 일정 관리) △암치료의 이해(병원이 제공하는 암에 대한 검증된 정보) △치료 후 관리(치료 후 생활관리 방법과 꼭 필요한 연락처) △나의 다이어리(나의 다짐과 심신 기록)을 제공하고 있다.<br/>서울대병원 ‘내게 맞는 암정보’는 서울대암병원의 교수들이 직접 개발, 감수한 최신의 암정보로 △암종별 의학정보(각 센터의 교수들이 수많은 암환자를 진료하면서 체감한 의료진 강조사항을 포함해 암치료 여정 중 유의해야 할 사항 제시) △통합 암관리 정보(서울대병원의 다년간에 걸친 암환자 치료 경험을 바탕으로 증상관리, 영양, 장기건강관리 등 암환자에게 필요한 암 관리 정보) △애니메이션 동영상(암진단과 치료를 위한 검사 및 시술, 수술 과정을 애니메이션으로 쉽게 설명해 불안감 해소) △QR cord reader(서울대암병원에 있는 무인안내시스템 ‘스마트도우미’와 암종별 리플렛의 QR코드를 촬영해 서울대암병원 홈페이지의 해당정보에 바로 접속)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br/>서울아산병원의 ‘나의 항암수첩’은 항암치료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증상 관리 및 치료 일정 등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 앱으로 △증상관리(항암치료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관리 및 증상의 단계별 대처방법-애니메이션 형식) △나의 항암수첩(외래 예약일, 검사일정, 개인 메모 기능) △항암제 정보(항암제 주요 부작용 및 대처방법) △자주 하는 질문(치료, 보험적용, 일상생활 및 식생활에 대한 궁금증 해결) △병원에 연락해야 할 위험 징후(즉시 응급처치가 이뤄져야 하는 위험징후에 대한 정보) △암극복 체험수기(서울아산병원 암환자들의 암극복 체험수기) △암센터 교육일정표(서울아산병원 암센터에서 제공하는 교육프로그램 안내) 등 치료에 도움의 되는 정보를 담고 있다.<br/>소아암만으로 특화된 앱도 있다.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소아암 정보’는 진단명별 소아암 정보(악성림프종·소아백혈병 등 15종)와 간병을 위한 도움정보(간병 가이드, 소아암학생 지도 가이드 등 6종) 등을 제공한다.<br/>‘소아암 수첩’은 양현재단, 서울아산병원, 엔씨소프트가 사회공헌의 일환으로 개발한 소아암 환아 부모들을 위한 치료 일정관리 앱으로 △내 캘린더(외래·검사일정, 중심정맥관 관리, 감염주의기간 제공) △사진일기(매일 투병기록을 사진과 함께 기록) △검사결과 관리(주요 혈액검사결과를 입력하고 그래프로 확인) △치료일정(외래·검사·입원, 중심정맥관 소독 및 세척 일정 기록-알람 기능) △투약일정(복용중인 약을 기록하고 관리) △항암치료 관리(항암제 치료 차수 및 투약기간 입력·관리, 저균식 가이드 및 항암제 부작용 관리 정보 제공) 등을 제공한다.<br/>암예방을 위한 앱도 있는데 ‘유방자가검진 내가슴愛’는 유방암 예방을 위한 것으로 유방암의 이해와 현황, OX퀴즈 등으로 구성돼 있다. 대항병원은 대장·항문 자가진단 앱 ‘DH Self Test’을 제공하고 있다.<br/>이외에도 ‘국가암정보센터 ebook’은 국립암센터와 국립암정보센터에서 발행하는 암관련 교육자료 및 소책자 등을 한곳에 모아 다운로드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국가암검진 ebook’은 복지부와 국립암센터에서 발행하는 ‘암검진 질 지침’을 비롯해 국가암검진과 관련된 발행물을 한곳에 모아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했다.<br/>조민규 쿠키뉴스 기자 kioo@kukimedia.co.k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356.txt

제목: 국내 중기 개발 항암 신약 FDA 임상 시험 승인받아  
날짜: 20140520  
기자: 문수정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520100000098  
ID: 01100201.20140520100000098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국내 중소기업이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한 항암신약 후보물질인 ‘TEW-7197’이 최근 미국 미국식품의약국(FDA)의 임상 1상 시험 승인을 받았다.<br/>미래창조과학부는 이화여대 약학대 김대기(사진) 교수팀이 간암, 유방암 등의 진행을 촉진시키는 수용체(ALK-5)를 억제하는 화합물질(TEW-7197)을 개발해 중소기업인 메드팩토에 기술이전해 미국에서 임상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19일 밝혔다.<br/>이 물질은 암의 전이를 저해시킬 뿐만 아니라 인체면역 기능을 활성화해 암세포를 죽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항암치료제는 항암제 내성과 전이를 막을 수 없다는 게 문제였다. 하지만 이 물질을 활용하면 내성과 전이를 줄일 수 있고 기존 항암제와 병행 치료하거나 단독 사용할 수 있어 간암, 유방암 등의 치료율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br/>이 물질이 글로벌 항암신약으로 개발되면 약 84조원(2013년 기준) 규모의 세계 항암제 시장에서 일정 지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br/>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357.txt

제목: [안웅식의 빛으로 치료하는 암] 1903년 피부종양에 첫 광역학 치료  
날짜: 201405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520100000023  
ID: 01100201.20140520100000023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광역학 치료의 역사 [하]<br/>지난 1960년 립슨(Lipson) 등은 헤마토포르피린 염화물을 염산과 황산으로 처리함으로써 헤마토포르피린 유도체(HpD)가 얻어짐을 보고했다. 이와 같은 헤마토포르피린 유도체 개발은 오늘날 광역학치료의 기초가 됐다. 빛과 화학물질이 상호 작용해 세포를 죽인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이다. 이러한 현상은 당시 뮌헨에서 헤르만 본 타페이너(Herman von Tappeiner) 교수와 함께 있던 오스카 라브(Oscar Raab)라는 의과대학생에 의해 처음 보고됐다. 본 타페이너 교수의 최초 관심사는 말라리아 치료에 퀴닌이 효과적인 데 비해 또 다른 화학물질인 아크리딘(콜타르에서 얻은 물감성분)이 체외(in vitro)에서는 좀 더 독성이 있고, 체내(in vivo)에서는 효과적이지 못한 것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었다. 오스카는 이러한 아크리딘 색소의 효과에 대한 실험을 수행하고 있던 중에 광역학 반응(photodynamic reation)을 처음으로 관찰했다.<br/>아크리딘 색소를 희석해 60분에서 100분간 노출시키면 짚신벌레가 모두 죽는 것이 관찰됐으나, 다음 실험에서 800분에서 1000분간이나 길게 노출시켜도 짚신벌레가 살아있는 모순을 발견했다. 두 실험에서의 차이는 단지 한쪽 실험만 심한 천둥이 쳤던 날에 했다는 사실이었으며, 차이는 빛의 조건이 다르다는 것이었다. 오스카는 다시 실험을 통해 빛 없이 색소만 주거나, 색소 없이 빛만 노출시킨 짚신벌레들은 살아 있었으나, 색소와 함께 빛에 노출시킨 짚신벌레는 죽는 현상을 관찰했다. 오스카는 빛 자체가 아닌 빛에 의한 형광작용으로 아크리딘 색소로부터 어떤 물질이 생성돼 세포독성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아냈다. 이러한 효과는 빛으로부터 화학물질에 에너지가 전달돼 세포독성 효과가 발행한다고 가정했다. 이후 본 타페이너 교수는 의학에 있어서 형광물질을 이용한 치료가 미래에 잠재적으로 충분히 응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br/>최초로 광과민물질을 인체에 투여해 보고한 사람은 1900년 프랑스 신경과 의사인 프림(Prime)이다. 그는 간질환자에게 에오신이라는 염색약을 경구로 투여해 질병을 치료하고자 했다. 하지만 이러한 치료를 한 뒤에 햇빛에 노출되는 부위에 피부염이 발행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 발견으로 형광물질과 빛이 서로 상호 작용한다는 사실을 확인함으로써, 1903년 본 타페이너와 피부과 의사인 지쇼넥(Jesionek)은 피부종양에 에오신을 바르고 빛을 조사하면 종양에 반응이 나타남을 관찰하고 의학적으로는 처음으로 치료에 사용했다. 1904년 조드바우어(Jodlbauer)와 타페이너는 이러한 광과민 반응에 산소가 필수적임을 증명했고, 1907년 이러한 현상을 산소 의존성 광감작 현상으로 설명하고 광역학치료(photodynamic therapy)라는 용어를 만들었다. 타페이너는 1900년도 초기에 광감작제를 광역학 치료에 응용함으로써, 광역학치료의 초기에 가장 중요한 인물이 됐고, 이를 이용해 종양 치료를 가장 처음 시도한 사람이 됐다.<br/>이러한 연구들에 의해 광역학 치료의 유효성과 안전성이 확인됐다. 또한 폐암 초기 중심부 편평상피암종에 대한 굴곡성 기관지경 광역학 치료가 1980년 연구자들에 의해 세계에서 처음 시행됐으며, 이러한 시술을 통해 완전한 치료가 이뤄진 것이 보고됐다. 이후로 광역학 치료는 의료인들의 많은 관심을 받아 발전하게 된다. 방광암과 피부 종양 치료에 헤마토포르피린 유도체를 이용한 임상 시험이 시작됐고, 이러한 연구의 성공에 힘입어 점차 다양한 암과 광과민제 관련 시험이 이어졌다.<br/>국제광역학학회 회장 (원광대 산부인과 교수)<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358.txt

제목: [암과의 동행] 고주파온열치료 ‘제4의 암치료’ 각광  
날짜: 20140520  
기자: 송병기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520100000029  
ID: 01100201.20140520100000029  
카테고리: 사회  
본문: 최근 제4의 항암치료로 주목을 받고 있는 ‘고주파온열암치료’. 온열암치료는 암 치료의 기본인 수술, 항암제, 방사선 치료의 보조적인 요법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 대한온열암치료연구회(회장 정태식·고신대복음병원 방사선종양학과 교수)가 지난 2010년 6월 설립돼 국제학술대회 등을 통해 다양한 학술, 연구를 주도하고 있다. 이 연구회는 온열암치료의 체계적인 연구와 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100여개 대학병원 및 전문병원의 의료진 500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br/>온열암치료가 주목을 받는 것은 다양한 암종과 암치료에 따른 환자 부작용이 적다는 장점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온열치료는 환자에게 고주파를 투과해 전기장에 의해 체내에 열을 발생시켜 종양으로 공급되는 영양분을 차단하는 원리로, 암세포가 일반세포보다 열에 더 민감하다는 점을 이용해 세포 주변 온도를 42도가량으로 높여 암세포를 사멸시키는 치료법이다. 또 최신 고주파 온열암치료시스템의 첨단 핵심기능을 활용해 암 조직에만 에너지를 집중시켜 치료효과를 높일 수 있다. 조태형 고대안암병원 신경외과 교수는 “항암제를 투여 받고 있거나, 방사선 치료를 진행 중인 환자는 물론이고 암이 재발됐거나 다른 장기로 전이돼 치료가 곤란한 환자에게도 효과적이다. 기존 항암요법이나 방사선 치료와 병행시 보다 효과적인 치료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br/>고주파온열암치료기(Oncothermia)는 지난 2007년 하스피가 국내에 처음 소개했다. 이 장비(온코써미아 EHY-2000)는 암 발생 부위 또는 전이 부위에 13.56MHz의 고주파를 통과시켜 암세포만을 선택적으로 자연사(Apoptosis) 또는 괴사(Necrosis)시킨다. 또한 선택적으로 암 조직에만 에너지를 가해 암 조직에 열을 발생시키는 방식의 이 치료기기는 생체 대사율을 증가시켜 암세포에 산소 공급을 막고 암세포 증식을 억제해 암세포를 파괴한다. 현재 강남세브란스병원과 분당차병원, 이대목동병원, 고신대복음병원, 유성선병원, 제주중앙병원 등에서 운영 중이다.<br/>송병기 쿠키뉴스 기자<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359.txt

제목: [암과의 동행] 유방암·치매 예방 만능식품… “카레, 너 대단하다！”  
날짜: 20140520  
기자: 조규봉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520100000032  
ID: 01100201.20140520100000032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주원료 강황 속 커큐민의 효과<br/>카레를 자주 먹으면 유방암 예방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br/>전용순 가천대 길병원 외과(유방클리닉) 교수는 최근 오뚜기 후원으로 열린 ‘제4회 카레 및 향신료 국제심포지엄’에서 “<span class='quot0'>카레의 주성분인 커큐민과 함께 커큐민을 체내에서 흡수가 잘되도록 나노입자 형태로 변형한 ‘나노커큐민’을 유방암에 걸린 실험쥐의 유관에 주입한 결과, 탁월한 유방암 예방효과를 보였다</span>”고 발표했다.<br/>연자로 참석한 이재원 교수(부산대)도 “<span class='quot1'>향신료인 커큐민은 산화적인 스트레스와 염증과 관련된 질병의 치료에 사용돼 왔다</span>”며 “<span class='quot1'>마우스 신경줄기 세포(Neural progenitor cells)와 성인해마신경발생에서의 커큐민의 기능을 실험해 본 결과, 낮은 농도에서도 세포 성장에 도움을 줬다</span>”고 연구결과를 전했다.<br/>외국에서도 카레의 항암효과에 대한 비밀이 속속 소개되고 있다. 미국 과학논문소개사이트 유레칼러트(www.eurekalert.org)는 카레의 비밀에 대해 소개했다. 유레칼러트에 따르면 카레의 주원료인 강황에 들어있는 커큐민과 여러 가지 향신료에 든 성분이 항암·항산화 효과를 보이고 치매 예방에도 도움을 준다. 또 카레는 암 예방 외에도 식욕 증진, 면역력 증가 등의 특징을 지닌 것으로 알려져 있다.<br/>이처럼 연구와 논문에서도 잘 알려졌듯 카레 특유의 노란색은 ‘강황’에서 나오는 천연색으로 노화방지와 치매예방은 물론 항암효과까지 있다. 남녀노소 사시사철 카레가 메인 요리로 사랑받는 이유다.<br/>‘카레’의 대명사가 된 브랜드는 ‘오뚜기 카레’다. 1940년경 국내에 처음 소개된 카레는 70년대 오뚜기에 의해 대중화됐다.<br/>오뚜기 카레는 오뚜기가 회사설립과 함께 1969년 국내 최초로 생산했다. 오뚜기는 당시 우리 국민의 주식이 쌀인데다 매운 맛을 즐기는 기호와 딱 맞아떨어지는 제품이라고 판단했다.<br/>오뚜기 카레가 생산된 1969년 국내 시장에는 일본의 ‘S&B’와 ‘하우스 인도카레’ 등의 제품이 있었다. 이미 외국산이 점령하고 있던 국내 카레 시장이었지만 오뚜기는 카레 시장 석권을 목표로 철저한 품질관리와 공격적인 영업 전략으로 1년 뒤에 경쟁사를 압도하며 시장점유율을 높여갈 수 있었다고 한다. 여기에는 국내 식품업계 최초의 △루트 세일(Route Sale) 도입 △유통 질서 확립 △방송·차량·제품 박스 등을 활용한 다양한 광고와 마케팅 활동이 주효했다.<br/>출시 초기 분말(가루) 형태로 선보인 오뚜기 카레는 시대의 변화와 함께 그 형태도 다양화돼 1981년 ‘3분 요리’란 브랜드로 레토르트 카레를 선보이기도 한다. 오뚜기의 ‘3분 요리’는 출시하자마자 소비자들의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켜, 출시 첫해에만 400만개를 웃도는 매출을 기록했다.<br/>즉석에서 카레의 맛을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데다 순한맛, 매운맛, 약간 매운맛 등으로 기호에 따라 다양한 맛을 즐길 수 있는 장점이 소비자들에게 철저히 인식된 결과였다.<br/>2000년대 초반부터 여러 연구결과를 통해 카레의 효능이 밝혀지고 있었다. 2006년 삼성서울병원에서 발표한 카레의 전립선암 억제 효과 등이 소개되면서 카레시장은 현재까지 큰 폭의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br/>조규봉 쿠키뉴스 기자 ckb@kukimedia.co.k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360.txt

제목: [김동욱 교수의 백혈병 이야기] 美 연수서 다양한 유전자 분석기술 습득  
날짜: 201405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520100000025  
ID: 01100201.20140520100000025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한국에서 최초로 시행한 비혈연간 이식을 보다 체계적으로 연구하고자 조혈모세포 이식 분야에 명성이 높았던 미국 프레드허친슨 암연구센터(FHCRC)에서 1997년 6월부터 교환교수로 연수를 시작했다. 프레드허친슨 암연구센터는 세계 최초의 조혈모세포 이식 성공으로 1990년 노벨생리의학상을 수상한 도널 토마스 교수가 연구 활동을 하던 민간 연구소다. 이곳은 시애틀의 기업과 시민들이 암 예방 및 퇴치 연구 성금을 조성해 1975년에 정식으로 설립한 백혈병과 조혈모세포 이식 연구를 선도하는 암 연구소다.<br/>동물을 이용한 새로운 조혈모세포 이식 기술을 연구하고자 했던 나의 바람과는 달리 멘토였던 앤 울프리 교수는 비혈연간 이식의 성공을 좌우하는 인간백혈구항원(human leukocyte antigen, HLA)이 혈액세포에서 어떻게 발현하는지를 연구하도록 지도했다. 한국에서 이미 활용하고 있던 분자생물학 진단 기술을 확대해 HLA 유전자 전사 과정에 대한 기초 연구를 하며, 다양한 유전자 분석기술을 공부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br/>당시 연구소에서는 이식을 통한 이식편의 ‘면역관용’(면역반응을 일으키는 물질에 인체가 반응하지 않도록 해 면역억제제 투여 없이 생존이 가능한 상태) 현상에 대한 임상 적용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연구를 통해 항암제 강도는 줄이면서 면역 억제력을 증강시켜, 항암제로 인한 합병증이 많이 발생하는 고령환자나 이식이 어려운 환자에게 이식 후 합병증을 줄여 이식 성공률을 높이고자 하는 ‘미니이식’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었다. 나아가 간경변이나 만성신장병 환자에게 미니이식을 시행한 후에 면역관용 현상을 유도한 후, 공여자의 장기를 이식해 면역억제제의 복용 없이 이식된 장기를 평생 안정적으로 생착시키는 다장기이식 연구가 동물실험을 통해 진행되고 있었다.<br/>치료 기술의 개발과 함께 백혈병의 진단 기술에서도 주목할 만한 발전이 있었다. 1990년대 초에는 형광 물질의 방사 파장의 차이를 이용해 유전자의 양을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측정하는 ‘실시간정량적중합효소연쇄반응법(RQ-PCR)’이 개발되고 있었다.<br/>필자는 백혈병 관련 유전자의 양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새로운 진단기술이 향후 만성골수성백혈병의 진단과 치료 평가에 중요하게 활용될 것으로 예상했다. 1999년 5월에 실험기기를 개발한 회사가 개최한 제1차 RQ-PCR 실험 워크숍에 참여해 그 원리와 실험 기법을 직접 익힐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미국에서의 연구를 계속하기를 원했으나 조기 귀국을 종용하는 스승 김춘추 교수님의 요청으로 RQ-PCR 실험 장비인 iCycler를 구입해 주실 것을 귀국 조건으로 제시했다. 이 제안이 받아들여져 귀국 직후 곧바로 본격적인 실험에 착수해 그해 12월 국내 최초의 RQ-PCR 기법을 정착시켰다.<br/>미국에서의 연수는 나에게 다양한 분자생물학 실험기법을 터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도 했지만 그와 동시에 연구소 운영, 연구비 집행, 연구 결과의 진실성 및 저자의 자격에 대한 미국 의학계의 엄격한 연구 윤리를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특히 미국에서는 연구 저자의 자격요건이 엄격하다. 이는 연구를 설계하거나 실험을 직접 수행한 경우, 결과의 분석에 참여한 경우, 직접 논문을 작성한 경우에만 저자로서 인정될 수 있다. 이 기간 중 시간을 내어 읽었던 ‘서바이벌(Survivor)’은 상당히 인상 깊었다. 내용에는 만성골수성백혈병으로 진단된 월스트리트 저널의 여자 기자가 미국을 대표하는 뉴욕, 휴스턴, 시애틀의 최고의 백혈병 치료 병원을 방문해 직접 의사들을 만나 상담하면서 자신의 백혈병 치료를 위한 최고의 주치의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느낀 많은 감정들을 상세하게 표현하고 있어 나에게도 백혈병 전문가로서의 자세에 대한 많은 교훈을 안겨 주었다.<b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361.txt

제목: 췌장암, 옻나무 추출물 활용한 한방암치료로 생존기간 늘려  
날짜: 20140520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520100000261  
ID: 01100201.20140520100000261  
카테고리: 사회  
본문: [쿠키 건강] 국가암센터 자료에 따르면 췌장암의 5년 생존율은 10%에 채 미치지 못한다. 이는 20년 전과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다른 암에 비해 치료기술의 발전 역시 더딘 암종으로 여겨진다.<br/><br/>이처럼 췌장암의 치료가 어려운 것은 조기 진단이 어려우며, 이로 인해 수술이 가능한 시기에 발견하기도 어렵고, 췌장암에 확실한 효과를 보여주는 항암제가 아직까지 없다는 측면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br/><br/>70대 남성 이모씨는 황달 증상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췌장암 진단을 받았다. 이씨는 췌장 체부의 종양이 복부의 여러 동맥에까지 전이되었으며, 수술이 가능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듣고 항암치료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심한 부작용에 비해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이내 치료를 중지했다.<br/><br/>췌장암 환자의 상당수는 이씨처럼 더 이상의 병원치료를 받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 여타 암의 경우 암을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더라도 암이 자라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의 항암치료가 비교적 유효한 반면, 췌장암의 경우 아직까지 효과적이라고 알려진 항암제가 드물다.<br/><br/>이씨는 병원치료를 중지한 이후 옻나무 추출물을 활용한 한방암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이씨는 병원치료를 중지하고 1년 이상 종양이 성장하지 않은 채 생존하고 있다.<br/><br/>박상채 하나통합한의원 원장은 “<span class='quot0'>췌장암 환자 중에는 이씨처럼 항암치료를 통한 이득보다 부작용으로 인한 손실이 더 큰 경우가 흔하다</span>”며 “<span class='quot0'>그동안 한방암치료는 항암부작용완화에 초점을 맞춘 한방병행치료에만 초점을 맞춰진 경향이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한방암치료 단독으로 접근하는 것이 최선일 수도 있다</span>”고 말했다.<br/><br/>치종단, 치종탕, 넥시아 등 옻나무 추출물을 활용한 한방암치료는 더 이상 낯설기만한 개념은 아니다. 90년대에 이미 이런 개념이 소개됐으며, 현재까지도 이런 치료를 통해 폐암, 위암, 대장암 등에서도 완치 혹은 장기생존을 이루어낸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는 옻나무 추출물이 실질적인 항암효과도 가진다는 연구들이 나오고 있다.<br/><br/>하나통합한의원 김보근 원장은 SCI(E)급 국제 학술지(BMC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_에 게재가 확정된 논문을 통해, 옻나무 추출물을 활용한 한방치료제 치종단Ⅱ(일명 티버스터)의 천연물 항암제로써의 가능성을 확인했다.<br/><br/>김보근 원장은 “<span class='quot1'>치종단Ⅱ(일명 티버스터)가 caspase 단백질 활성과 ribosome 생성관여 단백질을 억제하여 자연사멸을 유도하는 기전을 통해 항암작용을 보인다</span>”고 밝혔다.<br/><br/>이러한 연구결과는 항암부작용으로 인한 손실이 치료효과보다 클 수 있는 췌장암, 담도암 등의 환자들이 시도할 수 있는 새로운 치료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결과로 보인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362.txt

제목: [암과의 동행] ‘천연항암제’ 인기 후코이단, 두 가지 꼭 따져야  
날짜: 20140520  
기자: 이영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520100000027  
ID: 01100201.20140520100000027  
카테고리: 경제>산업\_기업  
본문: 최근 천연항암제로 일컬어지는 후코이단이 화제를 모으면서 후코이단의 품질기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갈조류의 생리활성 물질인 후코이단은 △암세포를 자살시키는 아포토시스 유도기능 △종양의 성장을 억제하는 혈관신생 억제기능 △면역력 증강기능 △암의 전이를 억제하는 기능 등 다양한 항암작용이 밝혀져 천연항암제로도 불린다.<br/>그러나 미역귀, 다시마, 모즈쿠(큰실말) 등 후코이단을 추출할 수 있는 갈조류의 종류가 다양하고 한국, 일본, 중국, 미국 등에서 다양한 후코이단이 나오기 때문에 좋은 제품을 고르기가 쉽지만은 않다. 전문가들은 다양한 후코이단 제품이 있는 만큼 선택이 쉽지는 않지만, 크게 두 가지만 기억하면 나에게 딱 맞는 좋은 후코이단을 고를 수 있다고 설명한다.<br/>첫 번째는 황산기의 함량을 보는 것이다. 후코이단은 후코스, 자일로스 등 다당류 성분에 황산기가 붙어 있는 분자구조를 가진다. 다시 말해 황산기가 있으면 후코이단이고 없으면 단순한 다당 성분이라는 것. 따라서 황산기 함량이 적을 경우 후코이단이 아닌 다당류 성분이 더 많을 가능성이 크다.<br/>놀라운 것은 국내산 미역귀에서 뽑은 후코이단의 황산기 함량이 30% 안팎으로, 모즈쿠에서 뽑은 일본 후코이단에 비해 두 배 이상 높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국산 미역귀로 추출한 후코이단을 먹는 것이 다른 후코이단을 먹는 것보다 더 좋은 품질을 기대할 수 있다.<br/>두 번째는 고형분 기준으로 얼마나 많은 후코이단이 함유됐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많은 업체들이 후코이단 함량을 %로 표시하고 있는데, % 표시는 상대적이기 때문이 이 표시만 보고 후코이단을 선택하면 자칫 함량이 떨어지는 제품을 고를 수 있다. 따라서 후코이단을 고르기 전, 후코이단 고형분(100% 후코이단)을 기준으로 얼마나 많은 양이 들어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br/>2005년 국가지원으로 설립된 해림후코이단의 이정식 사장은 “<span class='quot0'>후코이단의 황산기는 사실상 후코이단의 품질과 기능을 가늠하는 척도로 사용된다</span>”며 “<span class='quot0'>미역귀에서 추출한 국산 후코이단은 보통 30% 내외, 아무리 적어도 25%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반면 일본 모즈쿠 후코이단은 16% 정도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많은 차이가 있다</span>”고 밝혔다. 또 “좋은 후코이단을 고르는 첫 번째 기준이 황산기 함량인 만큼 기왕이면 국산 미역귀에서 뽑은 국산 후코이단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br/>이영수 쿠키뉴스 기자 juny@kukimedia.co.k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363.txt

제목: [암과의 동행] 종근당, 감기약 ‘모드콜플루’ 2종 출시  
날짜: 20140520  
기자: 이영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520100000028  
ID: 01100201.20140520100000028  
카테고리: 경제>유통  
본문: 종근당은 기침감기와 코감기에 효과적인 ‘모드콜플루 코프’(사진)와 ‘모드콜플루 노즈’를 출시했다.<br/>두 제품은 해열진통 효과가 있는 아세트아미노펜을 공통으로 함유하고 있다. 여기에 모드콜플루 코프는 기침을 억제하는 중추성 진해제와 가래를 제거하는 거담제, 기관지를 확장시켜주는 성분을 함유해 기침감기에 탁월한 효과를 보인다. 모드콜플루 노즈는 콧물 등으로 막힌 코의 염증을 가라앉혀주는 비충혈제거제와 알러지 반응을 억제해주는 항히스타민제를 복합 처방해 코감기에 효과적이다.<br/>종근당은 이미 주야간 시간대별로 복용할 수 있는 모드콜플루 올데이와 나이트 2종으로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은바 있다. 이번에 증상별 치료에 적합한 모드콜플루 코프와 노즈의 출시로 감기약 4종의 라인업을 갖추게 됐다.<br/>모드콜플루 시리즈는 물에 타서 복용하므로 흡수가 빠르고 위장관계 부작용이 적으며 감기 회복에 필요한 수분을 동시에 보충할 수 있다. 또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와 시각적 이해를 돕기 위한 픽토그램을 적용해 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br/>종근당 관계자는 “<span class='quot0'>모드콜플루는 다양한 시간대와 증상에 맞춰 복용이 가능한 차별화된 감기약</span>”이라며 “<span class='quot0'>복잡한 감기 증상을 앓고 있는 소비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span>”고 말했다. 이 제품은 일반의약품으로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다.<br/>이영수 쿠키뉴스 기자<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364.txt

제목: 씨 없는 ‘꿀 수박’ 유건열씨 , 국내 최고 당도 제품 인증 받아  
날짜: 20140520  
기자: 김재산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520100000091  
ID: 01100201.20140520100000091  
카테고리: IT\_과학>IT\_과학일반  
본문: “<span class='quot0'>대한민국 최고의 수박을 생산한다는 자부심으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span>”<br/>경북 고령군 다산면 유건열(67·목화농장 대표)씨의 ‘씨 없는 수박’이 국내 최고의 당도를 가진 수박으로 인증을 받았다.<br/>유씨는 지난달 한국기록원에 ‘최고 당도 수박 대한민국 최고기록’ 도전장을 낸 뒤 최근 자신의 농장에서 현장점검을 가졌다. 현장점검은 한국기록원과 경북도농업기술원 관계자, 농촌진흥청 수박 전문가 등 30여명의 조사관들이 참가한 가운데 실시됐다.<br/>이들은 수박 10개에 대해 당도 및 크기, 색깔, 무게 등을 점검했고 이 가운데 9개의 당도가 16브릭스(brix)를 기록, 국내 최고 당도의 수박으로 인증을 받게 됐다.<br/>일반 수박의 당도가 평균 12∼13브릭스인데 유씨 수박은 이보다 훨씬 더 높게 나온 것이다. 50년째 수박 재배를 해오면서 20년 전부터 씨 없는 수박을 연구해 온 유씨는 6000여㎡ 농장 하우스 11동에서 수박을 재배한다.<br/>처음 재배할 당시엔 수정 후 1주일에서 10일 사이에 수박 껍질이 갈라지고 당도 역시 10브릭스도 채 나오지 않는 등 실패를 거듭했다.<br/>이후 유씨는 당도를 높이기 위해 종자가 먹고 자라야 할 영양분을 과육으로 축적해 최고의 당도와 맛을 내는 데 성공했다. 특히 수박 내에 있는 ‘리코펜’(수박 내 붉은 부분)의 치밀도와 양을 높이는 데도 성공했다.<br/>리코펜은 미국 암연구소와 하버드대학으로부터 암 예방과 노화방지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유씨 수박은 토마토에 비해 리코펜이 3배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br/>이호 고령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은 “<span class='quot1'>유씨의 씨 없는 수박은 최고 당도와 재배 안정성까지 갖췄다</span>”고 평가했다.<br/>고령=김재산 기자 jskimib@kmib.co.k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365.txt

제목: [암과의 동행] 만성골수성백혈병과 치료제… 만성기→ 급성기 진행 차단하기  
날짜: 20140520  
기자: 송병기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520100000022  
ID: 01100201.20140520100000022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백혈병은 혈액을 만드는 조혈모세포 유전자에 이상이 나타나, 이상 세포가 죽지 않고 끊임없이 늘어 나는 혈액암 중 하나다. 백혈병은 임상경과 또는 검사소견에 따라 급성백혈병과 만성백혈병으로 나뉘고, 발병 위치에 따라 골수성백혈병과 림프구성백혈병으로 분류된다. 급성백혈병은 골수이식을 받지 않으면 대부분 1년 내에 90%가 사망하는 치명적인 질환이지만, 만성골수성백혈병(CML, Chronic Myeloid Leukemia)은 급성백혈병과 달리 초기 진단 후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으며 잘 관리하면 충분히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만성골수성백혈병은 전체 성인 백혈병의 약 25%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구 10만명 중 1∼2명에서 발병하고, 30∼50세에서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성인형 백혈병으로 불리기도 한다. 만성백혈병 치료의 핵심은 만성기에서 급성기로의 진행을 최대한 막는 것이고 이를 위해 발병 초기부터 올바른 치료법을 선택해 꾸준히 관리해야 한다.<br/>CML 치료에서 임상적으로 완치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치료는 조혈모세포 이식이다. 만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는 1950년대 이후에 부설판과 하이드레아 경구 항암제가 급격히 증가하는 혈구수의 조절을 위해 사용됐고, 1980년대 초에 인터페론이 개발돼 이식을 시행할 수 없는 환자에게 생존 기간을 연장시키는 치료약물로 사용됐다. 이후 2000년 들어서면서 표적항암제 글리벡이 개발됐다. 2000년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촉진기, 급성기 및 인터페론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만성기 환자에 대해 사용이 승인됐고, 2003년 3월부터는 국내에서도 만성백혈병의 전병기 환자에 건강보험이 승인된 치료제이다. 하지만 결합부위의 구조적 이상으로 글리벡 내성이 발생하는 경우가 나타나면서, 2세대 타이로신 활성효소 억제제인 표적항암제들이 개발돼 출시됐다. 대표적인 약물이 국내 기술로 개발된 슈펙트와 스프라이셀, 타시그나 등이다. 1세대 치료제에 내성이 온 환자나 1세대 치료제가 결합이 잘 안 되는 환자에게 투여되는 약물이다. 이 외에 만성기 2차 이후 치료로는 선행요법 실패 환자를 대상으로 한 보술립, 이클루시그 등이 있다. 18호 국산 신약인 슈펙트는 아시아 첫 번째, 세계에서 네 번째 CML치료제로 개발됐다. 슈펙트는 현재 40mg 1일 2회 요법으로 선행요법 실패 환자에 투여 가능하고, 현재 3상 임상시험을 진행 중에 있으며 2015년 하반기 1차 약제로 승인될 경우 비용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의학계의 견해이다.<br/>송병기 쿠키뉴스 기자 songbk@kukimedia.co.k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366.txt

제목: "면역조절항암제, 암 환자 치료의 새로운 열쇠"  
날짜: 2014051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519100000172  
ID: 01100201.20140519100000172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서울의대 김동완 교수, PD-1/PD-L1 단일클론항체의 유용성 발표<br/><br/>[쿠키 건강] 암정복을 향한 끊임없는 도전이 시도되는 가운데 면역치료법이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br/><br/>서울의대 김동완 교수(서울대병원 종양내과)는 지난 16일 한국임상암학회 제12차 정기심포지엄에서 "암의 면역치료는 꾸준히 연구돼 왔고, 일부 환자에서 효과가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독성에 대한 우려로 인해 임상에서 적극 활용되지 못했다"면서 "최근 종양면역학의 발달로 CTLA-4, PD-1 등을 타깃으로 한 면역조절항암제가 각광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br/><br/>면역조절항암제란 T-세포가 암세포를 감지해 공격하는 과정을 방해하는 체크포인트(checkpoint)를 차단하는 기술을 의미한다.<br/><br/>지난 2010년 항CTLA-4 단일클론항체인 이필리무맵(ipilimumab)이 전이성 흑색종 환자에서 생존율을 개선시켰다는 연구 결과가 NEJM에 발표되면서 주목을 받았고, 이어 2011년에는 다카바진과의 병용 효과가 확인됐다. PD-1 역시 종양세포나 기질세포에 발현되는 리간드인 PD-L1 및 PD-L2와 결합되면 면역억제가 일어나는 것으로 보고되면서 이를 억제하는 단일클론항체가 종양에 대한 면역반응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br/><br/>2012년에는 항PD-1 단일클론항체인 니볼루맵(nivolumab, BMS-936558)이 비소세포폐암, 흑색종, 신장암 환자에서 18~28%의 종양반응을 보였다는 1상 임상 결과(NEJM 2012;366:2443-54)와 함께 항PD-L1 단일클론항체인 BMS-936559에 대한 데이터도 발표됐다(NEJM 2012;366:2455-65).<br/><br/>최근에는 흑색종 환자에서 람브롤리주맵(lambrolizumab, MK-3475)이 38%의 종양반응을 보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고(NEJM 2013;369:134-44), 이필리무맵과 니볼루맵을 병행할 경우 각각의 단일치료보다 뛰어난 반응을 보일 수 있음이 시사됐다(NEJM 2013;369:122-33).<br/><br/>김 교수는 "이러한 고무적인 치료반응에 힘입어 현재 비소세포폐암을 포함해 다양한 종양을 대상으로 PD-1 및 PD-L1 단일클론항체들의 임상시험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다만 이들이 표준치료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치료반응을 예측할 수 있는 바이오마커와 적절한 반응평가 기준이 개발돼야 한다"고 말했다.<br/><br/>또한 "현재 흑색종, 폐암에 국한돼 있어 이외에 PD-1/PD-L1 단일클론항체에 반응을 보이는 암종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고, 기존의 다른 항암제와의 병용 효과를 확인함으로써 적응증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칼업저버 안경진 기자 kjahn@monews.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367.txt

제목: 남극서 신종 바이러스 발견… 송진원 고대 교수팀 또 ‘세계최초’  
날짜: 20140519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519100000220  
ID: 01100201.20140519100000220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쿠키 과학] 국내 연구진이 남극에 서식하는 펭귄으로부터 신종 아데노바이러스를 세계 최초로 발견했다.<br/>고려대 의대는 미생물학교실 송진원(50·사진) 교수팀이 극지연구소(소장 김예동) 과학자들과 공동으로 남극 세종기지 펭귄 마을 일대에서 채집된 턱끈 펭귄(Chinstrap penguin)에서 신종 아데노바이러스를 분리하는데 성공했다고 19일 밝혔다.<br/>연구결과는 바이러스 전문 학술지 ‘바이러시스(Virueses)’ 최신호에 게재됐다.<br/>이 바이러스는 송 교수팀이 과거 남극 도둑 갈매기로부터 처음 분리한 아데노바이러스와도 유전적으로 상당히 다른 족속이다.<br/>턱끈 펭귄은 남극 및 아 남극권에만 서식하는 조류지다. 따라서 이번에 발견된 턱끈 펭귄 아데노바이러스 역시 극지에 서식하는 다른 조류를 통해 전파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br/>송진원 교수는 “<span class='quot0'>바이러스 유전자분석 실험결과 턱끈 펭귄 아데노바이러스는 전신감염 증상을 보이는 다른 조류의 여러 장기에서 발견되는 바이러스 종과 유전학적으로 비슷한 특성을 보였다</span>”며 “<span class='quot0'>앞으로 이 바이러스가 ‘조류독감’처럼 사람에게도 질병을 옮길 수 있는지 더 알아볼 계획</span>”이라고 말했다.<br/>아데노바이러스는 실제로 사람에게 호흡기감염, 폐렴, 유행성 각결막염, 장염 등을 일으키며 동물에서는 암을 유발하기도 한다.<br/>송 교수는 신종 한타바이러스인 ‘임진바이러스’를 발견한 업적으로 지난 2011년 대한민국학술원상을 수상하기도 한 바이러스 연구 권위자다.<br/>국민일보 쿠키뉴스 이기수 의학전문기자 kslee@kmib.co.kr<br/><br/>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 국민일보 쿠키뉴스(www.kuki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368.txt

제목: HDA, 3차원 방사선 흡수선량 검증 스캐너 ‘P3DS’ 특허 출원  
날짜: 20140519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519100000196  
ID: 01100201.20140519100000196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쿠키 건강] 의료기기 생산기업 업체 HDX(대표이사 정학진)는 고려대 안암병원 방사선종양학과와 함께 국내 기술로 개발한 3D(3차원) 방사선 흡수선량 검증용 영상 스캐너를 개발했다고 최근 밝혔다.<br/><br/>현재 이 제품은 국내 특허출원(10-2013-0111070)을 마치고 국제 특허출원을 진행중이다.<br/><br/>3차원 방사선량 검증을 위한 환자기반의 3차원 선량검증 광학스캐너(P3DS, Patient based 3 Dimensional Dose Evaluation Optical-CT Scanner)는 암 환자들의 안전한 방사선치료를 목적으로 개발됐다.<br/><br/>이 제품은 고려대 안암병원 방사선종양학과 김철용 교수 연구팀(이석 교수·장경환 박사)에 의해 고안됐으며, HDX의 WILL 제조기술로 상용화됐다.<br/><br/>HDX 측은 “이 제품은 환자의 안전과 임상적 활용가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인체로 조사되는 실제 흡수선량을 신속하게 측정할 수 있도록 최단 스캔시간(최소 12초)과 재구성시간(최소 5초)을 구현한 점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br/><br/>악성 또는 양성 종양의 방사선치료는 종양의 위치, 크기와 주변 정상장기와 조직들을 고려해 계획된 총 방사선흡수선량을 조사했을 때 각각의 종양과 주변 정상조직들에 얼마만큼 방사선량을 받는 지 확인한 후에 방사선치료계획에 맞춰 치료를 시행한다. 하지만, 이렇게 확인된 흡수선량은 미리 입력된 프로그램의 수치와 2차원의 선량검증에 따른 것이므로, 방사선흡수선량이 실제로는 다를 수 있다.<br/><br/>이렇게 방사선치료계획 시 미리 설정된 방사선흡수선량과 실제 흡수선량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 치료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빠른 3차원 선량 측정이 필요하다.<br/><br/>이를 위해 개발된 ‘P3DS’는 임상에서 누구나 쉽게 사용이 가능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3차원 선량계인 겔 선량계에서 얻어지는 3차원 스캔데이터를 빠르게 얻어 3차원 방사선흡수선량을 검증함으로써 기존의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다.<br/><br/>최초 빛을 조사하는 광원부로부터 빛을 조사해 겔 선량계(Gel detector)에서 조사된 빛을 수신하고 빛의 양을 조절하기 위해 콜리메터로 투과시킨다. 콜리메이터를 통과한 빛은 연속 촬영을 통해 검출기의 방사선 흡수선량을3차원 재구성영상으로 생성하는 원리이다.<br/><br/>고려대 안암병원 방사선종양학과 공동 연구팀은 “P3DS에 적용된 특허기술은 치료의 효율을 높이고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의료사고를 낮추기 위해 필수적인 최첨단 기술”이라며 “임상에서의 활용성 측면에서 표준모델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br/><br/>한편, P3DS는 지난 2013 ASTRO 전시회에서 동남아, 유럽, 북남미 등 세계 각국의 상공인과 방사치료 관련 박사들의 관심이 주목된 바 있다. 또한 HDX와 고려대학교 산학협력팀은 제품 편의성과 SW연동성 등을 극대화해 본격적인 판매에 나서며, 국내 학회는 물론 올해 9월에 열리는 2014 ASTRO에서도 제품을 선보여 적극적인 해외 시장 진출에 나설 예정이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369.txt

제목: [사이언스 토크] 반물질과 반사랑  
날짜: 201405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517100000029  
ID: 01100201.20140517100000029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세상에서 가장 비싼 물질은 뭘까. 다이아몬드가 그 주인공일 것 같지만 실상은 좀 다르다. 2011년 미국의 경제 전문매체인 인사이더에 의하면 다이아몬드는 g당 5만5000달러로 3위였다. 2위는 암 치료제인 ‘캘리포늄’으로 g당 2700만 달러, 1위는 g당 무려 62조5000억 달러의 가격이 매겨진 ‘반물질’이 차지했다.<br/>반물질은 쉽게 말하면 물질과 반대되는 개념의 물질이다. 즉, 물질과 질량이나 크기 등은 똑같지만 전기적 성질만 다르다. 물질의 기본 단위 원자는 플러스 성질의 양성자와 마이너스 성질의 전자, 중립인 중성자로 구성됐다. 이에 반해 반물질은 마이너스 성질의 반양성자와 플러스 성질의 양전자, 중성자와 자기 흐름의 방향이 다른 반중성자로 구성된다.<br/>반물질이 비싼 까닭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반물질이 없는 물질로만 구성돼 있기 때문이다. 우주 탄생 이론에 의하면 최초의 빅뱅 직후 물질과 반물질이 똑같은 양으로 생성됐지만 그 균형이 깨지면서 순식간에 반물질이 홀연히 사라졌다. 우주를 이루는 물리 법칙이 물질만 편애한 것이다. 반물질이 사라진 이유는 현대 과학의 가장 중요한 미스터리 중 하나다. 때문에 마치 도플갱어처럼 반물질만으로 이루어진 반은하와 반우주가 어딘가에 있으며, 거기엔 중력과 반대되는 개념의 반중력이 있을 것이란 추측이 가능하다.<br/>UFO가 지구 대기상에서 반물질이 소멸되는 현상이라는 가설도 제기된 바 있다. UFO의 순간 가속과 불규칙한 운행, 그리고 순간 소멸 등의 특성이 이만큼 자연스럽게 설명되는 현상도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반물질이 물질과 만나면 순식간에 쌍소멸하면서 엄청난 에너지를 방출하게 된다. 반물질 0.5g만 있어도 히로시마에서 터진 핵폭탄과 맞먹는 에너지가 나온다. 따라서 이를 우주선의 에너지원으로 이용할 경우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별인 ‘알파 센타우리’까지 10년 만에 갈 수 있다고 한다. 알파 센타우리는 지금 인류가 발명한 우주선으로는 무려 4만년의 시간이 걸리는 4.3광년 거리에 있다.<br/>따지고 보면 현재 우리가 현상세계에 존재하는 것은 빅뱅 직후 스트질이 홀연히 사라졌기 때문이다. 이를 인간의 정신세계와 비교해보면 어떨까. 만약 최초 인류의 탄생 직후 사랑과 반대되는 개념의 반사랑이 모두 사라졌다면 하는 상상 말이다. 그랬다면 증오와 미움, 무관심, 이기심 같은 반사랑이 전혀 없는 온전히 사랑만으로 채워진 인간들이 지금 활보하고 있진 않을까.<br/>이성규(과학 칼럼니스트)<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370.txt

제목: [사이언스 토크] 반물질과 반사랑  
날짜: 201405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517100000152  
ID: 01100201.20140517100000152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세상에서 가장 비싼 물질은 뭘까. 다이아몬드가 그 주인공일 것 같지만 실상은 좀 다르다. 2011년 미국의 경제 전문매체인 인사이더에 의하면 다이아몬드는 g당 5만5000달러로 3위였다. 2위는 암 치료제인 ‘캘리포늄’으로 g당 2700만 달러, 1위는 g당 무려 62조5000억 달러의 가격이 매겨진 ‘반물질’이 차지했다.<br/>반물질은 쉽게 말하면 물질과 반대되는 개념의 물질이다. 즉, 물질과 질량이나 크기 등은 똑같지만 전기적 성질만 다르다. 물질의 기본 단위 원자는 플러스 성질의 양성자와 마이너스 성질의 전자, 중립인 중성자로 구성됐다. 이에 반해 반물질은 마이너스 성질의 반양성자와 플러스 성질의 양전자, 중성자와 자기 흐름의 방향이 다른 반중성자로 구성된다.<br/>반물질이 비싼 까닭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반물질이 없는 물질로만 구성돼 있기 때문이다. 우주 탄생 이론에 의하면 최초의 빅뱅 직후 물질과 반물질이 똑같은 양으로 생성됐지만 그 균형이 깨지면서 순식간에 반물질이 홀연히 사라졌다. 우주를 이루는 물리 법칙이 물질만 편애한 것이다. 반물질이 사라진 이유는 현대 과학의 가장 중요한 미스터리 중 하나다. 때문에 마치 도플갱어처럼 반물질만으로 이루어진 반은하와 반우주가 어딘가에 있으며, 거기엔 중력과 반대되는 개념의 반중력이 있을 것이란 추측이 가능하다.<br/>UFO가 지구 대기상에서 반물질이 소멸되는 현상이라는 가설도 제기된 바 있다. UFO의 순간 가속과 불규칙한 운행, 그리고 순간 소멸 등의 특성이 이만큼 자연스럽게 설명되는 현상도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반물질이 물질과 만나면 순식간에 쌍소멸하면서 엄청난 에너지를 방출하게 된다. 반물질 0.5g만 있어도 히로시마에서 터진 핵폭탄과 맞먹는 에너지가 나온다. 따라서 이를 우주선의 에너지원으로 이용할 경우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별인 ‘알파 센타우리’까지 10년 만에 갈 수 있다고 한다. 알파 센타우리는 지금 인류가 발명한 우주선으로는 무려 4만년의 시간이 걸리는 4.3광년 거리에 있다.<br/>따지고 보면 현재 우리가 현상세계에 존재하는 것은 빅뱅 직후 반물질이 홀연히 사라졌기 때문이다. 이를 인간의 정신세계와 비교해보면 어떨까. 만약 최초 인류의 탄생 직후 사랑과 반대되는 개념의 반사랑이 모두 사라졌다면 하는 상상 말이다. 그랬다면 증오와 미움, 무관심, 이기심 같은 반사랑이 전혀 없는 온전히 사랑만으로 채워진 인간들이 지금 활보하고 있진 않을까.<br/>이성규(과학 칼럼니스트)<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371.txt

제목: KT 유전제 분석기술 투자, 서울대에 센터 설립  
날짜: 201405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516100000239  
ID: 01100201.20140516100000239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세계적 수준의 바이오인포매틱스센터로 육성 방침<br/><br/>[쿠키 건강] KT와 서울대학교는 15일 산학 협력을 통한 유전체분석기술 공동 연구개발을 위해 협약을 체결하고, 7월까지 바이오인포매틱스 센터를 공동설립하기로 했다.<br/><br/>바이오인포매틱스센터는 서울대 생명공학공동연구원(원장 김선영)에 설립된다. KT는 유전체 분석을 위한 첨단 ICT 역량을 제공한다. 서울대 생명공학공동연구원은 바이오인포매틱스 기술, 연구 공간과 전문 연구인력을 제공해 유전체 분석 핵심솔루션 개발, 유전체 관련 사업발굴을 본격 추진한다.<br/><br/>양측은 바이오인포매틱스센터를 미국의 브로드연구소(Broad Institute)와 같은 세계적 수준의 연구소로 육성, 학문적인 선도와 기술기반의 사업화를 통해 국가 창조경제에도 기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br/><br/>유전체 분석 기술은 미래 우리 실생활과 밀접하다. 특정 암관련 유전체 연구를 통해 암의 발병 가능성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다. 이에 보다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도울 수 있고, 발병 후에도 개인 유전체 특성에 따른 맞춤형 치료를 할 수 있어 생존율을 높이게 된다.<br/><br/>이런 서비스를 클라우드 환경에서 이용하게 되면, 국내외 어디에서든 자신의 유전 정보를 활용해 진단 및 치료를 손쉽게 할 수 있다는 기대다.<br/><br/>KT 황창규 회장은 "KT는 앞선 IT 기술을 활용해 대용량 유전체 분석서비스를 상용화하는 등 생명정보분석 발전에 대한 투자를 지속해 왔다"면서, "서울대 BT기술과의 융합으로 우리나라의 유전체 분석과 응용의 실력을 세계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해 국가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br/><br/>서울대 오연천 총장은 "글로벌 수준의 IT 역량과 분석 인프라를 두루 갖춘 KT와 세계적 수준의 생명정보학 교수들이 있는 서울대가 공동연구센터를 설립하게 돼 기쁘다. 이를 계기로 대한민국이 바이오인포매틱스와 응용에서 세계적으로 선도 위치에 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br/><br/>한편, 유전체 관련 시장은 년 평균 31%의 고성장을 보이며 2017년에는 전세계적으로 50조 규모까지 예상되고 있어 전세계적으로 새로운 산업 분야로 주목 받고 있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칼업저버 임솔 기자 slim@monews.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372.txt

제목: 최신 교정의 경향은 좀 더 빠르고 정확하고 아프지 않게  
날짜: 20140516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516100000260  
ID: 01100201.20140516100000260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쿠키 건강] 지난 수년간 IT 와 디지털 기술은 눈부시게 발달 해 왔다. 로봇기술이 암을 비롯한 다양한 수술에 도입되면서 정확한 치료결과 뿐만 아니라 최소한 절개로 통증과 수술 후유증까지 감소하여서 각광을 받고 있다.<br/><br/>치과 교정치료에도 이러한 첨단 IT 기술이 도입되면서 치료의 정확성을 높이고 치료 시간을 현저히 단축시키는 것이 가능하게 됐다.<br/><br/>◇첨단 3D CT, 첨단 영상 기술이 도입이 되면서 환자의 상태를 좀 더 정확하게<br/><br/>진단하고, IT 기술을 이용해 치료결과를 예측하고 최선의 치료결과가 나오도록 맞춤 교정 장치를 제작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치료가 미리 계획한 대로 결과가 나오도록 로봇기술을 사용해 제작한 맞춤용 교정 와이어(철사)를 사용해 치료가 정확하게 마무리 뿐만 아니라 치료기간도 30~40% 정도 단축가능 하게 만든다.<br/><br/>아이비라인치과 정건성 원장은 “첨단 IT 기술이 교정에 도입되어서 과거 보다 치료기간을 현저히 단축하면서 치료후에 경험하는 불편을 최소화하는 다양한 스피드 교정 시술법이 개발돼 각광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br/><br/>아이비라인 치과는 스피드 교정을 전문으로 하는 병원으로 우선 3D CT 등의 첨단 장비로 환자분의 상태을 정확히 진단하고 치료방향을 결정하게 된다. 그리고 환자분의 상태를 컴퓨터 예측 프로그램을 사용하여서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치료결과를 예측하고 상담을 제공한다.<br/><br/>원하는 결과가 나오도록 개개치아에 대한 맞춤 교정 장치를 제작하게 된다. 로봇이 만든 맞춤식 교정용 와이어를 사용하해 정확한 치료결과와 동시에 치료기간도 현저히 단축시켜 준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373.txt

제목: 건강관리협회 부산센터 18일, 일요일 검진 실시  
날짜: 20140515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515100000154  
ID: 01100201.20140515100000154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쿠키 건강] 한국건강관리협회 부산센터(원장 김태선)는 오는 18일(일) 평일 건강검진 참여가 어려운 지역민 대상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등을 내용으로 일요일에 검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br/><br/>건강관리협회 부산센터는 올해 들어 지난 1월부터 매월 세 번째 일요일인 1월 19일, 2월 16일, 3월 16일 및 지난 4월 20일에 평일에 검진참여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일요검진을 실시해왔다. 일요검진 검진희망자는 사전예약을 통해 수검을 받을 수 있다.<br/><br/>김태선 원장은 “<span class='quot0'>일요검진은 각종 예방접종, 종합검진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생애전환기-일반건강진단-5대암검진 등의 검진내용으로 한다</span>”고 말했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374.txt

제목: 제10회 마크로젠 여성과학자상에 이현숙 서울대 교수 선정  
날짜: 20140514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514100000013  
ID: 01100201.20140514100000013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쿠키 건강] 생화학분자생물학회(회장 최수영, 한림대학교 바이오메디컬학과 교수)가 선정하고 생명공학기업 마크로젠이 후원하는 ‘제10회 마크로젠 여성과학자상’ 수상자로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부 이현숙(46) 교수가 선정됐다.<br/>마크로젠 여성과학자상을 수상하게 된 이현숙 교수는 세포 분열과 암 발생 기작에 대해 연구해 왔으며 그 중에서도 암세포의 특징인 유전체 불안정성의 비밀을 풀기 위해 암 억제인자 BRCA2의 기능을 밝히는 연구에 집중하고 있다.<br/>BRCA2는 돌연변이가 유전된 가족력 유방암과 췌장암의 원인 유전자로 유명하다. 또 마우스, 제브라피쉬 등 다양한 동물모델을 이용해 그 동안 분자 수준에 머물러 있던 세포분열기작 연구분야에 세포생물학적 생체실험을 더하는 독창적 연구를 수행해왔다.<br/>정상세포에서 세포주기 조절이나 세포사멸, 염색체 분열 등 유전정보유지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생기면 염색체 수와 구조 이상이 발생하면서 급격하게 세포 돌연변이율이 증가하고 암세포의 특성을 띠게 된다. 이것이 현재 가장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암의 발생 기작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러한 유전체 불안정성이 발생하는 기작을 정확히 규명한 사례가 많지 않았다.<br/>이현숙 교수는 2012년 대표적인 유방암 억제인자 BRCA2에 돌연변이가 발생해 제 기능을 상실할 경우 염색체 분리조절 메커니즘에 문제가 생겨 염색체 불안정성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고, 그 결과 염색체 수 이상으로 인해 유전정보가 빠르게 변형돼 암을 유발한다는 내용을 밝혀냈다. 이 연구를 통해 연구팀은 유방암 등의 암환자에게서 BRCA2단백질 이상이 확인됐을 경우 시도할 수 있는 새로운 치료법을 제시했다. 해당 연구결과는 ‘디벨롭먼트 셀’지에 게재됐다.<br/>한편 올해로 10회째를 맞은 마크로젠 여성과학자상의 역대 수상자로는 경상대 장호희 연구원, 서울대 김빛내리 교수, 서울대 백성희 교수, 이화여대 이공주 교수, 포항공대 이영숙 교수, 경희대 손영숙 교수, 서울대 묵인희 교수, 충남대 조은경 교수, 서울대 김홍희 교수 등 세계적으로 인정 받고 있는 국내 여성과학자들이 포함돼 있다.<br/>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br/><br/>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 국민일보 쿠키뉴스(www.kuki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375.txt

제목: 개인별 ‘맞춤형 검진’으로 건강한 삶 누리세요… 차병원그룹의 미래형 병원 ‘차움’  
날짜: 20140513  
기자: 장윤형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513100000041  
ID: 01100201.2014051310000004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과거에는 ‘건강검진’이라 하면 우리 몸에 암·당뇨·고혈압 등의 심각한 질병이 있는지를 조기에 살피는 것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요즘은 ‘건강한 삶’에 대한 욕구가 커지고 건강에 대한 기준이 까다로워짐에 따라 종합건강검진의 종류도 많아졌으며, 그 질도 더욱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이런 흐름에 발맞춰 최근에는 개인별 맞춤형 종합검진을 도입해 각종 질병의 조기예방에 힘쓰고 있는 병원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br/>특히 차병원그룹의 ‘차움’은 VIP 검진을 비롯해 노화도 정밀 검진, 유전자 검사 등을 통해 몸 속 적신호를 찾아내며 스파, 운동 요법, 영양 요법 등 모든 의학적 수단을 동원해 건강을 관리해 주는 미래형 병원이다. 차움은 1인 개별 룸에 누워 있으면 전문 의료진과 장비가 직접 찾아가는 ‘원스톱 검진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개별 룸 안에서는 사생활 보호를 받으면서 전문화된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고품격 의료 서비스가 좋은 반응을 얻으면서 국내외 명사들의 방문도 줄을 잇고 있다. 미국의 유명 배우인 크리스틴 데이비스를 비롯해 피터 폰다, 수잔 소머스 등이 검진을 받기 위해 다녀갔다. 올해는 미국 메이저리그 텍사스 레인저스와 계약을 체결한 추신수 선수와 프로골퍼 박인비 선수가 줄기세포 보관 등 건강관리를 위해 차움을 찾기도 했다.<br/>◇방사선 노출 최소화한 안심검진에 주목=일부에서는 검진 항목이 많고, 가격이 비쌀수록 방사선에 과다 노출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하지만 차움은 최저선량 CT 및 최첨단 MRI 등을 통해 안전한 10대 암 검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병원은 검사 시 피폭되는 방사선량을 최소화하고자 ‘개인별 방사선 노출량 평생관리 시스템’인 ‘참스(CHA-RMS, CHA-Radiation Monitoring System)’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건강검진 시 노출되는 방사선량의 최저 설계가 가능하며 개인별로 지속 누적 관리함으로서 평생 방사선량 관리가 가능하다.<br/>◇한국인 10대 암 조기 발견부터 정신건강까지 검진 가능=암 예방을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차움은 암 예방을 위한 장기 및 질환별 집중적인 검사를 통해 조기 발견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노약자나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중년 이후 세대를 대상으로 한국인에게 발병률이 높은 10대 암을 집중 관리한다. 우리나라 남성이 잘 걸리는 암으로는 위암, 대장암, 폐암, 간암, 전립선암, 갑상선암, 방광암, 췌장암 등이 있다. 여성의 경우 갑상선암, 유방암, 대장암, 위암, 자궁경부암, 간암 등이 있다. 검사 항목엔 기초검사를 포함한 정밀 혈액검사와 폐기능 검사, 심전도 검사, 대장내시경, 위내시경, 뇌혈관 검사 등 총 14가지가 들어 있다. 대상은 성인 남녀 모두 가능하며, 모든 검진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2시간 30분으로 당일 검진에서 당일 결과 및 상담까지 하루에 다 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br/>크리스티 김 차움 국제진료센터 부원장은 “<span class='quot0'>차움의 검진은 신체 내부적으로는 방사선 피폭량을 줄이는 부분과 외부적으로는 근골격 및 신경계통 등의 검진이 총체적으로 가능하다</span>”며 “<span class='quot0'>무엇보다 우울증을 비롯해 뇌의 노화 상태 및 정신건강까지 검진할 수 있다는 것이 다른 병원과 차별화된 점</span>”이라고 강조했다.<br/>장윤형 쿠키뉴스 기자<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376.txt

제목: 다른 위치에 있는 중복암 로봇 이용 한번에 제거  
날짜: 2014051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512100000046  
ID: 01100201.20140512100000046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로봇을 이용해 서로 다른 위치에 있는 ‘중복암’을 제거하는 신의료기술이 등장했다. 중복암은 한 사람의 몸속에 다른 종류의 암이 두 개 이상 발생한 경우를 가리킨다.<br/>CHA의과학대 분당차병원은 박동수(비뇨기과)·최성훈(외과) 교수팀이 지난 달 8일 로봇을 이용해 서로 반대 위치에 있는 전립선암과 담낭암을 한꺼번에 제거하는데 성공했다고 11일 밝혔다..<br/>환자는 전립선과 담낭에 각각 암이 생긴 것으로 밝혀진 57세 남자였다. 수술은 먼저 박 교수팀이 배꼽에 뚫은 구멍 한 곳으로 복강경을 집어넣어 하복부 골반에 위치한 전립선암을 잘라낸 다음, 최 교수팀이 곧바로 정반대 위치인 상복부에 위치한 담낭암을 잘라내는 순서로 진행됐다.<br/>배꼽 부위에 단 한 개의 창만 내고 로봇을 이용해 서로 반대쪽에 위치한 두 종류의 암을 동시에 잘라내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런 중복암 사례가 드물기도 하지만 로봇과 복강경을 이용한 수술의 경우 시술에 품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반대 위치에 두 가지 암이 발견될 경우 개복을 한 상태에서 두 부위의 암을 각각 도려내는 방법을 쓰는 게 일반적이었다.<br/>박 교수는 “<span class='quot0'>단일공 로봇 암절제 수술을 하면 배에 흉터가 남지 않기 때문에 미용 효과도 좋은 것이 장점</span>”이라고 말했다.<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377.txt

제목: 다른 위치에 있는 중복암 로봇 이용 한번에 제거  
날짜: 2014051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51210014222221  
ID: 01100201.201405121001422222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로봇을 이용해 서로 다른 위치에 있는 ‘중복암’을 제거하는 신의료기술이 등장했다. 중복암은 한 사람의 몸속에 다른 종류의 암이 두 개 이상 발생한 경우를 가리킨다.<br/>CHA의과학대 분당차병원은 박동수(비뇨기과)·최성훈(외과) 교수팀이 지난 달 8일 로봇을 이용해 서로 반대 위치에 있는 전립선암과 담낭암을 한꺼번에 제거하는데 성공했다고 11일 밝혔다..<br/>환자는 전립선과 담낭에 각각 암이 생긴 것으로 밝혀진 57세 남자였다. 수술은 먼저 박 교수팀이 배꼽에 뚫은 구멍 한 곳으로 복강경을 집어넣어 하복부 골반에 위치한 전립선암을 잘라낸 다음, 최 교수팀이 곧바로 정반대 위치인 상복부에 위치한 담낭암을 잘라내는 순서로 진행됐다.<br/>배꼽 부위에 단 한 개의 창만 내고 로봇을 이용해 서로 반대쪽에 위치한 두 종류의 암을 동시에 잘라내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런 중복암 사례가 드물기도 하지만 로봇과 복강경을 이용한 수술의 경우 시술에 품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반대 위치에 두 가지 암이 발견될 경우 개복을 한 상태에서 두 부위의 암을 각각 도려내는 방법을 쓰는 게 일반적이었다.<br/>박 교수는 “<span class='quot0'>단일공 로봇 암절제 수술을 하면 배에 흉터가 남지 않기 때문에 미용 효과도 좋은 것이 장점</span>”이라고 말했다.<br/><b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378.txt

제목: 국립암센터 28일, 개원 13주년 국제심포지엄 열어  
날짜: 20140512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512100000314  
ID: 01100201.20140512100000314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쿠키 건강] 국립암센터(원장 이진수)는 오는 28일 국가암예방검진동 8층 국제회의장에서 ‘Seeing is Believing and Beyond’ 주제로 개원 13주년 기념 제8회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br/>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스탠퍼드 대학교 크리스토퍼 컨택 박사, 샌프란시스코 주립대학의 데니얼 비그네론 박사, 세계 최초로 PET, MRI 등을 개발한 가천의과대학 조장희 박사, 하버드 의대의 존 프렌지오니 박사 등 세계적인 선두 그룹 석학들이 모여 PET-MRI와 분자영상을 포함한 초정밀 영상기법을 통한 새로운 암 진단법 뿐 아니라 영상유도 수술로 완전히 제거하는 신기술 등이 소개된다.<br/>이진수 원장은 “<span class='quot0'>미래 암 진단·치료 분야의 최첨단 기술을 소개하고, 주요 현안에 대한 심층적인 토론을 통하여 암정복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기를 기대한다</span>”고 밝혔다.<br/>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br/><br/>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 국민일보 쿠키뉴스(www.kuki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379.txt

제목: 차세대 항암 면역치료, 환자 세포 이용에 '주목'  
날짜: 2014051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512100000382  
ID: 01100201.20140512100000382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TIL 세포 증폭 주입, 전이성 폐암 및 간암 환자 종양크기↓<br/><br/>[쿠키 건강] 종양침윤성림프구(TIL)를 증폭해 환자에 주입하는 새로운 면역치료 결과가 공개돼 주목받고 있다. TIL치료는 암조직에 침윤하고 있는 림프구를 분리해 치료에 이용하는 방법이다.<br/><br/>9일 사이언스지에 대략적으로 소개된 연구에 따르면 최근 항암제 개발 분야의 2가지 키워드인 면역치료와 유전학 방법을 토대로 급부상한 TIL 세포 증폭 주입방식은 환자의 종양성장을 유발하는 특정 돌연변이를 타깃으로 한다. 더욱이 연구 가설에 따르면 종양에 맞춤 치료가 가능해 질 것이라는 설명이다.<br/><br/>이에 인체 면역체계를 적극 활용해 종양을 공격하는 오랜 연구의 실마리가 풀릴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br/><br/>발표된 연구는 TIL 세포를 이용하는 것으로 연구진들은 종양세포에서 발견된 돌연변이에 최적의 항암효과를 알아보는 전체 엑솜 염기서열분석(Exome Sequencing)을 사용했다.<br/><br/>실험실 연구 상 변이에 반응이 관찰되는 TIL 세포를 증폭 배양해 전이성 폐암과 간암 환자에 주입한 결과 치료시행 환자군의 질환 정도가 안정화되는 소견을 보였다.<br/><br/>또 약 13개월 후 해당 환자의 재치료 시 TIL 주입 환자의 95%에서 T세포는 종양 변이에 특이적으로 작용했다. 더불어 2차 치료 6개월 후 환자의 폐와 간 종양의 크기는 줄어든 것으로 보고됐다.<br/><br/>미국 국립암연구소(NCI)외과부 총책임자인 Steven Rosenberg는 "이번 면역치료 방법은 환자 개별 종양에 있어 유전자 돌연변이를 특이적으로 공격하는 치료의 청사진을 제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br/><br/>현재 면역치료는 흑색종 및 신장암과 같은 희귀암 치료에 그 효과를 입증했지만 보다 일반적인 상피세포암을 치료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랐던 상황이다.<br/><br/>이는 과학자들이 체내 면역체계를 이용해 상피세포암종에 의해 생성된 변이단백에 효과적인 반응을 유도한다거나 반응을 이용한 개인별 맞춤 면역치료의 활용법에서 난관에 부딪혀 온 이유이다.<br/><br/>한편, 인간의 상피세포는 외부를 둘러싼 피부와 내부의 소화관, 폐, 췌장, 방광 및 기타 구역에 분포하며 여기서 암의 약 80%가 발생하고 있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칼업저버 원종혁 기자 jhwon@monews.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380.txt

제목: 만성질환사망률 감소 6대 요소 '열쇠'  
날짜: 2014051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512100000379  
ID: 01100201.20140512100000379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쿠키 건강] 세계보건기구(WHO)가 심혈관질환, 만성 호흡기질환, 암, 당뇨병 등 비전염성질환 사망률 감소 목표로 제시하고 있는 '2025년까지 25% 사망률 감소(25x25)' 달성의 핵심으로 6개의 위험요소가 재부각됐다. 특히 흡연의 경우 더 적극적인 관리를 통해 큰 폭의 사망률 감소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r/><br/>연구 주요저자인 영국 임페리얼대학 Vasilis Kontis 교수는 4일 세계심장학술대회(WCC)에서 "흡연, 알코올 섭취, 염분 섭취, 비만, 혈압, 혈당 6가지의 위험요소들의 관리를 통해 비전염성질환의 사망률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br/><br/>연구에서는 활용가능한 역학연구들의 재분석과 메타분석을 통해 위험요소들이 비전염성질환의 사망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현재 WHO와 세계심장재단(WHF)은 25x25의 목표로 흡연율 30%, 해로운 알코올 섭취 10%, 염분섭취 30%, 고혈압 25%, 비만 및 당뇨병 증가 억제 등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br/><br/>이번 연구에서 이런 목표들을 달성할 경우 30~70세 인구의 주요 4개 비전염성질환 사망률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대비 2025년에는 남성 22%, 여성 19%의 사망률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br/><br/>이와 함께 2025년까지 3700만명의 질환진행 지연이나 예방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게다가 위험요소 관리를 통한 혜택은 고령과 저중소득국에서 클 것으로 분석됐다. 연령별로 구분했을 때는 30~69세 인구에서 1600만명, 70세 이상에서 인구 2100만명에게 혜택이 있을 것으로 전망됐고, 저중소득국가에서는 3100만명의 질환진행 지연 및 예방효과가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br/><br/>특히 연구팀은 여러 위험요소 중 흡연에 대한 공격적인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Kortis 교수는 "흡연을 50% 이상 감소시켰을 때 남성에서 24% 초과, 여성에서는 20%의 사망률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br/><br/>한편, 학술대회 현장에서 뉴질랜드 오클랜드대학 Robert Beaglehole 교수는 "위험요소의 관리는 가장 핵심적이면서도 비용대비 효과적이다"고 강조했다.<br/><br/>이와 함께 "이번 연구에서 6개의 위험요소 관리를 통해 심혈관질환 사망률은 34%, 만성 호흡기질환은 24%, 암은 7%, 당뇨병은 5% 감소될 것으로 나타났다"며 "2025년까지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칼업저버 임세형 기자 shlim@monews.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381.txt

제목: 급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 신약 후보물질 ‘볼라설팁’, 유럽과 미국 희귀의약품 지정  
날짜: 20140512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512100000179  
ID: 01100201.20140512100000179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쿠키 건강] 베링거인겔하임은 자사의 항암제 후보물질로 급성 골수성 백혈병(AML) 치료제인 볼라설팁(volasertib)이 미국 식품의약품안전처(FDA)과 유럽연합 규제당국으로부터 ‘희귀의약품 지정(Orphan Drug Designation)’ 약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br/><br/>급성골수성백혈병은 골수와 혈액에서 발생하는 공격적인 암으로써 모든 백혈병 종류 가운데 생존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급성골수성백혈병 환자의 평균 연령은 65~70세로써 주로 연령이 높은 성인에서 많이 발병한다. 현재 권고되는 표준 치료요법은 집중 화학요법이지만 고연령에 기저질환이 있는 많은 환자들이 집중 화학요법을 견뎌내지 못하며 이 외에 치료하는 있는 대체 옵션이 상당히 제한적으로 치료 예후 또한 좋지 않다.<br/><br/>볼라설팁은 Plk(Polo-like kinase)로 불리는 효소를 억제한다. Plk1은 Plk과에 속하며, 그 특성이 가장 잘 규명된 키나제이다. 볼라설팁으로 Plk1을 억제하면 세포 주기가 정지되고 궁극적으로 세포 사멸(세포자멸사)을 유도할 수 있다. Plk1 활동을 억제하면, 급성골수성백혈병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특징인 세포 분열이 극도로 많이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종양 세포 성장을 멈추고, 종양 세포의 활발한 분열을 줄이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어 급성골수성백혈병 환자의 생존 기간을 늘리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r/><br/>베링거인겔하임의 의학부 총괄 책임자 클라우스 두기(Klaus Dugi) 교수는 “<span class='quot0'>볼라설팁은 세포 성장 및 과도한 분열을 억제하는 효소를 표적화하는 혁신적인 치료 기전을 기반으로 현재 제한된 치료요법으로 인해 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급성골수성백혈병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대안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span>”며 “<span class='quot0'>베링거인겔하임은 현재 진행 중인 볼라설팁 제3상 임상 연구와 함께 미국과 유럽의 규제 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환자들이 하루 빨리 볼라설팁의 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span>”이라고 말했다.<br/><br/>볼라설팁은 제 1, 2상 임상 시험을 통해 화학요법과 병용 치료할 경우, 고령 급성골수성백혈병 환자의 생존 기간을 개선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연구 결과는 올해 말 공식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juny@kmib.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382.txt

제목: “키 작으면 더 오래 살고 암 발생률도 낮다” 美연구팀  
날짜: 20140510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510100000116  
ID: 01100201.20140510100000116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쿠키 사회] 키가 작을수록 오래 산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br/>미국 하와이 대학 의과대학 노인의학전문의 브래들리 윌콕스 박사가 하와이 거주 일본계 주민 8006명을 대상으로 1965년부터 거의 50년에 걸쳐 진행한 조사분석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고 하와이 리포터(Hawaii Reporter) 인터넷판이 9일 보도했다.<br/>이들을 신장 기준으로 157㎝ 이하와 162㎝ 이상의 두 그룹으로 나누었을 때 157㎝ 이하 그룹의 수명이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다고 윌콕스 박사는 밝혔다.<br/>전체적으로 키가 클수록 수명은 짧은 경향을 보였다. 유전자 분석에서는 키가 작은 사람이 수명 관련 FOXO-3 유전자의 변이형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 때문에 성장 초기에 체구가 다른 사람보다 작고 수명은 길어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윌콕스 박사는 분석했다.<br/>키가 작은 사람들은 또 혈중 인슐린 수치와 암 발생률이 낮은 경향을 보였다. 하와이는 미국에서 주민들의 평균수명이 가장 길고 또 주민들이 오랫동안 거주하기 때문에 이처럼 장기간의 조사가 가능했다고 윌콕스 박사는 설명했다.<br/>조사 대상자 중 약 1200명은 90~100세까지 살았고 이 중 250명은 아직 살아있다. 이 연구결과는 온라인 과학전문지 공중과학도서관(PLoS One) 최신호에 실렸다.<br/>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br/><br/>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 국민일보 쿠키뉴스(www.kuki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383.txt

제목: 암환자 “맞춤형 건강서비스 받는다”  
날짜: 2014050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509100000198  
ID: 01100201.20140509100000198  
카테고리: 사회  
본문: 건양사회복지센터 올 6월부터 시작<br/><br/>[쿠키 건강] 건양사회복지센터가 올 6월부터 '암환자를 위한 맞춤형 건강서비스'를 제공한다.<br/><br/>지역사회 서비스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되는 이번 건강서비스는 암 치료에 대한 이해를 돕고 심리적 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켜 건강을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다.<br/><br/>현재 대부분의 암환자들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운동과 식이요법 등을 병행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운동과 음식이 효과적인지에 대한 정보는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br/><br/>이에 '암환자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통해 유·무산소 운동요법, 1대1 영양관리교육, 항암을 위한 조리법, 전화모니터링 서비스, 셀프 터칭 테라피 교육 프로그램 등이 마련되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건강관리는 물론 심리치료까지 도와준다.<br/><br/>특히 최근 시범적으로 진행된 '셀프 터칭 테라피 교육'에 암환자와 가족 등 약 40여명이 참여해 사랑의 마음을 담은 셀프 핸드 터칭법을 배웠는데 의외로 큰 호응을 얻었다.<br/><br/>'암환자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암 진단서를 지참하고 해당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br/><br/>한편, 보건복지부 지정기관인 건양사회복지센터는 아동들의 감성예술교육을 위한 '오감톡톡 상상놀이터'와 장애가정지원서비스인 '패밀리 하모니' 프로그램 등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칼업저버 손종관 기자 jkson@monews.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384.txt

제목: ‘얼굴’ 부으면 신장질환…‘다리’ 부으면 심장질환 의심  
날짜: 20140509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509100000165  
ID: 01100201.20140509100000165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쿠키 건강] 자고 일어나면 심하게 얼굴이 붓거나, 발이 부어 신발이 잘 맞지 않는 부종 증세를 경험한 사람들이 종종 있다. 또한 라면이나 찌개류 등과 같이 짠 음식을 먹고 난 후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부어있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는데, 짠 음식을 자주 먹으면 체내에 수분 배출이 원활하지 않아 몸이 붓게 되는 것이다.<br/>부종은 우리 몸의 림프관을 통해 수분과 영양분, 노폐물이 운반되는 곳에 문제가 발생되면 생기는 증상이다. 음식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질병에 의해 부종이 발생되기도 한다. 서울특별시 북부병원 부종클리닉 정훈 과장의 도움말을 통해 ‘부종을 야기하는 질환과 치료법’에 대해 알아본다.<br/>◇붓는 부위에 따라 질환 달라진다<br/>붓는 부위에 따라 질환을 의심할 수 있는데, 얼굴이 부으면 신장질환, 심장에서 먼 다리 부위에 붓기가 나타나면 심장질환을 의심할 수 있다.<br/>신장 기능 저하로 인해 부종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체내 다량의 단백질이 소변으로 배출 되면서 혈중 단백질 농도를 떨어뜨린다. 이때 체내 삼투압 농도가 저하되면서 부종이 발생하게 되는데, 삼투압 농도가 낮아지게 되면 얼굴, 팔 등의 부위에 붓기가 나타난다.<br/>혈관 속에 수분을 머물러 있게 하는 힘이 약해져 수분이 혈관 밖으로 빠져나가서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형태의 부종을 일으키는 질환은 신장질환 외에도 암, 빈혈, 당뇨병, 백혈병 등 다양한 질환이 있다.<br/>심장 기능이 떨어지면 전신에 혈액을 공급하는 것이 원활하지 못하게 된다. 이때 혈관 밖으로 나갔던 혈액을 정맥이 끌어당겨 다시 내보내지 못하고 모세혈관 속 수분이 세포와 세포사이로 흘러 몸이 붓게 되는 것이다.<br/>심장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심장에서 먼 쪽 부터 부종이 시작되는데 주로 다리와 종아리 부위에 부종이 나타난다. 심부전증 초기에는 대개 발과 발목 주위에만 부종이 나타나지만 심해지면 범위가 확장돼 종아리, 복부, 폐 등 까지 부종이 나타나며 호흡곤란도 동반된다.<br/>특정 부위 부종이 아닌 몸 전체에 부종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전신부종은 간질환, 갑상선 기능 저하 및 항진 등의 내분비질환 등에 의해 발생한다. 특히 질병과 무관하게 부종이 나타는 경우가 있는 데 이때에는 평소 복용하고 있는 약이 주요 원인 인 경우도 있다. 흔히 복용하는 감기약 중 비스테로이드성 진통제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부종을 야기할 수 있으며, 항우울약, 항고혈압약, 부신피질호르몬제 등에 의해서도 부종이 나타난다.<br/>또한 아침엔 얼굴과 손등이 붓고, 저녁엔 하지에 부종이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 생리주기가 원활하지 않은 여성이거나 폐경기 여성의 경우 이러한 부종을 경험하게 된다.<br/>정훈 서울시 북부병원 부종클리닉 과장은 “질병이 원인이 아닌 경우에 부종이 발생했다면 먼저 안정을 취하고 다리를 높이고 쉬는 것이 좋다. 또한 저염식 음식을 섭취하고 잠드기 3~4시간 전에는 음식섭취를 제한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면 “하지만 신장이나 심장 질환 등 질병에 의해 발생되는 부종의 경우에는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 이뇨제 등의 약물요법과 함께 원인질환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br/>부종은 체내 수분이 저류된 상태이기 때문에 소변 배출을 원활히 하기 위해 이뇨제를 사용한다. 하지만 이뇨제를 장기간 사용할 전해질 대사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 꼭 필요한 경우에만 약물을 사용해야 한다.<br/>이와 함께 염분(하루 5그램 이하)과 탄수화물(하루 90그램 이하)을 적게 섭취하고, 낮 동안에도 자주 안정과 휴식을 취하고 다리를 높게 올리고 있는 것이 좋다. 다리 전체를 감싸고 조이는 탄력 스타킹을 낮 동안에 착용하는 것도 권장된다.<br/>부종은 일상생활 속에서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쉽게 자각 할 수 있다. ▲평소 자주 신던 신발이 작아 진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부은 부위를 손가락으로 누르면 쑥 들어갈 정도로 붓는다 ▲오래 앉아 있거나 서있으면 다리가 쉽게 붓는다 ▲유난히 물을 자주 마신다 ▲밤이 되면 반지가 손가락에서 잘 빠지지 않는다. 이러한 내용 중 2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병원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br/>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br/><br/>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 국민일보 쿠키뉴스(www.kuki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385.txt

제목: 이대여성암정복특성화연구센터, 보건복지부 60억 지원금 수혜  
날짜: 20140508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508100000301  
ID: 01100201.201405081000003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쿠키 건강] 이대여성암정복특성화연구센터(센터장 김승철·사진)가 2014년 보건복지부 질환 극복 기술개발 연구과제 중 ‘병원 특성화 연구센터 지원사업’ 단계 평가에서 1단계(2012년~2013년) 평가 결과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해 2단계 사업을 시작했다.<br/><br/>이번 2단계 사업 진행으로 이대여성암정복특성화연구센터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 동안 매년 국비 10억원과 주관 기관 대응비 10억원 등 총 60억원을 지원받게 된다.<br/><br/>이대여성암정복특성화연구센터는 이번 2단계 ‘난치성 여성암 정복을 위한 특성화 연구사업’에서 혁신적인 연구 결과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내고 원천 기술의 상용화를 통한 센터 수익 모델 개발을 기대하고 있다.<br/><br/>이에 앞서 이대여성암정복특성화연구센터는 지난 2012년 보건복지부로부터 ‘병원 특성화 연구센터 지원사업’에 선정돼 1단계 사업(2012년~2013년)을 진행한 바 있다. 이 기간 동안 이대여성암정복특성화연구센터는 난치성 여성암의 조기 발견을 위한 신개념 진단, 치료법 개발의 초기 연구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총 22편의 국제학술지 논문 발표와 함께 8건의 특허 등록, 20건의 국내외 특허 출원 성과를 만들어 냈다.<br/><br/>김승철 센터장은 “<span class='quot0'>난치성 여성암이라도 치료 가능한 시기에 조기 발견하고 기존에 없던 신개념 치료법을 적용한다면 정복할 날이 멀지 않았다</span>”며 “<span class='quot0'>암으로 고통 받는 여성 환자들을 위해 실용화가 가능한 신의료기술을 개발해 여성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이대여성암정복특성화센터를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전시키겠다</span>”고 말했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386.txt

제목: 폐암 4기 환자, 옻나무 추출물과의 병행치료로 수술 가능해져  
날짜: 20140508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508100000164  
ID: 01100201.20140508100000164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쿠키 건강] 60대 여성 김모씨는 병원에서 양쪽 폐로 암세포가 전이된 폐암 4기를 진단 받았다. 맞벌이를 하는 딸을 대신하여 손녀들을 양육하고 있던 터라 충격은 더욱 컸다. 수술조차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말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지만 아직 어린 손녀들이 자꾸만 눈에 밟혔다.<br/><br/>국가암정보센터에 따르면 2011년 기준 폐암은 전체 암종 중 발생률은 4위지만 사망률은 1위에 올라와 있다. 특히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은 3, 4기 폐암의 경우 그 생존율은 더욱 떨어진다.<br/><br/>수술이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은 폐암 환자들은 보통 항암치료를 통해 수명 연장을 기대하게 된다. 하지만 많은 환자들이 항암치료를 받았음에도 암이 계속 커지거나, 내성이 생겨 더 이상 항암치료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곤 한다.<br/><br/>김씨는 항암치료와 함께 한방치료를 병행하기로 결정했다. 항암부작용을 관리하는데 면역력을 높여주는 한방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탁월하다는 이야기를 주변에서 많이 들었을 뿐더러, 수술이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받고도 옻나무 추출물을 활용한 한방암치료를 통해 5년 이상 생존하고 있는 사례들을 접했기 때문이다.<br/><br/>김씨는 항암치료와 한방병행치료를 시작한 후 놀라운 일을 경험했다. 평균적인 내성기간보다 훨씬 긴 기간동안 적은 부작용만을 겪으며 항암치료를 받을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암세포의 크기가 줄어들어 수술이 가능해진 것이다.<br/><br/>김씨의 한방치료를 담당한 하나통합한의원 박상채 원장은 “<span class='quot0'>한방병행치료를 하더라도 폐암 4기에서 수술이 가능해지는 김씨 같은 사례가 흔하지는 않다</span>”며 “<span class='quot0'>하지만 한방병행치료를 통해 더 적은 부작용으로 평균보다 더 긴 기간동안 항암치료를 견디게 되는 사례는 아주 많다</span>”고 말했다.<br/><br/>치종단, 치종탕, 넥시아 등 옻나무 추출물을 활용한 한방암치료는 더 이상 낯설기만한 개념은 아니다. 1990년대에 이미 이런 개념이 소개되었으며, 현재까지도 이런 치료를 통해 폐암 뿐만 아니라 위암, 대장암 등에서도 완치 혹은 장기생존을 이루어낸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결과를 단순히 면역력 증가만으로 이해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하나통합한의원 김보근 원장의 설명이다.<br/><br/>김보근 원장은 SCI(E)급 국제 학술지 BMC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에 게재가 확정된 논문을 통해, 옻나무 추출물을 활용한 한방치료제 치종단Ⅱ(일명 티버스터)의 천연물 항암제로써의 가능성을 확인했다.<br/><br/>김보근 원장은 “<span class='quot1'>치종단Ⅱ(일명 티버스터)가 caspase 단백질 활성과 ribosome 생성관여 단백질을 억제하여 자연사멸을 유도하는 기전을 통해 항암작용을 보인다</span>”며 “<span class='quot1'>이러한 연구 결과는 옻나무 추출물을 활용한 한방암치료가 단순히 환자의 면역력을 높여주는 역할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항암효과도 있다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span>”이라고 설명했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387.txt

제목: 범석상에 신전수 을지의대 교수  
날짜: 20140507  
기자: 이기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507100000032  
ID: 01100201.20140507100000032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을지재단(이사장 박준숙)은 제17회 범석상 수상자로 연세의대 신전수(52·사진) 교수와 한국과학기자협회 심재억 회장, 대한의학학술편집인협의회(의편협), 사랑나눔의사회 등을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br/>신 교수는 세포 간 신호전달을 원격 조절하는 신기술을 개발해 암 정복에 기여했고, 심 회장은 국민건강증진에, 의편협은 우리나라 의학논문의 세계화에 공헌한 공로를 각각 인정받았다. 또 사랑나눔의사회는 국내외 의료사각지대 소외계층의 건강증진을 위해 애썼다. 이들에겐 각각 2000만원의 상금과 상패가 수여된다. 시상식은 7일 오후 5시30분 을지대 성남캠퍼스 을지관 8층 밀레니엄홀에서 열린다.<br/>이기수 의학전문기자 kslee@kmib.co.k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388.txt

제목: 범석상에 신전수 연세의대 교수  
날짜: 2014050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50710014182828  
ID: 01100201.2014050710014182828  
카테고리: 문화>학술\_문화재  
본문: 을지재단(이사장 박준숙)은 제17회 범석상 수상자로 연세의대 신전수(52·사진) 교수와 한국과학기자협회 심재억 회장, 대한의학학술편집인협의회(의편협), 사랑나눔의사회 등을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br/>신 교수는 세포 간 신호전달을 원격 조절하는 신기술을 개발해 암 정복에 기여했고, 심 회장은 국민건강증진에, 의편협은 우리나라 의학논문의 세계화에 공헌한 공로를 각각 인정받았다. 또 사랑나눔의사회는 국내외 의료사각지대 소외계층의 건강증진을 위해 애썼다. 이들에겐 각각 2000만원의 상금과 상패가 수여된다. 시상식은 7일 오후 5시30분 을지대 성남캠퍼스 을지관 8층 밀레니엄홀에서 열린다.<br/>이기수 의학전문기자 kslee@kmib.co.kr<br/><br/><b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389.txt

제목: 폐암 4기 환자, 옻나무 추출물 병행치료로 수술 가능해져  
날짜: 20140507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507100000294  
ID: 01100201.20140507100000294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쿠키 건강] 60대 여성 김모씨는 병원에서 양쪽 폐로 암세포가 전이된 폐암 4기를 진단 받았다. 맞벌이를 하는 딸을 대신하여 손녀들을 양육하고 있던 터라 충격은 더욱 컸다. 수술조차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말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지만 아직 어린 손녀들이 자꾸만 눈에 밟혔다.<br/><br/>국가암정보센터에 따르면 2011년 기준 폐암은 전체 암종 중 발생률은 4위지만 사망률은 1위에 올라와 있다. 특히나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은 3, 4기 폐암의 경우 그 생존율은 더욱 떨어진다.<br/><br/>수술이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은 폐암 환자들은 보통 항암치료를 통해 수명 연장을 기대하게 된다. 하지만 많은 환자들이 항암치료를 받았음에도 암이 계속 커지거나, 내성이 생겨 더 이상 항암치료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곤 한다.<br/><br/>김씨는 항암치료와 함께 한방치료를 병행하기로 결정했다. 항암부작용을 관리하는데 면역력을 높여주는 한방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탁월하다는 이야기를 주변에서 많이 들었을 뿐더러, 수술이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받고도 옻나무 추출물을 활용한 한방암치료를 통해 5년 이상 생존하고 있는 사례들을 접했기 때문이다.<br/><br/>김씨는 항암치료와 한방병행치료를 시작한 후 놀라운 일을 경험했다. 평균적인 내성기간보다 훨씬 긴 기간동안 적은 부작용만을 겪으며 항암치료를 받을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암세포의 크기가 줄어들어 수술이 가능해진 것이다.<br/><br/>김씨의 한방치료를 담당한 하나통합한의원 박상채 원장은 “<span class='quot0'>한방병행치료를 하더라도 폐암 4기에서 수술이 가능해지는 김씨 같은 사례가 흔하지는 않다</span>”며 “<span class='quot0'>하지만 한방병행치료를 통해 더 적은 부작용으로 평균보다 더 긴 기간동안 항암치료를 견디게 되는 사례는 아주 많다</span>”고 말했다.<br/><br/>치종단, 치종탕, 넥시아 등 옻나무 추출물을 활용한 한방암치료는 더 이상 낯설기만한 개념은 아니다. 1990년대에 이미 이런 개념이 소개되었으며, 현재까지도 이런 치료를 통해 폐암 뿐만 아니라 위암, 대장암 등에서도 완치 혹은 장기생존을 이루어낸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결과를 단순히 면역력 증가만으로 이해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하나통합한의원 김보근 원장의 설명이다.<br/><br/>김보근 원장은 SCI(E)급 국제 학술지 BMC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에 게재가 확정된 논문을 통해, 옻나무 추출물을 활용한 한방치료제 치종단Ⅱ(일명 티버스터)의 천연물 항암제로써의 가능성을 확인했다.<br/><br/>김보근 원장은 “<span class='quot1'>치종단Ⅱ(일명 티버스터)가 caspase 단백질 활성과 ribosome 생성관여 단백질을 억제하여 자연사멸을 유도하는 기전을 통해 항암작용을 보인다</span>”며 “<span class='quot1'>이러한 연구 결과는 옻나무 추출물을 활용한 한방암치료가 단순히 환자의 면역력을 높여주는 역할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항암효과도 있다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span>”이라고 설명했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390.txt

제목: 흡연 등 암 발생 위험요인 규명  
날짜: 20140502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502100000228  
ID: 01100201.20140502100000228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국민건강보험공단-국립암센터, 공동연구협약<br/><br/>[쿠키 건강] 건강보험공단과 암센터가 흡연 등 암 발생 위험요인 규명을 위해 공동연구에 들어간다.<br/><br/>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국립암센터(원장 이진수)와 암 관리정책에 필요한 연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양해각서를 체결했다.<br/><br/>양해각서 주요 내용을 보면 암 예방부터 검진, 치료, 생존 및 사망에 이르기까지 암관리정책 지원에 필요한 연구 및 국가단위의 통계산출을 위해 2년간(2014년 5월1일부터 2016년 4월30일까지) 공동연구를 진행한다.<br/><br/>양 기관은 향후 2년 동안 ‘암 종합정보 DB’를 기반으로 ‘암 발생의 위험요인 규명’과 ‘치료방법 간 효과 비교?검증’, 암보장성 강화정책, 국가암검진사업, 호스피스·완화의료 사업 등 ‘암 관련 정책에 대한 실증적 평가’를 통해 암 예방 및 관리정책에 필요한 다양한 연구 성과들을 산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br/><br/>앞서 지난 1년(2013.5.1~2014.4.30) 동안 본격적인 공동연구 수행에 앞서 건강보험 자격, 검진, 급여자료와 암센터 암등록자료 등을 연계하여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중앙암등록본부에 등록된 암환자 약 150만명에 대한 ‘암 종합정보 DB’를 구축한 바 있다.<br/><br/>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은 “<span class='quot0'>이번 공동연구를 통해 흡연이 각종 암 발생에 미치는 영향 등을 보다 명확히 규명하기를 기대한다</span>”며 “<span class='quot0'>이번 국립암센터와의 공동연구협약은 건강보험 빅데이터가 국민건강증진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매우 의미 있는 것이며, 앞으로 건강보험 빅데이터의 활용범위를 더욱 넓혀 가치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span>”고 밝혔다.<br/><br/>이진수 국립암센터 원장은 “<span class='quot1'>양 기관의 협력을 통해 향후 암 관련 연구가 크게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span>”며 “<span class='quot1'>앞으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연구 진행을 통해 암 예방 및 관리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겠다</span>”고 밝혔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kioo@kukimedia.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391.txt

제목: 하루에 견과류 한줌씩, 영양 담은 한 봉지면 충분  
날짜: 20140502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502100000200  
ID: 01100201.20140502100000200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쿠키 건강] 견과류는 미국 시사 주간지 ‘타임(Time)’이 선정한 10대 건강식품 중 하나로 꼽힐 만큼 영양효과가 탁월하다. 정월대보름이면 찾아오는 ‘부럼’ 의 풍습이 이제 생활이 되고 있다. 건강에 좋으면서 맛도 좋은 견과류가 최근 몇 년 사이 비타민처럼 매일 먹는 건강식, 간단한 식사대용의 먹거리로 자리잡고 있다.<br/><br/>하루 권장되는 견과류 섭취량은 한 줌에 얹어질 정도의 25g 정도로, 매일 견과류를 섭취하면 두뇌발달, 노화방지, 탈모예방, 피부건강 등에 효과가 있다. 시판되고 있는 하루 분량의 개별 포장된 견과제품은 호두, 아몬드와 같은 대표적인 견과류와 건포도 등의 건과일이 함께 담겨있는 경우가 많다.<br/><br/>호두에는 두뇌 발달에 필요한 DHA 전구체가 많이 함유되어 있고 무기질 및 비타민 A와 B도 풍부하다. 또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 필수지방산인 불포화지방산, 필수 아미노산도 많이 들어 있는데, 특히 리놀렌산 등 불포화지방산과 비타민 E가 작용하여 콜레스테롤이 혈관 벽에 붙는 것을 막아주므로 호두는 고혈압, 동맥경화 예방과 치료에도 도움이 된다.<br/><br/>아몬드에는 비타민 E가 100g당 26㎎(호두는 0.7㎎)이 들어 있다. 비타민 E는 유해(활성) 산소를 제거하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며, 성인병을 억제하고 노화를 지연시키는 안티에이징 효과가 뛰어나다. 또한 아몬드 껍질에는 항산화 물질인 플라보노이드(flavonoid)가 함유되어 있으므로 껍질째 먹는 것이 좋다.<br/><br/>견과류에는 단백질, 식이섬유, 그리고 비타민 E, 셀레늄 같은 항산화물질이 함유되어 있다. 또한 우리 몸에 나쁜 저밀도지단백(LDL)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오메가-3 지방산이 많이 함유되어 있으므로 견과류를 규칙적으로 먹으면 심장 질환 위험을 낮춘다는 사실이 여러 연구에서 밝혀졌다. 다만 견과류는 열량이 높기 때문에 빵, 과자, 아이스크림 등 다른 고열량 간식을 피해야 한다.<br/><br/>또한 견과류는 암에 대한 저항력을 높인다. 일부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며 암을 유발할 수 있는 활성산소를 파괴한다. 견과류는 섬유질이 풍부하며 지방 흡수를 방해하는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어서 다이어트에도 좋다. 또 포만감을 주어 음식을 많이 먹지 않게 한다.<br/><br/><br/><br/>‘하루견과’는 썬넛트에서 생산하는 하루분량 견과제품은 먹거리에 대한 정확한 영양정보와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약국에서 최초 유통되는 견과류 식품이다. 토털 헬스케어 전문 유통 기업인 태전그룹에서 기획해 확산하고 있는 약국 내 헬스케어 서비스 유통 플랫폼인 오더스테이션을 통해 만날 수 있는 썬넛트의 하루견과는 신선한 캘리포니아산 호두 등의 주요 원료를 직수입, 가공해 안정성을 높였고 약사의 전문 상담이 가능한 약국에서 유통된다는 점에서 소비자 신뢰도가 높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juny@kmib.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392.txt

제목: 5월 가정의 달, 멀티비타민으로 감사인사 인기  
날짜: 20140502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502100000365  
ID: 01100201.20140502100000365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쿠키 건강] 가정의 달 5월에는 어버이날, 부부의날 외에도 스승의날, 성년의날까지 각종 기념일이 몰려있다. 즐겁기도 하지만 선물을 준비해야 하는 입장에선 부담이 느껴지기도 한다.<br/><br/>이럴 때 합리적이면서도 센스 있는 선물이 건강을 챙길 수 있는 멀티비타민. 하루한알로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를 보충해주기 때문에 간편하게 영양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어 받는 사람도 주는 사람도 만족스런 선물이 될 수 있다.<br/><br/>현대인은 공해와 스트레스, 흡연과 음주등 비타민이 고갈되기 쉬운 환경에 노출돼 있고, 특히 날씨가 풀리며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봄에는 신진대사가 활발해져 비타민, 무기질 등 영양소섭취가 중요해진다.<br/><br/>美하버드대 연구진의 식사지침에 따르면 식사를 통해 부족하기 쉬운 비타민과 미네랄 등 필수영양소의 일일권장량은 그에 맞춰 제조된 멀티비타민 등을 통해 채워주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50세 이상 남성을 대상으로 멀티비타민의 장기복용이 전반적인 암 발생 위험 등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서는 멀티비타민의 암 예방효과에 대한 연구 가치를 인정받았다.<br/><br/>대표 멀티비타민으로는 한국화이자제약의 ‘센트룸’(Centrum)이 있는데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로 구성돼 있으며, 특히 일일 영양섭취량에 근거해 과학적으로 제조된 대표적인 멀티비타민이라고 한다. 또 50세 이상을 위한 맞춤 멀티비타민인 ‘센트룸실버’는 노화로 점점 더 부족하기 쉬운 14가지 비타민과 11가지 미네랄이 과학적으로 함유돼 있어 영양불균형을 바로잡는데 효과적이라는 설명이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kioo@kukimedia.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393.txt

제목: 채식보다 육식하는 사람이 더 건강하다?  
날짜: 20140502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502100000312  
ID: 01100201.20140502100000312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쿠키 건강]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각별하게 높아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건강상식으로 잘못 알려진 것 중의 대표적인 것이 육식에 대한 편견이다.<br/><br/><br/><br/>바로 ‘고기를 줄이고 채식을 해야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장수하는 사람들 중에는 채식주의자는 거의 없으며 오히려 적당하게 육식을 지속해온 사람들이 대다수다.<br/><br/><br/><br/>우리가 채식이 더 건강하다고 믿고 있는 건강관련 상식에 비춰보면 채식을 주로하고 먹을거리가 풍족했던 신석기시대 사람들이 육식을 주로 했던 구석기시대 사람들에 비해 더 건강해야한다. 하지만 역사학자들의 선사시대 유골 비교에 따르면 신석기인은 구석기인보다 체구도 작고 감염성 질환 등 질병에 걸린 흔적이 많이 발견되었다고 한다.<br/><br/><br/><br/>실제 일본 도쿄 노인종합연구소는 70세 이상 노인들을 15년 동안 추적 조사한 결과, 고기가 노화를 억제하고 수명을 연장시킨다는 사실을 밝혀냈다.<br/><br/><br/><br/>고기 등에 포함된 양질의 동물성 단백질이 혈액 내 알부민 수치를 유지해주고 신경조직을 튼튼하게 하여 줌으로서 심장병, 뇌졸중 등의 발병률을 최대 2.5배 이상 억제한다는 것이다. 이는 고혈압, 당뇨병, 심장질환 등을 예방하기 위해 고기 섭취를 줄이고 있는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는 연구결과다.<br/><br/><br/><br/>또 올해 들어서는 오스트리아 의과대학 공동 연구팀이 오스트리아인 1320명을 상대로 실시한 건강관련 조사 결과, 채식주의자들이 고기를 많이 먹는 사람들보다 암과 심근경색 발생 빈도가 더 높고 알레르기 질환과 정신장애를 겪는 경우가 더 많다는 연구결과도 보고 되고 있다.<br/><br/><br/><br/>실제 육류섭취는 정신건강에도 도움을 준다. 세로토닌이라는 신경전달물질이 체내에 부족하면 우울증이나 자살을 생각하는 마음이 강해지게 된다. 고기 속에 포함된 양질의 단백질은 인간에게 행복 전달과 기운을 북돋아주는 특별한 기능이 있다.<br/><br/><br/><br/>가정의학과 전문의 이승남 원장은 “<span class='quot0'>채식은 채소에 치중된 편식이므로 몸에 나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span>”며 “<span class='quot0'>육류, 생선, 야채, 과일 등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건강에 좋기 때문에 바른 식생활로 건강을 지키려는 현대인들이 과연 어느 것이 건강을 위해 바람직하고 상식적인지 과학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span>”고 말했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394.txt

제목: 유전체 분석기업 ‘녹십자지놈’, 개인별 진단 맞춤 의료시대 연다  
날짜: 20140430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430100000227  
ID: 01100201.20140430100000227  
카테고리: IT\_과학>IT\_과학일반  
본문: [쿠키 건강] 녹십자지놈이 유전체 분석 검사항목을 개발하고 개인별 유전체 분석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br/><br/>녹십자의 유전체분석 부문 자회사인 녹십자지놈에서 선보이는 서비스는 희귀질환 진단을 위해 국내 최초 진단 검사용 엑솜 염기서열분석서비스와 마이크로어레이 검사 외에 산모를 대상으로 하는 상염색체 열성질환 및 근이영양증 보인자 검사, 유전성 암 검사 등이다.<br/><br/>특히 대장암, 위암, 갑상선암, 유방암, 난소암, 전립선암 등 유전적 요인의 여러 암종의 발병 가능성을 한꺼번에 예측할 수 있는 유전성 암 검사와 신생아의 유전성 질환의 발병 가능성을 예측하고 건강한 분만을 위한 산모의 유전질환 보인자 검사와 같이 1회 검사로 다양한 관련 질병을 진단하고 예측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br/><br/>지난해 8월 설립된 녹십자지놈은 유전체 연구소를 설립하고 차세대 염기서열분석기(NGS) 등 주요 검사장비를 활용하는 한편, 유전체에서 추출한 정보를 분석하는 생명공학정보전문가 인력을 통해 한층 단축된 검사시간과 합리적인 검사비용으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br/><br/>조은해 녹십자지놈 유전체연구소장은 “<span class='quot0'>녹십자지놈은 첨단 장비, 전문 인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다양한 기관과 공동 연구를 통해 정보 분석 솔루션을 개발하며 유전체 분석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유전체 분석 정보를 통해 질병의 진단과 예측은 물론, 이를 활용한 개인 맞춤형 치료까지 도움을 주는 전문 기업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span>”고 밝혔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juny@kmib.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395.txt

제목: 림프종연구회, “DLBCL 치료율 개선에 힘쓸 것”  
날짜: 2014042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429100000087  
ID: 01100201.20140429100000087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26일 DLBCL 치료전략 관련 심포지엄 개최<br/><br/>[쿠키 건강] 림프종 환자들의 치료성적 개선을 위해 국내 혈액암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br/><br/>대한혈액학회 림프종연구회(위원장 서철원)는 지난 26일 '광범위 큰 B 세포 림프종(DLBCL)의 최신 치료전략'이라는 주제로 제16차 심포지엄을 개최했다.<br/><br/>이날 심포지엄에서는 DLBCL의 병리, PET 적용뿐 아니라 다양한 치료요법과 장·단기 합병증에 대한 강의와 토론이 심도있게 진행됐다. 림프종 연구분야의 세계적 석학인 Andrew D. Zelenetz 교수(메모리얼슬론 케터링 암센터)와 Christian Gisselbrecht 교수(프랑스 생루이병원)도 연자로 초청돼 DLBCL 치료의 최신 경향을 공유했다.<br/><br/>성균관의대 김원석 교수(삼성서울병원 혈액종양내과)는 "흔히들 림프종을 희귀질환으로 생각하지만, 림프종은 국내 성인 암 발병률 10위권 안에 든다"면서 "DLBCL은 국내 림프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비호지킨 림프종 중에서도 가장 흔한 질환이고 비교적 예후가 좋은 편이지만 치료에 실패한 40%는 사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br/><br/>김 교수에 따르면 현재 많은 신약들이 개발 단계에 있지만 실제 임상에서 적용 가능한 데이터가 나오기까지는 수년이 더 필요되고 구제요법, 유지요법, 자가이식 등의 효용성에 관해 논란이 많은 상황이다.<br/><br/>그는 "최근 국제학회와 저널 등에 소개된 내용을 정리하고 연구회 차원에서 공동으로 진행 중인 다기관 연구들의 진행상황을 공유하는 자리"라고 소개하면서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일선에서 림프종 환자들을 진료하는 국내 임상의들에게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br/><br/>마지막으로 "림프종연구회는 2005년 설립된 이래 춘, 추계 심포지엄과 연구자모임을 비롯한 학술행사를 연 4회 열고, 분야별 공동연구를 통해 국내 데이터 축적에 힘쓰고 있다"면서 "내년 쯤에는 DLBCL 환자에서 보르테조밉 유지요법의 유효성을 평가한 BORMA 연구의 결과가 공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칼업저버 안경진 기자 kjahn@monews.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396.txt

제목: 서울대암병원, 하버드의대 부속병원과 전립선·비뇨기암 협력  
날짜: 20140429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429100000071  
ID: 01100201.2014042910000007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쿠키 건강] 서울대암병원은 최근 미국 하버드의대 부속병원 MGH(Massachusetts General Hospital)와 비뇨기·전립선암 분야로 교류를 확대한다고 밝혔다.<br/><br/>이와 관련 지난 21일 MGH 종양내과의 리차드 리(Richard J. Lee) 교수가 서울대암병원을 방문해 비뇨기·전립선암센터와 합동 콘퍼런스를 진행했다. 이번 콘퍼런스에서 리차드 리 교수는 MGH에서 진행하고 있는 ▲전립선암에서의 순환종양세포(Circulating Tumor Cells) 진단과 ▲방광암에서의 방광보존치료법에 대해 발표했다.<br/><br/>이에 앞서 양 기관은 위암과 뇌종양, 갑상선암을 중심으로 치료·연구 협력을 펼쳐 왔다.<br/><br/>이번 콘퍼런스를 기점으로 비뇨기·전립선암센터와 MGH의 비뇨기종양 연구자들 사이의 협력이 확대될 전망이다. 양 측은 앞으로 연구와 임상시험, 협력 심포지엄 공동 개최 등 학술 교류와 상호 의료진 방문 등을 위한 추가 논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br/><br/>서울대암병원 비뇨기·전립선암센터는 비뇨기과와 혈액종양내과, 방사선종양학과, 영상의학과, 핵의학과, 생리학교실의 우수한 의료진이 참여하는 다학제 진료를 통해 최선의 치료를 제공하고, 보다 효과적인 진단 및 치료법 연구에 앞장서고 있다.<br/><br/>곽철 서울대학교암병원 비뇨기·전립선암센터장은 “비뇨기/전립선암 분야에서 MGH와의 협력에 대한 기대가 크다. 특히 유방암, 대장암과 함께 선진국형 암이라고 분류되는 전립선암의 경우, 국내에서도 발생률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세계 유수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치료결과를 더욱 향상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397.txt

제목: 한국전기연구원, 서울대병원의 의료기기 상용화 나서  
날짜: 20140427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427100000034  
ID: 01100201.20140427100000034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쿠키 건강]한국전기연구원(원장 김호용)과 울대학교병원(원장 오병희)이 의료기기 상용화와 공동 기술 개발을 위한 협력을 체결했다.<br/><br/>양 기관은 지난 25일 양 측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기기 개발기술과 임상 의료기술 간 상호연구협력 추진을 위한 협력협정(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br/><br/>이번 협력협정은 서울대병원 측에서 의료기기 개발과 관련해 처음으로 맺는 공식 협정이다. 그동안 한국전기연구원을 통해 정부차원에서 진행해 왔던 의료기기 개발을 상용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데서 그 의미가 깊다.<br/><br/>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의료기기 개발, 임상시험을 위한 연구재료, 정보의 공동 활용 ▲전문인력의 교류 ▲의료기기 R&D 사업에 참여 ▲의료기기 개발, 임상시험을 위한 교육 및 훈련, 연수 활동, 자문 ▲시설 및 장비의 공동 활용과 운용 ▲의료기기 개발 시설 입주 등 대형 인프라의 확보와 지원 ▲의료기기 개발, 임상시험에 필요한 연구비, 사업비의 확보와 지원 등의 상호활용 등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br/><br/>오병희 원장은 “<span class='quot0'>핵심원천기술에서부터 첨단융합기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구개발능력을 보유한 한국전기연구원과 협력관계를 맺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양 기관의 정보와 인력의 효율적 활용은 의료기기 분야의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국내 창조경제 실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span>”고 말했다<br/><br/>이에 대해 김호용 KERI 원장은 “<span class='quot1'>국가중앙병원으로서 의학 연구와 의료서비스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갖춘 서울대병원과 영상의료기기 원천기술, 상용화 노하우를 보유한 KERI의 적극적 기술협력은 미래 첨단 의료영상기기 기술개발을 국내 기술진이 선도하고 상용화하는 의미 있는 성과로 이어질 것</span>”이라고 전망했다.<br/><br/>한편, KERI는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드물게 의료기기 분야 연구를 중점추진 전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국과 러시아의 합작연구센터인 RSS센터와 첨단의료기기연구센터를 중심으로 광학영상의료기기, 영상유도 방사선의료기기, 전기에너지 암치료기기 등을 중점 개발하고 있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398.txt

제목: 유전자정보 분석했는데 심장마비 위험이 높다면?  
날짜: 2014042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427100000048  
ID: 01100201.20140427100000048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KT 최윤섭 팀장, 23AndMe 등 파괴적 의료혁신 사례 발표<br/><br/>[쿠키 건강] 자신의 유전자정보를 분석했더니 심장마비 위험이 높다는 결과가 나오면 어떨까? 또 암이 발생할 확률이 높게 나왔지만 당장 뚜렷한 진단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불안하지 않을까?<br/><br/>스타트업 벤처 투자기업 ‘패스트트랙아시아’의 최근 인사이트박스에 초대된 KT융합기술원 미래사업개발그룹 최윤섭 팀장은 ‘유전자에서 웨어러블까지’를 주제로 파괴적 의료혁신 사례를 발표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떠오르고 있는 유전자 정보, 디지털헬스케어, 스마트 헬스케어 등을 공부하고 체험한 경험을 소개했다.<br/><br/>컴퓨터공학과 생명공학의 융합 학문을 연구하고 시장 기회를 구상하는 최 팀장은 개인 유전자정보 분석을 바탕으로 질병 위험을 예측하는 미국의 ‘23AndMe’ 서비스를 직접 이용해봤다. DNA에 대해 알수록 자신에 대해 많이 안다는 것이 이 서비스의 주요 취지다. 어떤 이상이 발생할 수 있고 어떤 질환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지 쉽게 확인 가능하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br/><br/>23AndMe는 벌써 50만명의 고객을 확보했고, 100만명 돌파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만큼 건강의 위험인자를 파악하고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알리는데 주력하는 중이다.<br/><br/>인터넷으로 주문하면 자신의 정보와 검사키트를 보내야 하며, 6~8주 내에 결과 분석지가 택배로 온다. 가격은 99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고작 10만원 가량이다. 질병위험도 120개, 약에 대한 민감도 21개, 유전자 분석 등 질병위험 49개 등의 분석을 토대로 가장 높은 질병위험 순서대로 결과가 나온다.<br/><br/>최 팀장 본인은 심방세동, 제2형 당뇨병 등이 위험수치가 높다는 결과를 받았다. 평소 운동을 열심히 하고 음주, 흡연을 멀리하는 건강한 생활습관을 가진 그로서는 막상 결과지를 보고 걱정스러울 수밖에 없었다.<br/><br/>그는 “음식, 흡연, 음주, 가족력,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고 유전자 변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종합한 것이다. 다만 유럽인 유전자 정보를 토대로 단순하게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도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br/><br/>질병 발생에는 인종 차이가 있기 마련이고 한국인만의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 특히 질병 위험에 따른 마땅한 대안이 제시되지 못하면 서비스의 이득을 단언하기 어렵다는 이용소감을 밝혔다. 서비스 결과가 지금처럼 소비자가 아닌, 보험사가 입수하게 되면 우려는 더욱 커진다.<br/><br/>23AndMe는 진료상담과 건강관리로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다. 특정 질환위험에 대해 24시간 이내에 전문의가 상담하면 12달러, 전문의가 아닌 일반의사나 간호사 등의 전문가가 30분내에 상담하면 5달러, 24시간 내에 상담하면 2달러를 내야 한다. 정기적인 기간을 설정한 건강관리도 있다.<br/><br/>이에 앞서 최 팀장은 신뢰도 있는 원인분석과 적절한 대처방안이 연계된 서비스로의 발전이 필요할 것으로 제언했다.<br/><br/>디지털헬스케어에서는 ‘구글글래스’를 사용한 경험을 이야기했다. 미국에서는 의료 분야에서의 활용이 유용할 것이라는 동영상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br/><br/>응급구조사가 즉각적인 상태를 파악하거나 응급실에서 의사가 EMR(전자의무기록)에 음성녹음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 수술 중 데이터를 확인하거나 의견 교환도 가능하며, 생중계 녹화도 가능하다. EMR 기록에 무려 3분의 1 가량이 소요되는 만큼 의사와 환자와의 관계 구축에도 유용할 것이란 기대가 많다.<br/><br/>또한 미국 Scanadu가 개발한 ‘스카우트(SCOUT)’는 광센서 기술을 사용해 관자놀이에 10초간 대고 있으면 체온·심박수·혈압·혈중산소농도 등 다양한 생체 신호를 측정할 수 있다. 지난해 5월부터 선판매하고, 8500명의 참여를 통해 170만달러 투자를 이끌어냈다. 그도 역시 투자자로 지원하고, 결과 분석을 기다리는 중이다.<br/><br/>이 제품은 투자자들의 데이터 측정으로 임상시험을 대체하고,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의료기기 인허가에 장벽이 많지만, 실제 사용과 임상시험 데이터를 동시에 만들 수 있는 색다른 아이디어라고 제시했다.<br/><br/>이밖에 ‘PatientsLikeMe’는 환자커뮤니티 사이트로 1800개 질환, 20만명의 환자 네트워크를 통해 같은 환자들을 교육한다. 기존의 다양한 의료정보 기록을 통해 다양한 환자들의 피드백이 가능하다. 각종 치료의 부작용, 효능, 용량, 중단 이유 등을 공유할 수 있고, 희귀난치성 질환에서는 최후의 치료방법을 찾거나 주요 임상시험 환자 모집 수단으로도 활용되고 있다.<br/><br/>최 팀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디지털 헬스, 스마트 헬스, 소비자 헬스 등 헬스케어 영역에서 하루가 멀다하고 새로운 기술과 기회가 쏟아지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융복합 혁신 기술이 이뤄지길 바란다. KT 역시 헬스케어산업의 긍정적인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칼업저버 임솔 기자 slim@monews.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399.txt

제목: 유전자정보 분석했는데 심장마비 위험이 높다면?  
날짜: 2014042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427100000148  
ID: 01100201.20140427100000148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KT 최윤섭 팀장, 23AndMe 등 파괴적 의료혁신 사례 발표<br/><br/>[쿠키 건강] 자신의 유전자정보를 분석했더니 심장마비 위험이 높다는 결과가 나오면 어떨까? 또 암이 발생할 확률이 높게 나왔지만 당장 뚜렷한 진단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불안하지 않을까?<br/><br/>스타트업 벤처 투자기업 ‘패스트트랙아시아’의 최근 인사이트박스에 초대된 KT융합기술원 미래사업개발그룹 최윤섭 팀장은 ‘유전자에서 웨어러블까지’를 주제로 파괴적 의료혁신 사례를 발표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떠오르고 있는 유전자 정보, 디지털헬스케어, 스마트 헬스케어 등을 공부하고 체험한 경험을 소개했다.<br/><br/>컴퓨터공학과 생명공학의 융합 학문을 연구하고 시장 기회를 구상하는 최 팀장은 개인 유전자정보 분석을 바탕으로 질병 위험을 예측하는 미국의 ‘23AndMe’ 서비스를 직접 이용해봤다. DNA에 대해 알수록 자신에 대해 많이 안다는 것이 이 서비스의 주요 취지다. 어떤 이상이 발생할 수 있고 어떤 질환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지 쉽게 확인 가능하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br/><br/>23AndMe는 벌써 50만명의 고객을 확보했고, 100만명 돌파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만큼 건강의 위험인자를 파악하고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알리는데 주력하는 중이다.<br/><br/>인터넷으로 주문하면 자신의 정보와 검사키트를 보내야 하며, 6~8주 내에 결과 분석지가 택배로 온다. 가격은 99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고작 10만원 가량이다. 질병위험도 120개, 약에 대한 민감도 21개, 유전자 분석 등 질병위험 49개 등의 분석을 토대로 가장 높은 질병위험 순서대로 결과가 나온다.<br/><br/>최 팀장 본인은 심방세동, 제2형 당뇨병 등이 위험수치가 높다는 결과를 받았다. 평소 운동을 열심히 하고 음주, 흡연을 멀리하는 건강한 생활습관을 가진 그로서는 막상 결과지를 보고 걱정스러울 수밖에 없었다.<br/><br/>그는 “음식, 흡연, 음주, 가족력,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고 유전자 변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종합한 것이다. 다만 유럽인 유전자 정보를 토대로 단순하게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도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br/><br/>질병 발생에는 인종 차이가 있기 마련이고 한국인만의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 특히, 질병 위험에 따른 마땅한 대안이 제시되지 못하면 서비스의 이득을 단언하기 어렵다는 이용소감을 밝혔다. 서비스 결과가 지금처럼 소비자가 아닌, 보험사가 입수하게 되면 우려는 더욱 커진다.<br/><br/>이에 앞서 그는 신뢰도 있는 원인분석과 적절한 대처방안이 연계된 서비스로의 발전이 필요할 것으로 제언했다.<br/><br/>측정결과 분석을 통해 건강관리와 상담 서비스로 확대도 가능하다. 스마트폰에 부착하는 악세사리 형태의 심전도 측정기인 얼라이브코(AliveCor)는 심장질환 위험도를 상담해준다. 24시간 이내에 전문의가 상담하면 12달러, 전문의가 아닌 일반의사나 간호사 등의 전문가가 30분내에 상담하면 5달러, 24시간 내에 상담하면 2달러를 내야 한다. 정기적인 기간을 설정한 건강관리도 있다<br/><br/>디지털헬스케어에서는 ‘구글글래스’를 사용한 경험을 이야기했다. 미국에서는 의료 분야에서의 활용이 유용할 것이라는 동영상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br/><br/>응급구조사가 즉각적인 상태를 파악하거나 응급실에서 의사가 EMR(전자의무기록)에 음성녹음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 수술 중 데이터를 확인하거나 의견 교환도 가능하며, 생중계 녹화도 가능하다. EMR 기록에 무려 3분의 1 가량이 소요되는 만큼 의사와 환자와의 관계 구축에도 유용할 것이란 기대가 많다.<br/><br/>또한 미국 Scanadu가 개발한 ‘스카우트(SCOUT)’는 광센서 기술을 사용해 관자놀이에 10초간 대고 있으면 체온·심박수·혈압·혈중산소농도 등 다양한 생체 신호를 측정할 수 있다. 지난해 5월부터 선판매하고, 8500명의 참여를 통해 170만달러 투자를 이끌어냈다. 그도 역시 투자자로 지원하고, 결과 분석을 기다리는 중이다.<br/><br/>이 제품은 투자자들의 데이터 측정으로 임상시험을 대체하고,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의료기기 인허가에 장벽이 많지만, 실제 사용과 임상시험 데이터를 동시에 만들 수 있는 색다른 아이디어라고 제시했다.<br/><br/>이밖에 ‘PatientsLikeMe’는 환자커뮤니티 사이트로 1800개 질환, 20만명의 환자 네트워크를 통해 같은 환자들을 교육한다. 기존의 다양한 의료정보 기록을 통해 다양한 환자들의 피드백이 가능하다. 각종 치료의 부작용, 효능, 용량, 중단 이유 등을 공유할 수 있고, 희귀난치성 질환에서는 최후의 치료방법을 찾거나 주요 임상시험 환자 모집 수단으로도 활용되고 있다.<br/><br/>최 팀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디지털 헬스, 스마트 헬스, 소비자 헬스 등 헬스케어 영역에서 하루가 멀다하고 새로운 기술과 기회가 쏟아지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융복합 혁신 기술이 이뤄지길 바란다. KT 역시 헬스케어산업의 긍정적인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칼업저버 임솔 기자 slim@monews.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